

난중 일기

(亂中日記)

임진년 1월 (1592년 1월)

1월 1일 [양력 2월 13일]〈임술〉

맑다.

새벽에 아우 여필(禹臣)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남쪽에서 두번이나 설을 쇠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병사의 군관 이경신이 와서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장전과 편전 등 여러가지 물건을 바쳤다.

1월2일[계해/2월14일]

맑다.

나라의 제사날(명종 인순왕후 심씨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김인보와 함께 이야기했다.

1월3일[갑자/2월15일]

맑다.

동헌(여수시 군자동 진남관 뒷편)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써 보냈다.

1월4일[을축/2월16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5일[병인/2월17일]

맑다.

뒷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6일[정묘/2월18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7일[무진/2월19일]

아침에는 맑다가 늦게부터 비와 눈이 번갈아 종일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남원에서 전문을 받들고 갈 유생이 들어왔다.

1월8일[기사/2월20일]

맑다.

객사(여수시 군자동)에 나갔다가 동헌(군자동 진남관 뒷편)에서 공무를 봤다.

1월9일[경오/2월21일]

맑다.

아침밥을 일찍 먹은 뒤에 동헌에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보냈다.

1월10일[신미/2월22일]

종일 비오다.

방답(여천군 돌산읍 군내리)에 새 첨사로 이순신(李純信)이 부임하여 들어왔다.

1월11일[임신/2월23일]

가랑비 종일 오다.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이봉수가 선생원(여천군 율촌면 신산리/성생원)에 돌 뜨는 곳에 가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미 큰 돌 열 일곱 덩이에 구멍을 뚫었다"고 했다.

서문 밖 해자가 네 발췌 무너졌다. 심사립과 이야기했다.

1월12일[계유/2월24일]

긱은비가 개이지 않다.

식사한 뒤에 객사와 동헌으로 나갔다.

본영 및 각 포구의 진무들에게 우등을 가리는 활쏘기를 시합했다.

1월13일[갑술/2월25일]

아침에 흐리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14일[을해/2월26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1월15일[병자/2월27일]

흐렸으나 비는 아니오다.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1월16일[정축/2월28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와 색리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색리들이 그들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우후·가수(假守 : 임시직원)도 역시 점검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까지 된 것이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공무를 어쭙잡게 여기고, 제 몸만 살찌려 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 하다.

성밀에 사는 박몽세는 석수인데, 선생원 돌뜨는 곳에 가서 해를 끼치고, 이웃집 개에까지 피해를 입혔으므로 곤장 여든 대를 쳤다.

1월17일[무인/2월29일]

맑다.

춥기가 한겨울같다.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의 반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을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오는 일로 배 네 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월18일[기묘/3월1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여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의 제1호선이 돌아갔다.

우등계문과 대가단자를 순찰사영으로 봉하여 보냈다.

1월19일[경진/3월2일]

맑다.

동헌에서 공무를 본 뒤에 각 군사를 점검했다.

1월20일[신사/3월3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동헌에 나가 좌기로 공무를 봤다.

1월21일[임오/3월4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감목관(목장의 감독관)이 와서 잤다.

1월22일[계미/3월5일]

맑다.

아침에 광양현감(어영담)이 와서 인사 했다.

1월23일[갑신/3월6일]

맑다.

둘째 형 요신의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복시에서 받아와 기르던 말을 올려 보냈다.

1월24일[을유/3월7일]

맑다.

만형 희신의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군수 이송고를 유임시켜 달라는 장계를

올린 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1월26일[정해/3월9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나니 흥양현감(배홍립)과 순천부사(권준)가
와서 이야기 했다.

1월27일[무자/3월10일]

맑다.

오후에 광양현감이 왔다.

1월28일[기축/3월11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29일[경인/3월12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30일[신묘/3월13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과도 같이 따뜻하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임진년 2월 (1592년 2월)

2월 초1일 [양력 3월 14일]〈임진〉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가랑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야 개었다.

선창(여수시 연등동 입구)으로 나가 쓸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방천안에 몽어 떼가 밀려 들어왔기로, 그물을 쳐서 이천
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장쾌했다. 그 길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우후
이몽구(李夢龜)와 함께 새 봄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2월 초2일 [양력 3월 15일]〈계사〉

맑다. 동헌에서 공무를 봤다. 쇠사슬을 건너 매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돌 여든 여 개를 실어 왔다. 활 열순을 쏘았다.

2월 초3일 [양력 3월 16일]〈갑오〉

맑다.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배타고
나갔다. 공무를 마친 뒤 활을 쏘았다. 탐라 사람이 자녀 여섯 식구를
거느리고 도망쳐나와 금오도(여천군 남면)에 머물다가 방답 경비선에
잡혔다고 심부름꾼을 보냈기로 문초를 하고서 승평(순천)으로
압송하고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에 화대석 네 개를 실어 올렸다.

2월 초4일 [양력 3월 17일]〈을미〉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북쪽 봉우리의 연대(신호대)쌓는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무너질 염려가 없으매 이봉수(李鳳壽)의 애썼음을 알겠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에야 내려와 해자 구덩이를 순시했다.

2월 초5일 [양력 3월 18일]〈병신〉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열여덟 순을 쏘았다.

2월 초6일 [양력 3월 19일]〈정유〉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두 번이나 왔다.

2월 초7일 [양력 3월 20일]〈무술〉

맑다가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발포만호가

부임했다는 공문이 왔다.

2월 초8일 [양력 3월 21일]〈기해〉

맑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이 날 거북함에 쓸 돛베 스무아홉 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는데, 조이립(趙而立)과 변존서(卞存緒)가 자웅을 다투다가 조이립이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에서 돌아와 방답첨사가 방비에 온 정성을 다하더라고 매우 칭찬했다. 동헌 뜰에 돌기둥 화대를 세웠다.

2월 초9일 [양력 3월 22일]〈경자〉

맑다. 새벽에 쇠사슬을 켜긴 나무를 베는 일로 이원룡 (李元龍)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두산도(돌산도)로 보냈다.

2월 초10일 [양력 3월 23일]〈신축〉

안개비, 개었다가 흐렸다가 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김인문(金仁問)이 순찰사영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중원(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중원에서 우리 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슨

만 뜻이 있는가 의심하게까지 했으니, 그 흥척함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2월 11일 [양력 3월 24일]〈임인〉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배 위에서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검했다.

2월 12일 [양력 3월 25일]〈계묘〉

맑고 바람도 자다. 식사를 한 뒤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서 해운대(여수시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침렵치(沈獵雉)라는 운자(韻字)를 띄워 봤더니 너무 조용했다. 나중에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이립(趙而立)이 시를 읊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2월 13일 [양력 3월 26일]〈갑진〉

맑다.

전라우수사(李億祺)의 군관이 왔기로 화살대 큰 것 · 중치 백 개와 쇠

원근을 보냈다.

2월 14일 [양력 3월 27일]〈을사〉

맑다. 아산 어머니께 문안차 나장(고을이나 병마사·수사의 영문에 있는 使令) 두 명을 내어 보냈다.

2월 15일 [양력 3월 28일]〈병오〉

비바람이 매우 세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져 석수(石手)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2월 16일 [양력 3월 29일]〈정미〉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여섯 순을 쏘았다. 친구번의 군사를 점검했다.

2월 17일 [양력 3월 30일]〈무신〉

맑다.

나라제삿날(世宗의 祭祀)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2월 18일 [양력 3월 31일]〈기유〉

흐렸다.

2월 19일 [양력 4월 1일]〈경술〉

맑다.

순찰하러 떠나 백야곶(여천군 화양면 백야도)의 감독관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부사 권준(權俊)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렸다. 기생도 왔다.

비가 온 뒤라 산의 꽃이 활짝 피어 경치가 멋져 형언키 어렵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여천군 화양면 이목리)에 이르러 배를 타고 여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에 이르니 영주(고흥)현감(裴興立)과 여도 권관(黃玉千)이 마중했다.

방비를 검열하는데 흥양현감은 내일 제사가 있다고 먼저 갔다.

2월 20일 [양력 4월 2일]〈신해〉

맑다.

아침에 모든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웬간히 완비되었다. 늦게야 떠나서 영주(고흥)에 이르니 좌우의 산의 꽃과 들 가의 봄풀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옛날에 영주가 있다더니 역시 이와 같은 경치 였던가 !

2월 21일 [양력 4월 3일]〈임자〉

맑다.

공무를 본 뒤에 주인(감영과 고을의 연락을 취하는 營邸吏)이 자리를 베풀어 활을 쏘았다. 조방장 정걸(丁傑)도 와서 보고 능성현 감 황숙도(黃叔度)도 와서 함께 술취했다.

배수립(裴秀立)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헌(申弘憲)으로 하여금 술을 걸러 지난날에 심부름하던 삼반하인(軍奴 · 使令 · 及唱 등)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월 22일 [양력 4월 4일]<계축>

아침에 공무를 본 뒤에 녹도로 갔다.

황숙도(黃叔度)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집기류를 몸소 점검했다.

그 길로 녹도로 가서 곧장 봉우리 위에 새로 쌓은 문다락으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이 근방에서는 으뜸이다. 만호의 애쓴 흔적이 손닿지 않은 곳이 없다.

흥양현감(裒興立)과 능성현감 황숙도(黃叔度) 및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하여 대포 쏘는 것도 봤다. 촛불을 밝혀 이슬해서야 헤어졌다.

2월 23일 [양력 4월 5일]<갑인>

흐렸다.

늦게야 배를 타고 발포로 가는데, 맞바람(逆風)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가 없다.

간신히 성머리에까지 이르러 배에서 내려 말을 탔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모두가 꽃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벌써 저물었다.

2월 24일 [양력 4월 6일]〈을묘〉

가랑비가 온 산에 내려 지척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복산(고흥군 포두면 마복산) 아래의
사랑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질을 재촉하여 사도(고흥군 점암면
금사리)에 이르니, 흥양현감이 먼저 와 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므로 그대로 눌러 잤다.

2월 25일 [양력 4월 7일]〈병진〉

흐렸다. 여러 가지 전쟁 방비에 탈난 곳이 많다.

군관과 색리들에게 벌을 줬다.

참사를 잡아들이고 교수(고을 수령 아랫 벼슬아치)를 내어 보냈다.

이곳의 방비가 다섯 포구 가운데 최하인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조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우습다.

맞바람이 세게 불어 출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잤다.

2월 26일 [양력 4월 8일]〈정사〉

아침 일찍 출항하여 개이도(여천군 화정면 개도)에 이르니, 여도진의 배와 방답진의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서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고민이다.

전선은 좀 온전한 편이니 기쁘다.

2월 27일 [양력 4월 9일]〈무오〉

흐렸다.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에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깎아지른 외딴 섬인지라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매우 엉성하니 무척 근심이 된다.

참사가 애쓰기는 했으나, 미쳐 시설을 못했으니 어찌하랴.

저녁나절에야 배를 타고 경도(여수시 경호동 대경호도)에 이르니, 여필(汝弼)과 조이립(趙而立)이 군관·우후들이 술을 싣고 마중나왔다.

이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다 해가 넘어간 뒤에야 관청으로 돌아왔다.

2월 28일 [양력 4월 10일]〈기미〉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2월 29일 [양력 4월 11일]〈경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을 순천부사로 고쳐 임명했다고 하니
한심하다.

임진년 3월 (1592년 3월)

3월 초1일 [양력 4월 12일]〈신유〉

망꺠레를 했다.

식사를 한 뒤에 별방군과 정꺠군 하번군을 점꺠 하고서 놓아 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열 순을 쏘았다.

3월 초2일 [양력 4월 13일]〈임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제삿날(中宗 章敬王后 尹氏 祭祀)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승군 (僧軍) 일백 명이 돌을 주웠다.

3월 초3일 [양력 4월 14일]〈계해〉

비가 저녁내 오다.

오늘은 삼짗날 명절이꺠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답청도 못하꺠다.

조이립(趙而立) 우후 · 꺠관 등과 동헌에서 이야기하며 술을 마꺠다.

3월 초4일 [양력 4월 15일]〈갑자〉

맑다.

아침에 조이립(趙而立)을 배웅하고 꺠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서문밖 해자와 성을 더 쌓는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좁는 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므로 책임자(首僧)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아산에 문안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3월 초5일 [양력 4월 16일]〈을축〉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류성룡(柳成龍)의 편지와 "증손전 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육전·화공전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을 낱낱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만고의 훌륭한 책이다.

3월 초6일 [양력 4월 17일]〈병인〉

맑다.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출근하여 군기물을 점검했는데, 활 · 갑옷 · 투구 · 전통 ·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진 것이 많아 색리 · 궁장 · 감고 등을 문책했다.

3월 초7일 [양력 4월 18일]〈정묘〉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3월 초8일 [양력 4월 19일]〈무진〉

종일 비가 내렸다.

3월 초9일 [양력 4월 20일]〈기사〉

종일 비가 내렸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초10일 [양력 4월 21일]〈경오〉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3월 11일 [양력 4월 22일]〈신미〉

맑다.

3월 12일 [양력 4월 23일]〈임신〉

맑다.

식사한 뒤에 배있는 곳으로 나가 경강(여수시 봉산동)의 배를 점검했다.

다시 배를 타고 소포(여수시 종화동 종포)로 나가는데 때 마침 셋바람이 세게 불고 격군(보조사공)도 없어 도로 돌아왔다. 곧바로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열 순을 쏘았다.

3월 13일 [양력 4월 24일]〈계유〉

아침에 흐렸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3월 14일 [양력 4월 25일]〈갑술〉

종일 많은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李洸)를 만나러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몹시 퍼부어서 길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서 다시 해농창평(순천시 해룡면)에 이르니, 길바닥에 물이 석자나 괴었다.

겨우 겨우 순천부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찰사와 격조를 터놓고 이야기했다.

3월 15일 [양력 4월 26일]〈을해〉

흐리며 가랑비 오다가 저녁나절에 개었다.

다락 위에 앉아서 활 쏘고, 군관들에게는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3월 16일 [양력 4월 27일]〈병자〉

맑다.

순천부사가 환선정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겸하여 활도 쏘았다.

3월 17일 [양력 4월 28일]〈정축〉

맑다.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꿀을 먹인 뒤에 본영으로 돌아왔다.

3월 18일 [양력 4월 29일]〈무인〉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19일 [양력 4월 30일]〈기묘〉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20일 [양력 5월 1일]〈경진〉

비가 몹시 쏟아지다.

저녁나절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각 관방의 회계를 밝혔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는 일이 제 날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색리·도훈도 등을 문책했다.

사도첨사(김완)에게도 만날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했다고 했다.

또 한나절 동안에 내나로도·외나로도(고흥군 봉래면)와 대평두·소평두 섬을 다 수색하고 그 날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엉터리 거짓이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일로 흥양과 사도첨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3월 21일 [양력 5월 2일]〈신사〉

맑다.

몸이 불편하여 아침내 누워 앓다가 저녁나절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22일 [양력 5월 3일]〈임오〉

맑다.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및 군관 열 명 을 나누어 보냈다.

식사한 뒤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23일 [양력 5월 4일]〈계미〉

아침에 흐리고 저녁나절에는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에서 올 널빤지가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색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했다.

순천에서 심부름꾼을 보내 온 소국진(蘇國進)에게 곤장 여든 대를 쳤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었는데 보니, "발포권관은 군사를 거느릴 만한 재목이 못 되기로 갈아 치워야하겠다"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해달라고 답장을 보냈다.

3월 24일 [양력 5월 5일]〈갑신〉

나라제삿날(世宗 昭憲王后 沈氏 祭日)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우후 가 수색하고 탈없이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都事)의 답장을 송 희립(宋希立)이 아울러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김수)의 편지에 대마도주(종의지)가 공문을 보냈는데, 별 써 대마도 배 한 척을 귀국(조선)에 보냈는데, 만일 도착하지 않았다면 풍랑에 깨졌을 것이라'고 했더라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다.

동래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 무하며,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3월 25일 [양력 5월 6일]〈을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열 순을 쏘았다.

경상병마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아홉 발이나 무너져 있었다.

3월 26일 [양력 5월 7일]〈병술〉

맑다.

우후와 송희립(宋希立)이 남해로 갔다.

저녁나절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3월 27일 [양력 5월 8일]〈정해〉

맑고 바람조차 없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여수시 종화동 종포)에 이르러
쇠사슬을 가로질러 건너 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나무 기둥 세우는
것을 바라 보았다.

검하여 거북함에서 대포 쏘는 것 도 시험했다.

3월 28일 [양력 5월 9일]〈무자〉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는데, 다섯 순은 모조 리 다 맞고, 두 순은 네 번
맞고, 세 순은 세 번 맞았다.

3월 29일 [양력 5월 10일]〈기축〉

맑다.

나라제삿날(世祖 貞熹王后 尹氏 祭日)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아산 고향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임진년 4월 (1592년 4월)

4월 초1일 [양력 5월 11일]〈경인〉 흐렸다.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공무를 본 뒤에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4월 초2일 [양력 5월 12일]〈신묘〉

맑다.

식사를 하고 나니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더 아파 온 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4월 초3일 [양력 5월 13일]〈임진〉

맑다.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4월 초4일 [양력 5월 14일]〈계사〉

맑다.

아침에야 비로소 겨우 통증이 가라앉았다.

4월 초5일 [양력 5월 15일]〈갑오〉

맑다가 저녁나절에 비가 조금 내렸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4월 초6일 [양력 5월 16일]〈을미〉

맑다.

진해루로 나가 공무를 본 뒤에 군관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 여필(汝弼)을 배웅했다.

4월 초7일 [양력 5월 17일]〈병신〉

나라제삿날(中宗 文定王后 尹氏 祭日)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낮 열 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공문이 왔는데, 영남관찰사와
우병마사의 장계에 의한 것이었다.

4월 초8일 [양력 5월 18일]〈정유〉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썼다.

저녁나절에 여필(汝弼)이 떠나갔다.

객창에 홀로 앉았으니 만단의 회포가 어리어 온다.

4월 초9일 [양력 5월 19일]〈무술〉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나절에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방응원(方應元)이 방비처에 갈 공문에 관인을 찍어서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현감(어영담) 이 수색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저물어서 돌아갔다.

4월 초10일 [양력 5월 20일]〈기해〉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다.

4월 11일 [양력 5월 21일]〈경자〉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나절에 맑았다.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이광)의 편지와 별록을 순찰사의 군관(남한)이 가져 왔다.

비로소 베로 돛을 만들었다.

4월 12일 [양력 5월 22일]〈신축〉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의 지자·현자 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남한이 살피 보고 갔다.

정오에 동헌으로 나가 활 열 순을 쏘았다. 관청으로 올라 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4월 13일 [양력 5월 23일]〈임인〉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4월 14일 [양력 5월 24일]〈계묘〉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열 순을 쏘았다.

4월 15일 [양력 5월 25일]〈갑진〉

맑다.

나라제삿날(成宗 恭惠王后 韓氏 祭日)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역졸을 시켜 달려 보냈다.

해 질 무렵에 영남우수사(원균)의 통첩에, "왜선 아흔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영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수사 (경상좌수사 박홍)의 공문이 왔다.

"왜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이미 도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즉시 장계를 올리고 겸하여
순찰사(이광) · 병마사(최원) · 우수사(이억기)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관찰사(김수)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다.

4월 16일 [양력 5월 26일]〈을사〉

밤 열 시쯤에 영남우수사(원균)의 공문이 왔다.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로 장계를 올리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4월 17일 [양력 5월 27일]〈병오〉

흐리고 비오더니 저녁나절에 맑았다.

영남우병마사(김성일)에게서 공문이 왔다.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한다.

저녁나절에 활 다섯 순을 쏘았다.

번을 그대로 서는 수군(仍番=上番)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奔番=下番)이 잇달아 방비처로 왔다.

4월 18일 [양력 5월 28일]〈정미〉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순찰사(이광)의 공문이 왔다.

"발포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대리(假將)를 정하여 보내라" 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羅大用)을 이 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낮 두 시쯤에 영남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조영규) · 울산(이언함) 두 군수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한다.

이건 정말로 통분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병마사(이각)와 수사(박홍)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뒷쪽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다.

저녁에 순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병방이 석보창(여천군 쌍 봉면 봉계리 석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잡아 가두었다.

4월 19일 [양력 5월 29일]〈무신〉

맑다.

아침에 품방에 해자 파는 일로 군관을 정해 보내고, 일찌기 아침 밥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몸소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시했다.

이날 분부군(입대하러 온 군사) 700 명을 만나 보고 역사하는 일은 점검했다.

4월 20일 [양력 5월 30일]〈기유〉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영남관찰사(김수)의 공문이 왔다.

"많은 적들이 휘몰아 쳐들어 오니 이를 막아낼 수가 없고 승리한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을 드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하여 와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정에 장계하였다"고 하였다.

4월 21일 [양력 5월 31일]〈경술〉

맑다.

성 위에 군사를 줄지어 서도록 과녁 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권준)가 달려 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4월 22일 [양력 6월 1일]〈신해〉

새벽에 정찰도 하고 부정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어 보냈다.

배응록(裴應祿)은 절갑도(고흥군 금산면 거금도)로 가고, 송일성(宋日成)은 금오도(여천군 남면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李 景福) · 송한련(宋漢連) · 김인문(金仁問) 등으로 하여금 두산도(여천군 돌산도)의 적대목(敵臺木)을 실어 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쉰 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품방에서 역사를 시켰다.

4월 26일 [양력 6월 5일]〈을묘〉

〈장계에서〉 이 달 20일 성첩한 좌부승지(민준)의 서장이 왔다.

"물길을 따라 적선을 요격하여 적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그래서 경상도 순변사 이일(李鎰)이 내려갈 때, 이미 일러 보내었는데, 다만 군사상 진퇴하는 것은 반드시 기회를 보아 시행하여야만 그르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먼저 적선의 많고 적음과 지나가는 섬 사이에 적병이 있나 없나를 살펴 본 뒤에 나아감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책이지만, 만일 형세가 유리한데도 시행해야 할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크게 놓치게 되는 바, 조정은 멀리서 지휘할 수 없으니 도내에 있는 주장의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본도는 이미 이 뜻을 알렸으니 경상도에는 공문을 보내어 서로 의논하고 기회를 보아 조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일개의 주장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겸 관찰사 이광(李洸)·방어사 곽영(郭嶸)·병마절도사 최원(崔 遠) 등에게도 분부한 사연을 낱낱이 알렸으며, 한편 경상도 순변사 이일과 겸관찰사 김수·우수사 원균(元均) 등에게는 "그 도의 물길 사정과 두

도의 수군이 모처에 모이기로 약속하는 내용과 더불어 적선의 많고 적음과 현재 정박해 있는 곳과 그 밖의 대책에 응할 여러 가지 기밀을 모두 급히 회답해 달라."고 통고 하고 각 관포에도 "전쟁 기구와 여러 가지 비품을 다시 철저히 정비하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공문을 돌렸다.

4월 27일 [양력 6월 6일]〈병진〉

〈장계에서〉 이 달 23일 성첩된 좌부승지의 서장이 새벽 네 시쯤 에 선전관 조명(趙銘)이 가져 왔다.

"왜적들이 이미 부산과 동래를 함락하고 또 밀양에 들어 왔다는데, 이제 경상도 우수사 원균 (元均)의 장계를 보았더니,'각 포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군사의 위세를 뽐내고 적선을 엄습할 계획이다.'고 하니, 이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마땅히 그 뒤를 따라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대가 원균(元均)과 합세하여 적선을 쳐부순다면 적을 평정시킬 것 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전관을 급히 보내어 이르노니, 그대는 각 포구의 병선들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천리 밖에 있으므로 혹시 뜻밖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대의

판단대로 하고 너무 명령에 거리끼지는 말라.'고 하였다.

이 말대로라면, 왜적들은 침입한지 오래되어 반드시 지쳐서 사기가 떨어지고 가진 전비품도 거의 없어졌을 것이니, 왜적들을 꼭 이 때에 막아내야 하겠거니와 다만 앞뒤 적선의 척수가 500여 척 이상이라 하므로 우리의 위세를 불가불 엄하게 갖추어 엄습할 모습을 보여서 적으로 하여금 겁내고 떨어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수군에 소속된 방답·사도·여도·발포·녹도 등 5개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세력이 심히 고약하기 때문에 수군이 편성되어있는 순천·광양·낙안·흥양·보성 등 5개 고을에도 아울러 방략에 의해서 거느리고 갈 예정으로 처음에는 경상도로 출전하면 해로를 지나게 되는 "본영 앞바다로 일제히 도착하라"고 급히 통고하였다.

그러나 출전할 기일이 급한데다 수군의 여러 장수 중에 보성 및 녹도 등지는 3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고하여 불러 모은다 해도 그곳 수군은 쉽게 모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므로, 그 밖의 여러 장수들만이라도 모두 이달 29일 본영 앞바다에 모이게 하여 거둬 약속을 밝힌 뒤에 즉시 경상도로 출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풍세의 순역을 미리 생각하여 어렵게 되면 형편에 따라서 빨리 출전하려고 하는 바, 경상도 순변사(이일)·검관찰사(김수)·우수사 등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약속하였음을 장계 올렸다.

4월 29일 [양력 6월 8일]〈무오〉

〈장계에서〉 정오에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의 회답 공문이 왔다.

"적산 500여 척이 부산 · 김해 · 양산 · 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제
맘대로 상륙하여 연해변의 각 관포와 병영 및 수영을 거의 다
점령하였으며, 봉화불이 끊어졌으니 매우 통분하다.

본도(경상우도)의 수군을 뽑아 내어 적선을 추격하여 10 척을
처부수었으나, 나날이 병마사를 끌어 들인 적세는 더욱 성해져서 적은
많은데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적을 맞아 싸울 수 없어서
본영(경상우수영)도 이미 함락되었다.

귀도(전라좌도)의 군사와 전선을 남김없이 뽑아내어 당포 앞바다로
급히 나와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소속 수군으로, 중위장에 방담첨사 이순신(李純信), 좌부장에
낙안군수 신호(申浩), 전부장에 흥양현감 배흥립(裴興立), 중 부장에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 유군장에 발포가장 · 영군관 · 훈련원봉사
나대용(羅大用), 우부장에 보성군수 김득광(金得光), 후 부장에
녹도만호 정운(鄭運), 좌척후장에 여도권관 김인영(金仁英),
우척후장에 사도첨사 김완(金浣), 한후장에 영군관 · 급제

최대성(崔大晟), 참퇴장에 영군관·급제 배응록(裴應祿), 돌격장에 영군관 이언량(李彦良) 등을 모두 배치하고 거듭 약속을 명확히 하였다.

선봉장은 우수사 원균(元均)과 약속할 때 그 도의 변장으로써 임명할 계획이며, 본영은 우후 이몽구(李夢龜)를 유진장으로 임명하고, 방답·사도·여도·녹도·발포 등의 5개 포구에는 담락이 있는 이를 가장(假將)으로 임명하여 엄중히 훈계하여 보냈다.

나는 수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4월 30일 새벽 네 시에 출전할 예정으로 경상우도 남해현 미조항과 상주포·곡포·평산포 등 네 개 진영이 이미 거듭 들어왔으므로 그 현령·첨사·만호 등이 "당일 군사와 병선을 정비하여 길 중간까지 나와서 대기하라"고 새벽에 공문을 만들어 사람을 달려 보냈다.

낮 두 시경 본영의 진무이고 순천 수군인 이언호가 급히 돌아와서 보고했다.

"남해현 성안의 관청 건물과 여염집들은 거의 비었고, 집안에서 밥 짓는 연기마저 별로 나지 않으며, 창고의 문은 이미 열려 곡물은 흩어진 채로 있고 무기고의 병기마저 모두 없어지고 비어 있는데, 마침 무기고의 행랑채에 한 사람이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 보니, 적의 세력이 급박해지자 온 성안의 사졸들이 소문만 듣고 달아났으며, 현령과 첨사도 따라 도망하여 간 곳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하므로,

돌아오다가 또 한사람을 보았는데, 쌀 섬을 진채 장전을 가지고 남문 밖에서 달려 나오다가 장전의 일부를 소인에게 주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장전을 살펴 보니, "곡포(曲浦)"라고 새긴 것이 분명하며, "성을 비우고 달아났다."는 말이 그럴 듯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보고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서 군관 송한련(宋漢連)에게 "이 말이 사실과 같다면 적의 군량을 쌓아 주는 격이 되고, 점점 본도(전라좌도)로 침입하여 오래 머물며 물러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 창고와 무기고 등을 불살라 없애라"고 전령하여 급히 달려 보냈다.

대체로 보아 흉악한 적의 세력이 크져 부대를 나누어 도적질을 하는데, 한 부대는 육지 안으로 향하여 먼 곳까지 석권하고, 한 부대는 연해안으로 향하여 닥치는 대로 함락하고 있으나, 육지나 바다의 여러 장수들이 한 사람도 막아 싸우지 못하여 벌써 적의 소굴이 되어 버렸고, 바다의 진영으로서도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우수영과 남해의 평산포 등 네 개의 진영 뿐이지만, 이제 들으니 우수영마저도 함락되었고, 남해의 온 섬들은 벌써 무인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바, 이른바 우수영은 내가 지키는 진영과 일해상접이고, 남해는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서로 들리고 앉은 사람의 모양마저 똑똑히 세어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다.

그러므로 본도로 침범해 올 시기가 곧 박두하였으니 매우 한심할 뿐

아니라, 본도 내의 육지와 연해안 각 고을과 변두리의 성을 방어함에 있어서 새로 뽑은 조방군 등 정예의 사졸은 모두 육전으로 나가고 변두리에 남은 진보에는 병기를 가진 사람조차 너무 적어 다만 맨손으로 모인 수군을 거느리게 되므로 그 세력이 매우 약하여 달리 방어할 대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군의 중위장이며 순천부사인 권준(權俊)도 바다로 나가 사변에 대비하다가 관찰사의 전령으로 전주로 달려 갔다.

더구나, 오랫동안 임지에 있던 자들은 뜬소문만 듣고서도 가족을 데리고 짐을 지고 길가에 잇달았으며, 혹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고 혹은 틈을 타서 이사 하는데, 본영의 수졸과 본고장 사람들 사이에도 또한 이같은 무리들이 있으므로 그 길목에 포망장(도망자 잡는 장수)을 보내어 도망자 두 명을 찾아내어 우선 목을 베어 군중에 효시하여 군사들의 공포심을 진정시켰거니와 "경상도를 구원하러 출전하라."는 분부가 이같이 정녕할 뿐 아니라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가슴에 서리고 쓰라림이 뼈속에 사무쳐 한번 적의 소굴을 무찔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충곡이 자나 깨나 간절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우수사와 함께 협력하여 무찔러서 적의 무리를 섬멸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남해에 침입된 평산포 등 네 개의 진영의 진장과 현령 등이 왜적들의 얼굴을 보지아니하고 먼저 도피하였으므로, 나는 남의 도의

군사이니 그 도의 물길이 험하고 평탄한 것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으며, 또 작전을 상의할 장수도 없는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천만 뜻 밖의 실 패도 없지 않을 것이다.

소속 전함을 모두 합해 봐야 30 척 미만 으로서 세력이 매우 고약하기 때문에 겸관찰사 이광(李洸)도 이미 이 실정을 알고 본도 우수사(이억기)에게 명령하여 "소속 수군을 신의 뒤를 따라서 힘을 모아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이 매우 급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선이 다 도착되는 것을 기다려서 약속한 연후에 발선하여 바로 경상도로 출전해야 하겠다.

흥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벌써 새재를 넘어 서울을 육박하게 되어 본도의 겸관찰사가 홀로 분발하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곧 서울로 향하여 왕실을 보호할 계획이라 하는 바,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칼을 어루 만지며 혀를 차면서 탄식하고, 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서울로 달려가 먼저 육지 안으로 들어간 적을 없애고자 하니, 국경을 지키는 신하의 몸으로서 함부로 하가 어려워 부질없이 답답한 채 분함을 참고 스스로 녹이며 엎드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다.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이 이와 같이 왕성하여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두 해전으로써 막아내지 못하고 적을 마음대로 상륙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도 연해안 고을이는 깊은 도랑과 높은 성으로 든든한 곳이 많은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졸들이 소문만 듣고 간담이 떨려 모두 도망갈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난번 부산 및 동래의 연해안 여러 장수들만 하더라도 배들을 잘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진을 치고 엄습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를 보아 전선을 알맞게 병법대로 진퇴하여 적을 육지로 기어 오르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나라를 육되게 한 환란이 반드시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분함을 더 참을 수 없다.

이제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로 바로 두들겨 요망한 적을 소탕하여 나라의 수치를 만에 하나라도 씻으려 하는 바, 성공하고 안하고,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미리 생각할 바가 아니리라.

4월 30일 [양력 6월 9일]〈기미〉

〈장계에서〉 낮 두 시경에 전날 쓴 일을 장계로 써 올렸다.

임진년 5월 (1592년 5월)

5월 1일 [양력 6월 10일]〈경신〉

수군이 모두 앞바다에 모였다.

이 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고 마파람만 세게 불었다.

진해루에 앉아서 방답첨사(이순신) · 흥양 현감(배흥립) · 녹도만호 정운(鄭運) 등을 불러들이니, 모두 분격 하여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실로 의사들이라 할 만 하다.

5월 2일 [양력 6월 11일]〈신유〉

맑다.

겸 삼도순변사의 공문과 우수사의 공문이 도착했다.

송한련(宋 漢連)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현령(기효근) · 미조

향첨사(김승룡) · 상주포 · 곡포 · 평산포만호(김축) 등이 하나같이 (왜적의) 소식을 듣고는 함부로 벌써 달아나 버렸고, 군기물 등도 흩어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랄 일이다.

오정 때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 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낙안군수(신 호)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될 법한 일인가.

저녁에 방답의 첩입선(첩입된 지역을 왕래 · 연락하는 배) 세 척 이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비변사에서 세 어른의 명령이 내려왔다.

창평현령이 부임하였다는 공문을 와서 바쳤다.

저녁에 군호를 용호(龍虎)라 하고, 복병을 수산(水山)이라 하였다.

5월 3일 [양력 6월 12일]〈임술〉

가랑비가 아침내 내렸다.

경상우수사의 회답편지가 새벽에 왔다.

오후에 광양과 흥양현감 을 불러 함께 이야기하던 중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전라 우수사가 수군을 끌고 와서 같이 약속하고서 방답의 판옥선이 첩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우수사가 온다고 기뻐하였으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았다.

그러니 그건 방답의 배였다.

실망하였다.

그러나 조금 뒤에 녹도만호가 보자고 하기에 불러들여 물었더니,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통분한 마음 이길 길 없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곧 중위장(이순신)을 불러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고쳤다.

이 날 여도수군 황옥천(黃玉千)이 왜적의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자기 집에서 잡아 와서 목을 베어 군중 앞에 높이 매달았다.

1592년 5월 초4일 [양력 6월 13일]〈계해〉

맑다.

먼동이 틀 때에 출항했다.

곧바로 미조항(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척후 · 우부장 · 중부장 · 후 부장 등은 오른편에서 개이도(여천군
화정면 개도)로 들어가서 찾아 치게하고 나머지 대장선들은
아울러평산포 · 곡포 · 상주포 · 미조항을 지나 갔다.

－ 이 뒤로 28일까지 빠짐 －

5월 29일 [양력 7월 8일]〈무자〉

우수사(이억기)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노량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은 미리 약속한
곳에 와서 만나 그와 함께 상의했다.

왜적이 머물러 있는 곳을 물으니, "왜적들은 지금 사천선창에 있다"고
한다.

바로 거기서 가보았더니 왜놈들은 벌써 물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진들 치고 배는 그 산 아래에 줄지어 매어 놓고 항전하는 태세가 재빨리 튼튼해졌다.

나는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며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포들을 우레 같이 쏘아대니, 적들이 무서워서 물러나는데, 화살을 맞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왜적의 머리를 벤 것만도 많지만, 이 싸움에 군관 나대용(羅大用)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활꾼과 격군중에서 탄환을 맞은 사람이 또한 많았다.

적선 열세 척을 불 태워버리고 물러나 머물렀다.

임진년 6월 (1592년 6월)

6월 초1일 [양력 7월 9일]〈기축〉

맑다.

사랑도(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6월 초2일 [양력 7월 10일]〈경인〉

맑다.

아침에 떠나 곧장 당포 선창(船倉)에 이르니, 적선 스무여 척이 줄지어 머물러 있다.

둘러싸고 싸우는데, 적선 중에 큰 배 한 척은 우리나라 판옥선만 하다.

배위에 다락이 있는데, 높이가 두 길은 되겠고, 그 누각 위에는 왜장이 떡 버티고 우뚝 앉아 꼬덕도 아니 하였다.

또 편전과 대·중·승자 총통으로 비오듯 마구 쏘아대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자 왜적들은 한꺼번에 놀라 흩어 졌다.

여러 장졸이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

모조리 섬멸하고 한 놈도 남겨두지 않았다.

얼마 뒤에 왜놈의 큰 배 스무 여 척이 부산에서부터 끌려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서는 개도(介島: 통영시 산양면 추도;

싸리섬)로 뺑소니치며 들어가 버렸다.

6월 초3일 [양력 7월 11일]〈신묘〉

맑다.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개도(介島)를 협공하였으나,
이미 달아나버려 사방에는 한 놈도 없었다.

고성 등지로 가고자 했으나, 아군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울분을 참으면서 머물러 밤을 지냈다.

수군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서 왔다.

장병들이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내일 군사를 합치기로 약속하고 ?에서 잤다.

6월 초4일 [양력 7월 12일]〈임진〉

맑다.

우수사(이억기)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면서, 어설령 거리며
형세를 관망하고 대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정오가 되니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돛을 올리고서 왔다. 종의 장병들이
기뻐서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둬한 뒤에

작포량(통영시 당동 착량)에서 밤을 지냈다.

6월 초5일 [양력 7월 13일]〈계사〉

아침에 출항하여 고성 땅 당항포에 이르니, 왜놈의 배 한 척 이 판옥선과 같이 큰데, 배 위에 누각이 높고 그 위에 적장이 앉아서, 종선 열두 척과 소선 스무 척(계 서른두 척)을 거느렸다.

한꺼번에 쳐서 깨뜨리니, 활을 맞은 자가 부지기수요, 왜장의 모가지도 일곱 급이나 베었다.

나머지 왜놈들은 물으로 내려가 즉시로 달아났다.

그래봤자 나머지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6월 초6일 [양력 7월 14일]〈갑오〉

맑다.

적선의 동정을 살피며, 거기서 그대로 잤다.

6월 초7일 [양력 7월 15일]〈을미〉

맡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이 울포에 있다고 했다.

북병선으로 하여금 탐지케 했더니, 적선 다섯 척이 먼저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알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나는데, 여러 우리나라 배가 일제히 쫓아가 사도첨사 김완(金浣)이 한 척을 온전히 잡고, 우후도 한 척을 온전히 잡고, 녹도만호 정운(鄭運)도 한 척을 온전히 잡으니, 모두 왜적의 머리가 서른여섯 개다.

6월 초8일 [양력 7월 16일]〈병신〉맡다.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의논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지냈다.

6월 초9일 [양력 7월 17일]〈정유〉맡다. 곧장 천성·가덕에 이르니, 왜적이 하나도 없다.두세번 수색 하고나서, 군사를 돌려 당포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새벽도 되기 전에 배를 출항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우수사(이억기)와 이야기하였다.

6월 초10일 [양력 7월 18일]〈무술〉은 맡았다.

임진년 7월 (1592년 7월)

7월 초4일 [양력 8월 10일]〈신유〉

〈장계에서〉

떼를 지어 출몰하는 적을 맞이하여 날날이 무찌르고자 서로 공문을 돌려서 약속하며 배를 정비하고, 경상도의 적세를 탐문하였는데, "가덕·거제 등지에 왜선이 혹 열 여 척, 혹은 서른 여 척이 떼를 지어 출몰한다"고 할 뿐 아니라, 본도 금산(나 주시 금성동) 지경에도 적세가 크게 뻗치었는 바, 수륙으로 나누어 침범한 적들이 곳곳에서 불길 같이 일어나건만, 한번도 적을 맞아 싸운 적이 없어서 깊이 침범하게 되었으므로 처음에 본도 우수사와 모이기로 약속한 오늘 저녁 때에 약속한 그 장소에 도착하였다.

7월 초5일 [양력 8월 11일]〈계해〉

〈장계에서〉

서로 약속하다.

7월 초6일 [양력 8월 12일]〈임술〉

〈장계에서〉함대를 거느리고 일시에 출항하여 곤양과 남해의 경계인 노량에 도착하니, 경상우수사가 파손된 것을 수리한 전선 일곱 척을 거느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같이 만나 재삼 약속하고 진주 땅 창신도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밤을 지냈다.

7월 초7일 [양력 8월 13일]〈갑자〉

〈장계에서〉

셋바람이 세게 불어 항해하기 어려웠다.

고성 땅 당 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기로 나무하고 물 길고 있을 때, 피란하여 산으로 올랐던 그 섬의 목동 김천손(金千孫)이 우리 함대를 바라 보고는 급히 달려와서 말하였다.

"적의 대 · 중 · 소선을 합하여 일흔 여 척이 오늘 낮 두 시쯤 영등포 앞바다에서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다"고 하므로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였다.

7월 초8일 [양력 8월 14일]〈을축〉

〈장계에서〉이른 아침에 적선이 머물러 있는 곳(견내량)으로 항해했다.

한바다에 이르러 바라보니, 왜의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이 선봉으로 나와서 우리 함대를 몰래 보고서는 도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뒤쫓아 들어가니, 대선 서른 여섯 척과 중선 스무 네 척, 소선 열세 척(모두 일흔세 척)이 대열을 벌려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치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했다.

그리고 왜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물으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물으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므로 먼저 판옥선 대여섯 척으로 먼저 나온 적을 뒤쫓아서 엄습할 기세를 보이게 하니, 적 선들이 일시에 돛을 올려서 쫓아 나오므로 우리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 나오자, 왜적들도 따라 나왔다.

그때야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학익진"을 펼쳐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 · 현자 · 승자 등의 총통들을 쏘아서 먼저 두세 척을 깨뜨리자, 여러 배의 왜적들은 사기가 꺾이어 물러나므로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승리한 기세로 흥분하며, 앞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잇달아 쏘아대니, 그 형세가 마치 바람같고 우레같아,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다 해치워 버렸다.

순천부사 권준(權俊)이 제 몸을 잊고 돌진하여 먼저 왜의 총각대 선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왜장을 비롯하여 머리 열 급을 베고 우리 나라 남자 한 명을 산 채로 빼앗았다.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도 먼저 돌진하여 왜의 총각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왜장을 쏘아 맞혀서 내 배로 묶어 왔는데, 문초하기 전에 화살을 맞은 것이 중상이고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즉시 목을 베었으며, 다른 왜적을 비롯하여 머리 열두 급을 베고, 우리 나라 사람 한 명을 산 채로 빼앗았다.

사도첨사 김완(金浣)은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왜장을 비롯하여 머리 열여섯 급을 베었고, 현양현 감배흥립(裴興立)이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여덟 급을 베고 또 많이 익사시켰다.

방답첨사 이순신(李純信)은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네 급을 베었는데 다만 사살하기에만 힘쓰고 머리를 베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두 척을 쫓아가서 쳐부수어 일시에 불태웠다.

좌돌격장 급제 이기남(李奇男)은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잡아 머리 일곱 급을 베었으며, 좌별도장 본영 군관 전 만호 윤사공(尹思恭)과 가안책(賈安策) 등은 총각선 두 척을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여섯 급을 베었다.

낙안군수 신호(申浩)는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일곱 급을 베었으며, 녹도만호 정운(鄭運)은 총각대선 두 척을 총통으로 뚫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불태우고 머리 세 급을 베고 우리 나라 사람 두 명을 산 채로 빼앗았다.

여도권관 김인영(金仁英)은 왜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세 급을 베었고, 발포만호 황정록(黃廷祿)은 총각선

한 척을 쳐부수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힘을 모아 불태우고 머리 두 급을 베었다.

우별도장 전 만호 송응민(宋應珉)은 머리 두 급을 베었고, 흥양통장 전 현감 최천보(崔 天寶)는 머리 세 급을 베었고, 참퇴장 전 첨사 이응화(李應華)는 머리 한 급을 베었고, 우돌격장 급제 박이량(朴以良)은 머리 한 급을 베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머리 다섯 급을 베었고, 유군일령장 손윤문(孫允文)은 왜의 소선 두 척에 총을 쏘고 산 위 에까지 추격하였으며, 오령장 전 봉사 최도전(崔道傳)은 우리나라 소년 세 명을 산 채로 빼앗았다.

그 나머지의 왜대선 스무 척, 중선 열일곱 척, 소선 다섯 척 등은 좌도와 우도의 여러 장수들 이 힘을 모아 부수고 불태우니 화살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왜놈 사백 여 명은 형세가 아주 불리하고 힘이 다 되었는지 스스로 도망가기 어려운 줄 알고, 한산도에서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갔으며, 그 나머지 대선 한 척 · 중선 일곱 척 · 소선 여섯 척(모두 열네 척) 등은 접전할 때 뒤처져 있다가 멀리서 배를 불태우며 목베어 죽이는 꼴을 바라보고는 노를 재촉하여 도망해 버렸으나, 종일 접전한 탓으로 장수와 군사들이 노곤하고 날도 땅거미가 저 어둑어둑하므로 끝까지 추격할 수 없어서 견내량 내항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7월 초9일 [양력 8월 15일]〈병인〉

〈장계에서〉

가덕으로 향하려는데, "안골포에 왜선 마흔 여 척이 정박해 있다.

"고 탐망군이 보고했다.즉시 본도 우수사 및 경상 우수사와 함께 적을 토멸할 계책을 상의한 바, 이 날은 날이 이미 저물고 맞바람이 세계 불어 항해하여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거제 땅 온천도(거제도 하청면 칠천도)에서 밤을 지냈다.

7월 초10일 [양력 8월 16일]〈정묘〉

〈장계에서〉

새벽에 출항하여 "본도 우수사는 안골포 밖의 가덕 변두리에 진치고 있다가, 우리가 만일 접전하면 복병을 남겨두고 급히 달려오라"고 약속하고, 나는 함대를 이끌고 "학익진"을 형성하여 먼저 진격하고, 경상 우수사는 내 뒤를 따르게 하여 안골포에 이르러 선창을 바라보니, 왜대선 스무한 척·중선 열다섯 척·소선 여섯 척(모두

마흔두 척)이 머물고 있었다.

그중 삼층으로 방이 마련된 대선 한 척과 이층으로 된 대선 두 척이 포구에 서 밖을 향하여 물에 떠 있었고, 나머지는 고기비늘처럼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구의 지세가 좁고 얕아서 조수가 물러나면 물이 드러날 것이고 판옥대선으로는 쉽게 드나들 수가 없으므로 여러 번 유인해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선운선(先運船) 쉼아홉 척을 한산도 바다가운데로 유인하여 남김없이 불태우고 목 베었기 때문에 형세가 궁해지면 물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험한 곳에 배를 매어둔 채 두려워 겁내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천자·지자·현자 총통과 여러 총통 뿐아니라 장전과 편전 등을 빗발 같이 쏘아 맞히고 있을 적에, 본도 우수사가 장수를 정하여 복병시켜 둔 뒤 급히 달려 와서 협공하니, 군세가 더욱 강해져서 삼층방 대선과 이층방 대선을 타고 있던 왜적들은 거의 다 사상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은 사상한 자를 낱알이 끌어내어 소선으로 실어내고, 다른 배의 왜적들을 소선에 옮겨 실어 총각대선으로 모아들였다.

이렇게 종일토록 하여 그 배들을 거의 다 깨부수자, 살아남은 왜적들은 모두 물으로 올라갔는데, 물으로 간 왜적들은 다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이 산골에 잠복해 있는 자가 무척 많은 데, 그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 궁지에 몰린 도적이 되게 한다면, 잠복해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비참한 살육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 일 리 쯤 물러나와 밤을 지냈다.

7월 11일 [양력 8월 17일]〈무진〉

〈장계에서〉

새벽에 다시 돌아와 포위해 보았으나, 왜적들이 허둥지둥 당황하여 닢줄을 끊고 밤을 틈타 도망갔으므로 전일 싸움 하던 곳을 탐색해 보니, 전사한 왜적들을 열두 곳에 모아 놓고 불태웠는데, 거의 타다 남은 뼈다귀와 손발들이 흩어져 있고, 그 포구 안팎에는 흘린 피가 땅바닥에 그득하여 곳곳이 붉은 빛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도적들의 사상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낮 열 시쯤 양산강과 김해포구 및 감동포구를 모두 수색하였으나, 왜적의 그림자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가덕 바깥에서부터 동래 몰운대에 이르기까지 배를 늘여 세워 진을 치게 하고, 군대의 위세를 엄하게 보이게 한 다음 "적의 많고

적음을 탐망해서 보고하라"고 가덕도 응봉과 김해의 금단곶 연대 등지로 탐망군을 정하여 보내었는데, 밤 여덟 시 쯤에 그 탐망군인 경상우수영 수군 허수광(許水光)이 와서 보고했다.

"연대에서 탐망하려고 올라갈 때, 산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에 한 늙은 중이 있기에 같이 연대로 올라가서 양산과 김해의 두 강의 으스스한 곳과 그 두 고을 쪽을 바라보니, 적선이 나뉘어 정박해 있는 수는 거의 백 여 척쯤 되는데, 그 늙은 중에게 적선의 동정 을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날마다 쉰 여 척이 떼를 지어 드나 들며, 11일 본토에서 그 강으로 들어왔다가 어제 안골포 접전 때, 포 쏘는 소리를 듣고는 간 밤에 거의 다 도망가고 다만 백여 척 이 남아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왜놈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친 꼴을 짐작할 수 있겠다.저물녘 에 천성보로 나아가서 잠깐 머물면서 적에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하고, 밤을 이용하여 군사를 돌렸다.

7월 12일 [양력 8월 18일]〈기사〉

〈장계에서〉

낮 열 시쯤에 한산도에 이르니, 이 곳에 하륙했던 왜적들이 연일

끓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한 채 피곤하여 바닷가 에서 졸고 있었다.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미 머리를 세 급 을 베었고, 그 나머지 사백 여 명의 왜적은 탈출해도 도망갈 길이 없는 초룻 속의 새와 같았다.

나와 본도 우수사는 다른 도에 주둔하는 군사로서 군량이 벌써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금산의 적세가 크게 성하여 이미 전주에 도착했다"는 기별이 잇달아 도착 하므로 그 섬에 하륙한 적들은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목을 베고 그 급수를 통고하도록 그 도의 우수사와 약속했다.

7월 13일 [양력 8월 19일]〈경오〉

〈장계에서〉

본영으로 돌아왔다.

여러 사람의 문초 내용이 비록 낱낱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배를 정비하여 전라도로 향한다"는 말만은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들 중에, 첫째 부대의 왜선 일흔세 척은 거제도 견내랑에 와서 머물고 있다가 이미 섬멸되었고, 둘째 부대의 왜선 마흔두 척은

안골포 선창에 벌여 진치고 있었으나, 역시 우리에게 패하여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밤에 도망하였으니, 다시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병력을 합세하여 바로 몰아 침범해 오면, 마침내는 우리가 앞뒤로 적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력이 분산되고 형세가 악한 것이 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여 창을 베개로 삼아 변을 기다려 다시 통고하는 즉시로 수군을 거느리고 달려오라"고 본도 우수사 이억기와 약속하고 진을 파하였으며, 포로 되었다가 도로 잡혀 온 사람은 각각 그 빼앗은 관원에게 명하여, "구휼하고 편히 있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고향으로 돌려 보내라"고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7월 15일 [양력 8월 21일]〈임신〉

〈장계에서〉

여러 장수와 군사 및 관리들이 제몫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하여 여러 번 승첩을 하였다만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막혔는데, 군사들의 공훈 등급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 받은 뒤에 결정한다면, 군사들의 심정을 감동케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 등으로 별지에 기록하였으며, 당초의 약속과

같이 비록 왜적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람들은 내가 본 것으로써 등급을 나누어 결정하고서 함께 기록하였다.

이 내용을 장계하였다.

7월 16일 [양력 8월 22일]〈계유〉

〈장계에서〉

본영과 본도 소속 각 진포의 군량은 원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세번이나 적을 무찌르느라고 해상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어 많은 전선의 군졸들이 굶주리므로 원 군량은 벌써 다 나누어 주었다.

적은 물러가지 않으므로 잇달아 바다로 내려가 출전해야 하고 군량은 달리 변통하여 마련할 길이 없어 순 천부에 두었던 군량 오백 여 섬을 본영과 첩입한 방답진에, 흥양 군량 사백 여 섬을 여도·사도·발포·녹도 등의 네 개 포구에는 백섬 씩을 먼저 옮겨다가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하고, 도순찰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내용을 장계하였다.

임진년 8월 (1592년 8월)

8월1일[무자/9월6일]

「장계」에서

각 도에 가득찼던 적들이 날마다 내려온다 하므로 그들이 도망해 갈 시기를 이용하여 수륙으로 협공하려고 본도(전라도) 좌·우도의 전선 일흔 네 척과 협선 아흔 두 척을 모두 빈틈없이 정비하여 본영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거둬 약속을 명확히 했다.

이럴 즈음에1) 경상우도 순찰사 김수의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위로 침범한 적도들이 낮에는 숨고 밤에만 행군하여 양산 및 김해강 등지로 잇달아 내려오는데, 짐을 가득 실은 것으로 보아 도망가려는 형적이 현저하다"고 하였다.

2)

8월24일[신해/9월29일]

장계」에서

오후 네 시쯤에 배를 출항하여 노질을 재촉하여 노랑 뒷바다에 이르러 정박했다.

한밤 열 두 시에 달빛을 타고 배를 몰아 사천 모자랑포3)에 이르니 벌써 날이 새었다.

새벽 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을 분간키 어려웠다.

8월25일[임자/9월30일]

맑다.

오전 여덟 시쯤에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를 지나서 거의 당포에 이르러 경상우수사(원균)와 만나 배를 매 놓고 이야기했다.

오후 네 시쯤에 당포에 정박하여 밤을 지냈다.

4)

8월26일[계축/10월1일]

맑다.

견내량에 이르러 배를 세우고 우수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순천부사 권준도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角乎寺) 앞바다에서 밤을 지냈다.

5)

8월27일[갑인/10월2일]

맑다.

영남우수사(원균)과 같이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천도에 이르렀다.

웅천현감 이종인이 와서 말하는데, "왜적의 머리 서른 다섯 개를 베었다"고 한다.

저물녘에 제포·서원포를 건너니 밤이 벌써 열 시쯤인데, 하늬바람이 세게 불고 나그네의 회포가 어지럽다. 6)

8월28일[을묘/10월3일]

맑다.

— 8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

장계」에서

경상도의 육군 체탐인이 와서, "고성·진해·창원 병영 등지에 진치고 있던 왜적들이 이 달 24, 5일 밤중에 모두 도망했다"고 했다.

이는 필시 산에서 망보던 적들이 우리 함대를 바라보고 위엄에 놀라 배를 정박해 둔 곳으로 급히 도망한 것이리라.

이른 아침에 출항하여 바로 양산과 김해의 두 강 앞바다로 향하는데, 창원땅 귀곡포의 보자기 정말석이라는 사람이 포로된지 사흘째 되는 오늘(28일) 김해강에서 도망쳐 돌아와서 말하기를, "김해강에 머물고

있던 적선이 며칠 동안에 많은 수가 떼를 지어 몰운대 바깥바다로 노를 재촉하여 나가는 바, 도망가려는 의도가 현저하여 소인은 밤에 몰래 도망쳐 돌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가덕도 북서쪽 기스락에 배를 감추어 숨어 있게 하고, 방답첨사 이순신과 광양현감 어영담을 가덕도 바깥에서 잠복케 하고 "양산의 적선을 탐망하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후 다섯 시쯤 돌아와서 "종일 살펴 보았으나, 왜의 소선 네 척이 두 강 앞바다에서 나와서 바로 몰운대로 지나갈 뿐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대로 천성 선창으로 가서 밤을 지냈다.

8월29일[병진/10월4일]

「장계」에서

닭이 울자 출항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두 강 앞바다에 도착하니, 동래땅 장림포 바다 가운데서 낙오된 왜적 서른 남짓이 대선 네 척과 소선 두 척에 나누어 타고 양산에서 나오다가 우리 함대를 바라 보고서는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상우수사가 거느린 수군들이 도맡아 불태웠다.

그런데 좌별도장 우후 이몽구도 대선 한 척을 쳐부수고 머리 한 금을
벤 뒤에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강
입구의 형세가 매우 좁아서 판옥같은 대선은 쉽게 싸울 수
없었으므로, 어두어질 무렵에 가덕 북변으로 되돌아 와서 밤을
지내면서 원균 및 이억기 등과 함께 밤새도록 상의하였다.

1) 조성도, 『임진장초』,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에는
"그달 초여드레 선전관 안흥국이 가져온 본부위 서장도 받고,
경상우도 순찰사 김수의 공문"도 받았다.

2)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45쪽, 「釜山破倭兵狀」.

3) 『이충무공전서』에는 "우수사 이억기 등과 출항하여 수군 조방장
정걸도 함께 거느리고 남해땅 관음포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與右水使李億祺等發船舟師助防將丁傑并爲率領南海境觀音浦經夜)"라
함.

4) 조성도, 『임진장초』에는 "사랑 바다 가운데 약속한 곳에 이르러

경상우수사 원균을 만나 적정을 상세히 물은 뒤에 다 함께 당포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到蛇梁洋中 祇約會處 同道右水使元均相逢 備問賊奇後偕到唐浦經夜)"임.

5) 「장계」에는 "비바람이 섞여 쳐 쉬이 출항하지 못하다가 날이 저물녘에 거제도의 자루치에 이르러 밤에 몰래 견내량을 건넜다(風雨交作 未能發船 日暮到臣巨濟島 乘夜潛渡)"라 함.

6) 「장계」에는 "웅천땅 제포 뒷바다의 원포에서 밤을 지냈다(熊川地濟浦後洋院浦經夜)"라 함.

8월 24일 [양력 9월 29일]〈신해〉마다.

아침밥은 객사 동헌에서 정 영감(충청수사 정걸)과 같이 먹고 곧 침벽정으로 옮겼다.

우수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 조방장도 함께 먹었다.

오후 네 시쯤에 배를 출항하여 노질을 재촉하여 노량 뒷 바다에 이르러 정박하다.

한밤 열두 시에 달빛을 타고 배를 몰아, 사천 땅 모자랑포에 이르니

벌써 날이 새었다.

새벽 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을 분간키 어려웠다.

8월 25일 [양력 9월 30일]<임자>맑다.

오전 여덟 시쯤에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니 평 산포 만호가 공장(수령이나 찰방이
감사·병마사·수사등에게 공식으로 만날 때에 내는 관직명을 적은
편지)을 바쳤다.

당포 가까이에 이르러 경상우수사(원균)와 만나 배를 매 놓고
이야기했다.

오후 네 시쯤에 당포에 정박하여 밤을 지냈다.

자정에 잠깐 비가 왔다.

8월 26일 [양력 10월 1일]<계축>맑다.

견내랑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서 우수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순천부사 권준(權俊)도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角乎寺:거제 시 사등면) 앞바다에서 밤을
지냈다.

8월 27일 [양력 10월 2일]〈갑인〉맑다.

영남수사(원균)과 같이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내도(漆乃 島)에 이르렀다.

웅천현감 이종인(李宗仁)이 와서 말하는데, "왜 적의 머리 서른다섯 개를 베었다.

"고 한다.

어두울 무렵에 제포(濟浦)·서원포(西院浦)를 건너니, 밤이 벌써 열시쯤이 되어 자려는데, 하늬바람이 차갑게 부니, 나그네의 회포가 어지럽다.

이 날 밤 꿈자리도 많이 많이 어지러웠다.

8월 28일 [양력 10월 3일]〈을묘〉맑다.

새벽에 앉아 꿈을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도리어 좋은 것이었다.

가덕에 이르렀다.

(** 날짜는 알수 없으나, 8월 28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삼가 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전일 승평에서 받들었던 것은 매우 기쁘고 다행한 것이었습니다.

줄이고.

일본은 바다 가운데 있으며, 비록 추운 겨울이 되어도 날씨는 늘 따듯한데, 지금까지 흉한 적들이 오랫동안 남의 땅에 머물러 있어도 풍속에 익숙되지는 않습니다.

한 겨울이 되면, 추위로 지내기 괴로우며, 가난할 뿐 아니라, 군량은 이미 다 떨어지고, 용기와 힘도 다하였으므로, 이 기회를 틈타 급히 공격하여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난 왕실이 바로 이 때인데 한해가 새해로 바뀌었어도 아직 적을 없앴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구석 외로운 신하가 북쪽을 바라보며 길이 통탄하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팔도 중에 오직 이 호남만이 온전한 것은 천만 다행이며,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옮기는 것 모두 이 전라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해를 다 없애어 국권을 회복하는 것도 이 도(전라도)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감사가 다시 임금에게 충성하러 부임했고, 절도사는 오랫동안 남의 땅(경상도)에 머물면서 군사와 말을 정예하게 여거 하는데, 군기·군량은 이 가운데서 다하여 돌아가고, 진과 보(鎭堡)에 이르러 방어군사를 정하는 것 또한 각각 반으로 나누어 뽑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늙어 중도에서 굶주림과 추위가 아울러 들이닥쳐 반 이상은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비록 혹 흩어지지 않은 자가 있다손 해도, 굶주림과 추위가 이미 극에 달하여 죽음이 잇달았습니다.

큰 고을이면 300여 명, 힘차고 왕성한 사람을 조금히 가리어 채우기를 강요하며 독려하니, 한 도가 소동하였습니다.

더구나 소모사(召募使)가 내려와서 남아있는 군사를 징발하니, 각 진포에 방군을 나누고, 여러 읍의 초병도 뽑아 그 수를 채우는 데, 한 도가 소동한 것은 알지 못하는 바, 이 도의 보전도 어려워 꼭 길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유지에, 각 고을의 떠돌이 군사일지도 일족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라고 하신 정녕한 서신이 있었거늘, 백성을 풀어 비상한 고난을 견줄 데 없이 급하였던 것입니다.

큰 적(왜적)이 각 도에 가득차, 아무 죄 없는 백성은 몇 십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독한 해를 입었습니다.

종사(宗社)와 도성(都城)도 보전할 수 없었고,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어 고통이란 불타서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달 10명의 군사가 방비하는 고을에 부임하니, 한번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방비에 들어가는 사람이 겨우 서너 명인데, 어제는 10 명의 유방군이 오늘은 너댓 명 미만이니, 몇 달 가지 않아서 바닷가의 진(鎭)은 하나같이 텅 비어 진(鎭)의 지휘관은 홀로 빈 성을 지키게 되니, 어떻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옛 전례를 따른다면, 임금의 분부를 어기게 되고, 옛 명령을 따르면, 적을 방어하는데, 계책이 없으니, 이 두 가지 중 편리한대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보고했더니, 관찰사의 공문에 일족의 대충 징발하는 폐단이 백성을 심하게 병들게 합니다.

정녕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른바 명령을 이행할 틈이 없거니와, 그 보고 내용 또한 일거리가 있으니, 백성을 어루만지고, 적을 방어하는데에 둘 다 그 편리한 일을 얻는 것이라 답하여 왔습니다.

각 고을에는 죽은 자가 자손이 모두 끊어지면, 도목장(都目狀)에서 빼버리라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대개 본도(전라도)는 나누어 방비할 군사가 경상도의 예와는 같지

않으며, 좌·우 수영에는 320여 명이고, 각 진포에는 혹 200 혹 150여 명씩 나누어 방비하였거늘, 그중에서 멀리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오래 되었다.

아직 본래대로 정하지 않은 자는 10에 7~8이며, 현재 나타나 있는 사람을 거두어 주는 것도 모두 늙고 쇠잔하여 방비업무에 알맞지 않습니다.

힘이 부득이하면 물론 일족에게 숫자만 채우려 입방할지라도 탈이 났다고 소송하는 자가 많고, 아직 방비에 도착하지 않은 자는 혹 이름을 대어 힘을 합하는 가운데 이것 저것 엇갈리게 한다면, 끝내 점고에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 사이의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큰 적이 앞에 있어 방비하는 일이 무척 급하고 예나 다름없이 병에 걸려 방어하는 것은 줄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 재촉하고 분발하면, 하나는 배의 사부를 채우게 되고, 하나는 성을 지키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5번 출동에 적을 맞아 14번이나 싸워 이겼던 것은 이미 8달이나 되었습니다.

대개 국방이 한번 실패하면, 그 해독은 중앙에까지 곧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계책은 먼저 옛 전례를 따라 변방을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차츰 차츰 조사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고통을 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한 일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호남에 달려 있는 것은, 마치 제(齊)나라의(山東省
地方의) 거현(縣)이나 즉묵현(即墨縣)과 같이 항복하지 않다가
공격해온 연(燕)나라를 파하고 국토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곧 전 쟁이
끝나지 않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 올바른 것은 몸을 온전히 하는 것과 같으니, 몸쓸 병 있는 자가
겨우 한쪽 다리의 구 할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하게 군사와 말을 지경밖으로 쓸어내 버렸습니다.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汝松)이 수십만 명의 정예군사를 거느리고
평양·개성·서울 세 곳의 도적을 토멸했으며,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와 남김없이 소탕해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번역이 아주 개판이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임진년 9월 (1592년 9월)

—8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9월1일[정사/10월5일] 「장계」에서

닭이 울자 출항했다.

낮 여덟 시에 몰운대를 지날 무렵 셋바람이 갑자기 일고 파도가 크게
일어, 간신히 배를 저어 화준구미에 이르러 왜대선 다섯 척을 만나고,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러 왜대선 여덟 척, 서평포 앞바다에 이르러
왜대선 아홉 척, 절영도에 이르러서는 왜대선 두척을 각각 만났는데,
모두 기스락을 의지하여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삼도의 수사가

거느린 여러 장수와 조방장 정걸 등이 힘을 합하여 남김없이 깨어 부수고, 배 안에 가득 실은 왜의 물건과 전쟁 기구도 끌어내지 못하게 하여 모두 불태웠으나, 왜인들은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며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를 베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절영도 안팎을 모조리 수색하였으나, 적의 종적이 없으므로 즉시 소선을 부산 앞바다로 급히 보내어 적선을 자세히 탐망케 하였더니, "대개 오백 여 척이 선창 동쪽 산기슭의 언덕 아래 줄지어 대었으며, 선봉 왜대선 네 척이 초량목으로 마주 나오고 있다'고 하므로, 원균 및 이억기 등과 약속하기를, "우리 군사의 위세로써 만일 지금 공격하지 않고 군사를 돌이킨다면 반드시 적이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고 독전기를 휘두르며 진격했다.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 귀선 돌격장 군관 이언량, 전부장 방담첨사 이순신,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좌부장 낙안군수 신호 등이 먼저 곧바로 돌진하여 선봉 왜대선 네 척을 깨부수니, 적도들이 헤엄쳐 물으로 오르므로 뒤에 있던 여러 배들은 곧 이 때를 이용하여 승리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장사진'으로 돌진했다.

이 때 부산성 동쪽 한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 밑 세 곳에 둔박한 왜선이 모두 470여 척이 있었는데,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 전선이 곧장 그 앞으로 돌진하자, 배 안과 성 안, 산 위, 굴 속에 있던 적들이 총통과 활을 가지고 거의 다 산으로 올라 여섯 곳에 나누어 머물며 내려다 보면서 철환과 화살을 빗발처럼 우레처럼 쏘았다.

그런데 편전을 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았으며, 혹 대철환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모과만 하며, 혹 수마석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주발덩이만한 것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지곤 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한층 더 분개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 돌진하면서 천자·지자 총통에다 장군전·피령전, 장전과 편전, 철환 등을 일시에 일제히 쏘며 하루 종일 교전하니 적의 기세는 크게 꺾이었다.

그래서 적선 백 여 척을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쳐부순 뒤에 화살을 맞아 죽은 왜적으로써 토굴 속에 끌려 들어간 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배를 쳐부수는 것이 급하여 머리를 벨 수는 없었다.

여러 전선의 용사들을 뽑아 물으로 내려서 모조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무릇 성 안팎의 예닐곱 곳에 진치고 있는 왜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말을 타고 용맹을 보이는 놈도 많은지라, 말도 없는 외로운 군사를 가벼이 물으로 내리게 한다는 것은 빈틈없는 계획이 아니며, 날도 저물었는데 적의 소굴에 머물러 있다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될 환란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배를 돌려 한밤중에 가덕도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그런데 양산과 김해에 정박한 왜선이, 혹은 말하기를 "점차 본도로 돌아간다"고 한다마는, 몇 달 이내로 세력이 날로 외로워짐을 스스로 알고 모두 부산으로 모이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성 안의 관사는 모두 철거하고, 흙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이미 소굴을 만든 것이 백여 호 이상이나 되며, 성 밖의 동서쪽 산기슭에 여염집이 즐비하게 있는 것도 거의 삼백 여 호이며, 이것이 모두 왜인들이 스스로 지은 집인데, 그 중의 큰 집은 총계와 희계 단장한 벽이 마치 불당(절간)과도 비슷한 바 그 소행을 따져보면 매우 분통하다.

9월2일[무오/10월6일]

「장계」에서

다시 돌진하여 그 소굴을 불태우고 그 배들을 모조리 깨부수려고 하였는데, 위로 올라간 적들이 여러 곳에 널리 가득차 있으므로, 그들의 귀로를 차단한다면 궁지에 빠진 도적들의 반격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수륙으로 함께 진격해야만 섬멸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풍랑이 거슬러 전선이 서로 부딪쳐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전선을 수리하면서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고, 또 육전에서 크게 물러나 오는 날을 기다려 경상감사 등과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왔다.

1)

9월10일[병인/10월14일]

「장계」에서

원균은 그 뒤 적선이 많이 온다고 잘못 듣고서 포위한 적을 풀고 가버렸기 때문에 물으로 올라간 왜인들이 "벌목하여 뗏목을 만들어 타고 모두 거제로 건너가 버렸다"고 하는 바, 솔 안에 든 고기가

마침내 빠져 나간 것 같아 매우 통분하였음을 갖추어 장계하였다.

2)

9월11일[정묘/10월15일]

「장계」에서

녹도만호 정운은 맡은 직책에 정성을 다하였고, 담략이 있어서 서로 의논할 만한 사람이다.

사변이 일어난 이래 의기를 격발하여 나라를 위해서 제 몸을 잊고 조금도 마음을 놓지 않고 변방을 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쓰기를 오히려 전보다 더욱 더하므로 민을 사람은 오직 정운 등 두 세 사람이다.

세번 승첩을 했을 때 언제나 선봉에 섰고, 이번에 부산포해전에서도 몸을 던져 죽음을 잊고 먼저 적의 소굴에 돌입했으며, 하루 종일 교전하면서도 어찌나 힘을 다하여 쏘았던지 적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운의 힘이 컸다.

그런데 그날 돌아올 무렵에 철환을 맞아 죽었지만,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혼령이 쏄쏄히 아주 없어져서 뒷 세상에 아주 알려지지 못할까

애통하다.

이대원의 사당이 아직도 그 포구에 있으므로 같은 제단에 초혼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어, 한편으로는 의로운 훈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남을 경계해야겠다.

방담첨사 이순신은 변방 수비에 온갖 힘을 다하고, 사변이 일어난 뒤에는 더욱 부지런히 힘써 네번이나 적을 무찌를 적에 반드시 앞장을 서서 분격하였으며, 당항포에서 접전할 때에는 왜장을 쏘아 목을 벤 그 공로가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사살하는 데만 전력하고 목베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으므로 그 연유를 들어 별도로 장계하였는데, 이번 포상의 글월 중에 이순신(李純信)의 이름만 들어 있지 않으니 해괴하다.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권준·이순신·어영담·배흥립·정운 등은 달리 믿는 바가 있어 서로 같이 죽기를 약속하고서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권준 이하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당상으로 승진되었으나 오직 이순신만이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므로 이에 조정에서 포상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장계를 올렸다.

3)

9월12일[무진/10월16일]

「장계」에서

당항포 승첩계본을 받들고 올라간 전생서(典牲署) 이봉수가 가지고 내려 온 우부승지(이국)의 서장 내용에, "전쟁이 일어난 이래 여러 장수들이 한결같이 패퇴하였는데, 이번 당항포 싸움에서 비로소 크게 승리했으므로 특히 경을 자헌대부로 승진시키니 끝까지 스스로 힘써 하라"한 것과, 장계를 보니, 각 목장의 말들을 몰아내고 길들이고 먹여서 육전에 쓰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였는데, 경이 그 수를 급히 몰아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성공을 기다려서 그대로 영구히 주도록 하라"고 하신 분부의 서장 등을 본영에서 받았다.

4)

9월18일[갑술/10월22일]

「장계」에서

"행재소에서 쓸 종이를 넉넉하게 올려 보내라"고 하였으나, 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고생스럽게 길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우선 장지(狀紙) 열 권을 올려 보냄을 써 올렸다.

5)

9월25일[신사/10월22일]

「장계」에서

순천에 사는 전훈련원봉사 정사준은 사변이 일어난 뒤에 상제의 몸으로 기복된 사람인데, 충성심을 분발하였으므로 경상도와 접경한 요충지인 광양현 전탄(錢灘)의 북병장으로 정하여 보낸 뒤, 무릇 매복하여 적을 막는 일에 있어서 기특한 계책을 마련하여 적들로 하여금 감히 경계선에 근접하지 못하게 했는데, 정사준은 순천부의 의로운 선비이며 전훈련원봉사였던 이의남 등과 약속하고 각각 의연곡을 모아서 모두 한 배에 싣고 행재소로 향하였다.

비변사의 공문에 "전죽(箭竹)을 넉넉하게 올려 보내라"고 하였으나, 부산 승첩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육로로 올라가야 하는 먼 길에 가져가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올려 보내지 못했는데, 비로소 이번에 정사준 등이 올라갈 때에 장전과 편전에 쓸 대와 종이 등의 물품을

함께 봉하여 같은 배에 함께 싣고 물건의 목록은 따로 적어 올렸다.

순천부사 권준과 낙안군수 신호, 광양현감 어영담, 홍양현감 배흥립등도 수군 위부장(衛部將)으로서 본영 앞바다에 진을 치고 사변에 대비하면서 각각 공문으로 보고한 내용에 "연해변 각 고을의 관원들이 사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군량을 원 수량 이외에 별도로 쌓아 두었는데, 국운이 불행하여 임금께서 서쪽으로 몽진하신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어 많은 장수와 군사들의 양식을 계속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하된 자의 정익에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여 위에 별도로 쌓아 둔 군량 등 물품을 각각 배에 싣고 자원해 들어온 사람에게 맡겨 주어 올려 보내려 했으나, 수령들로서는 진달할 길이 없으니 이 실정을 낱낱이 열거하여 함께 장계하도록 공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준은 원 수량 이외에 군량 백 섬과 다른 잡물을 함께 정사준 등이 의연곡을 싣고 가는 배에 같이 실어 우선 올려 보냈다.

신호·어영담·배흥립 등이 올려 보내는 군량과 군기 등 물건은 각각 그들의 배에 싣고 각 고을에서 자원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맡기어 올려 보내므로 물목을 만들어 주어 올려 보냄을 차례로 아뢰었다.

1) 조성도, 『임진장초』, 91쪽에는 이 내용을 9월 17일에 장계를 올렸다고 함.

2)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52쪽, 「破圍倭兵逃還狀」.

3) 「請鄭運進配李大源祠狀」.

4) ① 「장계」, 卷首, 「教諭」 12쪽.

② 조성도, 앞의 책, 95쪽, 「封進紙地狀」.

5) ① 『이충무공전서』 권2, 「장계」 53쪽.

② 조성도, 앞의 책, 305쪽

6) 『이충무공전서』 권2, 53~54쪽, 「裝送戰殼狀」.

임진년 10월 (1592년 10월)

—8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0월30일[병진/12월3일]

「편지」에서

아래 의주에서 보내온 글은 꿈도 아닌 정이 아닌가.

퍼 보기를 두번 세번 하매, 종이에 간절한 정이 가득한 것은 실상
나의 친구 위서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정성을 다한 것이다.

알지는 못하나 요사이 노장의 건강은 어떠하오.

멀리서 호소하여 마지 않는다.

이 사람은 용졸한 재주로 난국을 당하여 오랑캐가 두번 움직이니,
이에 이 전쟁 사이에 근심한 자 뿐인데, 다행히 최별장 군·강 두
분의 힘을 입어 크게 웅천의 도적을 이기고, 또 바다에 뜬 두목을

잡았다.

어찌 마음이 크게 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임금의 수레를 서울에
돌아오시게 하는 것 뿐이다.

남은 것은 군무가 어지럽고 매우 바쁘므로 다 갖추지 못한다.

1)

임진년 12월 (1592년 12월)

(8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2월10일

[병신/1593년 1월12일]

「장계」에서

흉한 적들이 여러 도에 널리 가득 차 있고, 오직 이곳 호남만이 다행히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다소 보완하여 한 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다 이 도에서 마련하여야 하는데, 지난 6, 7월사이에 육만의 군마와 허다한 군량을 모두 서울 등지에서 잃어버리고, 병사가 거느렸던 사만의 군사들도 또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얼고 주려서 다 없어졌는데, 이제 순찰사가 또 정예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며, 다섯 의병장도 서로 이어 군사를 이르켜 멀리 출전하게 되므로, 이 뒤부터는 온 지방의 소동이 공사간의 재물을 다 없애고, 비록 늙고 허약한 백성은 있다 해도 병기와 군량을 운반할 무렵에는 채찍질이 빈번하여 구덩이에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었다

더구나 소모사가 내려와서 내륙과 연해안을 분별하지 않은 채 소집할 군사의 수만을 결정하여 심하게 독촉하므로, 각 고을에서는 그 수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변방을 지키는 수졸을 많이 빼내어 갈 뿐 아니라,

체찰사의 종사관이 각 고을을 분담 . .

검색하여 남아있는 장정을 재촉하여 징발하고, 변방의 진포에 있는 군기를 또한 많이 다른 곳으로 실어가며, 복수장 고종후 등이 또 따라 일어나서 내시의 종을 남김없이 뽑아내는데, 소모관이 방금 내려와서 번갈아 수색하는 일이 거의 쉬는 날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으니, 국가가 부흥되어야 할 시기에 바라는 바 실망이 커서 한 모퉁이에 있는 외로운 신하로서는 북쪽을 바라보며 통탄하며, 마음은 죽고 형태만 남아 있다.

지난해 분부한 서장에 "각 고을에서 도망한 군사들이 있어도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친족이나 이웃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일체 면하라"고 했다.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나 이같이 위태롭고 어려운 날을 당하여 수졸 한 명은 무던히 평시의 백 명에 적합한 것인데, 한번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모두 다 면제될 꾀를 품기 때문에 지난 달에는 열 명이나 유방군을 보내던 고을이 이번 달에는 겨우 서너 명을 보내고 있으며, 어제 열 명이 있던 유방군이 오늘 너댓 명 안이므로 몇 달 내에 수자리를 지키는 일이 날로 비어 진포의 장수들이 속수무책일 것인 바, 배를 타고 적을 토멸함에 무엇을 힘입어 제어할 것이며, 성을 지켜 항전함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만일 전례를 지켜 책임수량을 채운다면 분부를 어기게 될 것이며, 분부를 준수한다면 수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을 것으로, 이 두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체찰사에게 보고하였던 바, 회답 공문에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폐단은 백성을 괴롭히는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므로 임금의 분부대로 단연히 준수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고한 의견도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니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데 양편이 다 좋은 일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고을 관원들에게 "사람이 죽고 자손이 끊어진 호구를 도목장에서 뽑아 없애 버리도록 하라"고 통고하였다.

대체로 보아 변방에서 한번 실패하면 그 해독이 중앙에까지 미치는 실례는 이미 경험한 일이다.

하물며 본도에 분산된 방위군의 수는 경상도와 같지 않고, 매번 방비에 임하는 군사가 큰 진이 많아야 320여 명을 넘지 못하고, 작은 보에는 150여 명도 차지 못하는 데, 그 중에서 도망하거나 죽은 지 오래된 채 정리되지 않은 자가 십중팔구이며,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는 태반이 늙고 쇠약한 사람이므로 만일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전적으로 면제한다면 성을 지키고 배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조처가 없을 것이므로 지극히 민망할 뿐 아니라, 이번에 도착된 것으로 비변사에서 분부를 받고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근래에 와서

적을 토멸하는 데는 해전을 당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전선의 수를 넉넉하게 더 만들도록 하라"고 한 바, 전선은 비변사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영과 여러 진포에 명령하여 많은 수를 더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척의 전선에 사부와 격군을 아울러서 130여 명의 군사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더욱 민망하니, 위의 "친족에게 징발하는 일들"을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전과 같이 시행하되, 조금씩 좋고 나쁜 점을 가려내어 백성의 원성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당연한 급선무이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다시 헤아려 생각하고, 우선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 한 명령을 중지하여 길이 남쪽 변방을 회복하는 기초가 온전해지도록 해야겠다.

수군으로 방비에 임하는 수가 저같이 너무 적는데, 방비 임무에 결석하여 죄를 지은 무리들이 혹은 소모군에 붙으며, 혹은 다투어 의병에 붙어서 어느 쪽이든지 소속되는 바, 지금같이 봄철의 방비가 매우 급한 때에 방어하는 군사를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할 뜻은 없으므로, 일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도록 각별히 널리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리도록 해야겠다.

겨울 석 달 동안에 사색 제방군은 평시에는 그대로 있다가 전적으로

사변이 일어날 때 쓰이는 보충군이거니와, 이런 큰 사변을 당하여서는
정규군도 많지 않데다가 또 사색 군졸마저 면제해 비리면 더욱
방비할 길이 없다.

해상으로 출전한 여가에 전선을 보수하고 병비를 조련하는 일들이
전혀 수졸들의 책임이므로, 사색 제방군 등을 육군과 함께 방위
임무에서 면제하지 말고 남김없이 방위에 임하도록 각 진포에 아울러
검칙하였으며, 순찰사에게도 공문을 보내었음을 갖추어 아뢰었다.

계사년 1월 (1593년 1월)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월22일[정축/2월22일]

「장계」에서

지난 임진년 12월28일에 성첩된 우부승지 유몽정의 서장을 선전관 채진(蔡津)이 받들고 온 것을1) 오늘 열 시에 본영에서 받아 보았다.

내용은, "명나라 대장 이 제독(李제독)이 수십만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방금 왜적을 탕평할 계획으로 기성(평양)·해서(황해도) 및 서울을 차례로 수복했는데, 대군사가 진격하면서 마구 무찌르면 남은 왜적들은 도망쳐 돌아갈 것이므로 적의 돌아갈 길을 끊고 섬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경은 수군을 거느리고 기회를 잡아서 길목을 누르고 협력하여 적을 무찔러 죽이도록 하라"는 분부였다.

2)

오늘 10시쯤에 장계하였다.

3)

1월25일[경진/2월25일]

「장계」에서

선전관 안세걸이 받들고 온 좌부승지(이국)의 서장을 오늘 오전 여덟시에 본영에서 받아 보았다.

4)

"명나라 장수 제독부의 제독 이여송이 쉰 명의 장수와 수십만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곧장 평양을 공격하여5) 이 달 초여드레에 적의 소굴을 탕복하고 왜장을 사로잡아 목을 베어 우레처럼 소리치며 바람같이 마치 그 형세가 대를 쪼개는 것과도 같이 장차 차례로 진토하여 수레바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기약하는 바이니, 그대는 수군을 정비하여 힘을 가다듬어 기회를 기다려서 그들의 귀로를 막아서 해전으로 죄다 죽이고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도록 하라"6)고 했다.

1월26일[신사/2월26일]

「장계」에서

영남에 진치고 있던 적들이 본도를 침범코자 수륙으로 엿보고 있는 바, 비록 해전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육전의 방비에도 마음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어서 호남과의 접경인 구례·석주·도탄·광양·두치·강탄 등의 요충지에 복병을 두어 파수보는 일들을 조력하고, 신칙하여 적들로 하여금 끝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작년 8·9월사이에 근처의 각 고을에 통고하여 여러 절간에

숨어있는 중들과, 병적에 올리지 않고 놓고 있는 자를 남김없이 적발하여 석주·도탄·두치 등지에 나누어 파수보도록 신칙하였을 무렵 중들이 소문을 듣고 기꺼이 모여들어 한 달도 못되어 사백여 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용락이 있는 자들로서 순천의 삼해를 시호별도장으로, 흥양의 의능을 유격별도장으로, 광양의 성휘를 우돌격장으로, 광주의 신해를 좌돌격장으로, 곡성의 지원을 양병용격장으로 모두 정하고 나서, 달리 더 소집할 무렵에 구례의 진사 방처인, 광양의 한량 강희열, 순천의 보인 성응지 등이 분개하여 탄식하면서 의기를 분발하여 시골 사람들을 규합하고 각각 의병을 일으켰으므로 방처인을 도탄으로, 강희열과 중 성휘 등을 두치로, 중 신해를 석주로, 중 지원을 운봉 팔양치로 보내어 모두 요충지를 파수케 하여 군관과 협력하여 사변에 대비하도록 전령하고, 성응지에게 순천성을 수비하는 책임을 맡기고, 중 삼해를 순천에 머물러 있게 하고, 중 의능은 본영에 머물면서 방비하고 있다가 적세의 경중을 보아서 육전이 중대하면 곧 육전에 임하고, 해전이 중대하면 곧 해전에 임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도망치는 적의 대부대를 모조리 무찌르자면 병세가 고약해서 안되겠기에 수군을 넉넉히 정비하고 의병장 성응지와 승장 삼해·의능 등에게도 전선을 나누어 주어 수리해서 나누어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도록 명령하였음을 장계하였다.

7)

영남의 피난민들이 본영 경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이 이백여 호 이상이나 되는데, 각각 임시로 살 수 있도록 하여 겨울을 지내게 하였으나, 지금은 구호할 물자를 마련할 수가 없다.

비록 사변이 평정된 뒤에는 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눈 앞에서 굶주리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풍원부원군 유성룡에게 보낸 서장에 따라 비변사의 공문이 전일 도착했는데, "이번에 여러 성중에서 피난하여 농사지을 만한 땅이 있으면 피난민을 들여 보내어 살 수 있게 하되, 편안 여부를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나는 피난민들이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보니, 돌산도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이 섬은 본영과 방답 사이에 놓여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적이 들어올 길이 사방으로 막혔으며, 지세가 넓고 편편하고 토질이 비옥하므로 피난민을 타일러서 차츰 들어가서 살게 하여 방금 봄갈이를 시키었다.

다만 전어사 홍종록과 감사 윤두수, 수사 박선과 이천·이영 등이 본영의 둔전 경영에 관한 일을 장계하였을 때, 병조에서는 "목장이 있는 곳으로서 말 기르는 일에 방해된다"고 장계 올리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일이 어지럽고 백성도 살 곳을 잃었으므로, 비록 의지할 곳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 농사짓게 하더라도 말 먹이는 일에 해로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마구민(牧馬救民)하면 양편이 다 편리할까 하여 망녕되이 생각하였음을 삼가 갖추어 아뢰었다.

8)

본영과 진포에 있는 화약은 기본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전선에 나누어 싣고 다섯 번이나 영남 해역으로 출전하여 거의 다 소아 버렸다.

더구나 본도 순찰사· 방어사· 소모사· 소모관 및 여러 의병장과 경상도 순찰사 및 수사들의 청구도 번거로울 정도로 많아서 달리 쌓아둔 것이 너무 적다.

그런데 옮겨 받을 곳이 없고, 또 보충할 길이 없어서 백방으로 생각했으나 별다른 계책이 없으므로 본영에서 경우에 따라 끓여서 사용할 즘음에, 군과 훈련주부 이봉수(李鳳壽)가 그 묘법을 알아내어 석달 동안에 염초 천 근을 끓여내었으므로 그 염초를 조합하여 본영과 각 포구에 고루 나누어 주었거니와, 오직 석류황만은 달리 나올 곳이 없어 백 여 근쯤 내려보내 달라고 장계를 써 올렸다.

9)

1월30일[을유/3월2일]

「장계」에서

소속 수군들이 모두 모여 와서 약속했지만, 풍세가 불순하여 출항하지 못하고 순풍을 기다렸다.

10)

1) 조성도, 『임진장초』, 「狀 20」,

"去壬辰十二月二十八日成貼宣傳官察津貴來右福承旨書狀內".

2) 『李忠武公全書』 券首, 「教諭」12쪽,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一)」

3) 조성도, 위의 책, 105쪽, 318쪽, "今正月二十二日己時"

4) 「장계」108쪽, 319쪽, "今正月二十五日辰時"

5) 이어송은 군사 43,000여 명을 거느리고 임진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 계사년 1월 8일 평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6) 『이충무공전서』, 卷首, 「教諭」12~13쪽,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二)」.

- 7) ① 「장계」 卷首, 13쪽 ② 위의 책, 권3, 「狀啓」 1쪽,
「分送義僧把守要害狀」 ③ 조성도, 앞의 책, 102쪽, 314~15쪽.
- 8) ① 조성도, 위의 책, 104쪽, 316~17쪽 ②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1~3쪽, 「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
- 9) ①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1쪽, 「請賜硫黃狀」 ② 조성도,
위의 책, 100쪽, 313쪽.
- 10)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3쪽, 「令水陸各諸將直搗熊川狀」.

계사년 2월 (1593년 2월)

2월1일[병술/3월3일]

종일 비오다.

발포만호(황정록) · 여도권관(김인영) · 순천부사(권준)가 와서 모였다.

발포진무 최이가 두 번이나 군법을 어기었으므로 군율로써 처형했다.

2월2일[정해/3월4일]늦게야 개이다.

녹도가장 · 사도첨사(김완) · 응양현감(배흥립) 등의 배가 왔다.

낙안군수(신호)도 왔다.

2월3일[무자/3월5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보성군수(김득광)가 미처 못온 것이
섭섭하다.

오후 여덟 시쯤부터 비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호하였다.

2월4일[기축/3월6일]

늦게야 개이다.

성 동쪽이 아홉 발이나 무너졌다.

객사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오후 여섯 시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바람조차 몹시 사납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호하였다.

2월5일[경인/3월7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가 늦게야 개이다.

경칩날이라 독제를 지냈다.

아침밥을 먹은 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군수(김득광)가 밤을 새워 육지를 거쳐 달려 왔다.

잡아들여 기일을 어긴 죄를 묻고, 그 대장(代將)을 처벌했다.

저녁에 이언형이 아뢰고 돌아갔다.

2월6일[신묘/3월8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야 개이다.

날이 밝자 배를 풀고 돛을 올렸으나1), 정오 때에 맞바람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랑에 이르러 머물렀다.

2월7일[임진/3월9일]

맑다.

새벽에 떠나 곧장 견내량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기숙함도 와서 보고, 이영남·이여념도 왔다.

2월8일[계사/3월10일]

맑다.

아침에 영남우수사가 내 배에 와서 전라우수사의 기약 어긴 잘못을
몹시 탓하고는 지금 먼저 떠나자고 한다.

나는 애써 말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 안으로 도착할 겁니다.

"고 언약을 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달고 다가오므로 모든
진중의 장병들이 바라보고는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후 네 시쯤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온천도(칠천도)에 이르렀다.

2월9일[갑오/3월11일]

종일 많은 비가 오다.

그대로 머물러 출항하지 않았다.

2월10일[을미/3월12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다.

오전 여섯 시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웅포에 이르니 적선이 줄지어 정박했는데, 두 번이나 유인했으나 진작부터 우리 수군을 겁내어 나올 듯하다가도 돌아가 버리므로 끝내 잡아 없애지 못했다.

참으로 분하다.

밤 열 시쯤에 도로 영등포 뒤 소진포(장목면 송진포)에 이르러 계류하고서 밤을 지냈다.

2월11일[병신/3월13일]

흐리다.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2월12일[정유/3월14일]

아침엔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는 개이다.

삼도의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웅포에 이르니,
왜적들은 어제와 같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유인했지만 끝내 바다로 나오지 않는다.

두번이나 뒤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하니 너무도 분하다.

저녁에 칠천도에 이르자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2월13일[무술/3월15일]

비가 창대같이 오다.

적 토벌에 관해 의논할 일로

순천부사(권준)·광양현감(어영담)·방답첨사를 불러 이야기했다.

정담수가 와서 봤다.

2월14일[기해/3월16일]

맑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후선이 와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삼도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우수사는 병으로 모이지 않고, 전라 좌·우도의 장수들만이 모여 약속하는데, 다만 우후가 술에 취하여 마구 지껄이며 떠드니 그 기막힌 꼴을 어찌 다 말하랴.

어란포만호 정담수, 남도포만호 강응표도 역시 그랬다.

이렇게 큰 적을 맞아 무찌르는 일로 모이는 자리에 술에 만취되어 이렇게까지 되니, 그 인물됨이야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가덕첨사 전응린이 와서 봤다.

2월15일[경자/3월17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에 비오다.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잦다.

과녁을 걸고 활을 쏘았다.

순천부사·광양현감·사랑만호·소비포권관·영등포만호가 또 왔다.

이 날 순찰사(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해질녘에 원균이 와서 봤다.

2월16일[신축/3월18일]

늦은 아침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봤다.

순천부사·방답첨사도 와서 봤다.

밤 열 시쯤에 신환(愼環)과 김대복이 교서 두 장과 부찰사의 공문을 가져 왔는데 보니,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松都)를 치고, 이 달 초엿새날에는 마땅히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몰시키겠다고 하였다.

2월17일[임인/3월19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종일 섯바람이 불었다.

이영남·허정은·정담수·강응표 등이 와서 봤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에게 가 봤다.

새로 온 진도군수 성언길을 봤다.

우수사와 함께 영남우수사(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님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노를 바삐 저어 진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선전관을 만났으므로 급히 배 위로 맞아들여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급히 적의 퇴로를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라"는 것이었다.

2월18일[계묘/3월20일]

이른 아침에 출항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형세는 여전하다.

여도만호 · 녹도가장 · 좌우별도장 · 좌우돌격장 · 광양이선 · 흥양대장 ·
방답이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진해시 웅천2동)에 복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로 하여금 유인케 하니, 과연 적선 10여 척이 따라 나왔다.

적의 기세가 크게 꺾이어져 다시는 나와서 항거하지 않는다.

「장계」에서

등이 적선 세 척을 끝까지 쫓아가서 세 척에 타고 있던 백 여명의 왜적을 거의 다 사살하였는데, 그 중에 금빛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은 자가 크게 외치면서 노를 재촉하다가 피령전을 맞고 곧 배 안에 엎어졌으며, 거의 그 배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미 깊은 곳에 들어갔으므로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임치통선이 곁에서 싸움을 돕다가 물에 빠지는 왜놈의 머리 한 급을 베었다.

2월19일[갑진/3월21일]

맑다.

하늬바람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쳤다.

남해현령이 와서 봤다.

고여우와 이효가도 와서 봤다.

2월20일[을사/3월22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자 셋바람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 배들이 서로 부딪치고 깨어질 지경이었다.

거의 배를 감당할 수조차 없다.

곧 호각을 불게 하고 초요기(지휘기)를 올려 싸움을 중지시키니,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소진포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이 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부사(권준)가 한 마리를 잡아 보냈다.

「장계」에서

지난 10·12·18·20일에 모든 수군이 혹은 복병을 보내어 유인하기도 하고 드나들기도 하면서 도전하였을 때, 적들은 우리 수군의 위세에 놀려 바다 가운데로는 나오지 못하고, 언제나 가볍고 빠른 배로써 별안간 포구로 나왔다가는 추격하면 빨리 돌려서 으스스한 곳으로 들어갔다.

철환을 빗발치듯 쏘면서 교만한 꼴을 보이므로, 우리 전선이 대열을 나누고 떼를 지어 좌우로 일제히 진격하여 총통과 화살을 번갈아 쏘니 그 형세가 바람같고 우레같았다.

이렇게 하기를 하루에 두 세 차례씩 반복함에 사살되어 엮어져 넘어진 놈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적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그러나 그곳의 험한 설비가 의심스러워 포구 안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물으로 올라가 추격하여 죽이지도 못하여 늘 분개한 마음
뿐이다.

2)

2월21일[병오/3월23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이영남 · 이여념이 와서 봤다.

우수사 원균과 순천부사 · 광양현감도 와서 봤다.

저녁에 비가 오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그쳤다.

2월22일[정미/3월24일]

새벽에 구름이 검더니 섯바람이 세게 불다.

적을 무찌르는 일이 급하므로 출항하여 사화랑에 이르러 바람 멎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바람이 멎는 듯하므로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삼혜와 의능
두 승장과 의병 성응지를 제포(진해시 웅천2동)로 보내어 곧 상륙을
하는 체하게 하고, 또 우도의 여러 장수들의 배들도 시원치 않은

배들을 골라서 동쪽으로 보내어 곧 상륙하는 체하게 했더니 왜적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한다.

이 틈을 타서 모든 배를 몰아 일시에 무찌르니, 적들은 세력이 분산되고 약해져서 거의 섬멸하게 되었는데, 발포의 두 배와 가리포의 두 배가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돌입하다가 그만 얇은 곳에 얹혀(좌초)3) 적에게 습격받은 것은 참으로 통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진도의 좋은 배 한 척도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하게 되지 못하게 될 즈음에 우후가 곧장 달려가 구해냈다.

경상좌위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그 과심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참으로 통분하다.

오늘의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랴.

모두 경상우수사(원균)의 탓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로 돌아와서 잤다.

아산에서 뇌와 분의 편지가 웅천 진중에 왔고, 어머니도 편지도 왔다.

2월23일[무신/3월25일]

흐르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봤다.

그 음흉함을 이를 길이 없다.

최천보가 양화진(고양시)에서 와서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조도어사의 편지도 전했다.

2월24일[기유/3월26일]

맑다.

새벽에 온양 · 아산 편지와 집안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니 비가 몹시 퍼부어 곧장 다다를 수 없으므로 배를 돌려 칠천량으로 돌아왔다.

2월25일[경술/3월27일]

맑다.

풍세가 불순하므로 그대로 칠천량에 머물렀다.

2월26일[신해/3월28일]

바람이 세게 불다.

그대로 머물렀다.

2월27일[임자/3월29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이야기했다.

2월28일[계축/3월30일]

맑으며 바람조차 없다.

새벽에 출항하여 가덕에 이르니 웅천의 적들은 기가 죽어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 아래쪽 독사리목(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으로
향하는데, 우부장이 번고를 알리므로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달려가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경상수사 원균의 군관의 배와
가덕침사의 사후선(척후선)등 두 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는데 그
짓거리가 황당했다.

두 배를 붙잡아 매어 경상수사 원균에게 보냈던 바, 수사(원균)가
크게 성을 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본의는 군관을 보내어 어부들의 목을 찾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이 왔다.

사화랑에서 잤다.

2월29일[갑인/3월31일]

흐리다.

바람이 몹시 불까 염려되어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우수사 이억기가 와서 봤다.

경상우수사(원균)도 와서 봤다.

2월30일[을묘/4월1일]

종일 비오다.

봉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 『이충무공전서』 권1, 「狀啓」 2,
「令水陸자諸將直搗熊川狀」 3쪽에는 "2일에 출항(初二日發行)",
「장계」 4쪽 「討賊狀」 에는 "6일 출항(初六日發船)" 하였다고 했는 바,
1월 30일~2월 5일까지의 날씨로 보아 2일의 출항은 불가능하고, 6일
출항이 맞다고 봄.

2)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4~5쪽.

3)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 25쪽.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

"우리 판옥선 두 척이 서로 부딪쳐 넘어지자 왜의 부장이 우리 배에
뛰어 올랐는데, 우리 뱃사람들이 긴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

(我國板屋船二雙相觸翻覆 倭福將稱號者跳登我船

我船之人以長槍刺其胸卽死)"라고 하였음.

계사년 3월 (1593년 3월)

3월1일[병진/4월2일]

잠깐 맑다가 저녁에 비오다.

방답첨사(이순신)가 왔다.

순천부사(권준)는 병으로 오지 못했다.

3월2일[정사/4월3일]

온종일 비오다.

배의 봉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온갖 회포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 마음이 어지럽다.

이영남·이여념이 와서 원균의 비리를 들으니, 실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3월3일[무오/4월4일]

아침에 비오다.

오늘은 답청하는 날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아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며, 또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에 들어 왔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니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3월4일[기미/4월5일]

개었다.

소문을 들으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송도까지 왔다가
북로(함경도)쪽으로 간 왜적들이 설한령을 넘었다는 말을 듣고 서관
(평안도)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3월5일[경신/4월6일]

맑다.

바람기가 매우 사납다.

순천부사(권준)가 병으로 도로 돌아간다가에 아침에 몸소 배웅하여 보냈다.

탐후선이 왔다.

내일로 적을 치자고 약속하였다.

3월6일[신유/4월7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도들은 바쁘게 물으로 도망쳐 산중턱에 진을 쳤으므로, 군관들이 철환과 편전을 비오듯 마구 쏘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다.

포로되었던 사천 여인 한 명을 빼앗아 왔다.

칠천량에서 잤다.

3월7일[임술/4월8일]

맑다.

우수사(이억기)와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출항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날이 이미 새었다.

3월8일[계해/4월9일]

맑다.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고 나니

광양현감(어영담) · 낙안군수 · 방답첨사(이순신)가 왔다.

방답첨사와 광양현감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고, 우수사(이억기)도

오고, 어란만호(정담수)도 쇠고기1)로 만든 음식 몇 가지를 보내 왔다.

저녁에 비가 왔다.

3월9일[갑자/4월10일]

긋은비가 종일 오다.

원식이 와서 봤다.

3월10일[을축/4월11일]

맑다.

사량으로 가는 낙안 사람이 행재소에서 와서 전하는 말이, "명나라

군사들이 진작 송도까지 왔지만, 연일 비가 와서 길이 질므로

행군하기가 어려워 날이 개기를 기다려서 서울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는 그 기쁨을 이길 길 없다.

첨사 이홍명이 와서 봤다.

「장계」에서

사랑 앞바다로 퇴진하여 화선을 준비했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오래 머뭇거리는 것을 생각해 보니, 적선만
분멸하다가는 궁지에 몰린 도적들이 화풀이를 우리 백성들에게 할
것이므로 아직 화선으로 공격하는 일을 중지하고 웅천에는 복병선을
정하여 보냈다.

2)

3월11일[병인/4월12일]

맑다.

본영의 탐후선이 왔다.

3월12일[정묘/4월13일]

맑다.

아침에 각 고을에 공문을 써 보냈다.

아들 염과 나대용 · 김인문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이억기)와 바둑을 두었다.

3월13일[무진/4월14일]

비가 많이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개이다.

우수사 이억기와 첨사 이홍명이 바둑을 두었다.

3월14일[기사/4월15일]

맑다.

각 배를 출동시켜 배 만들 재목을 실어 왔다.

3월15일[경오/4월16일]

맑다.

우수사와 함께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많이 이겼다.

그리하여 우수사가 떡과 술을 장만하여 왔다.

3월16일[신미/4월16일]

저녁 나절에야 맑다.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았는데, 우리 편 여러 장수들이 역시 이겼다.

3월17일[임신/4월18일]

맑으며 종일 센 바람이 불다.

신경황이 와서 전하기를,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선전관(채진·안세걸)이 본영에 왔다"고 했다.

3월18일[계유/4월19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사람이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남해현령 기효근이 와서 봤다.

3월19일[갑술/4월20일]

비오다.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3월20일[을해/4월21일]

맑다.

오후에 소문을 들으니,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3월21일[병자/4월22일]

맑다.

3월22일[정축/4월23일]

맑다.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 '도림(挑林)'은 '쇠고기'이며, 사찰에서는 '도림채(挑林菜)'라고도 함.

2)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6쪽, 「討賊狀」.

4월기록에없음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계사년 4월 (1593년 4월)

4월6일[경인/5월3일]

「장계」에서

이 달 4월3일에 이억기와 약속하고 본도(전라도)로 돌아왔으며, 접전할 때 철환을 맞아 다친 사람들을 발포통선의 전사자와 한꺼번에 기록하여 장계했다.

1)

선행이 없는 내가 외람되이 중책을 맡아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티끌만한 공로나마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작년 여름과 가을에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린 흉적들이 수륙으로 침범할 때에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번 승첩하여, 거느린 군사들이 승첩한 기세를 타고 교만한 기운이 날로 더하여 앞다투어 돌진하며 오직 뒤쳐질까 두려워하므로 재삼 신칙하여 "적을 가벼이 이기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경계하지 않더니만 마침내 통선 한 척이 전복되어 많은 사망자를 생기게 하였다.

이것은 내가 군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좋지 못하고 잘못 지휘한 때문이므로 지극히 황송하여 거적자리에 엎드려 죄를 기다렸다.

2)

또 소속된 수군은 단지 5개 고을과 5개 진포로써 흥양현감 배흥립은

순찰사가 육전으로 데려가고, 보성군수 김득광은 일찍이 두치(하동읍 두곡리)의 북병장으로 파견되었다가 이번에 수군으로 되돌아 왔으며, 녹도만호 송여종은 군량을 운반하는 차사원으로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나머지 순천·광양·낙안·보성 등 고을의 수령과 방답·사도·여도·발포 등의 진장들로서 여러 책임 장수로 배정했으나 오히려 부족한데, 도내에 왕명을 받은 장수들이 위 수군의 장수들을 육전으로 이동시킨다거나, 혹은 명령을 들었다 하면서 전령을 내어 소란하게 찾아서 잡아내는 바, 달리 수군과 육군을 나누어 배정할 뜻이 없을 뿐 아니라 동서로 분주하여 어디로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명령이 여러 군데서 나오므로 호령이 시행되지 못하고, 극성스러운 일이므로 앞으로는 수순에 소속된 수령과 변방 장수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해전에 소속시키도록 조정에서는 각별히 본도 감사(권율)·병사(선거이)·방어사(이복남)·조방장(조위) 등에게 신칙해 주도록 따로 장계했다.

3)

4월8일[임진/5월8일]

「장계」에서

광양현에 사는 김두 등 126명의 연명으로 된 호소문에,

"이 고을의 원이 자주 전출입하므로 새로 도입하는 원을 맞이하고 전출하는 원을 송별하는 일로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차버린 고을이 되겠다.

그런데 현감이 도입하여 즉시 질고를 묻고 폐정을 개혁하며, 병기를 수선하여 비치하고, 나라를 근심함이 자기집같이 하므로 지난날 도망해 흩어진 자들도 소문을 듣고 돌아와 모이기 되어 경내에는 편안해졌는데, 작년 4월영남 접경에서 일어난 사변으로 하동·곤양·남해 등지의 백성들이 거의 다 달아났기 때문에 인심이 동요되어 모두 흩어지려는 뜻을 품고 집을 지고 나섰다.

이때 아마 침착하고 도량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진정시키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현감은 성품과 도량이 정중하며, 의심이나 유혹됨이 없고, 성을 지키며 해전과 방어하는 책략에 상세히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두치와 강탄을 파수하는 일들을 일시에 함께 실행하며, 적에 대항해야 하는 이치를 순순히 타일러서, 모여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안정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여러 번 출전할 때마다 제몹을
잇고 앞장서서 돌진하여 왜적을 섬멸한 공로가 이미 월등하므로
당상에까지 승진하였다.

그런데 지난 1월27일 출전한 뒤에 독운어사(임발영)가 여러 고을을
순찰하여 각 고을의 창고의 곡식을 뒤적거리면서 조사하여 그 수량만
알고 운반해 가는 데만 전력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고을에는 장부에 기록된 회계수량 밖에 쌀·콩·벼 등
육백 여 섬을 평상시에 저장해두고 혹은 군량에 보태어 쓰기도 하며
혹은 고을 백성들을 구휼하기도 하였다.

유위장도 그 쌀,콩,벼 등을 전혀 씨나락과 구호미로 쓰고 도목장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독운어사가 현감이 없을 때 고을에 와서 창고의
물건을 조사하면서 도목장 이외에 저장해 둔 원 수량 이외의
곡식이니, 현감이 사사로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장계하고, 곧
구례현감을 차원으로 명하여 봉고하였는 바, 씨나락과 구호미를 모두
바랄 수 없게 되었다.

농사철이 지나 논밭이 황폐해지면 금년과 내년에 실어 보낼 곡식은
반출할 것이 없어 극히 민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현감도 임금께서 서쪽으로 몽진한 뒤에 필요한 물자를 대기가 어려울
것을 민망히 여겨 원수량 외의 백미 예순 섬과 다른 잡물을 함께
배에 실어 올려 보냈는데, 현감이 그것을 사사로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성의를 다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범하지 않는 일에 걸리어 장차 갈리게 되니, 온 고을의 백성들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순찰사는 멀리 서울지구에 주재하여 바닷가의 백성들은 민망함을 호소할 곳이 없으므로 도에 와서 호소문을 제출하는 것이니, 속히 이 뜻을 장계하여 군사와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바란다"는 소장이었다.

광양현은 영남과 접경한 곳인데 사변이 일어난 뒤에 인심이 흉흉하여 모두 흩어져 달아날 꾀만 품고 있는데, 어영담이 이를 진정시켜 편안케 하여 마침 온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옛과 같이 그들이 있던 곳에서 편안히 살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경상도와 전라도의 변장으로 임용되어 물길의 형세를 잘 알아서 모르는 것이 없으며, 계교와 생각함이 뛰어난 사람이므로 중부장으로 정하여 함께 일을 의논하며 계획하였으며, 여러 번 적을 무찌를 때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호남 한쪽이 이제까지 온전히 보호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일부분의 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독운어사의 장계대로 본직이 갈린다고 하는 바, 창고의 곡식이 더하고 덜한 것은 내가 잘 알 수 없는 일이거니와, 대개 어영담은 지난 2월 초엿새 우리가 출전할 때 거느리고 나가 거제와 웅천 등지에서 진을 쳤으므로, 독운어사가 그 고을에 들어가서 각종 곡식을

조사할 때의 여러 안건들을 그 고을 유위장이 전담하여 제출한 것이니, 비록 그 수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같이 몹시 어려운 때를 맞아 의기있는 장수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은 적을 방어함에 해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해전은 사람마다 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시기에 다달아 장수를 바꾼다는 것은 또한 군사상 좋은 계책이 아니다.

더구나 민심도 이러한 바,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는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두어서, 한편으로 해상으로 침범하는 적을 막고, 한편으로는 어린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주도록 할까 하여 조정에서 잘 처리해 주도록 아뢰었다.

이일은 내가 품의할 바는 아니나, 순찰사(권율)와 도사(최철건)가 각각 먼 곳에 있고, 도망치는 큰 부대의 적을 차단하여 섬멸하는 것이 급한 일인데, 잔약한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는 호소를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엎드려 죄를 무릅쓰고 죽기를 마다 않고 장계했다.

4)

4월10일[갑오 5월10일]

「장계」에서

전일 "친족에게 미치는 폐단 때문에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대총 징발하지 말라" 하신 분부에 따라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했으므로, 간략하게 좋고 나쁜 점을 여거하여 먼저 체찰사에게 보고하고 그 회답을 받은 뒤에 의견을 낱낱이 열거하여 장계하였거니와 대개 수군은 육군에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호구 네 장정 중에 떠돌이가 절반이 넘으므로 폐단을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려면 변방을 지키러 갈 사람이 없으며, 분부대로 변방을 굳게 지키려면 백성들이 매우 쇠약하여 병들게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친족에게 대총 징발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던 것은 이미 그렇게 해 오던 것이므로, 각 고을에도 "죽어서 자손이 끊어진 호구를 일체 징발하지 말고, 본인 및 친족과 이웃이 이것을 미끼로 삼아 숨어서 피한 자를 전례대로 도목장에 기록하여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 독운어사 임발영이 내려온 뒤에는 일체 군무에 관한 일과 "친족에게 대총 징발하지 말라"는 일을 분부대로만 시행하므로 각 고을에서는 그 이론에만 의거하여 방비에 보낸 군사를 보낼 뜻이 없다.

또 각 고을의 군사와 아전들도 그 이론대로 숨겨두고서 공교롭게 기피할 꾀만 내어 도망했다가 살아 온 것을 죽었다고 하니,군령이

크게 무너져 수습할 방도가 없으며, 군사의 수가 날로 줄어도 군사를 뽑아낼 수가 없어 연해안의 중요한 지역이 일시에 텅 비게 되고, 대장이 있는 큰 진에도 장차 성문을 지킬 군졸이 없게 될 것이니, 방어의 허점이 사변을 겪은 지역보다 더 심한 편이어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한 일은 평시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이같은 큰 사변을 맞은 때 극악한 적을 제거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서로 겨루고 있으므로, 도망치는 적을 무슨 힘으로 길목을 막아 죽이며, 성을 지킴에 계속 도와야 하는 일을 무슨 힘으로 조치할까.

일에는 경중이 있고 시기에는 완급이 있다.

굳이 불가하면 한 때의 폐단 때문에 길이 후회할 일을 아릴 수는 없다.

이는 이미 지난날 경험한 일이다.

호남 한쪽이 오늘까지 온전한 것은 오직 수군의 큰 힘에 된 것일 뿐 아니라, 나라를 회복할 기기도 또한 이 때 있으니.

"친족이나 이웃에게 대충 징발하는 폐단을 중지하는 것"은 사변을 평정한 뒤에도 늦지 않을 것이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 조정에서 전후 장계를 참작하여 외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양편이 다 편하도록 장계를 써 올렸다.

1) ①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 8쪽, 「討賊狀」.

② 조성도 『壬辰狀草』, 120쪽, 321쪽.

2) ①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8쪽, 「統船一雙傾覆後待罪狀」

② 조성도, 『임진장초』, 121쪽.

322쪽.

3) ①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 8~9쪽, 「淸舟師屬邑守令專水戰狀」 ② 조성도, 앞의 책,

122쪽, 333쪽.

4)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 9~11쪽, 「淸光陽縣監魚泳潭仍任狀」.

5) 『이충무공전서』, 11~12쪽, 「申靑反汗一族勿侵之命狀」 ② 조성도,

앞의 책, 114쪽, 326쪽.

계사년 5월 (1953년 5월)

5월1일[갑인/5월30일]

맑다.

새벽에 망꺠례를 하였다.

5월2일[을묘/5월31일]

맑다.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군수(김득광) · 발포만호(황정록)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나머지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물렸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

5월3일[병진/6월1일]

맑다.

우수사(이억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수군들이 많이 뒤떨어져 탄식스럽다.

선전관 이춘영이 돌아가고, 이순일이 왔다.

5월4일[정사/6월2일]

맑다.

오늘이 곧 어머니 생신날이건만 가서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되겠다.

5월5일[무오/6월3일]

맑다.

선전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다.

저녁 나절에 군관들을 편 갈라 활을 쏘게 하였다.

5월6일[기미/6월4일]

흐린 뒤에 비오다.

아침에 친척 신정과 조카 봉이 게바우개에서 왔다.

저녁 나절에 퍼붓듯 내리는 비가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내와 개울물이 넘쳐 흘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니 참으로 다행이다.

5월7일[경신/6월5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배를 타고 미조항으로 향하는데,

셋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산갈아 간신히 이르러 대었다.

5월8일[신유/6월6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새벽에 출항하여 사랑 바다 가운데에 이르니, 만호(이여념)가

나오므로 우수사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남해군 창선도)에

있다고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곧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와서 보고 수사(원균)의 망녕된 짓이 많음을 자세히 말한다.

5월9일[임술/6월7일]

흐리다.

아침에 출항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바람이 불순하다.

우수사(이억기) · 가리포첨사(구사직)와 한 자리에 앉아 작전을 토의했다.

저녁에 수사 원균이 배 두 척을 거느리고 왔다.

5월10일[계해/6월8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러 흥양(고흥)의 군사를 점검했다.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왔다.

"부산으로 후퇴하여 돌아가는 왜적을 무찌르라"는 것이다.

저녁에 영남우후 이의득이 와서 봤다.

5월11일[갑자/6월9일]

맑다.

선전관이 돌아갔다.

영등포(거제군 장목면 구영리)로 적정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가덕도 앞바다에 적선이 무려 이백 여 척이나 머물면서 드나들며 웅천에는 전일과 같다"고 했다.

5월12일[을축/6월10일]

맑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냈다.

영남에서 온 선전관 성문개가 와서 봤다.

1) 흑각궁 · 과녁 · 화살을 성문개에게 주어 보냈다.

성문개는 순변사 이일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좌 · 우도 체탐인을 정하여 영등포 등지로 보냈다.

5월13일[병인/6월11일]

맑다.

작은 산봉우리에 과녁을 쳐 매달아놓고 여러 장수들이 편을 갈라
활을 쏘아 자웅을 겨루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달빛은 배에 가득 차고,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홀로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에 닳이 올 때에야 풋잠이 들었다.

5월14일[정묘/6월12일]

맑다.

선전관 박진종과 선전관 영산령복윤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함께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군사들의 하는 짓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나는 우수사(이억기)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두어 순 배 돌리자, 영남우수사 원균이 나타나서 술주정을 부리니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럴 듯이 속이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저녁에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5월15일[무진/6월13일]

맑다.

아침에 낙안군수(신호)가 와서 봤다.

윤동구가 그의 대장이 장계한 초본을 가지고 와서 보이는데, 그럴
듯이 속이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와 아들 율이 봉사 윤제현과 함께 왔다.

5월16일[기사/6월14일]

맑다.

각 고을에 공문을 써 보냈다.

조카 해와 아들 회가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베개를 베고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종도에서
늦추며 머무르는 것은 무슨 교묘한 술책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나라를 위해 걱정이 많은 중에 일일이 이러하니 더욱 더
한심스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오정때 윤동구에게서 서울 관동의 숙모가 양주 천천으로 피난갔다가
거기에서 작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언제부터 세상사가 이렇게 가혹한가! 장사 지내는 일은 누가 맡아서
지내는지! 대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애통하다.

5월17일[경오/6월15일]

맑다.

새벽에 바람이 세게 불다.

변존서가 병으로 돌아갔다.

영남수사(원균)가 군관을 보내어 진양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보니 제독 이여송은 지금 충주에 있다 하고,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통분하고도 통분하다.

종일 바람이 세게 부니 마음이 어지럽다.

고성현령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수(약술 이름)와
쇠고기로 요리한 꼬치와 꿀통을 가져 왔으나, 복중이라 받자니
미안하고, 정으로 보낸 것을 의리상 돌려보낼 수도 없으므로
군관들이라고 줬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5월18일[신미/6월16일]

맑다.

이른 아침에 몸이 무척 불편하여 온백원(위장약) 네 알을 먹었더니,
조금 있다가 시원하게 설사가 나오니 좀 편안해진다.

종 목년이 게바우개(아산 해암 해포)에서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곧 답장을 써 돌려 보내며 미역 다섯 통을 함께 보냈다.

전주부윤(권율)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겸순찰사 절제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지 않았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대금산과 영등포 등지의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왜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 큰 음흉한 꾀는 없다"고 했다.

5월19일[임신/6월17일]

맑다.

순찰사의 공문에 따르면, "명나라 장수(유원외)의 때문에 의하면
부산바다 어귀는 벌써 끊어 막았다"고 했다.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다른 변고는 없다"고 했다.

5월20일[계유/6월18일]

맑다.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왜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5월21일[갑술/6월19일]

새벽에 출항하여 거제 유자도(거제군 사등면) 가운데 바다에 이르니,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왜적의 출몰이 여전하다"고 했다.

수사 원균이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어 대군을 동요케 했다.

군중에서조차 속임이 이러하니 그 흉측함을 말할 수 없다.

5월22일[을해/6월20일]

비오다.

사람들이 바라던 차에 아주 흡족하게 왔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이 본영에서 명나라 시랑 송응창의 패문을 가지고
왔는데, 송시랑이 파견한 사람이 전선을 시찰하러 들어온다고 한다.

곧 우후로 하여금 영접하도록 하고, 나대용으로 하여금 문안하는 일로
내어 보냈다.

5월23일[병자/6월21일]

새벽에 흐리고 비는 아니오더니, 저녁나절에 비가 오락가락했다.

영남우병사의 군관이 와서 적의 소식을 전하고, 또 본도(전라도)의

병마사(선거이)의 편지를 전했다.

"창원에 있는 적을 치고 싶으나, 적의 형세가 거세기 때문에 경솔히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들어온다"고 전했다.

영남수사(원균)도 명나라 관원을 접대하는 일로 와서 의논하였다.

5월24일[정축/6월22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아침에 거제 앞 칠천량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원을 사랑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과 통역 표헌과 선전관 목광흠이 함께 온다"고 한다.

오후 두 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문에 이르므로 우별도위 이설이 나가 맞아 배로 안내하여 오니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다.

우리 배로 청하여 오르게 하고, 황제의 은혜를 재삼 사례하며 마주앉기를 청하니 굳이 사양한다.

그는 앉지 않고 선 채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수군이 장하다고 매우 칭찬했다.

예물 명단을 올리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하더니 마침내 받고는

매우 기뻐하면 두번 세번 감사하다고 했다.아들 호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5월25일[무인/6월23일]

맑다.

아침에 다시 통역 표현을 청하여 명나라 장수가 무슨 말을 하던가 하고 물으니, 명나라 장수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다만 "왜적을 쫓아 보내려고만 한다"고 했다.

또 이미 말한대로 송시랑이 "수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군중 탐정2) 양보를 보낸 것인데, 수군이 이렇게도 장하니 기쁘기 한이 없다"고 했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오정에 거제현 앞 유자도 바다 어귀로 진을 옮기고서 우수사(이억기)와 작전을 토의했다.

초저녁이 지나서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두 명과 우방백령의 아전 한 사람과, 접반사군관 한 사람이 진문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서 들이지 않았다.

5월26일[기묘/6월24일]

비오다.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나 보니 절강성의 포수 왕경득인데, 문자는 좀 안다.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으니 답답했다.

밤 열 시쯤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가 가만히 있지 못했다.

처음에는 우수사의 배와 맞부딪치는 것을 겨우 구해 놓았더니, 또 발포만호(황정록)가 탄 배와 맞부딪쳐 거의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고, 내 군관 송한련이 탄 협선은 발포 배에 부딪쳐 많이 다쳤다고 한다.

아침에 영남 우수사(원균)가 와서 봤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냈는데, 허튼 소리가 많으니 가소롭다.

5월27일[경진/6월25일]

비바람에 부딪치기 때문에 진을 유자도로 옮겼다.

협선 세 척이 간 곳이 없더니, 저녁 나절에야 돌아왔다.

영남병사(최경희)의 답장이 오고, 전라병사(선거이)의 편지도 왔다.

"창원의 적들은 비가 오고 개이지 않아 아직 나가 치지 못했다"고 했다.

5월28일[신사/6월26일]

종일 비오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왔다.

"광양현감은 그대로 유임되고, 독운 임발영은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하였고, "한 가족을 징발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에 내린 명령대로 하라"고 했다.

5월29일[임오/6월27일]

비오다.

변유헌과 이수 등이 왔다.

5월30일[계미/6월28일]

종일 비오다.

오후 네 시쯤에 잠깐 개다가 도로 비가 왔다.

남해현령 기효근의 배가 내 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 안에 어린 색시를 태우고 남이 알까바 두려워한다.

사소롭다.

나라가 위급한 때를 맞았는데도 미인을 태우고 놀아나니 그 마음
스스름이야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대장 원균 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저녁에
조봉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1) 초서본 『난중일기』에는 이 날 "嶺南來宣傳官成文漑來見"이라는
내용이 없음.

2) 원문은 '夜不守'인데, 중국의 속어임.

'群衆의 탐정'이란 뜻이다.

계사년 6월 (1953년 6월)

6월1일[갑신/6월29일]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와 어머니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다고 한다.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의 편지가 한꺼번에 왔다.

충청수사 정걸이 왔다.

그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 하였다.

6월2일[을유/6월30일]

맑다.

아침에 본영의 공문을 적어 보냈다.

온양의 강용수가 진에 와서 명함을 통하고서 들어와 봤다.

가리포첨사 우경 구사직이 와서 한 시간이나 이야기하였다.

6월3일[병술/7월1일]

새벽에 맑더니 저녁 나절에 비가 많이 오다.

순찰사(권율) · 순변사(이빈) · 병사(선거이) · 방어사(이복남) 등의
답장이 왔다.

각도의 군마가 많아야 오천을 넘지 못하고, 양식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한다.

왜적들의 발악이 날로 더해 가는 이 때에 일마다 이와 같으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6월4일[정해/7월2일]

종일 비오다.

식사하기 전에 순천부사(권준)가 왔다.

식사한 뒤에는 충청수사(정걸)와 이홍명과 광양현감(어영담)이 와서
종일 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6월5일[무자/7월3일]

종일 비오다.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므로 각 배들을 간신히 구호했다.

경상수사가 웅천의 적도들이 혹 감동포(부산시 북구 구포동)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들어가 치자고 공문을 보냈다.

그 음흉한 꾀가 가소롭다.

6월6일[기축/7월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보성군수(김득광)는 갈려 가고, 김의검이 되었다"고 했다.

저녁에 본영 탐후인이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한다.

6월7일[경인/7월5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저녁에 본도(전라도) 우수사의 우후(이정충)가 와서 봤다.

6월8일[신묘/7월6일]

잠깐 맑다가 바람이 불고 온화하지 않다.

군관 나대용이 병으로 본영에 돌아갔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각 고을의 색리 열 한 명을 처벌했다.

옥과의 향소(鄕所)는 전년부터 군사를 다스리는 일에 많이 부지런하지 못하여 결원이 거의 수백 명에 이르렀는 데도 매양 속이어 허위보고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에 처하여 목을 높이 매달아 보였다.

6월9일[임진/7월7일]

맑다.

수십 일이나 괴롭히던 비가 비로소 활짝 개이니, 진중의 장병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배에 누워 있었다.

접반관의 공문이 왔는데, "제독이여송이 충주에 이르렀다"고 한다.

6월10일[계사/7월8일]

말다.

우수사(이억기)가 이곳에 와서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의논했다.

저녁에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보고 하는데, "웅천의 적선 네 척이 본토(일본)로 돌아갔고, 또 김해 어귀에 적선 150 여 척이 나타났는데, 열 아홉 척은 본토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부산으로 갔다"고 한다.

밤 두 시쯤에 수사 원균의 편지가 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아가 싸우자"고 한다.

그 하는 흥계와 시기하는 꼴을 말로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월11일[갑오/7월9일]

잠깐 비가 오다 개이다.

아침에 적을 쳐부술 공문을 작성하여 영남우수사 원균에게 보냈더니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더라고 했다.

6월12일[을미/7월10일]

잠깐 비가 오다 개이다.

밤 열 시쯤에 변존서와 김양간이 들어왔다.

듣건대 동궁(東宮 : 광해군)께서 평안하지 않다고 하니 그지없이
걱정이 된다.

정승 유성룡의 편지와 지사 윤우신의 편지가 왔다.

중 해당도 왔다.

6월13일[병신/7월11일]

맑다.

저녁 나절에 잠깐 비오다가 그치다.

명나라 사람 왕경(王敬)과 이요(二?)가 와서 수군의 상황을 살폈다.

소문에 들으니, "제독 이여송이 나가 치지 않아 명나라 조정에서
문책을 했다"고 한다.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느껴지는 게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도 세포(거제군 사등면 성포리)로 옮겼다.

6월14일[정유/7월12일]

비가 잠깐 오다 개이다.

전운사 박충간의 공문과 편지가 왔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세게 치더니 곧 그쳤다.

6월15일[무술/7월13일]

비가 잠깐 오다 개이다.

우수사(이억기) · 충청수사(정걸) · 순천부사(권준) · 낙안군수(신호) · 방
답첨사(이순신) 등이 와서 철맞이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6월16일[기해/7월14일]

잠깐 비오다.

저녁 나절에 낙안군수를 통하여 진해의 고목(告目 : 常人이 양반에게
하던 편지)을 얻어 보니, 함안에 있는 각 도의 대장들이 "왜놈들이
항상동으로 나가 진을 쳤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물러나, 진양과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초저녁에 영등포의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김해 · 부산에 있던
적선 무려 오백 여 척이 안골포 · 제포 등지로 들어왔다" 고 한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적도들이 세력을 모아서 옮겨 다니며 침범할
계획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우수사(이억기)와 충청수사 정걸에게
공문을 보냈다.

밤 열 시쯤에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송희립을 경상우수사(원균)에게 가서 의논케 하니, "내일 새벽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다"는 것이다.

적의 꾀란 헤아리기 어렵다.

6월17일[경자/7월15일]

비가 오다가 개이다가 한다.

이른 아침에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정걸
등이 와서 의논했는데, "함안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킨다"는 것이 사실이다.

식사를 한 뒤에 경수 이억기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했다.

조봉이 창원에서 와서 "적세가 매우 대단하다"고 했다.

6월18일[신축/7월16일]

비가 오다가 개이다가 한다.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오후에 경상우수사(원균)의 배로 가서 같이 앉아 군사일을 의논하고
왔다.

6월19일[임인/7월17일]

비가 오다가 개이다가 한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그치지 않는다.

진을 오양역(거제군 사등면 오양리) 앞으로 옮겼으나, 바람에 배를 고정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고성 역포(亦捕 : 통영시 용남면)로 옮겼다.

봉과 변유현, 두 조카들을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알아서 오게 했다.

6월20일[계묘/7월18일]

흐리며 바람이 세게 불다.

조봉이 그의 조카 조용도와 함께 와서 봤다.

이 날 배 만들 재목을 운반해 오는 일로 그대로 역포에서 잤다.

밤이 되니 바람이 잤다.

6월21일[갑진/7월19일]

맑다.

새벽에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와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오정에 원연이 왔다.

6월22일[을사/7월20일]

맑다.

초저녁에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별 다른 소식은 없지만
적선 두 척이 온천(칠천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한다.

6월23일[병오/7월21일]

맑다.

새 배에 쓸 밑판을 만드는 것을 마쳤다.

6월24일[정미/7월22일]

비오다.

식사를 한 뒤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다.

저녁에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보고했다.

"적선 오백 여 척이 23일 밤중에 소진포(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로 모여 들어갔는데, 그 선봉대는 칠천량에 이르렀다"고 한다.

6월25일[무신/7월23일]

종일 비가 많이 오다.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적을 칠 일을 의논하는데, 경상우수사(원균)도 와서 함께 상의했다.

소문에 "진양이 포위되었는데도 감히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한다"고 했다.

연일 비가 내려서 적도들이 날뛰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지방을 돕고 있는 것이다.

순천부사(권준)가 군량 이백 섬을 가져와서 바쳤다.

6월26일[기유/7월24일]

비가 많이 오고 마파람이 세세 불다.

북병선이 변고를 보고했다.

"적선이 오양역 앞까지 이르렀다" 한다.

호각을 불어 닳을 올리고 모두 적도(통영시 화도)로 가서 진을 쳤다.

저녁에 김봉만이 진양의 적정을 살피고 와서 보고하기를, "적도들이 동문 밖에서 진을 합쳤는데, 연일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막혀 있고, 또 계속하여 구원해 줄 길도 없으니 만약에 대군을 합쳐 쳐들어간다면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다"고 했다.

6월27일[경술/7월25일]

잠깐 비가 오다 개이다 한다.

오정에 적선이 견내량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온 진이 출항하여 나가보니 이미 달아나고 없어 불을도(통영시 적도·화도) 앞바다에 진을 쳤다.

6월28일[신해/7월26일]

잠깐 비가 오다 개이다 한다.

나라 제사날(명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강진의 척후선이 적과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진이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도들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 놀라 황급히 달아난다.

역풍과 역조류를 받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대로 머물러 밤을 지냈다.

밤 두 시쯤에 불을도에 도착했다.

종 봉손·애수 등이 들어와 분산(墳山 : 무덤이 있는 산)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6월29일[임자/7월27일]

맑다.

하늬바람이 잠깐 불더니 청명하게 개었다.

순천부사·광양현감이 와서 봤다.

어란만호(정담수)·소비포권관(이영남) 등고 와서 봤다.

1)

1) 草書本 『난중일기』 6월 29일에는……(뒤에 써붙임) "진양이 함락되었다.

황명보·최경희·서예원·김천일·이종인·김준민이 전사했다고

한다(晉陽陷沒 黃明甫崔慶會徐禮元金千鎰李宗仁金俊民 戰死之云)"라고 했으며, 7월 2일에는…… "김득룡이 와서 진주가 위태하다고 한다. 놀라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金得龍來傳 晉陽不利云 不勝驚慮)"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빠졌다.

이것으로 보아 이순신 장군은 진주 함락 소식을 7월 2일에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나 진양이 위태하다는 소식은 이미 6월 25일에 들었었다.

그래서 이 새 번역 『난중일기』에는 초본을 따르지 않고 『이충무공전서』 본을 따랐다.

계사년 7월 (1593년 7월)

7월1일[계축/7월28일]

맑다.

나라 제사날(인종의 제사)이라서 공무를 보지 않았다.

밤기운이 몹시 서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초저녁에 선전관(유형)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7월2일[갑인/7월29일]

맑다.

날이 늦어서야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봤다.

선전관(유형)이 오후에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김득룡이 와서 진양(진주)이 함몰되었다고 전한다.

황명보·서예원·김천일·이종인·김준민1)이 죽었다2)고 한다.

놀라고 비통함을 이길 길 없다.

그러나 그럴 리 만무하다.

어떤 미친 놈이 잘못 전한 말일 것이다.

초저녁에 원연·원식이 와서 군사에 관한 극단적인 말을 하니 웃음이 나온다.

7월3일[을묘/7월30일]

맑다.

적선 몇 척이 견내량을 넘어와 물으로 올라 가려다가 우리 배들이 나타나 쫓으며 물리치는 것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7월4일[병진/7월31일]

맑다.

저녁에 걸망포로 물러나 진을 치고 잤다.

「양건당문집」에서 황대중이 다리를 절며 가까스로 와서 진주성

함락 소식을 전했다.

다리 저는 효자가 어떻게 적의 창칼 끝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인가! 나는 실성통곡하면서 북향하여 절을 네번
하고 "하늘은 어찌 이런 극단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고!"하면서
하늘에 빌었다.

3)

7월5일[정사/8월1일]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적선 10여척이
견내량을 넘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은
허겁지겁 달아났다.

거제땅 적도에는 말만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싣고 왔다.

저녁에 진양(진주)이 함락 되었다는 보고가 광양에서 왔다.

도로 걸망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7월6일[무오/8월2일]

맑다.

아침에 방담첨사(이순신)가 와서 보고, 소비포권관(이영남)도 와서

봤다.

한산도에서 배를 끌고 오는 일로 중위장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나갔다.

공방 곽언수가 행재소에서 들어왔는데, 도승지 심희수와 지사 윤자신과 좌상 윤두수가 편지를 보내왔고, 윤기현도 안부를 보내왔다. 아울러서 관보를 보니 탄식할 일들만 많다.

7월7일[기미/8월3일]

맑다.

순천부사·가리포첨사·광양현감이 와서 보고는 군사일을 의논했다.

각각 가볍고 날랜 배 열 다섯 척을 뽑아 견내량으로 가서 탐색케 해 보았으나, 적의 행적이 없다고 한다.

거제에서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얻어 와서 왜적의 소행을 꼼꼼이 물으니, "흉적들이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고 하였다"고 하고, 또 "진양이 이미 함락되었으니 어찌 전라도를 넘을 것인가"라고 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이억기)가 내 배로 왔기에 같이 이야기하였다.

맞다.

해괴함을 이길 길 없다.

7월9일[신유/8월5일]

맡다.

남해현령이 또 와서 "광양·순천이 이미 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광양현감(어영담) · 순천부사(권준)와 송희립 · 김득룡 · 정사립 · 이설 등을 떠나 보내 놓고, 듣자하니 뼈아픈 일이라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이억기)와 경상우수사(원균)와 함께 일을 논의했다.

이날 밤,

바다에 달은 밝고 잔물결 하나 일지 않네

물과 하늘이 한 빛인데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구나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한밤에 본영 탐후선이 들어와서 적정을 알리는데, "실은 왜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왜놈 옷으로 가장하고 광양으로 마구 들어가 여염집을 불질렀다"고 하고,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것도 헛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진주의 일만은 그럴 리 만무하다.

닭이 벌써 운다.

7월10일[임술/8월6일]

맑다.

김봉만이 두치(하동읍 두곡리)에서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적들은 사실이다"고 했다.

다만 "왜적 백여 명이 도탄에서 와서 광양을 침범하고 들어왔는데, 총통도 한 발 쏜 일이 없다"고 했다.

왜놈이 어찌 포를 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저녁에 오수(汚水)가 거제의 가삼도(가조도)에서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이 안팎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적도들이
무수히 창원 등지로 가더라"고 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이라 믿을 것이 못된다.

초저녁에 한산도 끝 세포로 진을 옮겼다.

7월11일[계해/8월7일]

맑다.

이상록이 명령을 어긴 여러 장수들에게 전령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고하는데, "전선 10여 척이 견내량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들이 벌써 진 앞에 이르기예 그대로
추격하니 달아나버렸다.

오후 네 시쯤에 걸망포로 돌아와 물을 길었다.

사도첨사(김완)가 와서, "두치나루의 적의 일은 헛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왜놈옷으로 갈아 입고 저희들끼리 서로 장난한 짓이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길 길 없다.

어두울 무렵 오수성이 광양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광양의 적변은
모두 진주의 피난민과 제 고을 사람들이 이런 흉계를 짜내어, 관의
창고는 하나같이 비어 있고 여염집 마을도 쓸쓸하게 되었다.

순천이 가장 심하고,낙안이 그 다음 간다"고 했다.

7월12일[갑자/8월8일]

맑다.

식사하기도 전에 울과 송두남과 오수성이 돌아갔다.

가리포의 군량 진무가 와서 전하는 말이, "사랑 앞바다에 와서 묵을 때, 왜적들이 우리나라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나라 배를 타고 마구 들어와 포를 쏘며 약탈해 가려한다"고 한다.

그래서 각각 가볍고 날랜 배 세 척을 내어 달려가 잡아오게 하고, 또 각각 세 척씩을 정하여 착량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고 했다.

7월13일[을축/8월9일]

맑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와서, "광양·두치 등에는 적이 없다"고 한다.

순천 거북배의 격군이며 경상도 태생인 종 태수가 달아나다가 잡혀 사형에 처했다.

저녁 나절에 흥양 현감(배흥립)이 들어와서, 두치의 잘못된 거짓

보고와 장흥부사 유희선의 겁내던 일과, 또 그 "고을 창고의 곡식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전하고, 또 행주대첩을 전했다.

7월14일[병인/8월10일]

맑다.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와서 땅의 먼지를 적실 뿐이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신음했다.

순천부사(권준)가 들어와서 본부의 일을 말로 나타내지를 못한다.

진을 한산도 돌포(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개미목)로 옮겼다.

7월15일[정미/8월11일]

맑다.

저녁 나절에 사랑의 수색선, 여도만호 김인영, 순천의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로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네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도 번거롭네

달이 뱃전을 비치니 정신이 맑아져 잠 못이루는데 어느덧 닭이
우는구나.

7월16일[무진/8월12일]

맑다.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7월17일[기사/8월13일]

비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광양현감(어영담)이 왔다.

7월18일[경오/8월14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이 돌아왔다.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봤다.

신경황이 두치에서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했다.

7월19일[신미/8월15일]

맑다.

이영남이 와서, "진주 · 하동 · 사천 · 고성 등지의 적들이 이미 도망해 버리고 없다"고 전했다.

저녁에 광양현감(어영담)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병들의 명부를 보내왔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비참하여 원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7월20일[임신/8월16일]

맑다.

탐후선이 본영에서 돌아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다.

그 통첩의 사연을 보니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리어 달아났다고 하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본들 무엇하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수사(정걸) · 순천부사(권준) · 방답첨사(이순신) · 광양현감(어영담)
· 발포만호(황정록) · 남해현령(기효근) 등이 와서 봤다.

7월21일[계유/8월17일]

경상우수사(원균)와 충청수사 정걸이 함께 와서 적을 토벌하는 일을 의논하는데, 원 수사의 하는 말은 극히 흉칙하고 말할 수 있는 흉계이다.

이러하고서도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뒷걱정이 없을까.

초저녁에 오수(吳水) 등이 거제 망보는 곳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면서 제 맘대로 횡포를 부린다"고 했다.

7월22일[갑술/8월18일]

맑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자세히 말한다.

다행이다.

7월23일[을해/8월19일]

맑다.

울이 돌아갔다.

충청수사 정걸이 와서 봤다.

7월24일[병자/8월20일]

맑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 · 흥양현감이 와서 봤다.

오수(吳水)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와서 하는 말이, "적이 물러가긴 하였으나 장문포(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적들은 여전하다"고 한다.

「장계」에서

밤중에 동래에 사는 성돌, 절 종 망연, 봉수꾼 박검손, 목동 박검실, 절 종 김국 · 김헌산, 종 돌이, 절 종 윤춘, 양산에 사는 강은억 · 박은옥, 김해에 사는 갑주 만드는 공인 김달망, 사사집 종 인상 등 나와 열세 명이 배 한 척을 훔쳐 타고 노를 재촉하여 육기도(六岐島)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4)

7월25일[정축/8월21일]

맑다.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이야기했다.

조봉도 와서 체찰사의 공문이 영남수사(원균)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 한다.

「장계」에서

순풍에 돛을 달고 떠났는데, 일본국의 군량을 실은 배 삼백 척과 상봉하여 간신히 피해서 육기로 되돌아가 정박했으나,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입고 있던 왜의 속옷 한 벌과 홑옷 한 벌 등을 팔아 쌀 스물 일곱 말과 중솔 한 개를 샀다.

5)

7월26일[무인/8월22일]

맑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 · 방답첨사가 왔다.

우수사도 같이 이야기하고, 가리포첨사도 왔다.

7월27일[기묘/8월23일]

맑다.

우수사의 우후(이정충)가 본영에서 와서 우도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았다.

7월28일[경진/8월24일]

맑다.

경상우수사(원균) 및 충청수사(정걸)와 본도 우수사(이억기)가 함께
와서 약속했다.

정여흥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체찰사에게로 갔다.

순천부사·광양현감이 와서 보고 곧 돌아갔다.

사도첨사(김완)가 복병했을 때에 잡은 보자기 열 명이 왜놈옷으로
변장하고 하는 짓거리가 매우 꼼꼼하다하여 잡아다가 추궁을 하니,
"경상우수사(원균)가 시킨 일이다"고 했다.

곤장만 치고 내보냈다.

7월29일[신사/8월25일]

맑다.

새벽 꿈에 사내 아이를 얻었다.

사로잡혔던 사내 아이를 얻은 꿈이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 · 사도첨사 · 흥양현감 · 방답첨사를 불러 와서 이야기했다.

흥양현감은 학질을 앓아서 곧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답첨사는 복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인이 와서, "아들 염의 병이 차도가 없다"고 하니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보성군수(김득광) · 소비포권관(이영남) · 낙안군수(신호)가 들어왔다.

1) 김준민(金俊民)이 여기서는 '쥬峻民'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초서본 『난중일기』 6월 29일자 및 『선조대왕수정실록』 (권27, 쑤巳 12)에는 '金俊民'으로 적혀 있다.

2) ① 초서본 『난중일기』의 이 날짜에는 전사자 기록이 없다.

② 『宣祖大王修正實錄』 권27, 쑤巳 12~15쪽에는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자는

金千鎰 · 金象乾(金千鎰의

아들) · 崔慶會 · 高從厚 · 梁山璫 · 李宗仁 · 文弘獻 · 吳宥 · 高敬兄 · 徐禮元 · 成汝楷 · 金俊民 등 6~7만명임.

3) 『兩蹇堂文集』 (낭주인쇄사, 1978), 45~57쪽.

"七月初四日(黃大中)至李統制管下李公舜臣握手流涕曰

蹇孝子貫穿賊鋒而至此豈是偶然哉因

詳晉陽之陷李公失聲痛哭而北向四拜曰 天何爲至於此極耶".

4)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25쪽, 「登聞被虜人所告倭情狀」,

"二十四日

夜半東萊居成突寺奴望連烽燧軍朴儉孜子朴儉實寺奴金國金軒山奴突伊

寺奴允春梁山居姜銀億朴銀玉金海居甲匠金達望私奴仁尙并小人等十三人

偷 騎一船促櫓到六岐島至泊經夜".

5) 「장계」.

"二十五日從風懸帆日本國軍糧載船三百雙相逢艱難回避泊六岐島

糧米乏絕故所着倭紬衣一單衣一等放賣捧米二十七斗中鼎一坐

계사년 8월 (1593년 8월)

8월1일[임오/8월26일]

맑다.

새벽꿈에 큰 대궐에 이르렀다.

모양이 마치 서울과 같다.

영의정과 마주 앉아서 임금님께 파천하신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는데, 적의 형세는 이미 질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의논할 때 좌우 사람들이 무수히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깨었다.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8월2일[계미/8월27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음이 답답하여 땀을 올려 포구로 나갔다.

충청수사 정걸이 따라 나오고, 순천부사 · 광양현감이 와서 봤다.

소비포권관(이영남)도 왔다.

저녁에 진쳤던 곳에 되돌아 왔다.

이홍명이 왔다.

저물녘에 우수사(이억기)가 배에 와서 하는 말이, "방답첨사(이순신)가 부모를 뵈러 가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여러 장수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우수사 원균이 망녕된 말을 하며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하나 모두가 망녕된 짓이니 무슨 관계가 있으랴.

탐후선이 들어와서 아들염이 아픈 데가 굼아서 종기가 되었는데, 침으로 찌더니 고름이 흘렀다.

며칠만 늦었더라면 고치기 어려울 뻔했다고 한다.

큰일 날 뻔 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났다하니 다행이다.

의사 정종지의 은혜가 매우 크다.

8월3일[갑신/8월28일]

맑다.

이경복 · 양응원과 영리 강기경 등이 들어왔다.

「장계」에서

경상좌수영 앞바다에서 물으로 올라 성돌 등 각각 살던 곳의 제
집으로 돌아가고 제만춘이 그 마을에 사는 황을걸의 집에 머물렀다.

1)

8월4일[을유/8월29일]

맑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저녁에 도원수의 군관 이완(李緩)이 삼도에 퍼져 있는적의 형세를
보고하지 않은 군관 · 색리를 잡아다가 심문하려고 진으로 왔다.

웃을 일이다.

8월5일[병술/8월30일]

맑다.

조봉 · 이홍명, 우수사(이억기) 및 우후가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권관(이영남)도 밤에 돌아갔다.

아산에서 이예(李禮)가 밤에 왔다.

8월6일[정해/8월31일]

맑다.

아침에 이완이 송한련 · 여여충과 함께 도원수에게로 갔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 · 광양현감 · 보성군수 · 발포만호, 이응화 등이 와서 봤다.

저녁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오고, 우수사 경수 이억기, 충청수사 정걸도 와서 의논을 하고 있는동안에 우수사 원균이 하는 말은 걸핏하면 모순된 이야기를 하니 한심한 일이다.

8월7일[무자/9월1일]

아침에 맑더니 해질녘에 비가 내려 농사에 흡족하다.

당포만호(하종해)가 작은 배를 찾아갈 일로 왔으므로 주어 보내라고 사랑만호(이여념)에게 일러주었다.

저녁에 경상우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와서 전하는데, "적선들이

물러갔다"고 했다.

그러나 원균 수사와 그의 군관은 항상 헛소문만 내기를 좋아하니 믿을 수가 없다.

8월8일[기축/9월2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광양현감·방담첨사·흥양현감 등을 불러 들여 복병 등에 관한 일을 같이 논의했다.

충청수사의 전선 두 척이 들어왔는데, 한 척은 쓸 수 없다고 한다.

김덕인이 그 도(충청도)의 군관으로 왔다.

8월9일[경인/9월3일]

맑다.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와서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고, 염은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오후에 우수사(이억기)의 배에 이르니 충청수사(정걸)도 왔다.

영남수사(원균)는, "복병군을 한꺼번에 보내어 복병시키기로 약속했다"하여 먼저 보냈다고 한다.

해괴한 일이다.

8월10일[신묘/9월4일]

맑다.

아침에 방답의 탐후선이 들어와서 임금님의 분부와 비변사의 공문과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해남 현감(위대기)이 방답첨사 이순신과 같이 왔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도 왔다.

우수사(이억기)가 청하므로 그의 배로 가니, 해남현감이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간신히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2)

8월11일[임진/9월5일]

늦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바람이 몹시 불더니만, 오후에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앉았다 누웠다 했다.

8월12일[임진/9월6일]

비가 오다 개었다 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누워서 신음했다.

옷이 젖도록 식은땀이 나는 데도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순천부사·우수사, 방답첨사 이순신이 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8월13일[갑오/9월7일]

본영에서 온 공문에 결재하여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다 일어난다.

이경복에게 장계를 지니고 가라고 내어 보냈다.

송두남이 군량미 삼백 섬과 콩 삼백 섬을 실어 왔다.

8월14일[을미/9월8일]

맑다.

방답첨사(이순신)가 제사 음식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이억기)와 충청수사(정걸)와 순천부사(권준)도 왔다.

8월15일[병신/9월9일]

맑다.

오늘은 한가위 날이다.

우수사(이억기) · 충청수사(정걸) · 순천부사(권준) · 광양현감(어영담) ·
낙안군수(신호) · 방답첨사(이순신) · 사도첨사(김완) · 흥양현감(배흥립)
· 녹도만호(송여중), 이응화, 이홍명, 좌도령공 · 우도령공 등이 모두
모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갔다.

8월16일[정유/9월10일]

맑다.

광양현감(어영담)이 제사 음식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이억기) · 충청수사(정걸) · 방답첨사(이순신) · 순천부사(권준) ·
가리포첨사(구사직), 이응화 등이 함께 왔다.

아침에 들으니 제만춘이 일본에서 어제 나왔다고 한다.

8월17일[무술/9월11일]

맑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고 좌별도선에 옮겨 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이억기)의 배로 가니 충청수사(정걸)도 왔다.

제만춘을 불러서 문초하니, 분하고 분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

종일 의논하고나서 헤어졌다.

이 날 밤 달빛은 대낮같고, 물결이 비단결같다.

8월18일[기해/9월12일]

맑다.

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정걸과 함께 이야기했다.

조봉이 와서 하는 말이, "경상우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8월19일[경자/9월13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원균 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 배에 옮겨
타라고 청하였다.

우수사(이억기), 충청수사 정걸도 왔다.

원연도 함께 이야기했다.

원균 수사의 형제가 옮겨 간 뒤에 천천히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왔다.

우수사, 정수사와 같이 앉아 자세히 이야기했다.

8월20일[신축/9월14일]

아침식사를 한 뒤에 송희립을 순찰사에게 문안케 했다.

또 제만춘을 문초한 공문을 가지고 가게 했다.

방답첨사와 사도첨사로 하여금 돌산도 근처에 이사하여 사는
자들로서 작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한 자들을 좌우 두 패로 나누어
잡아오라고 파견하였다.

저녁에 적량만호 고여우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갔다.

8월21일[임인/9월15일]

맑다.

8월22일[계묘/9월16일]

맑다.

8월23일[갑진/9월17일]

맑다.

윤간과 조카 뇌 · 해가 와서 어머니께서는 평안하시다고 전한다.

울은 학질을 앓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8월24일[을사/9월18일]

맑다.

조카 해가 돌아왔다.

8월25일[병오/9월19일]

맑다.

꿈에 적의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각 도의 대장에게 알려서 바깥바다로 나가 진을 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한산도 내항으로 돌아왔다.

8월26일[정미/9월20일]

비가 왔다 개었다 하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왔다.

조금 있으니 우수사(이억기)와 충청수사 정걸도 모였다.

순천부사 · 광양현감 · 가리포첨사는 곧 돌아갔다.

흥양현감도 왔다.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경상우수사 원균이 술을 먹겠다고 하기에

조금 주었더니 잔뜩 취하여 망발하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낙안군수(신호)가 보내 온 것을 보니, 풍신수길의 명나라 황제에게

상서한 초본과 명나라 사람이 고을에 와서 적은 것이었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8월27일[무신/9월21일]

맑다.

8월28일[기유/9월22일]

맑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봤다.

8월29일[경술/9월23일]

맑다.

아우 여필과 아들 울, 변존서가 한꺼번에 왔다.

8월30일[신해/9월24일]

맑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영등포로 가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음흉스럽다고 할 만하다.

자기가 거느린 스물 다섯 척의 배는 모두 다 내어 보내고, 다만 일
여덟 척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내니, 그 마음 쓰고 행사하는 것이 다 이
따위이다.

1)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26쪽,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2) 「장계」, 이 날에 이순신 장군은 "웅천땅 적항역 앞을 지나서
상륙하여 13일에 본가로
돌아왔다(初十日熊川地赤項驛前過涉十三日本家來到)"함.

계사년 9월 (1593년 9월)

9월1일[임자/9월25일]

말다.

공문을 만들어 도원수와 순변사에게 보냈다.

여필, 변존서, 조카 뇌 등이 돌아갔다.

우수사(이억기), 충청수사 정걸과 함께 이야기했다.

9월2일[계축/9월26일]

맑다.

장계의 초안을 잡아서 내려줬다.

경상우후 이의득 · 이여념 등이 와서 봤다.

어두울녘에 이영남이 와서 병마사 선거이가 곤양에서 공로를 세운
일과 "남해현형(기효근)이 체찰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습다.

기효근의 형편없는 짓이야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9월3일[갑인/9월27일]

맑다.

아침에 조카 봉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또 본영의 소식도 들었다.

장계를 올리려고 초안을 만들었다.

순찰사(이정암)의 편지가 왔는데, "무릇 군사 일족들에 대하여 일체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새로 부임하여 사정을 잘못 알고 하는 일이다.

9월4일[을묘/9월28일]

폐단되는 것을 진술하는 것과, 총통을 올려 보내는 것과, 제만춘을 불러서 문초한 사연을 올려 보내는 것 등 세 통의 장계를 봉하여 올리는데, 이경복이 지니고 갔다.

정승 유성룡, 참판 윤자신, 지사 윤우신, 도승지 심희수, 지사 이일 · 안습지 · 윤기현에게는 편지를 쓰고, 전복을 정표로 보냈다.

조카 봉은 윤간과 함께 돌아갔다.

9월5일[병진/9월2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충청수사 정걸의 배 곁에다 배를 대어 놓고서 종일 이야기했다.

광양현감 · 흥양현감 및 우후(이몽구)가 와서 봤다.

9월6일[정사/9월30일]

맑다.

새벽에 배 만들 재목을 운반할 일로 여러 배를 내어 보냈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이억기)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거기서
원균을 흥척스러운 일을 들었다.

또 정담수가 밀도 끝도 없이 말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들으니
우습기만 하다.

바둑을 두고나서 돌아왔다.

깨진 배의 재목을 여러 배로 끌고 왔다.

9월7일[무오/10월1일]

맑다.

아침에 재목을 받아 들었다.

방담첨사가 와서 봤다.

순찰사(이정암)에게 폐단을 진술하는 공문과 군대 개편하는 일이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종일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탐후선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9월8일[기미/10월2일]

맑다.

새벽에 송희립 등을 당포 산으로 내 보내어 사슴을 잡아 오게 했다.

우수사(이억기)가 충청수사(정걸)와 함께 왔다.

9월9일[경신/10월3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모여서 산마루에 올라가서 활 세 순을 쏘았다.

우수사(이억기), 충청수사 정걸 및 여러 장수들이 모였는데,

과양현감은 아프다고 참가하지 않았다.

9월10일[신유/10월4일]

맑다.

공문을 적어 탐후선에 보냈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의 배에 이르러 방답첨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체찰사의 비밀편지가 왔다.

보성군수(김득광)도 왔다가 갔다.

9월11일[임술/10월5일]

맑다.

충청수사 정걸이 술을 마련하여 와서 봤다.

우수사(이억기)도 오고, 낙안군수 · 방답첨사도 같이 했다.

흥양현감이 휴가를 받아 갔다.

서몽남에게도 휴가를 주었다.

9월12일[계해/10월6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소비포권관(이영남), 유충신, 여도만호 김인영 등을 불러 술을 먹였다.

발포만호(황정록)가 돌아왔다.

9월13일[갑자/10월7일]

맑다.

종 한경 · 해돌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해돌 등이 돌아갔다.

9월14일[을축/10월8일]

맑다.

1) 정철 총통은 전쟁에 가장 긴요한 것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잘 알지 못하였다.

이제야 온갖 연구를 하여 조총을 만들어 내니, 왜의 총보다도 나았다. 명나라 사람이 와서 진주에서 시험사격을 하고는 잘 되었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에서 같은 모양으로 넉넉히 만들어내도록 순찰사와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공문을 돌려서 알게 했다.

9월15일[병인/10월9일]

맑다.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 ① 초서본 『난중일기』의 이 날은 날씨부터 아예 내용이 다르다.

"9월 14일(을축)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순천부사가 돌아왔다.

(九月十四日 乙丑終日雨且大風 獨坐蓬窓下懷思萬端也 順天還來)임.

② 李殷相 역주해 『난중일기』(현암사, 1968), 55쪽에는 초서본 일기에 없는 『이충무공전서』의 9월 14일자 일기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③ 조성도, 『壬辰狀草』, 325쪽, 『封進火砲狀』에는 정철총통을 만든 사실을 1593년 8월에 이미 보고하였다.

또 계사년 5월 12일(을축)일기에는 이미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냈다"고 적혀 있다.

갑오년 1월(선조 27년 : 서기 1594년(50세) / 1594년 1월 1일 ~ 11월 28일)

1월1일[경진/2월20일]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한 살을 더하게 되니, 난리중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저녁 나절에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하는 일로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그치지 않았다.

1월2일[신사/2월21일]

비는 그쳤으나 흐렸다.

나라 제사날(명종 인순왕후 심씨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1월3일[임오/2월22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해질무렵에 관사로 돌아와서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1월4일[계미/2월23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1월5일[갑신/2월24일]

비오다.

1월6일[을유/2월25일]

비오다.

동헌에 나가 남평(南平)의 도병방(都兵房)을 처형했다.

1월7일[병신/2월26일]

비오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저녁에 남의길이 들어와서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1월8일[정해/2월27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남원의 도병방을 처형했다.

1월9일[무자/2월28일]

맑다.

1월10일[기축/3월1일]

맑다.

아침에 남의길을 맞이하여 이가기하는데, 피난하던 일과 그때
길바닥에서 고생하던 일을 들으니 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장계」에서

순천의 돌산도와 흥양의 도양장, 해남의 화원곶, 강진의
화이도(완도군 고금면) 등지에 둔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보충함이
좋겠다는 사유는 전에 이미 장계하였다.

1)

돌산도에는 나의 군관인 훈련주부 송성을, 도양장에는 훈련정
이기남을 모두 농감관으로 임명하여 보냈으며, 농군은 흑 백성들에게
내주어 병작케 하든지, 혹은 유민(피난민)들에게 짓게 하든지 하여
관에서는 절반을 수확하도록 했다.

또 순천·흥양의 유방군과 노약한 군사들을 제대를 시켜 병작케 하되,
보습·영자·쟁기 등을 각각 그 본 고을에서 준비해 보내라고 이미
공문으로 통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도의 화이도와 화원곶에도 종사관 정경달을 "둔전의 형편을 순시·검칙하여 제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라"고 이미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 도착한 호조판서의 공문에 따른 순찰사 이정암의 공문 내용에, "돌산도 등 감목관에게 이미 둔전관을 검칙시켰다"고 하거니와, 순천 감목관 조정은 벌써 전출되었고 정식 후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며, 흥양 감목관 차덕령은 도임한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멋대로 처리하며 목장에서 "말먹이는 사람들을 몹시 학대하여 안정되게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경내의 모든 백성들이 꾸짖고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며, 나도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소문을 들었으므로 이번에 경작에 관한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폐하고 백성들의 원성은 더욱 더 이어갈 것이니, 차덕령을 빨리 전출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보내어 농사 감독에 같이 힘쓰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삼가 갖추어 장계하였다.

2)

그리고 본도에서 더 만들고 있는 전선을 직접 보살피고 조처해야 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장계한 뒤에 지난 12월12일에 본도로 돌아와서 검칙하였던 바, 본영에 소속된 다섯 고을로서 순천은 원래의 책임 수량과 더 만드는 수량을 아울러 전선 열 척, 흥양이 열 척, 보성이 여덟 척, 광양이 네 척, 낙안의 세 척 등은 벌써 다 만들었으나,

허다한 사부와 격군들을 일시에 보충할 수가 없어서 이들을 일제히 돌아오게 할 수 없으므로, 순천 다섯 척, 광양 두척, 흥양 다섯 척, 보성 네 척, 낙안 두척만을 먼저 검색하고 독려하여 거느리고, 이 달 1월 17일 거제땅 한산도 진중으로 출항할 것이고, 정비되지 못한 전선들은 "뒤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오라"고 전령하였다.

우도는 전선의 수효가 좌도보다 배나 되므로 반드시 허다한 사부와 격군을 제 기한에 보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종사관 정경달을 시켜 "순검하여 조처하라"고 우수사 이억기와 약속한 곳으로 독촉해 보내면서 신칙하였다.

그러니 겸순찰사 이정암에게 아울러 각별히 독려하여 돌려 보내게3) 하도록 해당 관원을 시켜 분부해 주도록 갖추어 장계하였다.

1월11일[경인/3월2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에 어머니를 뵈려고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바로 곰내(古淸川 : 熊川)에 대었다.

남의길·윤사행, 조카 분이 같이 가서 어머니를 앞에서 뵈니, 기력은

약하시지만 말씀하시는데는 착오가 없으셨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물지 못했다.

1월12일[신묘/3월3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고 두번 세번 타이르시며,

조금이라도 떠난다는 뜻에 탄식하지 않으셨다.

선창에 돌아오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바로 뒷방으로 들어갔다.

1월13일[임진/3월4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너무 불편하여 자리에 누어서 땀을 내었다.

1월14일[계사/3월5일]

흐리며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저녁 나절에 동헌에 나가 장계를 봉함하고, 또 승장 의능에게 천민의 신분을 면해준다는 공문을 봉하여 올렸다.

4)

1월15일[갑오/3월6일]

맑다.

「장계」에서

이 달 초이레 성첩한 겸사서(조유한)의 서장에, "이번에 경상감사(한효순)의 서장을 보니 '좌도의 적들이 모두 거제로 모였다'고 하는데, 적들의 움직임은 반드시 먼저 호남의 관사 곡식을 먹고 올라갈 것이니, 본도의 형세는 영남에 비해서 만 배나 위급하게 되었으니 경은 수군을 독려하여 거느리고 나가 길을 막고 무찌르라"고 동궁께서 명령했다는 서장을 받았다고 장계하였다.

5)

1월16일[을미/3월7일]

맑다.

늦게야 동헌에 나갔다.

황득중이 들어왔다.

소문에 "문학 유몽인이 암행어사로 흥양현에 들어왔다"고 한다.

1월17일[병신/3월8일]

새벽에 눈이 오고 저녁 나절에 비가 왔다.

이른 아침에 배에 올라 아우 여필과 여러 조카와 아들 등을 배웅했다.

다만 조카 분과 아들 울을 배로 데리고 떠났다.

오늘 장계를 띄워보냈다.

오후 네 시쯤에 와우(노량땅)에 이르니 맞바람이 불고 물이 빠져 배를
운행할 수가 없었다.

닷을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여섯 시쯤에 다시 닻을 오려 노량에
이르렀다.

「장계」에서

수군도 각 고을의 수령들이 태만함이 버릇되어 점검하여 보내는 데는
성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와서는 "친족이나 이웃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는 순찰사 이정암의 공문을 돌린다.

이치를 논한 첩보가 있어도 하나도 정비되지 않은 채 잡아 보내지도
않는 형편이며, 심한 관리들은 잡아 보내라는 전령을 보냈어도 그저
핑계만 대고 꿈쩍하지 않는다.

전선을 이미 더 만들어 놓았지만 격군을 보충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통분하다.

전라우도는 내 종사관 정경달을 시켜 순검·정비하도록 우수사 이억기와 약속한 곳으로 달려 보냈으며, 내게 소속된 각 고을과 포구의 전선을 간신히 정비하고서 진중으로 돌아왔다고 장계하였다.

6)

1월18일[정유/3월9일]

맑다.

새벽에 떠날 때는 맞바람(셋바람)이 세게 일었다.

창신도(남해군 창선도)에 이르니 바람이 순하게(하늬바람) 불어 돛을 올려 사랑에 이르니까 바람이 도로 거슬러(셋바람)세게 불었다.

다만 사랑만호 이여념과 수사의 군관 전윤이 와서 뵈었다.

1월19일[무술/3월10일]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고 바람이 세게 불다.

아침에 출항하여 당포 바깥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반돋으로도 순식간에 한산도에 도착하였다.

할터 정자에 올라 앉아 여러 장수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저녁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왔다.

소비포권관 이영남에게서 영남의 여러 배의 사부 및 격군이 거의 다
굶어 죽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1월20일[기해/3월11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고 몹시 춥다.

여러 배에서 옷없는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웅크리고 추위에 떠는
소리는 차마 듣지를 못하겠다.

군량미조차 오지를 않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낙안군수(신호), 우수사 우후(이정충)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소비포권관(이영남) · 웅천현감(이운룡) · 진해현감(정항)도
왔다.

병들어 죽은 자들을 거두어 장사지낼 차사원으로 녹도만호(송여종)를
정하여 보냈다.

1월21일[경자/3월12일]

맑다.

아침에 본영의 격군 칠백 마흔 두 명에게 술을 먹였다.

광양현감(어영담)이 들어왔다.

저녁에 녹도만호(송여중)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시체 이백 열 네 명을 거두어서 묻었다"고 한다.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두 명이 경상우수사 원균의 진영에서 와서 여러가지 걱정을 상세히 말하긴 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

1월22일[신축/3월13일]

맑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다.

활터 정자에 올라 앉아 진해현감(정항)으로 하여금 교서에 숙배례를 행하게 했다.

활을 종일 쏘았다.

1월23일[임인/3월14일]

맑다.

낙안군수와 고부군수가 나갔다.

전선 두 척이 들어왔다.

최천보 · 유황 · 유충신 · 정량 등이 들어왔다.

저녁 나절에 순천부사도 왔다.

1월24일[계묘/3월15일]

맑고 따뜻하다.

아침에 산역(山役)하는 일로 귀장이(耳匠:木手)마흔 한 명을 송덕일이
거느리고 갔다.

영남우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경상좌도에 있는
왜적삼백 여 명을 목베어 죽였다"고 한다.

정말 기쁜 일이다.

평의지(平義智:대마도주 宗義智)가 지금 웅천에 있다고 하는 데
밝혀지지는 않는다.

1월25일[갑진/3월16일]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송두남·이상록 등이 새로 만든 배를 돌아오게 하려고 사부와 격군
백서른 두명을 거느리고 갔다.

우수사 우후가 여도만호(김인영)와 활쏘기 시합을 했는데, 여도만호가
일곱 푼을 이겼다.

나는 활을 열 순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스무 순을 쏘았다.

1월26일[을사/3월17일]

맑다.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활열 순을 쏘았다.

순천부사(권준)의 기일을 어긴 죄를 논했다.

1월27일[병오/3월18일]

맑다.

새벽에 배 만들 목재를 끌어 올일로 우후(이몽구)가 나갔다.

어머니 편지와 아우 여필의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다행이다.

다만 동문 밖 해운대(여수시 동북쪽에 있음)옆과 미평에 헛불 든 강도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

저녁에 녹도의 북병한 곳에 왜적 다섯 명이 함부로 다니면서 포를 쏘
적에 한놈을 쏘아 목을 베고, 나머지는 화살을 맞고는 도망을

가버렸다.

우후의 배가 재목을 싣고 왔다.

1월28일[정미/3월19일]

맑다.

아침에 우후가 와서 봤다.

경상우후(이의득)가 보고하기를, "명나라 제독 유정이 군사를 돌려 이달 25·26일 사이에 올라간다"고 하며, 또 "위무사(장병을 위로하러 파견된 관리) 홍문교리 권협이 도내를 순시한 뒤에 수군영으로 온다"고 하며, 또 "화적 이겸 등을 잡아다 가두고, 아산·온양 등지에서 함부로 다니는 도적떼 90여 명을 잡아서 목을 베었다"고 하며, 또 익호장(김덕령)은 근일중에 들어올 것이다"고 했다.

전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1월29일[무신/3월20일]

비가 종일 오고 밤새도록 왔다.

새벽에 각 배들이 아무 탈 없다고 한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에 누워서 신음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어 배를 안전하게 매어 둘 수가 없으니
마음이 몹시도 괴롭다.

미조항청사(김승룡)가 배를 꾸밀 일로 돌아갔다.

1월30일[기유/3월21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가 저녁 나절에는 개이고 바람도 조금
잠잠했다.

순천부사, 우수사 우후, 강진현감(유해)이 와서 알려주고 돌아갔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땀을 흘렸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을 쏘았다.

1) 『이충무공전서』 권3, 「장계」 39~40쪽, 「請設屯田狀」.

2) 「장계」 10~11쪽, 「請改差興陽牧官狀」.

3) 「장계」 8~9쪽, 「還陣狀(一)」.

4)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1쪽, 「封進僧將僞帖狀」에, "도총섭

승 유정은... 공문을 체찰사(윤두수)의 공문처럼 만들어 보냈는데, 그 양식이 규격에 맞지 않으며 서명도 달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부역을 면제해 주거나 신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연이 있다하여 제멋대로 공문을 위조하는 바, 극히 무례하다. 이런 일을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막기 어려운 폐단이 생길 것이다(愧攝僧惟晶...)

體察使貼文榛成送而規違格着暑亦異僞造明白免後不輕免賤事과也

因緣時勢任意僞作極僞無狀此而不懲必有難防之弊)"라 하여 위조공문임을 밝혔다.

5) 조성도, 앞의 책, 203쪽 및 408쪽, 「적을 무찌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아뢰는 장달」.

6)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9쪽, 「環陣狀(二)」.

갑오년 2월

2월1일[경술/3월22일]

맑다.

늦게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무를 보았다.

청주의 검사복 이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경상감사
한효순의 장계에 " 좌도의 적들이 모여서 거제로 들어가서 앞으로
전라도로 침범하려하니, 경은 삼도의 수군을 합하여 적을 섬멸하라"는
것이다.

오후에 우수사의 우후(이정충)를 불러 활을 쏘았다.

초저녁에 사도첨사(김완)가 전선 세 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2월2일[신해/3월23일]

맑다.

늦게 활터 정자로 올라가 활 열순을 쏘았다.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따뜻하지 않다.

사도첨사가 기한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처벌했다.

2월3일[임자/3월24일]

맑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에 올라서 활을 쏘았다.

우조방장(어영담)이 왔는데, 역적들의 소식을 들으니 걱정되며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원식·원전이 와서 상경한다고 했다.

날이 저물어 막사로 내려왔다.

2월4일[계축/3월25일]

맑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순천 부사·우조방장이 와서 이야기 했다.

저녁 나절에 본영의 전선·거북배가 들어왔다.

조카 봉이 오는 편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도 다행이다.

2월5일[갑인/3월26일]

맑다.

꿈에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인 산마루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동서로 뻗쳐 있고, 산마루 위에는 평평한 곳이 있기로 거기에 자리잡으려다가 깨었다.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홀로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스웠다.

아침에 군기시에서 흑각궁 백 개와 화피 여든 아홉 장을 날날이 셈하여 수결(서명)했다.

발포만호(황정록), 우수사의 우후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우조방장, 우수사의 우후, 여도만호 등과 활을 쏘았다.

원수(권율)의 회답 공문이 왔는데, 유격 심유경이 벌써 화친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꾀와 교묘한 계책을 헤아릴 수 없다.

전에도 놈들의 꾀에 빠졌었는데, 또 이처럼 빠지려드니 한탄스럽다.

2월6일[을묘/3월27일]

비오다.

오후에 개었다.

순천부사 · 조방장 · 웅천현감 · 사도첨사가 와서 봤다.

2월7일[병진/3월28일]

맑은데 하늬바람이 세게 불었다.

어머니께 문안편지를 조카 분이 가는 편에 부쳤다.

조카 봉은 분과 같이 떠나는데, 봉은 나주로 가고 분은 온양으로 갔다.

마음이 섭섭하다.

고성현령(조응도)의 보고에, "적선50여 척이 춘원포(고성군 광도면 예승)에 이르렀다"고 했다.

오늘 군대를 개편하고, 격군을 각 배에 옮겨 태웠다.

보성의 전선 두 척이 들어왔다.

소비포권관(이영남)이 와서 봤다.

2월8일[정사/3월29일]

맑은데, 샛바람이 세게 불고 날씨는 몹시 추웠다.

이침에 순천부사가 와서 말하기를, "고성땅 소비포에 적선 50여 척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곧 제만춘을 불러 지형이 편리한지를 물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무를 보고 저녁에 돌아왔다.

바다에 달이 밝아 잠이 오지 않는다.

순천부사와 우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 열 시쯤에 헤어졌다.

2월9일[무오/3월30일]

맑다.

새벽에 우후가 배 두 세 척을 거느리고 소비포 뒤흘에 띠풀을 베러 나갔다.

아침에 고성현령이 왔으므로 당황포에 적선이 드나들었는지를 물었다.

또 백성들이 굶어서 서로 잡아 먹는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도 물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활 열 순을 쏘았다.

이유함이 왔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그의 자(字)를 물으니 여실(汝實)이라 했다.

순천부사 · 우조방장 · 우후 · 사도첨사 · 여도만호 · 녹도만호 · 강진현감 · 사천현감 · 하동현감 · 보성군수 · 소비포권관도 왔다.

2월10일[기미/3월31일]

가랑비가 걷히지 않고 바람이 세게 불다.

오후에 조방장과 순천부사가 와서 저녁 때까지 이야기하며 적을 토벌할 일을 논의 했다.

2월11일[경신/4월1일]

맑다.

아침에 미조항첨사(김승룡)가 왔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경상우수사(원균)와 우조방장이 왔다.

같이 취했다.

활 세 순을 쏘았다.

2월12일[신유/4월2일]

맑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오전 열 시쯤에 적도(거제군 둔덕면)로 진을 옮겼다.

오후 두 시쯤에 선전관 송경령이 임금의 분부 두 통과 비밀문서 한 통, 모두 세 통을 가지고 왔는데, 한 통에는 "명나라 군사 십만 명과는 삼백냥이 온다"고 하였고 한통에는 "흉적들의 뜻이 호남지방에 있으니, 힘을 다하여 파수를 보내 형세를 보아 무찌르라"고 하였으며, 밀서에는 "일년이 지나도록 해상에서 근로하는 것을 임금님께서 잊지 못하니, 공로를 세운 장병들이 아직도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거든 적어 올리라" 는 것이 적혀 있었다.

또 그에게서 서울에서 여러가지 소식과 역적들의 일로 임금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분주하시다니 감개무량하다.

영의정(유성룡)의 편지가 왔다.

2월13일[임술/4월3일]

맑고 따듯하다.

아침에 영의정에게 회답편지를 썼다.

식사를 한 뒤에 선전관(송경령)과 작별을 하고서는 종일 배에 머물렀다.

오후 네 시쯤에

소비포만호(이영남) · 사랑만호(이여념) · 영등포만호(우치적)가 왔다.

오후 여섯 시쯤에 출항하여 한산도로 돌아올 때, 경사우수사의 군관 제홍록이 삼봉(고성군 삼산면 삼봉리)에서 와서 말하기를, "적선 여덟 척이 들어와 춘원포에 정박하였으므로 들이칠 만하다"고 했다.

그래서 곧 나대용을 경사우수사 원균에게 보내어,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무찔러야 한다"는 말을 전하게 했다.

미조항첨사·순천부사·조방장이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2월14일[계해/4월4일]

맑고 따뜻하며 바람도 잔잔했다.

경상도의 남해·하동·사천·고성 등지에는 송희립·변존서·유황·노윤발 등을, 우도에는 변유현·나대용 등을 점검하여 내어 보냈다.

존영 군량미 스무 섬을 실어 왔다.

방담첨사와 첨지 배경남이 왔다.

장언춘을 천민에서 면하게 하는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2월15일[갑자/4월5일]

맑다.

새벽에 거북배 두 척과 보성의 배한 척을 멩에나무(駕木)치는 곳으로 보내어 초저녁에 실어 오게 했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좌조방장의 늦게 온 죄를 심문했다.

홍양 배의 부정을 조사해 보니 허술한 일이 많았다.

순천부사, 우조방장, 우수사의 우후, 발포만호, 여도만호, 강진현감 등이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날이 저물어 순찰사(이정암)가 공문을 보냈는데, "조도어사 박홍로가 순천·광양·두치 등지에 복병을 두고 파수보게 해달라고 장계를 올렸던 바, 수군과 수령을 아울러 이동시키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내려왔다" 는 것이다.

2월16일[을축/4월6일]

맑다.

암행어사 유몽인의 장계 초본을 보니, 임실현감 이몽상, 무장현감 이충길, 영암군수 김성현, 낙안군수 신호를 파면하고, 순천부사는 탐관오리의 우두머리로 논란하고, 담양부사(이경로), 진원현감(조공근), 나주목사(이용순), 창평현령(백유항) 등 수령의 악행은 덮어주고 포상하도록 상신한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라일이 이러고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또 그 가운데에는 수군 가족에 대한 징발과 네 장정 속에서 두 장정에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비난하였으니, 나라의 위급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눈앞의 임시방편의 일에만 힘쓰고 있다.

나라의 위하여 심히 통탄할 일이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순천 부사, 흥양현감, 우조방자,우수사의 우후, 사도첨사, 발포만호, 여도만호, 녹도만호, 강진현감, 광양현감 등오가 활 열 두 순을 쏘았다.

2월17일[병인/4월7일]

맑다 따뜻하기가 초여름같다.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무를 보았다.

이홍명·임희진이 왔다.

대로 총통을 만들어 왔기에 시름으로 쏘아 보니, 소리는 비슷한데 별로 쓰일 데가 없다.

우습다.

우수사가 들어왔는데, 거느린 전선이 다만 스무 척이니 한심스럽다.
순천부사·우조방장도 와서 활 다섯 순을 쏘았다.

2월18일[정묘/4월8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해남현감 위대기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벌주었다.

우도의 여러 장수들이 와서 알현한 뒤에 활 두어 순을 쏘았다.

2월19일[무진/4월9일]

가랑비가 종일 오다.

활터 정자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데 , 우조방장과 순천부사가 오고,
손충갑도 왔다.

불러들여 그 적을 토벌하던 일을 물었더니, 강개함을 이길 길이 없다.
종일 이야기했다.

2월20일[기사/4월10일]

안개같은 이슬비가 걷히지 않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않았다.

우조방장과 첨지 배경남이 와서 이야기했다.

2월21일[경오/4월11일]

맑다.

순천부사와 우조방장이 와서 "견내랑에 복병한 곳을 가보고 왔다"고 보고했다.

청주 의병장 이봉(李逢:원본에 이름이 빠져 있음)이 순변사에게 가서 육지의 사정을 자세히 일러 주고서 해질녘에 돌아갔다.

오후 여서 시쯤에 벽방의 척후장(제한국)이 와서 구화역(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앞바다에 왜선 여덟척이 줄지어 대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가 치라!"고 전령하고서, 원균의 군관 제홍록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

2월22일[신미/4월12일]

제홍록이 와서 보고하는데, "왜선 열척은 구화역에 이르렀고, 여섯 척은 춘원포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이미 날이 새어 미처 따라 잡지 못했다고 하므로 다시 와서
정찰이나 하라고 일러 보냈다.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2월25일[갑술/4월15일]

「장계」에서

전라우수사 이억기는 1월25일에 , 충청수사 구사직은 2월5일에 모두
내 관할에 소속한 여러 장수들을 일제히 거느리고 오라고 기한을
정하여 전령하였는데, 이억기의 첩보에 "나주·무안·영광 등의
고을이 입방수군의 도목조차 전혀 보내지 않아 허다한 전선에 격군을
보충할 길이 없는데, 기한이 벌써 박두하였으니 매우 민망하고 걱정이
된다"고 재삼 보고해 왔다.

그래서 나는 각 고을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달 2월17일 전선 스물 두
척을 거느리고 진중에 왔는바, 먼저 온 전선과 합하면 마흔
여섯척이다.

우도에 배정한 전선이 원래 책임진 수량과 더 만드는 수량을 합한
아흔 척 안에서 나주 이상의 아홉 고을에 배정된 전선 스물 일곱척은

전혀 정비되지 않아서 일이 매우 괴상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이미 장계했으나, 이번에 다시금 장계하거니와 그 나머지 스물 한 척은 전선을 모두 새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격군이 없어서 기한이 다 되어도 진작 거느리고 오지 못하였으므로, 수군을 징발하여 보내지 않은 각 고을에 다시 전령을 보내어 독촉하였다.

대개 우수사 이억기도 이같이 흉적들이 궤를 부려내는 때를 당하여 일정한 기한에 대지 못하였으니 기한 어긴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되, 다만 격군이 없어서 일정한 기한 안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보고 했으나, 각 고을에서 수군을 전혀 징발하여 보내지 않은 것이 근일에는 더욱 더 심하여 각 진포의 전선을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도내가 똑같이 그러하므로 먼저 행수군관과 도훈도는 군령에 의하여 처벌하였다.

총청수사 구사직은 벌써 기한이 지난지 한 달이 되어도 아직 진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대한 약속을 태만함이 이와 같으므로 조정에서 각별히 재촉함이 좋을 것같아 망녕되이 생각한 바를 장계하였다.

1)

「장계」에서 그리고 이번에 도착한 전라우수사 이억기의 첩보에

따르면, "이번에 우도에 소속된 각 고을과 포구의 원래 책임진 전선 및 더 만드는 전선등을 1월20일 안에 '상도에서는 우수영 앞바다로, 하도에서는 가리포(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앞바다로 모이게 하라'고 군관까지 보내어 재촉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입방수군을 전혀 보내지 않아서 격군을 정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작 모이지 못하고, 벌써 기한을 넘겨기로 매우 민망스럽고 걱정되어 먼저 도착한 전선 스물 두 척을 거느리고 이 달 17일 진에 이르렀다.

그런데

나주·무안·함평·영광·무장·장흥·흥덕·고부·부안·옥구 등 고을에는 더 만들라고 배정한 전선을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원래 책임진 전선까지도 정비해서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진포에서 달아난 수군의 도목장조차 보내지 않아 선부와 격군을 정비하지 못하므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각 포구에서는 보고가 잇달고는 있지만,

군산 포만호 이세환과 범성포만호 조대지와 다경포만호 이식은 아직 관하의 변방 장수로 있으면서 격군이 없다는 것을 핑계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므로, 위에 적은 각 고을과 포구의 수령 및 변방 장수들을 군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하겠다" 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일곱 도(팔도중 전라도는 빼고)에 가득찼던 적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여 흉모와 교모한 계책을 안 꾸미는 것이 없으므로, 전라도를 침범할 걱정이 순식간에 박두하였는데, 수군 소속의 나주 이상 아홉 고을의 수령들이 더 만들라고 배정한 전선은 고사하고 원래 책임진 전선까지도 정비해서 보낼 뜻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진포의 입방수군 중에서 달아난 수군마저 한명도 잡아 보내지 않아서 각 진포의 전선을 역시 정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군령이 중대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느슨해 있으니 공격하거나 수비하는 방도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참으로 놀랄 일이다.

대개 임진년에 적세가 매우 날카롭던 무렵에 영남의 여러 성들이 연달아 무너지고 연해안 일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아주 끊어졌을때, 고성·사천·하동·남해는 호남에 연접한 지방으로써 무려 이백 여척의 적선이 연속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수군은 서른 척 미만의 전선을 가지고서도 용감하게 돌진하여 쳐서 무찌르고 하나도 빠져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그 날카롭고 민첩한 기세를 꺾었다.

그 뒤로 전선이 조금씩 더 준비되어 전라좌·우도는 모두 80척으로써

매양 삼도의 수사 및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적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죽음으로서 맹세하고, 물길을 가로 막아 전라도로 침범하지 못하게 한지 3년이 되었다.

호남이 보존된 것은 수군에 힘입은 것이며, 요즘에 와서는 의논이 분분하여 수군에 소속된 좌·우도를 아울러 열 아홉 고을 중에서 아홉고을이나 육군에 소속시키었을 뿐 아니라, 원래 배정된 입방수군마저도 전혀 보내지 않으므로 수군의 고약함이 전일보다 훨씬 더 심하여 참으로 민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나주 이상 아홉 고을 중에서 더욱 심한 곳은 나주 및 무안 등으로서 배정된 전선을 기일이 넘도록 보내지 않고 또 입방수군도 전혀 보내지 않은바, 그 죄상과 군산포만호 이세환, 법성포만호 조대지, 다경포(무안군 망운면 성내리)만호 이식 등도 아직 수군에 소속된 변방 장수들로서 재삼 독촉해도 끝내 나오지 않았으니, 크게 군율을 범하였으므로 모두 조정에서 처치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되, 순찰사 이정암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전선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보내 오도록 각별히 분부하여 장계하였다.

2)

2월28일[정축/4월18일]

맑다.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종사관(정경달)과 종일 이야기했다.

2월29일[무인/4월19일]

벽방의 척후장 제한국의 보고에, "적선 열 여섯 척이 소소포(고성군 마암면 두호리)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전령하여 알리게 했다.

1)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12~13쪽, 「請忠淸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2)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13~15쪽, 「請罪遲留諸將狀」.

갑오년 3월

3월1일[기묘/4월20일]

맑다.

망궐례를 드렸다.

활터 정자로 올라가 검모포만호를 곤장치고, 도훈도를 처형했다.

종사관(정경달)이 돌아왔다.

막 어두울녘에 출항하려는데, 벽방 척후장 제한국이 보고하기를,
"왜선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초저녁에 장흥의 2호선이 실수로 불을 내어 다 타버렸다.

3월2일[경진/4월21일]

맑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좌조방장 · 우조방장 · 순천부사 · 방답첨사와 활을 쏘았다.

초저녁에 강진의 장작 쌓아 둔 곳에 실수로 불을 내어 장작이 모두
다 타버렸다.

3월3일[신사/4월22일]

맑다.

아침에 전문을 절하여 보내고, 곧 활터 정자에 앉았다.

경상우후 이익득이 와서 말하기를, "수군을 많이 잡아오지 못했다'하여
그의 수사(원균)에게서 매을 맞고, 또 발바닥까지 맞을 뻔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순천부사 · 좌조방장 · 우조방장 · 방답첨사 · 가리포첨사 · 좌수사 우후,
우수사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오후 여섯 시쯤에 벽방 적후장(제한국)이 보고하되, "왜선 여섯 척이
오리량(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고리량) · 당항포 등지에 정박해 있다"
한다.

그래서 곧 배를 소집시키라고 전령하고, 대군을 흥도 앞바다에 진치고,

정예선 서른 척을 우조방장(어영담)이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도록 했다.
그리고 초저녁에 배를 움직여 지도에 이르렀다가 새벽 두 시쯤에
출항했다.

「장계」에서

오후 두 시에 고성땅 벽방(통영시 광도면) 척후장 제한국이 급히
보고해 왔다.

"당일 날이 밝을 무렵 왜의 대선 열 척, 중선 열 네 척, 소선 일곱
척(모두 서른 한 척)이 영등포에서 나오다가, 스물 한 척은 고성땅
당항포로, 일곱척은 진해땅 오리랑에, 세 척은 저도로 모두 향하여
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익기 등에게 전령하여
다시금 엄하게 약속했다.

한편으로는 순찰사 이빈에게도 전날의 약속대로 "보벼와 기병을
거느리고 빨리 진격하여 상륙한 왜적들을 모조리 쳐서 사로 잡도록"
통고한 뒤에, 그 날 밤 여덟 시에 삼도의 여러 장수들을 남김없이
거느리고 한산 바다 가운데서 출항하여 어둠을 타고 몰래 향해하여
밤 열 시쯤 거제도 내면 지도(통영시 용남면)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1)

3월4일[임오/4월23일]

맑다.

진해 아바다에 이르러 왜선 여석척을 뒤쫓아 잡아 불태워 버렸고,
저도(마산시 함포구 구산면)에서 두척을 불태워 버렸다.

또 소소강에 열 네 척이 들어왔다고 하므로 조방자와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나가 토벌하도록 전령했다.

고성땅 아잠포(阿自音浦 : 고성군 동해면)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장계」에서

새벽에 전선 20여 척을 견내량에 머물게 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고, 또 삼도의 가볍고 빠른 배(輕銳船)를 가려내어
전라좌도에서는 좌척후장 사도첨사 김완, 일령장 노천기, 이령장
조장우, 좌별도장 전첨사 배경남, 판관 이설, 좌위좌부장 녹도만호
송여종, 보주통장 최도전, 우척후장 여도만호 김인영, 일령장 윤봉,
귀선돌격장 주부 이언량,

전라우도에서는 응양별도장 우후 이정충, 좌응양장 어란포만호 정담수,
우응양장 남도포만호 강응표, 조전통장 배윤, 전부장 해남현감 위대기,

중부자 진도군수 김만수, 좌부장 금갑도만호 이진표, 통장 곽호신, 우위중부장 강진현감 유해, 좌부장 목포만호 전희광, 우부장 주부 김남준.

경상우도에서는 미보향첨사 김승룡, 좌유격장 남해현령 기효근, 우돌격장 사랑만호 이어념, 좌척후장 고성현령 조의도, 선봉장 사천현감 기직남, 우척후장 웅천현감 이운룡, 좌돌격장 평산포만호 김축, 유격장하동현감 성천유, 좌선봉장 소비포권관 이영남, 중위우부장 당포만호 하종해 등 서른 한 명의 장수들을 선발하고, 수군 조방장 어영담을 장수로 삼아 당항포와 오리량 등지의 적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몰래 급히 보냈다.

그리고 나는 이억기 및 원균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영등포와 장문포의 적진 앞바다의 시루섬(甌島:마산시 합포구 구산면)해상에서 학익진을 형성하여 한바다를 가로 끊어서 앞으로는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뒤로는 적의 퇴로를 막았다.

그러자 왜선 열 척이 진해 선창(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서 나와 기스락을 끼고 항해하므로 조방장 어영담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한꺼번에 돌진하여 좌우로 협공하자, 여섯 척은 진해땅

읍전포(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서, 두 척은 고성땅
어선포(통영시 용남면)에서, 두 척은 진해땅 시곶포(마산시 합포구
구산면)에서 모두 배를 버린채 물으로 올라가므로 모두 남김없이
쳐부수고 불태워 버렸다.

녹도만호 송여종은 왜선에 사로잡혀 있던 고성 정병 심거원과 진해
관비 예금과 함안 양가집 딸 남월등을 빼앗았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두 사람은 왜적들이 머리를 베어 버리고 가버렸다.

당항포에 들어와 정박한 왜선은 대·중·소선을 아울러 스물 한
척인데,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고는 모두들 기운이 꺾이어서 스스로
세력이 공함을 알고 상륙하여 결진하는 것이었으므로, 순변사
이빈에게 다시금 육군의 지원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어영담에게
명령하여 인솔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바로 그곳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마침 저녁 조수가 이미 나가고 날조차 어두워서 진격하지
못한 채 당포 포구를 가로막고 밤을 지냈다.

2)

3월5일[계미/4월24일]

검사복(윤봉)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쳐부수고 불태웠는지를

탐문케 하였더니, 우조방장 어영담이 보고하되 "적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엄을 겁내어 밤을 틔타서 도망했으므로 빈 배 열 일곱 척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고 했다.

경상우수사(원균)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이 날 아침 순변사에게서도 토벌을 독려하는 공문이 왔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배에 이르자 여러 장수들은 각각 돌아갔다.

저녁에 광양의 새 배가 들어왔다.

「장계」에서

이른 새벽에 나와 이억기는 한바다에 진을 치고 밖에서 들어오는 적에 대비하고, 어영담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포구 안으로 바로 들어 갔는데, 오후 두 시에 도착한 어영담 등의 급보에 "왜적들은 모두 도망해 버렸고, 왜선 스물 한 척에는 기와와 왕대를 가득 실은 채 줄지어 정박해 있었으므로, 모두 쳐부수어 불태워 버렸다"고 하였다.

전라우수사 이억기도 여거 장수들의 보고하는 바에 따라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기운을 뿜내던 남은 왜적들이 감히 항전을 못하고 배를 버린 채 밤중에 도망친 것인 바,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수륙이 상응하여

일시에 합공했다라면 거의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륙군의 주둔한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통고하지를 못하여 새장 속에 들어 있는 적을 다 잡지 못한 것이 참으로 통분하거니와, 고성 및 진해로 쏘다니던 적들도 이뒤로는 스스로 뒤돌아다 보게 되어 제 멋대로 드나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 날 수군 총원이 합세하여 한바다에 그득한 채 포성은 하늘을 진동케 하며, 동서로 진을 바꾸면서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영등포·장문포·제포·웅천·안골포·가덕 및 천성 등지에 웅거했던 적들이 바로 공격할까 겁내어 복병하고 있던 막집을 모두 제손으로 불지르고 , 무서워서 굴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밖에는 그림자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3)

3월6일[갑신/4월25일]

맑다.

거제로 향하는데 맞바람이 거슬러 불어 간신히 흥도에 도착하니,4) 남해현감이 보고하되 "명나라 군사 두명과 왜놈 여덟 명이 패문을 가지고 왔기에, 그 패문과 명나라 군사 두 명을 보낸다"고 했다.

그 패문을 가져다 보니, 명나라 도사 담종인이 "적을 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몸이 몹시 괴로워서 앓고 눕기조차 불편했다.

저녁에 우수가 (이억기)와 함께 명나라 군사를 만나 보았다.

3월7일[을유/4월26일]

맑다.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꼼짝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아랫 사람으로 하여금 패문을 지어오라고 하였더니, 지어 놓은 글이 꼴이 아니다.또, 경사우수사 원균이 손의갑으로 하여금 작성했는데도 그것마저 못마땅하다.나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 앓아 초를 잡고, 정사립에게 이를 다시 써 보냈다. 5) 오후 두 시쯤에 출항하여 한산도 진중에 이르렀다.

「장계」에서 대체로 말하면,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승첩한 기세로 기뻐 뛰며 다들 사생결단으로 바로 돌진하려고 할 뿐 아니라, 주리고 파리하여 숨이 가빠하던 군졸들도 모두 즐거이 출전하여 왜선 30여 척을 모두 쳐부수고 불태웠으며, 한 척도 빠져 나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대로 장문포와 영등포의 적들을 차차 무찌르려고 계획하되, 수군에 소속된 나주 이상 아홉 고을은 더 만드는 전선은 고사하고 원래 책임진 전선 등이 모두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도의 각

포구에서도 역시 각 고을의 수군을 징집해 보내지 않으므로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충청수사 구사직도 아직까지 진에 도착하지 않아 병력의 위엄이 고약할 것같으므로, 형세를 보아서 진결하기로 하고 , 한산 진중으로 돌아왔다.

3월8일[병술/4월27일]

맑다.

병세는 별로 차도가 없다.

기운이 더욱 축이 나서 종일 앓았다.

3월9일[정해/4월28일]

맑다.

기운이 좀 나은 듯 하므로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아프긴 해도 다른 증세는 없다.

3월10일[무자/4월29일]

맑다.

병세는 차츰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열기는 치올라 그저 찬 것만 미시고
싫은 생각뿐이다.

「장계」에서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적선을 분명한 수는 이억기와 어영담의 보고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적었거니와, 왜적의 물건들은 약탈하면서
돌아다니던 적들이라 별로 중요한 것이 없고, 다만
의복·양식·술·나무그릇 등의 잡물 뿐이므로, 수색해온 장병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다.

오직 경상우수사 원균은 적선 서른 한 척을 그 도의 여러 장수들만이
모두 불태운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보냈으니, 온 진중의 장수와
군사들이 껄뽀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조정에서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도록 장계하였다.

3월11일[기축/4월30일]

종일 큰비가 오다.

병세가 아주 많이 나아졌고 열도 또한 내리니 참으로 다행이다.

3월12일[경인/5월1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몹시도 불편하다.

장계 정서하는 일을 마쳤다고 들었다.

3월13일[신묘/5월2일]

맑다.

아침에 장계를 봉해 올렸다.

병은 차츰 차도가 나아진 것같으나, 기력이 매우 고달프다.

그대로 회와 송두남을 내어 보냈다.

3월14일[임진/5월3일]

비오다.

병은 나은 듯하지만,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다.

저녁에 광양현감(송전), 강진현감(유해).

첨치 배경남이 같이 갔다.

소문에 "충청수사(구사직)가 이미 신장(薪場)에 왔다"고 한다.

3월15일[계사/5월4일]

비는 그쳤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종일 끙끙 앓았다.

미조항참사가 돌아갔다.

3월16일[갑오/5월5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충청수사가 전선 아홉 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3월17일[을미/5월6일]

맑다.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해남현감(위대기)은 새 현감과 교대하는 일로 나가고, 황득중 등
복병에 관한 일로 거제도로 갔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3월18일[병신/5월7일]

맑다.

몸이 몹시 불쾌하다.

남해현감 기효근, 보성군수(김득광), 소비포권관 이영남, 적량첨사
고여우가 와서 봤다.

기효근은 파종 때문에 돌아갔다.

낙안 유위장과 향소 등을 잡아 가두었다.

보성군수가 아뢰고 돌아갔다.

6)

3월19일[정유/5월8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끙끙 앓았다.

3월20일[무술/5월9일]

맑다.

몸이 불편하다.

3월21일[기해/5월10일]

맑다.

몸이 불편하다.

명단을 작성하는 관리도 여도만호(김인영), 남도포만호(강응표),
소비포권관 이영남을 뽑아 담당시키었다.

3월22일[경자/5월11일]

맑다.

몸이 약간 나아진 것 같다.

원수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 지휘 담종인의 자문(중국과 왕래하던
문서)과 왜장의 서계(일본과 왕래하던 문서)를 조파총이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3월23일[신축/5월12일]

맑다.

기운이 여전히 불쾌하다.

방담첨사(이순신) · 흥양현감(배흥립) · 조방장(어영담) · 발포만호(황정록)
가 와서 봤다.

3월24일[임인/5월13일]

맑다.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정사립이 왜놈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다.

3월25일[계묘/5월14일]

맑다.

흥양현감과 보성군수가 나갔다.

사로잡혔던 아이(希順)7)는 왜의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담종인)가
가지고 왔던 자인데, 흥양으로 보냈다.

아우 여필, 아들 회, 변존서, 신경황이 와서 어머니 안부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산불에 탔는데, 아무도 끄지 못했다고 한다.

몹시 가슴 아프다.

3월26일[갑진/5월15일]

맑다.

따뜻하기가 여름 날씨같다.

조방장 · 방답참사가 와서 다.

경사우후(이의득) · 영등포만호(우치적)도 왔다가 "창신도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3월27일[을사/5월16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조카 봉이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하다"고 했다.

3월28일[병오/5월17일]

종일 비오다.

조카 봉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몹시도 민망하다.

3월29일[정미/5월18일]담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였다.

웅천현감 · 하동현감 · 장흥부사 · 방담첨사 · 소비포권관 등이 와서 봤다.

3월30일[무신/5월1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충청군관과 도훈도, 낙안 유위장과 도병방 등을 처벌했다.

삼가현감 고상인이 와서 봤다.

1)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21쪽, 「唐項捕破倭兵狀」.

2) ①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21~22쪽.

② 조성도, 『임진장초』, 216~20쪽, 419~22쪽, 「당항포 승첩을

아뢰는 장계」.

3)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23쪽.

4) "고성땅 아잠포에서 출항하여 순풍에 돛을 앞뒤를 서로 이어
거제읍 흥도 앞바다로 향하려고 할 때 남해현령 기효근이 보고 . . .
(固城境阿自音浦發船從風懸帆首尾相接而臣濟邑前胸島前洋指向時南海縣
令奇孝謹)"라 하여 바람 방향이 '역풍'과 순풍으로 다름.

5) 「잡저」 15~16쪽, 「答譚都司宗仁禁討牌文」.

"조선 신하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삼가 명나라 선유도사 대인 앞에
답서를 올립니다.

왜적이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죄없는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또 서울로 쳐들어가 흉악한 짓들을 저지를
것이 말할 수 없으며,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함이 뼈 속에
맺혀 이들 왜적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각 도의 배들을 정비하여 곳곳에 주둔하고 동서에서 호응하는 위에,
육지에 있는 장수들과도 의논하여 수륙으로 합동공격해서 남아 있는
왜적들을 한 척의 배도 못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이 달 초사흘날 선봉선 이백 여 척을 거느리고 바로 거제도로
들어가 그들의 소굴을 무찔러 씨를 없애고자 하였던 바, 왜선 30여
척이 고성·진해 지경으로 들어와서 여염집들을 불태우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며 또 사로 잡아가고, 기와를 나르며 대를 찍어 저희 배에 가득 일어가니 그 정상을 생각한다면 통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적들의 배를 쳐부수고 놈들의 뒤를 쫓아 도원수에게 보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합세하여 나서는 이때, 도사 대인의 타이르는 패문이 뜻밖에 진중에 이르므로 받들어 두번 세번 읽어보니, 순순히 타이르신 말씀이 간절하고 꼭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패문의 말씀 가운데, '일본 장수들이 마음으로 돌려 귀화하기 앓는 자가 없고, 모두 병기를 거두어 저희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 모든 병선들은 속히 각각 제고장으로 돌아가고, 일본 진영에 가까이 하여 트집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고 왜인들이 거제, 웅천, 김해, 동래 등지에 진을 치고 있는바, 거기가 모두 다 우리 땅이거늘 우리더러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심은 무슨 말씀이며, 또 우리더러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제 고장이란 또한 어디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또 트집을 일으킨 자는 우리가 아니요 왜적들입니다.

또한 왜인들이란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한 적도들이 아직도 그 포악스러운 행동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바닷가에 진을 친 채 해가 지나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러 곳으로 쳐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기를 전일 보다 갑절이나 더하오니,

병기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가려는 뜻이 과연 어디 있다
하오리까.

이제 강화한다는 것은 실로 속임과 거짓밖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인의 뜻을 감히 어기기 어려워 잠깐 얼마쯤 두고 보려
하오며, 또 그대로 우리 임금께 아뢰려 하오니 대인은 이 뜻을 널리
타이르시어 농들에게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답서를 드립니다. "

6) 초서본 『난중일기』 3월 18일자 마지막 부분에는 "보성군수가
아뢰고 돌아갔다(寶城告歸)" 라는 말이 없음.

7)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19쪽.

「陳倭情狀」에는 상주에 사사집 종이라 했음.

갑오년 4월

4월1일[기유/5월20일]일식(日蝕)을 할 것인데 하지 않았다.

장흥부사(황세득) · 진도군수(김만수) · 녹도만호(송여종)가 여제를
지낸다고 아뢰고 돌아갔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4월2일[경술/5월21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삼가현감과 충청수사와 같이 종일 이야기했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4월3일[신해/5월22일]

맑다.

오늘 여제를 지냈다.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 천 여든 통이를 먹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같이 앉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4월4일[임자/5월23일]

흐리다.

원수의 군관 송홍득과 변홍달이 새로 급제한 홍패(과거 합격증)를 가지고 왔다.

경상우병사의 군관 박의영이 와서 그의 장수의 안부를 전했다.

식사를 한 뒤에 삼가현감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장흥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종을 오손도손 이야기하였다.

4월5일[계축/5월24일]

흐리다.

4월6일[갑인/5월25일]

맑다.

별시를 보는 시험장소를 개설하였다.

시험관은 나와 우수사(이억기) · 충청수사(구사직)요,

참시관(시험감독관)은

장흥부사(황세득) · 고성현령(조응도) · 삼가현감(고상안) · 웅천현감(이운룡)으로 시험을 감독하게 하였다.

4월7일[을묘/5월26일]

맑다.

일찍 모여 시험을 받았다.

4월8일[병진/5월27일]

맑다.

몸이 불편한 채 시험장으로 올라 갔다.

4월9일[정사/5월28일]

맑다.

시험을 마치고 방을 내어 붙였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통탄함을 무엇으로 말하랴!

4월10일[무오/5월29일]

흐리다.

순무어사(서성)가 집에 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4월11일[기미/5월30일]

맑다.

순무어사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문안선을 내어 보냈다.

4월12일[경신/5월31일]

맑다.

순무어사 서성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 했다.

우수사(이억기) · 경상수사(원균) · 충청수사(구사직)가 함께 왔다.

술이 세 순배 돌자 경상수사 원균은 짐짓 술취한 척하고 미친듯이
날뛰며 억지소리를 해대니, 순무어사도 무척 괴이찍어 했다.

삼가현감이 아뢰고 돌아갔다.

4월13일[신유/6월1일]

맑다.

순무어사가 전쟁 연습하는 것을 보고싶어 한다.

그래서 죽도(통영시 한산면) 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연습했다.

선전관 원사표, 금오랑 김제남이 충청수사(구사직)를 잡아 갈 일로
왔다.

4월14일[임술/6월2일]

맑다.

김제남과 함께 자세한 말을 했다.

저녁 나절에 순무어사의 배로 가서 군사기밀을 자세히 의논했다.

잠시 후에 우수사가 오고, 순천부사 · 방답첨사 · 사도첨사도

아울러왔다 나는 하직하고 배로 돌아왔다.

4월15일[계해/6월3일]

맑다.

충청수사(구사직)가 선전관(원사표) · 금오랑(김제남) ·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왔다.

충처수사 우경 구사직과 작별했다.

4월16일[갑자/6월4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경상수사(원균)의 군관 고경운과 도훈도와 변고에 대비하는
색리 · 영리를 잡아다가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변을 빨리 보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쳤다.

저녁에 송두남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장계에 따라 날날이 명령받은대로 시행했다.

4월17일[을축/6월5일]

맑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공무를 봤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거제현령(안위)이 급히 와서 보고하는데, "왜선 백 여 척이 본토에서 처음 나와서 절영도로 향한다"고 했다.

저물 무렵에 거제에 살다가 사로 잡혔던 남녀 열 여섯명이 도망하여 돌아왔다.

4월18일[병인/6월6일]

맑다.

새벽에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적정을 자세히 물으니, 대마도 평의지(종의지)는 웅천땅 입암(진해시 웅천동 제덕리)에 있고, 평행장(소서행장)은 웅포에 있다고 한다.

총청도 신임 수사(이순신), 순천부사, 우수사 우후(이정충), 거제현령(안위)이 왔다.

4월19일[정묘/6월7일]

비오다.

첨지 김경로가 원수부에서 와서 적을 토벌할 대책을 논의하고서
그대로 한 배에서 잤다.

4월20일[무진/6월8일]

종일 가랑비가 오다.

우수사·충처수사·장흥부사·마량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고 군사
일도 의논했다.

4월21일[기사/6월9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혼자 봉창 아래 앉아 있어도 저녁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답첨사(이순신)가 충청수사가 되었으므로, 중기(重記:교대할 때에
넘겨주는 인계인수서)를 수정하는 일로 돌아갔다.

저녁에 김성숙과 곤양군수 이광악이 와서 봤다.

흥양현감(배홍립)도 왔다.

4월22일[경오/6월10일]

맑다.

바람이 시원하여 가을 날씨같다.

첨지 김경로가 돌아갔다.

장계와 조총을 보해 올렸다.

저녁에 장흥부사와 흥양현감이 왔다.

4월23일[신미/6월11일]

맑다.

순천부사(권준) · 흥양현감(배흥립) · 장흥부사(황세득) · 임치첨사(홍건)

등이 왔다.

곤양군수 이광악이 술을 가지고 왔다.

4월24일[임심/6월12일]

맑다.

아침에 서울 편지를 썼다.

영암군수(박홍장) · 마량첨사(강응호)가 와서 뵈었다.

순천부사가 돌아갔다.

각 항목의 장계를 봉해 올렸다.

경사우수사가 있는 곳에 순찰사 종사관이 왔다고 한다.

4월25일[계유/6월13일]

맑다.

꼭두새벽부터 몸이 불편하여 종일 괴로워했다.

보성군수가 와서 봤다.

4월26일[갑술/6월14일]

맑다.

통증이 극히 심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

곤양군수가 돌아갔다.

4월27일[을해/6월15일]통증이 차츰 덜하다

4월28일[병자/6월16일]

맑다.

경상수사(원균)와 좌랑 이유함이 와서 봤다.

아들 울이 들어왔다.

4월29일[정축/6월17일]

맑다.

기운이 상쾌하진 것 같다.

오늘 우도에서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갑오년 5월

5월1일[무인/6월18일]

맑다.

종일 땀이 비오듯이 흐르더니 좀나아진것 같다.

아침에 아들 면이 들어왔다.

5월2일[기묘/6월19일]

맑다.

새벽에 아들 회가 어머니 생신에 상차려 드릴 일로 돌아갔다.

우수사(이억기) · 흥양현감(배흥립) · 사도첨사(김완) · 소근첨사(박윤)가
와서 봤다.

몸이 차츰 나아져 갔다.

5월3일[경진/6월20일]

맑다.

흥양현감이 휴가를 얻어 돌아갔다.

장흥부사와 발포만호가 와서 봤다.

군량명세서와 공명고신(이름이 안 적인 사령장) 삼백 여 장과 임금의

분부 두 통이 내려왔다.

5월4일[신사/6월21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더 심하게 내렸다.

경상우수사의 군관이 와서 고하기를 "왜적 세 명이 중선(中船)을 타고 추도(통여시 산양면)에 온 것을 만나 잡아왔다"고 했다 이를 압송해 오도록 시켰다.

저녁에 공대원에게 물으니, 왜적들이 바람을 따라 배를 몰고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외오리 바람을 만나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 떠다니다가 이 섬에 닿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의 말이니 믿을 수 없다.

이설 · 이상록이 돌아갔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5월5일[임오/6월22일]

비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붕이 세 겹이나 말리어 조각조각 높이 날려가고, 빗발은 삼대같이 내려 몸을 가리지 못했다.

오후 두 시쯤에야 비바람이 조금 멈추었다.

발포만호(황정록)가 떡을 만들어 보내 왔다.

5월6일[계미/6월23일]

흐렸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다.

경상수사 원균이 왜놈 세 명을 잡아왔기에 문초를 받아보니, 이랬다 저랬다 한번이나 속이므로 원균 수사로 하여금 목을 베게 했다.

5월7일[갑신/6월24일]

맑다.

기운이 편안한 것 같다.

침 열 여섯군데를 맞았다.

5월8일[을유/6월25일]

맑다.

원수의 군관 변응각이 원수의 공문과 장계 초본과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수군을 거제로 진격시켜 적이 무서워 도망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경상수사와 전라우사를 불러 의논했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5월9일[병술/6월26일]

종일 비오다.

홀로 빈 정자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5월10일[정해/6월27일]

비오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우리의 많은
배들이 바다에 가득차 있다.

적이 비록 쳐들어 온다 해도 섬멸할 만하다.

우후(이정충)와 충청수사(이순신)가 와서 장기를 두었다.

5월11일[무자/6월28일]

비가 저녁 때까지 내렸다.

3월부터는 밀려 쌓인 공문을 날날이 결재했다.

낙안군수(김준계)가 와서 이야기했다.

큰 비가 퍼붓듯이 내려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

5월12일[기축/6월29일]

큰비가 종일 내리다가 저녁에야 조금 그쳤다.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봤다.

5월13일[경인/6월30일]

맑다.

검모포만호의 보고에 "경상우수사 소속의 보자기들이 격군을 싣고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많은 보자기들이 원 수사가 있는
곳에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사복들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더니 "원군 수사가 도리어
사복들을 묶어서 가두었다"고 했다 그래서 군관 노윤발을 보내어 이를

풀어 주게 했다.

5월14일[신묘/7월1일]

종일 비오다.

충청수사(이순신) · 낙안군수(김준계)임치현감(홍건) · 목포만호(전희광)

등이 와서 봤다.

5월15일[임진/7월2일]

종일 비오다

5월16일[계사/7월3일]

흐리고 가랑비가 오다.

저녁에는 큰비가 밤새도록 내려 지붕이 새서 마른데가 없다.

각 배의 사람들이 거처가 매우 괴로울 것이 염려된다.

곤양군수(이광악)가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사명담 유정이 적진

안으로 왕래하면서 문답한 초기(草記)를 보내 왔기로 보니 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5월17일[갑오/7월4일]

비가 퍼붓듯이 오다 바다의 안개가 컴컴하여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저녁내 그치지 않았다.

5월18일[을미/7월5일]

종일 비오다 미조항첨사·사주포권관이 와서 봤다.

저녁에 보성현감이 돌아갔다.

5월19일[병신/7월6일]장마비가 잠깐 건헸다.

아들 회와 면을 돌려 보냈다.

5월20일[정유/7월7일]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웅천현감(이운룡)과 소비포권관(이영남)이 와서 봤다.

온종일 홀로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민다.

호남의 방백(관찰사)들이 나라를 저버리는 것에 유감이 더 많다.

5월21일[무술/7월8일]

비오다.

웅천현감 · 소비포권관이 와서 종정도(從政圖)를 했다.

거제 장문포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변사안이 도망쳐 와서 하는 말이
"적의 형세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했다.

5월22일[기해/7월9일]

비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순찰사와 순변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5월23일[경자/7월10일]

비오다.

웅천현감 · 소비포권관이 왔다.

저녁 나절에 해남현감(위대기)이 와서 술과 안주를 바치므로
총청수사(이순신)를 청하여 왔다.

5월24일[신축/7월11일]잠시 맑다가 저녁에 바오다.

우수사와 충처수사가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5월25일[임인/7월12일]

비오다.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서 돌아갔다.

비가 그치지 않으니 전쟁하는 군사들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하랴, 조카
해가 돌아갔다.

5월26일[계묘/7월13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오늘 이인원과 토병 스물 세명을 본영으로 보내어 보리를 거두었다.

5월27일[갑진/7월1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충청수사 · 사도첨사 · 발포만호 · 여도만호와 함께 활을 쏘았다.

5월28일[을사/7월15일]잠깐 개이다 사도첨사 · 여도만호가 와서 활을 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수사 · 충청수사를 청해 와서 같이 활쏘고, 취하여 종일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광양 4호선의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5월29일[병오/7월16일]

아침에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다.

진도군수(김만수)가 아뢰고 돌아갔다.

웅천현감(이운룡) · 거제현령(안위) · 적량첨사(고여우)가 와서보고 돌아갔다.

저물녘에 정사립이 보고하는데 "남해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순천 격군을 싣고 간다"고 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었다.

5월30일[정미/7월17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왜놈들과 도망가자고 꺾 광양 1호선 군사와 경상도 보자기 세 명을
처벌했다.

충청수사, 경상 우후가 와서 봤다.

갑오년 6월

6월1일[무신/7월18일]

맑다.

저녁 나절에 활을 쏘았다.

6월2일[기유/7월19일]

맑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이억기)의 집에 갔더니 강진현감(유해)이 술을
바쳤다.

활 두어 순을 쏘았다.

경상수사 원균도 왔다.

나는 곧 몸이 불편하여 돌아가 누어서 충청수사와 첨사 문길
배경남이 내기 장기 두는 것을 구경했다.

6월3일[경술/7월20일]

아침에 맑더니 오후에 소나기가 퍼부어 바닷물 빛조차 흐리니 근래에
드문 일이다.

충청수사, 첨사 배경남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6월4일[신해/7월21일]

맑다.

검사복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전날의 버릇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죄송하기 그지없다.

이는 원균이 술을 취하여 망발을 부린 것 때문이다.

6월5일[임자/7월22일]

맑다.

충청수사·사도첨사·여도만호·녹도만호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밤 열 시쯤에 급창(관청의 심부름하는 종) 김산과 그 처자 등 세 명이 유행병으로 죽었다.

세 해나 눈앞에 두고 미덥게 부리던 사람인데 하루 저녁에 죽어 가다니 놀랍다.

오늘 무우밭을 갈았다.

송희립이 낙안·홍양·보성으로 군량을 독촉할 일로 나갔다.

6월6일[계축/7월23일]

맑다.

총청수사 · 여도만호와 함께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6월7일[갑인/7월24일]

맑다.

총청수사 첨사 배경남이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군관과 색리 등의 죄를 처벌했다.

송덕일이 돌아와서 "임금의 분부가 들어온다"고 한다 오늘 무우를
부침했다.

6월8일[을묘/7월25일]

맑으며 더워서 찌는 듯하다.

총청수사, 우우후와 같이 활 수무 순을 쏘았다.

저녁에 종 한경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기쁘고 다행이다.

회령포만호(민정붕)가 진에 왔다.

전공에 따라 포상하는 관교(官敎:敎旨)도 왔다.

6월9일[병진/7월26일]

맑다.

충청수사, 우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우수가사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6월10일[정사/7월27일]

맑으며 더워서 찌는 듯하다 활 다섯 순을 쏘았다.

6월11일[무오/7월28일]

맑으며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

아침에 아들 울이 본영으로 갔다.

작별하는 회포가 씁쓸하다.

저녁 나철에 충청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그대로 같이 저녁밥을 먹었다.

달빛 아래 같이 이야기할 때 옥피리 소리가 처량했다.

6월12일[기미/7월29일]

바람이 세게 불었으나 비는 안왔다.

가뭄이 너무 심하다.

6월13일[경신/7월30일]

바람이 몹시 불고 더위는 찌는 듯하다.

6월14일[신유/7월31일]

더위와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바다의 섬도 찌는 듯하다.

농사일이 아주 걱정된다.

충청수사·사도첨사·여도만호·녹도만호와 함께 활 스무 순을
쏘았다.

6월15일[임술/8월1일]

맑더니 오후에 비가 내렸다 신경황이 영의정(유성룡)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라의 근심함이 이보다 더한 이가 없을 것이다.

지사 윤우신이 죽었다니 애석할 따름이다.

순천부사·보성군수가 달려와 보고하는데 "명나라 총병관 장홍유가 호선(號船)을 타고 백 여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을 거쳐 벌써 진도벽파정(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에 이르렀다" 고 했다.

6월16일[계해/8월2일]

아침에 비오다가 저녁에 개었다.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6월17일[갑자/8월3일]

맑다.

우수사·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 했다.

6월18일[을축/8월4일]

맑다.

원수의 군관 조추년이 전령을 가지고 왔다.

"원수가 두치(하동읍 두곡리)에 이르러 광양현감(송전)이 수군 중에
복병을 뽑을 적에 사사로운 정을 썼다" 고 했다.

그래서 군관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물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6월19일[병인/8월5일]

맑다.

원수의 군관과 배응록이 원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6월20일[정묘/8월6일]

맑다.

총청수사가 오고 활을 쏘았다.

탐후선 이인원이 들어왔다.

6월21일[무진/8월7일]

맑다.

명나라 장수(장홍유)가 바닷길로 벌써 벽파정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한다.

6월22일[기사/8월8일]

맑다.

할머님의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오늘 불꽃과 같은 삼복 더위가 전보다 더하여 큰 섬이 찌는 듯하여
사람이 견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6월23일[경오/8월9일]

맑다.

우후(이몽구)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나갔다가 견내량에서 왜놈을
사로잡아 왔다.

왜적의 동태를 묻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물었더니 "염초를 굶는 일과
총쏘기를 다 잘한다"고 했다.

6월24일[신미/8월10일]

맑다.

순천부사 · 충청수사가 와서 활 스무 순을 쏘았다.

6월25일[임신/8월11일]

맑다.

부채를 봉하여 보냈다.

충청수사와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26일[계유/8월12일]

맑다.

충청수사 · 순천부사 · 사도첨사 · 여도만호 · 고성현령 등이 활을 쏘았다.

6월27일[갑술/8월13일]

맑다.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28일[을해/8월14일]

맑다.

나라 제사날(명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진무성이 벽방의 망보는 곳의 부정사실을 조사하고 와서 적선이
없더라고 보고했다.

6월29일[병자/8월15일]

맑다.

순천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왔다.

우수사·충청수사와 같이 활을 쏘았다.

아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갑오년 7월

7월1일[정축/8월16일]

맑다.

나라 제사날(인종의 제서)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배응록이 원수에게서 돌아와서 원수가 한말을 뉘우치며 보내더라고 했다.

7월2일[무인/8월17일]

맑다.

늦더위가 찌는 듯하다 사수들의 활쏘기를 시험하고 적의 장물을 나누어 줬다.

저녁 나절에 순천부사·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7월3일[기묘/8월18일]

맑다.

충청수사·순천부사가 활을 쏘았다.

웅천협감이 아뢰고 돌아갔다.

각배에서 여러번 양식을 훔친 사람들을 처형했다.

7월4일[경진/8월19일]

맑다.

충청수사·마량첨사·소비포권관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왜적 다섯 명과 도망병 한 명을 아울러 처형했다.

활 열 순을 쏘았다.

7월5일[신사/8월20일]

맑다.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 편안하시다고 한다.

다행이다.

심약(審藥)이 내려 왔는데 매우 용렬하니 한심스럽다.

우수사 · 충청수사가 같이 왔다.

여도만호는 술을 가져와 같이 마셨다.

활 여남은 순을 쏘았다.

7월6일[임오/8월21일]

종일 궂은 비가 오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정원명 등을 격군을 정비하지 않은 일로 잡아 가두었다.

7월7일[계미/8월22일]

비가 뿌렸다.

우수사 · 순천부사 · 사도첨사 · 가리포첨사 · 발포만호 · 녹도만호가

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올 일로 곤양으로 나갔다.

7월8일[갑신/8월23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고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각 고을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고성 사람으로 사로 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을 직접 문초했다.

7월9일[을유/8월24일]

바람이 세게 불다.

충청우후(원유남)가 교서에 숙배하였다.

저녁 나절에 순천·낙안·보성의 군관과 색리들의 기일을 어긴 죄를
처벌했다.

낙안의 군량 벼 이백 석을 받아서 나누었다.

7월10일[병술/8월25일]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오다 아들 면의 병이 중태에 빠졌다고 하니
걱정이다 신흥헌과 송전이 들어왔다.

7월11일[정해/8월26일]

종일 굶은비 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장계를 손수 초잡아 고쳐 주었다.

오후에 군관등과 함께 화살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7월12일[무자/8월27일]

맑다.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영의정 유성룡이 죽었다는 부고가 순변사가 있는 곳에 왔다"고 한다.

이는 유정승을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말을 만들어 비방하는 말일 것이다.

7월13일[기축/8월28일]

비오다 비가 내리는데 홀로 앉아 아들 며의 병세가 어떨까 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 보았더니 좋은 괘가 나왔다 .

좀 마음이 놓인다.

또 비가 올 것인가 개일 것인가를 점쳤더니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농사일이 염려된다.

7월14일[경인/8월29일]

비오다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삼대같았다 지붕이 새어 마른 곳이 없다.

간신히 밤을 지냈다.

7월15일[신묘/8월30일]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다 조카해·종 경이 돌아와서 "아들 명의 병이 차도가 있다" 는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조카 분의 편지에 "아산 고향의 선산이 아무 탈 없고 가묘도 편안하며 어머니께서도 편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활 여남은 순을 쏜 뒤에 수루에 올라거서 이리저리 거닐 적에 박주사가 급히 와서 "명나라 장수의 배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러 이리로 온다"고 했다.

7월16일[임진/8월31일]

흐리고 바람이 차갑다.

늦은 아침부터 비가 퍼붓듯이 종일 왔다.

경상수사 원균, 충청수사, 우수사가 모두 와서 봤다.

명나라 장수가 삼천진(삼천포시)에 이르러서 머물러 묵는다고 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7월17일[계사/9월1일]

맑다.

새벽에 포구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열 시쯤에 명나라 장수 파총 장흥유가 병호선(兵號船) 다섯 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곧장 영문에 이르러서는 육지에 내려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수사들과 함께 활터 정자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이 배에서 내려 곧 왔다.

이들과 같이 앉아서 먼저 바닷길 만리 먼길을 어렵다 앓으시고 여기까지 오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비길 데가 없다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작년 7월절강에서 배를 타고 요동에 이르니 요동 사람들이 바닷가에는 돌섬과 암초가 많고, 또 앞으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억지로 말리는데도 그대로 요동에 머물면서 시랑(侍郎) 손광(孫鑛)과 총병(總兵) 양문(楊文)에게 보고하고 올 3월초에 출항하여 들어왔으니 뭐 수고하고 할 것이 있는가" 했다.

나는 차를 마시자고 청하고 또 술잔을 권하니 감개무량하다 또 적의 형세를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7월18일[갑오/9월2일]

맑다.

다락 위로 올라가자고 청하여 술을 권했다.

대체로 내년 봄에 배를 거느리고 곧장 제주에 이르러,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추악한 적들을 무찌르자고 성의있게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헤어졌다.

7월19일[을미/9월3일]

맑다.

환영 예물단자를 올리니.

감사해 마지 못하겠다면서 주시는 물건이 매우 풍성하다고 했다.

또 자(字)와 호(別號)를 물으니 써서 주는 데 자는 중문(仲文)이요, 호(軒號)는 수천(秀川)이라고 했다.

7월20일[병신/9월4일]

맑다.

아침에 통역관이 와서 명나라 장수(장홍유)가 남원에 있는 총병 유정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곧장 돌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장홍유)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총병관 유정에게 전해졌으니,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남의 말들이 있을 것이므로 바라건대 가서 만나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파총이 나의 말을 전해 듣고 과연 옳다고 하며, "내 말을 타고 혼자 가서 만나 본뒤에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파총이 내 배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별의 잔을 권했다.

파총이 일곱 잔을 마신 뒤 홑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 두번 세번 애달픈 뜻으로 송별하였다.

그리고 경수(이억기), 충청수사, 순처부사, 발포만호, 사도참사와 같이 사인암(舍人巖)으로 올라가 취하며 이야기하고서 돌아왔다.

7월21일[정유/9월5일]

맑다.

명나라 장수와의 문답 내용을 원수에게 보고했다.

오후에 흥양의 군량선이 들어왔다.

아들 회가 방자(지방관청의 종)에게 매질했다고 하기에 아들을 잡아와서 뜰 아래에 세워 꾸짖고 매는 때리지 않았다.

1) 저녁 나절에 발포만호가 복병 내보내는 일로 와서 아뢰고 갔다.

우수사(이억기)가 군량 스무 섬을 꾸어 갔다.

7월22일[무술/9월6일]

맑다.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오후에 여러 장수들과 활을 쏘았다.

7월23일[기해/9월7일]

맑다.

활을 쏘았다.

조카 해가 돌아갔다.

7월24일[경자/9월8일]

맑다.

여러가지 장계를 직접 봉했다.

저녁에 활 일곱 순을 쏘았다.

7월25일[신축/9월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에게로 갔다.

활 열 순을 쏘았다.

하천수에게 장계를 지니게 하여 내어 보냈다.

7월26일[임인/9월10일]

맑다.

각 고을에 공문을 써 보냈다.

녹도만호가 도망병 여덟 명을 잡아왔다.

그래서 그 중 주모자 세 명을 처형하고 그 나머지는 곤장을 쳤다.

아들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고 면의 병도 나아진다"고

하니 다행이다.

윤돈이 종사관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천기 · 신제운 · 노유발이 들어왔다.

7월27일[계묘/9월11일]

흐리고 바람 불다.

충청수사 · 순천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7월28일[갑진/9월12일]

맑다.

신제운이 주부로 임명되어서 갔다.

7월29일[을사/9월13일]

종일 가랑비 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밤새도록 신음했다.

1) 초서본 『난중일기』에는 이 날의 아들 회에 대한 사건내용이 없다.

갑오년 8월

8월1일[병오/9월14일]

비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저녁에 낙안군수(김준계)가 강집(姜緝)을 데려다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율에 따라 문초하고 내어 보냈다.

8월2일[정미/9월15일]

비가 퍼붓듯이 내리다.

송희립이 들어왔다.

8월3일[무신/9월16일]

아침에는 흐렸으나 저물녘에야 개었다.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8월4일[기유/9월17일]

비가 뿌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경상수사의 군관과 색리들이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에 여자들에게

떡과 음식물을 이고 오게 한 죄를 처벌했다.

순천부사·발포만호가 와서 활을 쏘았다.

8월5일[경술/9월18일]

아침에 흐렸다.

오후에 경상수사에게로 가서 이야기하고 한 시간쯤이나 지나서 돌아왔다.

오늘 웅천현감 · 소비포권관 · 영등포만호와 윤동구 등이 선봉장으로서 여기에 왔다.

8월6일[신해/9월19일]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비오다.

활 열순을 쏘았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고 면은 차츰 나아진다"고 했다.

8월7일[임자/9월20일]

종일 비오다.

8월8일[계축/9월21일]

비오다.

조방장 정응운이 들어왔다.

8월9일[갑인/9월22일]

비오다.

우수사, 조방장 정응운, 충청수사, 순천부사, 사도첨사가 같이 이야기했다.

8월10일[을묘/9월23일]

비오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8월11일[병진/9월24일]

종일 비가 많이 내리다.

8월12일[정사/9월25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저녁 나절에 충청수사·순천부사·웅천현감·소비포권관과 함께 활을 쏘았다.

원수의 군관 심준이 전령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왔는데 군사에 관한 약속을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므로 오는 17일에 사천으로 나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8월13일[무오/9월26일]

맑다.

심준이 아뢰고 돌아가고, 노윤발도 보냈다.

오전 열 시쯤에 배에서 내려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가서 별도로 날랜 장수들을 뽑아 춘원포(통영군 광도면 예승리) 등지로 가서 적을 엿보아 무찌르게 했다.

8월14일[기미/9월27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오다.

사도첨사·소비포권관·웅천현감 등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선

한척이 춘원포에 정박해 있으므로 불의에 엄습하였더니 왜놈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우리나라 남녀 열 다섯 명과 적의 배만 빼앗아 돌아왔다"고 했다.

오후 두 시 쯤에 진으로 돌아왔다.

8월15일[경신/9월28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출항하여 경상수사 원균과 함께 월명포(통영시 산양면)에 이르러 잤다.

8월16일[신유/9월29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소비도에 이르러 정박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돛을 달고 사천 선창(사천군 음남면 선진리)에 이르니.

기직남이 곤양군수(이광악)와 함께 와 있었다.

그대로 머물러 잤다.

8월17일[임술/9월30일]

흐리다 원수가 오정에 사천에 이르러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래서 원수 있는 곳으로 가서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간의 예를 마치고 그대로 함께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다.

원균 수사를 몹시 책망하니 원 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8월18일[계해/10월1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식사를 한 뒤에 원수가 청하므로 나아가 이야기하고서 아뢰고 돌아왔다.

경상수사 원균은 취해 드러누워 오지 않으므로, 나만 곤양군수(이광악)·거제현령·소비포권관 등과 함께 배를 돌려 삼천포 앞바다로 왔다.

8월19일[갑자/10월2일]

맑다.

새벽에 사랑(통양시 사랑면)뒤쪽에 이르니 원균 수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침을 예순 동이나 캐었는데 원균수사가 그제서야 왔다.

저녁 나절에 출항하여 당포(통영군 산양면 삼덕리)에 이르렀다.

8월20일[을축/10월3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진에 이르렀다.

우수사(이억기)와 조방장 정응운이 와서 봤다.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충청수사는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아뢰고 흥양으로 돌아갔다.

8월21일[병인/10월4일]

맑다.

곤양군수 · 사도첨사 · 마량첨사 · 남호만호 · 영등포만호 · 회령포만호 ·

소비포권관이 와서 봤다.

8월22일[정묘/10월5일]

맑다.

경상우우후 · 낙안군수 · 권양군수 · 거제현령이 와서 봤다.

8월23일[무진/10월6일]

맑다.

공무를 보고 그대로 활을 쏘았다.

8월24일[기사/10월7일]

맑다.

각 고을에 수군을 징발하는 일로 박언춘 · 김윤 · 신경황을 내어 보냈다.

조방장 정응운이 돌아갔다.

8월25일[경오/10월8일]

맑다.

곤양군수 · 소비포권관을 불러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활 여섯 순을 쏘았다.

정원명이 들어왔다.

8월26일[신미/10월9일]

맑다.

공무를 보는데 흥양 보자기 막동이란 자가 장흥의 군사 서른 명을 몰래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갔다.

그래서 처형하여 효수했다.

활터 정자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

충청우후도 와서 같이 쏘았다.

8월27일[임신/10월10일]

맑다.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함께 와서 활을 쏘는데, 흥양현감은 술을 바쳤다.

아들 울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 회를 내 보냈다.

8월28일[계유/10월11일]

비는 조금 오다 마는데 바람이 세게 불다.

진도군수(김만수)가 와서 봤다.

8월29일[갑술/10월12일]

맑으나 된바람이 세게 불다.

공무를 봤다.

남해현감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가 죽었다니 참으로 슬프다.

8월30일[을해/10월13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남해현감 현즙(玄楫)이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이억기) · 장흥부사(황세득) · 충청우후(원유남) · 웅천현감(이운룡)
) · 거제현령(안위) · 소비포권관(이영남)도 왔다.

아내의 병이 몹시 위독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은 생각이 미칠수

없다.

김양간이 서울에서 영의정의 편지와 심충겸(병조판서)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분개하다는 뜻이 많이 적혀 있다.

원균 수사의 하는 일이 매우 해괴하다.

나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천년을 두고서
한탄할 일이다.

곤양군수가 병으로 돌아가는데, 보지 못하고 보내어 너무너무
섭섭하다.

갑오년 9월

9월1일[병자/10월14일]

맑다.

순무사 서성의 공문과 장계 초고가 들어왔다.

9월2일[정축/10월15일]

맑다.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으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9월3일[무인/10월16일]

비오다.

새벽에 임금의 밀지가 들어왔다.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병들이 팔장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가지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세 해 동안이나 바다에 나와 있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

여러 장수들과 맹세하여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을 뜻을 결심하고 나날을 보내지마는, 적이 험고한 곳에 웅거하여 있으니 경솔히 나아가 칠 수도 없다.

하물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백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나라일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마침 흥양현감이 내가 혼자 앉아 있음을 알고 들어와서 자정까지 이야기하였다.

9월4일[기묘/10월17일]

맑다.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이야기했다.

소비포권관 · 여도만호가 들어왔다.

9월5일[경진/10월18일]

맑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9월6일[신사/10월19일]

맑고 바람이 잔잔하다.

충청수사·우후·마량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들으니 "김경로가 우도(右道)에 이르렀다"고 한다.

9월7일[임오/10월20일]

맑다.

순천부사의 편지를 보니, "좌의정(윤두수)과 순찰사(홍세공)가 10일께에 본부로 온다"고 했다.

9월8일[계미/10월21일]

맑다.

장충부사(황세득)를 헌관(獻官)으로 삼고, 흥양현감(배흥립)을 전사(典祀)로 삼아서 내일 독제를 지내려고 입재(入齋)시키었다.

첨지 김경로가 왔다.

9월9일[갑신/10월22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활을 쏘았다.

삼도가 아울러 모였는데, 원균 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첨지 김경로도 같이 쏘았다.

9월10일[을유/10월23일]

맑고 바람도 잔잔하다.

사도첨사가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이 돌아갔다.

9월11일[병술/10월24일]

맑다.

공무를 보고, 남평의 색리와 순천의 격군으로서 세번이나 양식을 흠친
자를 처형했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9월12일[정해/10월25일]

맑다.

조방장 정응운의 편지에 답장했다.

우수사·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9월13일[무자/10월26일]

맑고 따뜻하다.

조도어사 윤경립의 장계 도 통을 보니, 하나는 "진도군수를 파면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수륙 양군이 서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과 "수령들을 전쟁에 보내지 말라"는 것이니, 그 뜻은 자못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녁에 하천수가 장계 회답과 홍패(과거 합격자 명단) 아흔 일곱장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편지도 왔다.

9월14일[기축/10월27일]

맑다.

홍양현감이 술을 바쳤다.

우수사·충청수사가 같이 활을 쏘았다.

방답참사가 공사례를 했다.

9월15일[경인/10월28일]

맑다.

새벽에 충청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망궐례를 했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나누어 주었다.

충천우후(원유남)가 본도로 돌아갔다.

9월16일[신묘/10월29일]

맑다.

9월17일[임진/10월30일]

맑고 따뜻하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우후 이몽구가 둔전에서 수확하는 일로 나갔다.

9월18일[계사/10월31일]

맑고 지나치게 따뜻하다.

종일 활을 쏘았다.

9월19일[갑오/11월1일]

종일 비오다.

홍양현감 · 순천부사 · 해남현감이 와서 이야기했다.

9월20일[을미/11월2일]

바람 불고 비오다.

홀로 앉아 간밤의 꿈을 기억해 냈다.

꿈에 바다 가운데 외딴 섬이 달려 오다가 눈 앞에 와서 주춤 섰는데,
소리가 우레같아 사방에서는 모두들 놀라 달아나고, 나만은 우뚝 서서
끝내 그것을 구경하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9월21일[병신/11월3일]

맑다.

활터 정자에 나가 앉아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뛰어넘기를 하게 하고, 또 사병들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9월22일[정유/11월4일]

우수사·장흥부사·경상우후가 와서 명령을 듣고서 갔다.

원수의 비밀서류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군사들을 출동시키라는
것이였다.

9월23일[무술/11월5일]

맑으나 바람이 사납다.

아침에 활터 정자에 올라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 원균이 군사기밀을 논의하고 갔다.

낙안의 군사 열 한 명과 방답의 수군 마흔 다섯 명을 점검했다.

9월24일[기해/11월6일]

맑고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공무를 봤다.

오늘 더그레(號衣)를 나누는데, 전라좌도는 누런 옷 아홉 벌,
전라우도는 붉은 옷 열 벌, 경상도에는 검은 옷 네 벌이었다.

9월25일[경자/11월7일]

맑다.

첨지 김경로는 군사 일흔 명을 거느리고, 첨지 박종남은 군사 육백
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조봉도 와서 같이 자면서 밤에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9월26일[신축/11월8일]

맑다.

새벽에 곽재우·김덕령 등이 견내량(거제군 사등면 덕호리)에
이르렀으므로 박춘양을 보내어 건너온 까닭을 물었더니, "수군과
합세할 일로 원수(권율)가 전령하였다"고 하였다.

9월27일[임인/11월9일]

아침에 맑더니 저물녘에 비오다.

아침에 출항하여 포구에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출항하여 적도(거제도 둔덕면) 앞바다에 대었다.

그러니 첨지 곽재우, 총용 김덕령, 별장 한명련·주몽룡 등이 와서 약속하고, 각각 원하는 곳으로 갈라 보냈다.

저녁에 병사 선거이가 배에 이르렀으므로 본영의 배를 타게 했다.

9월28일[계묘/11월10일]

흐리다.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적을 치는 일로 길흥을 점쳤더니 길한 것이 많았다.

흥도 안바다에 진을 쳤다.

9월29일[갑진/11월11일]

맑다.

출항하여 장문포(거제군 장목면 장목리) 앞바다로 마구 쳐들어 가니, 적의 무리는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않는다.

누각을 높이 짓고, 양쪽 봉우리에는 진지를 쌓고서 항전하러 나오지

않는다.

선봉의 적선 두 척을 무찔렀더니, 물으로 내려가 도망가 버렸다.

빈 배들만 쳐부수고 불태웠다.

칠천량에서 밤을 지냈다.

갑오년 10월

10월1일[을사/11월12일]충청수사 및 선봉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곧장 영등포로 들어가니, 흉악한 적들은 바닷가에 배를 대어 놓고 한 놈도 나와서 항전하지 않았다.

해질 무렵에 장문포 앞바다로 돌아와서 사도의 2호선이 물에 배를 매려 할 즈음에, 적의 작은 배가 곧장 들어와 불을 던지는 데, 불은

비록 일어나지 않고 꺼졌지만 매우 분통하다.

우수사의 군관 및 경상우수사의 군관은 그들의 실수를 간단히 꾸짖었지만, 사도의 군관에게는 그 죄를 무겁게 다스렸다.

밤 열 시 쯤에 칠천량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10월2일[병오/11월13일]

맑다.

선봉선 서른 척으로 하여금 장문포의 적정을 가서 보고 오게 했다.

10월3일[정미/11월14일]

맑다.

몸소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일찌감치 장문포로 가서 종일 싸우려는데, 적의 무리들은 두려워 항전하러 나오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칠천량으로 돌아왔다.

10월4일[무신/11월15일]

맑다.

곽재우·김덕령 등과 함께 약속하고서 군사 수백 명을 뽑아 물에 내려 산을 오르게 하고, 선봉을 먼저 장문포로 보내어 들락날락하면서 싸움을 걸게 했다.

저녁 나절에 중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수륙이 서로 호응하니, 적의 무리들은 갈팡질팡하며 기세를 잃고 동서로 바빠 달아났다.

육군은 적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곧 배로 내려왔다.

돌아와 칠천량에 진을 쳤다.

선전관 이계명이 표신과 선유교서를 가지고 왔다.

안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잘(貂皮:담비의 털가죽)이 있었다.

10월5일[기유/11월16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10월6일[경술/11월17일]

맑다.

일찍 선봉으로 하여금 장문포 적의 소굴로 보내었더니 왜놈들이 패문을 써서 땅에 꽂았는데, 그 글은 "일본은 명나라와 화친을 의논할 것이니 서로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놈 한 명이 칠천도 산 기스락에서 와서 투항하고자 하므로 곤양군수가 잡아 배에 싣고 왔다.

물어보니 영등포 왜적이었다.

흉도로 진을 옮겼다.

10월7일[신해/11월18일]

맑다.

병사 선거이, 곽재우, 김덕령 등이 나갔다.

띠풀 백 여든 세 동을 베었다.

10월8일[임자/11월19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아침에 출항하여 장문포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군대의 위세만 보인 뒤에 흥도로 돌아왔다.

띠풀 이백 예순 동을 베고 그대로 출항하여 한산도에 이르니, 밤은 벌써 자정이 되었다.

10월9일[계축/11월20일]

맑다.

첨지 김경로, 첨지 박종남, 조방장 김응함, 조방장 한명련, 진주목사 배설, 김해부사 백사림이 아울러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종일 활을 쏘았다.

남해현령 · 하동현감 · 사천현감 · 고성현령이 아뢰고 돌아갔다.

10월10일[갑인/11월21일]

맑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박자윤과 곤양군수는 그래도 머물고 떠나지 않았으며, 흥양현감 · 보성군수 · 장흥부사는 아뢰고 돌아갔다.

10월11일[을묘/11월22일]

맑다.

공문을 처리하였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10월12일[병진/11월23일]

맑다.

경상수사 원균이 적을 토벌한 일을 스스로 직접 장계를 올리고자 했다.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비변사의 공문에 따르면, 원수가 쥐가죽으로 만든
남바위(耳掩:귀가리개)를 전라좌도에 열 다섯 개, 전라우도에 열 개,
경상도에 열 개, 충청도에 다섯 개를 나누어 보냈다.

장계 초고를 수정하여 주었다.

10월13일[정사/11월24일]

맑다.

종사관(정경달)이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천 1호선을 내어 보냈다.

10월14일[무오/11월25일]

맑다.

새벽꿈에 왜적들이 항복하여 육혈포(六穴砲) 다섯 자루를 바치고,
환도도 바치며, 말을 전하는 자는 김서신이라고 하는데, 왜놈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0월15일[기미/11월26일]

맑다.

박춘양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10월16일[경신/11월27일]

맑다.

순무사 서성이 해질 무렵에 이곳에 왔다.

우수사, 원균 수사와 함께 같은 이야기를 했다.

10월17일[신유/11월28일]

맑다.

어사가 이야기하는데, 경상수사 원균의 속이는 말을 많이 했다.

매우 해괴하다.

종사관이 들어왔다.

10월18일[임술/11월29일]

맑다.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10월19일[계해/11월30일]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아침에 종사관과 함께 이야기했다.

10월20일[갑자/12월1일]

아침에 흐리다.

순무어사가 나갔다.

우수사가 와서 아뢰고 갔다.

10월21일[을축/12월2일]

맑다.

종사관 · 우후 · 발포만호가 나갔다.

투항해 온 왜놈 세 명이 원균 수사에게서 왔기로 문초하였다.

10월22일[버인/12월3일]

흐리다.

이적과 중 의능이 나갔다.

10월23일[정묘/12월4일]

맑다.

10월24일[무진/12월5일]

맑다.

우후를 불러서 활을 쏘았다.

10월25일[기사/12월6일]

맑으며 하늬바람이 세게 일었다.

남도만호(강응표) · 영등포만호(조계종)가 와서 이야기했다.

전 낙안군수 첨지신호가 체찰사(윤두수)의 공문 · 목화 · 병거지, 정목(正木) 한동을 가지고 왔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물러갔다.

순천부사 권준이 잡혀갈 때에도 보러 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10월26일[경오/12월7일]

맑다.

10월27일[신미/12월8일]

아침에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미조항첨사(성윤문)가 와서 교서에 숙배하고, 그대로 그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뢰고 돌아갔다.

10월28일[임신/12월9일]

맑다.

공무를 봤다.

금갑만호 · 이진만호가 와서 봤다.

식사를 한 뒤에 우우후 · 경상우후가 와서 목화를 받아 갔다.

10월29일[계유/12월10일]

맑으나 하늬바람이 몹시도 차다.

10월30일[갑술/12월11일]

맑다.

적을 수색하여 토벌하라고 군사를 들여 보내고 싶었으나, 경상도엔 전선이 없어서 다른 배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자정에 아들 회가 들어왔다.

갑오년 11월

11월1일[을해/12월12일]

새벽에 망꺾례를 했다.

11월2일[병자/12월13일]

맑다.

전라좌도에서는 사도첨사(김완)를, 전라우도에서는 우후 이정충을,

경상도에서는 미조항첨사 성윤문을 장수로 정하여 적을
수색·토벌하게 들어 보냈다.

11월3일[정축/12월14일]

맑다.

김천석이 비변사의 고문을 가지고 와서 투항해 온 야에문(也汝文) 등
세 명을 데리고 진에 이르렀다.

11월4일[무인/12월15일]

맑다.

투항해 온 왜놈들의 사정을 들었다.

전문(箋文)을 가지고 갈 유생이 들어왔다.

11월5일[기묘/12월16일]

흐리고 가랑비 오다.

순변사(이일)가 그의 군관으로 하여금 투항해 온 왜놈 열 세 명을
잡아 보냈다.

11월6일[경진/12월17일]

흐리고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이영남 · 이정충, 첨지 신호가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11월7일[신사/12월18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금갑만호 · 사도첨사 · 여도만호 · 영등포만호가 와서 봤다.

.

첨지 신호는 "원수가 수군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했다.

11월8일[임오/12월19]

비가 뿌리더니 저녁 나절에 개었다.

11월9일[계미/12월20일]

맑으나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11월10일[갑신/12월21일]

맑다.

이희남이 들어왔다.

조카 뇌도 영문에 왔다고 한다.

11월11일[을유/12월22일]

동지날이라 새벽에 망꺾례를 했다.

군사들에게 죽을 먹였다.

우우후와 정담수가 와서 봤다.

11월12일[병술/12월23일]

맑다.

11월13일[정해/12월24일]

맑다.

원수가 방어사의 군관으로 하여금 투항해 온 왜놈 열 네 명을 데리고
왔다.

11월14일[무자/12월25일]

맑다.

우병사(김응서)가 투항해 온 왜놈 일곱 명을 자기 군관을 시켜 데리고
왔다.

11월15일[기축/12월26일]

맑고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음양의 조화가 질서를 잃은 것 같다.

오늘은 아버님의 제사날이므로 나가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아들 울 등의 편지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영의정의 편지가 왔다.

11월16일[경인/12월27일]

맑으나 바람기가 제법 쌀쌀하다.

우우후 · 여도만호 · 회령포만호 · 사도첨사 · 녹도만호 · 금갑도만호 · 영
등포만호, 전 어란진만호 정담수 등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11월17일[신묘/12월28일]

맑고 따뜻하며, 서리가 눈처럼 쌓였다.

조카 뇌와 아들 울이 들어왔다.

11월18일[임진/12월29일]

맑다.

바람이 저녁까지 세게 불었다.

11월19일[계사/12월30일]

맑다.

큰 바람이 밤새도록 그치지 않다.

11월20일[갑오/12월31일]

맑다.

경상수사가 원균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11월21일[을미/1월1일]

맑다.

이설이 포퍽하는 장계를 가지고 갔다.

11월22일[병신/1월2일]

맑다.

활 다섯 순을 쏘았다.

11월23일[정유/1월3일]

맑다.

홍양 · 순천의 군량이 들어왔다.

이경복이 와서 들으니 "순변사 등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였다.

11월24일[무술/1월4일]

맑다.

따뜻하여 봄날같다.

공문을 처리했다.

11월25일[기해/1월5일]

흐리다.

새벽 꿈에 이일(순변사)과 만나 내가 많은 말을 하며, "이같이 나라가 위급한 날을 당하여 몸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뱃심 좋게 음탕한 계집을 끼고서 관사에는 들어오지 않고, 성 밖 여염집에 거처하면서 남의 비웃음을 받으니 대체 어쩌자는 것이오? 또 수군 각 고을과 포구에 배정된 육전의 병기를 독촉하기에만 겨를 이 없으니, 이 또한 무슨 이치요?"

하니, 순변사가 말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하품하며 기지개 켜다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에 앉아 공무를 봤다.

11월26일[경자/1월6일]

소한, 맑고 따뜻하다.

11월27일[신축/1월7일]

맑다.

좌도 · 우도로 갈라 둔 투항해 온 왜놈들을 모두 모아 총쏘는 연습을 시키었다.

우우후 · 거제현령 · 사도첨사 · 여도만호가 아울러 와서 봤다.

11월28일[임인/1월8일]

맑다.

(11월29일부터 12월30일 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을미년 1월(1594년 1월)

1월1일[갑술/2월9일]

맑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라일을 생각하니 무심결에 눈물이 흘렀다.

또 나이 여든이나 되신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여러 장수들과 색리·군사들이 와서 아뢰고 세배를 했다.

원전 · 윤언심 · 고경운 등이 와서 봤다.

색리와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1월2일[을해/2월10일]

맑다.

나라 제사날(명종 인순왕후 심씨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1월3일[병자/2월11일]

맑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1월5일[무인/2월13일]

맑다.

공문을 결재했다.

조카 봉과 아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밤새도록 온갖 회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월6일[기묘/2월14일]

맑다.

어응린과 고성현감(조응도)이 왔다.

1월7일[경진/2월15일]

맑다.

흥양현감(배흥립), 방언순과 함께 이야기했다.

남해의 투항해 온 왜놈 야에문(也汝文) 등이 와서 현신했다.

1월8일[신사/2월16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광양현감(송전)의 공식적인 인사를 받은 뒤에 전령에게 기한을 어긴
죄로 곤장을 쳤다.

1월9일[임오/2월17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야에몬 등을 남해로 돌려 보냈다.

1월10일[계미/2월18일]

순천부사 박진이 교서에 숙배했다.

경상수사 원균이 선창에 왔다고 했다.

불러들여 같이 이야기했다.

순천부사 · 우우후 · 흥양현감 · 광양현감 · 웅천현감 · 고성현감 · 거제현
령도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1월11일[갑신/2월19일]

우박이 오고 셋바람이 불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 · 흥양현감 · 고성현감 · 웅천현감 · 영등포만호가 오서
이야기했다.

고성현감은 새 배를 독촉하여 만드는 일로 아뢰고 돌아갔다.

1월12일[을유/2월20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저녁 나절에 순천부사가 아뢰고 돌아갔다.

영남우후 이익득이 와서 왔다.

1월13일[병술/2월21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에 비가 오다.

박치공이 왔다.

1월14일[정해/2월22일]

맑다.

셋바람이 세게 불다.

몸이 불편하여 누워서 신음했다.

영등포만호 · 사천현감 · 여도만호가 와서 뵈었다.

1월15일[무자/2월23일]

맑다.

우우후 이정충을 불렀더니, 이정충은 발을 헛딛어 물에 빠져 한참이나 헤엄치는 것을 간신히 건져냈다.

그를 불러서 위로했다.

1월16일[기축/2월24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1월17일[경인/2월25일]

맑고 따뜻하며 바람도 없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우우후 · 소비포권관 · 거제현령 · 미조항첨사가 아울러 와서, 활을 쏘고서 헤어졌다.

1월18일[신묘/2월26일]

흐리다.

공문을 결재했다.

저녁 나절에 활 열 순을 쏘고서 헤어졌다.

1월19일[임진/2월27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옥구의 피난민 이원진이 왔다.

장흥부사 · 낙안군수 · 발포만호가 들어왔다.

기한을 어긴 죄로 곤장쳤다.

조금 있다가 여도 전선에서 잘못으로 불을 내어 광양 · 순천 · 녹도

전선 네 척에 불길이 번져 탔다.

통탄함을 이길 수 없다.

1월20일[계사/2월28일]

맑다.

아우 여필과 조카 해가 이응복과 함께 나갔다.

아들 울은 조카 분과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1월21일[갑오/3월1일]

맑다.

종일 가랑비 오다.

이경명과 함께 장기를 두었다.

장흥부사가 와서 봤다.

그 편에 들으니, 순변사 이일의 처사가 극히 형편없고 나를 해치려고
무척 애쓰는다고 하니 우습고도 우습다.

1월22일[을미/3월2일]

맑으나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원수의 군관 이태수가 전령을 가지고 왔다.

여러 장수들이 왔는지 안왔는지를 알고 간다고 하였다.

저녁 나절에 다락 위에 올라가 잘못으로 불을 낸 여러 장수들과
색리들에게 곤장을 쳤다.

1월23일[병신/3월3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장흥부사 · 우후 · 흥양현감이 와서 이야기하고 날이 저물어 돌아갔다.

1월24일[정유/3월4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이원진을 배웅했다.

1월25일[무술/3월5일]

맑다.

장흥부사 · 흥양현감 · 우후 · 영등포만호 · 거제현령이 와서 봤다.

1월26일[기해/3월6일]

맑다.

흐리고 바람 불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흥양현감(배홍립)을 잡아 갈 나장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희(李禧)도 왔다.

1월27일[경자/3월7일]

맑다.

춥기가 한겨울같다.

대청에 나가 영암군수 · 강진현감 등의 공식 인사를 받았다.

1월28일[신축/3월8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고 춥다.

황승헌이 들어왔다.

1월29일[임인/3월9일]

흐리나 비는 아니오다.

1월30일[계묘/3월10일]

맑고 섯바람이 세게 불다.

보성군수(안흥국)가 들어왔다.

을미년 2월

2월1일[갑진/3월11일]

맑고 바람이 불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보성군수의 기한 어긴 죄를 곤장치고, 도망치던
왜놈 두 명을 처형했다.

의금부의 나장이 와서 흥양현감을 잡아 갈 일을 전했다.

2월2일[을사/3월1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흥양현감(배흥립)이 잡혀갔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2월3일[병오/3월13일]

맑다.

일찍 대청으로 나가 흥양 배에 불을 던졌다는 신덕수를 심문했으나
실증을 얻어내지 못하여 가두었다.

2월4일[정미/3월14일]

맑다.

몸이 불편하다.

장흥부사·우우후가 왔다.

원수부의 회답 공문과 종사관의 회답 편지도 왔다.

조카 봉, 아들 회, 오종수가 들어왔다.

2월5일[무신/3월15일]

맑다.

충청수사가 왔다.

천성보만호 윤홍년이 교서에 숙배했다.

2월6일[기유/3월16일]

맑고 바람이 세게 불다.

장흥부사 · 우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2월7일[경술/3월17일]

맑다.

보성군수가 술을 가져와 종일 이야기했다.

2월8일[신해/3월18일]

흐리다.

2월9일[임자/3월19일]

비오다.

2월10일[계축/3월20일]

비가 뿌리고 바람도 세게 불다.

황숙도와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2월11일[갑인/3월21일]

비가 오더니 저녁 나절에 잠깐 갠다.

황숙도, 조카 분, 허주, 변존서가 돌아갔다.

종일 공무를 봤다.

저물 무렵에 임금의 분부가 왔는데, 둔전을 검열하라는 것이다.

2월12일[을묘/3월22일]

맑으며 바람은 일지 않았다.

윤엽이 들어왔다.

저녁 나절에 활 여남은 순을 쏘았다.

장흥부사 · 우우후도 와서 활을 쏘았다.

2월13일[병진/3월23일]

맑다.

일찍 도양의 둔전에서 벼 삼백섬을 실어 와서 각 포구에 나누어 주었다.

우수사 · 진도군수 · 무안현감 · 함평현감 · 남도포만호 · 마령첨사 · 회령 포만호 등이 들어왔다.

2월14일[정사/3월24일]

맑고 따뜻하다.

식사를 한 뒤에 진도군수 · 무안현감 · 함평현감이 교서에 숙배하고서 방비처에 수군을 일제히 징발해 보내지 않은 것과, 전선을 만들어 오지 않은 일로 처벌했다.

영암군수도 죄를 논했다.

조카 봉 · 해 · 분과 방응원이 아울러 나갔다.

2월15일[무오/3월25일]

맑고 따뜻하다.

새벽에 망꺠례를 했다.

우수가 · 가리포첨사 · 진도군수가 아울러 와서 참가했다.

상선(上船)을 연기로 그을렸다.

2월16일[기미/3월26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니 함평현감 조발이 논박을 당하여 돌아가려고 하므로 술을 먹여서 보냈다.

조방장 신호가 진에 이르러 교서에 숙배하고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가 가운데로 옮기어 정박했다.

밤 열 시쯤에 출항하여 춘원도(통영시 광도면)에 이르니 날은 밝아 오는데도 경상도 수군은 오지 않았다.

2월17일[경신/3월27일]

맑다.

아침에 군사들에게 식사를 재촉하여 먹이고, 곧장 우수영 앞바다에

이르렀다.

성 안에 있던 왜놈 칠백 명은 우리 배를 보고는 도망치므로, 배를 돌려 나와서 장흥부사 및 조방장 신호를 불러 종일 대책을 논의하고서 진으로 돌아왔다.

저물 무렵에 임영 및 조방장 정응운이 들어왔다.

2월18일[신유/3월28일]

맑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2월19일[임술/3월29일]

맑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거제현령 · 무안현감 · 평산포만호 · 회령포만호 및 허정은도 왔다.

송한련이 와서 말하기를,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산다"고 했다.

2월20일[계해/3월30일]

맑다.

우수사, 장흥부사, 조방장 신호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원균의 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전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2월21일[갑자/3월31일]

비가 조금 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보성군수 · 웅천현감 · 우우후 · 소비포권관 · 강진현감 · 평산포만호
등이 와서 봤다.

2월22일[을축/4월1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장계를 봉했다.

저녁 나절에 우후 · 낙안군수 · 녹도만호를 불러 떡을 먹였다.

2월23일[병인/4월2일]

맑다.

조방장 신호, 장흥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2월24일[정묘/4월3일]

흐리고 우레와 번개가 많이 치면서도 비는 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다.

원전이 아뢰고 돌아갔다.

2월25일[무진/4월4일]

흐리고 바람도 고르지 않다.

아들 회와 울이 들어왔길래 들으니,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한다.

장계를 받들고 온 이전(李瓘)이 들어왔다.

조정의 소식과 영의정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월26일[기사/4월5일]

흐리다.

아침에 편지와 장계 열 여섯 통을 봉하여 정여흥에게 부쳤다.

2월27일[경오/4월6일]한식.

맑다.

원균이 포구에서 수사 배설과 교대하려고 여기에 이르렀다.

교서에 숙배하라고 했더니 불평하는 빛이 많더라고 한다.

두세 번 타일러 억지로 행하게 했다고 하니, 너무도 무식한 것이
우습기도 하다.

2월28일[신미/4월7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장흥부사·우우후와 함께 이야기했다.

광양현감·목포만호도 왔다.

2월29일[임신/4월8일]

맑다.

고여우가 창신도로 갔다.

수사 배설이 와서 둔전치는 일을 논의하였다.

조방장 신호도 왔다.

저녁에 옥포만호 방승경, 다경포만호 이충성 등이 교서에 숙배했다.

2월30일[계유/4월9일]

비오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을미년 3월

3월1일[갑술/4월10일]

맑다.

삼도의 겨울을 지낸 군사들을 모아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무명을

나누어 주었다.

조방장 정응운이 들어왔다.

3월2일[을해/4월11일]

흐리다.

3월3일[병자/4월12일]

맑다.

3월4일[정축/4월13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이 들어왔다.

3월5일[무인/4월14일]

비오다.

노대해가 왔다.

3월6일[기묘/4월15일]

맑다.

3월7일[경진/4월16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 조방장 신호, 우후(이몽구) 및 진도군수(박인룡)가
와서 봤다.

3월8일[신사/4월17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이억기) · 경상수사(배설), 양 조방장(박종남 · 신호),
우후(이몽구) · 가리포첨사 · 낙안군수 · 보성군수 · 광양현감 · 녹도만호
가 아울러 모두 와서 이야기했다.

3월9일[임오/4월18일]

맑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갔다.

방답의 새로 부임한 첨사 장린, 옥포의 새로 부임한 만호 이담이
공적·사적으로 이사를 했다.

진주의 이곤변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3월10일[계미/4월19일]

흐리고 가랑비 오다.

조방장 박종남과 함께 이야기했다.

보성군수 안흥국이 아뢰고 돌아갔다.

3월11일[갑신/4월20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사도시(대궐 안의 쌀·간장 등을 맡은 부서)의 주부 조형도가 와서
전라좌도의 왜적의 정세를 말하고, 또 투항해 온 왜놈들의 말을
전하는데 "풍신수길의 삼년간이나 출병해도 끝내 효과가 없으므로
군사를 더 내어 바다를 건너 부산에다 진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3월11일에 바다를 건너 오기로 벌써 전해졌다"고 했다.

3월12일[을유/4월21일]

흐리다.

조방장 박종남과 우후(이몽구)가 장기를 두었다.

3월13일[병술/4월2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아침에 자운 박종남 영감을 불러 같이 밥을 먹었다.

저녁에 식사를 한 뒤에 조형도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3월14일[정해/4월23일]

비는 오고 바람은 그치다.

남해현령이 진에 이르렀다.

3월15일[무자/4월24일]

비가 잠깐 그치고 바람도 자다.

식사를 한 뒤에 조형도가 아뢰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활을 쏘았다.

3월16일[기축/4월25일]

비오다.

사도첨사 김완이 들어왔다.

그 편에 들으니, "충청수사 입부 이순신이 군량미 이백 여 섬을
조도어사 강첨에게 발각되어 그 때문에 잡혀 심문당한다"고 했다.

"또 "새로 부임한 충청수사 이계훈은 배에서 불을 내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동지 권준이 본영에 왔다"고 했다.

3월17일[경인/4월26일]

비가 건힐 듯하다.

아들 면, 허주, 박인영 등이 돌아갔다.

오늘 군량을 계산하여 딱지를 붙였다.

충청우후(원유남)가 달려와 보고하는데, "수사 이계훈이 불을 내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군관과 격군 14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견내량의 복병한 곳에서 온 투항한 왜인 심안은이(沈安隱已:시마즈)를 문초했더니, 그 놈은 본시 영등에 있던 왜놈이고, 그의 장수 심안돈(沈安頓:島津義弘)이 그의 아들(島津忠恒)을 대신 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다"고 했다.

3월18일[신묘/4월27일]

맑다.

권언경, 아우 여필, 조카 봉, 이수원 등이 들어왔다.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말을 들으니 천만다행이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3월19일[임진/4월28일]

맑다.

권언경 영감과 함께 활을 쏘았다.

3월20일[계사/4월29일]

비오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수사 배설을 만나 배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그는 밀포(密浦)의 둔전 치는 곳을 살펴볼 일로 간다고 했다.

그 길로 우수사에게로 가서 몹시 취하여서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3월21일[갑오/4월30일]

맑다.

저녁 나절에 아우 여필, 조카 봉, 이수원이 돌아갔다.

나주반자(元宗義)와 우후(이몽구)가 와서 봤다.

3월22일[을미/5월1일]

셋바람이 세게 불다.

날씨가 일찍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세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우수사가 여기 와서 같이 쏘았다.

날이 저물어 헤어져 돌아왔다.

3월23일[병신/5월2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세 조방장 및 우후와 함께 걸어서 앞산 봉우리에 오르니, 삼면으로는 바라보이는 앞이 막히지 않고, 길은 북쪽으로 트여 있다.

과녁을 세우고, 자리를 닦고, 거기에 앉아 종일토록 돌아올 것을 잊었다.

3월24일[정유/5월3일]

흐리고 바람이 없다.

공문을 결재했다.

저녁 나절에 세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3월25일[무술/5월4일]

종일 비오다.

동지 권준, 우후 · 남도포만호 · 나주반자가 와서 뵈었다.

영광군수도 왔다.

동지 권준과 장기를 두었는데 권준이 이겼다.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했는데, 닭이 울어서야 열이 조금 내리고 땀은 흐르지 않았다.

3월26일[기해/5월5일]

맑다.

영광군수(丁湍)가 나갔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신호 · 박종남과 우후와 함께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저녁에 수사 배설, 이운룡 · 안위가 와서 새 감사(監司) 맞이할 일을 아뢰고, 사랑(통영시 사랑면)으로 갔다.

밤 열 시쯤에 동쪽이 어둡다가 밝아지니 무슨 상서로운 조짐인지 모르겠다.

3월27일[경자/5월6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가 여기 와서 종일 활을 쏘았다.

어두울 무렵 조방장 박종남에게로 가서
발포만호 · 사도첨사 · 녹도만호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표마(表馬)와 종 금이가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3월28일[신축/5월7일]

맑다.

활 열 순을 쏘았다.

저녁 나절에 사도첨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각 포구의 병부(兵符)를
순찰사의 공문에 따라 각 포구에 직접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3월29일[임인/5월8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두 조방장과 이운룡 · 조계종이 활 스물 세 순을
쏘았다.

수사 배설이 순찰사에게서 오고, 미조항첨사(성윤문)도 진에 왔다.

을미년 4월

4월1일[계묘/5월9일]

맑으며 바람이 세게 불다.

남원 유생 김굉이 수군에 관한 일로 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

4월2일[갑진/5월10일]

맑다.

종일 공무를 봤다.

4월3일[을사/5월11일]

맑다.

세 조방장이 우수영의 진으로 가고, 나는 사도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4월4일[병오/5월12일]

맑다.

아침에 경상수사(배설)가 활을 쏘자고 청하므로 권·박 두 조방장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경상수사에게 갔더니, 전라수사(이억기)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같이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4월5일[정미/5월13일]

맑다.

선전관 이찬이 비밀 유지(有旨)를 가지고 진에 이르렀다.

4월6일[무신/5월14일]

가랑비가 종일 오다.

동지 권준과 같이 이야기했다.

4월7일[기유/5월15일]

맑다.

저무 무렵 바다로 내려가 어두울 때에 견내령에 이르러 잤다.

선전관(이찬)이 돌아갔다.

4월8일[경술/5월16일]

맑으나 섯바람이 세게 불다.

왜적들이 밤에 도망갔다고 하므로 들어가 치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침도(砮島)에 이르러 우수사(이억기), 경상수사 배설과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도 모두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4월9일[신해/5월17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과 함께 활을 쏘았다.

4월10일[임자/5월18일]

맑다.

구화역(仇化驛:九墟驛) 역졸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세 척이 또 역앞(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삼도의 중위장들에게 각각 다섯 척씩 배를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달려가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4월11일[계축/5월19일]

맑다.

우수사가 와서 보고는 그대로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정여홍이 들어왔다.

또 변존서의 편지를 보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을 알겠다.
기쁘다.

4월12일[갑인/5월20일]

맑다.

장계의 회답 열 여덟 통과 영의정(유성룡)·우의정(정탁)의 편지와
자임(予任:李軸) 영감의 회답 편지가 왔다.

군량을 독촉할 일로 아병(牙兵:군사의 일종) 양응원을 순천·광양으로,
배승련을 광주·나주로, 송의련을 흥양·보성으로, 김충의를
구례·곡성으로 정하여 보냈다.

삼도의 중위장 성윤문·김완·이응표가 견내량에서 돌아와 적이
물러갔다고 보고했다.

경상수사 배설은 밀포(密浦)로 나갔다.

4월13일[을묘/5월21일]

흐리고 비오다.

세 조방장이 같이 왔다.

장계와 편지 네 통을 봉하여 거제 군관 편에 올려 보냈다.

저녁에 고성현령 조응도가 와서 왜적의 일을 말하고, 또 "거제의 왜적이 웅천에 군사를 청하여 야간에 습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록 믿을만 하지는 않으나 그럴 염려가 없지도 않다.

4월14일[병진/5월22일]잠깐 비오다.

아침에 흥양현감이 교서에 숙배했다.

4월15일[정사/5월23일]

흐리다.

여러가지 장계와 단오절의 진상품을 봉해 올렸다.

4월16일[무오/5월24일]

종일 큰비가 왔다.

비가 흠족히 오니, 올해 농사는 큰 풍년임을 점칠 수 있다.

4월17일[기미/5월25일]

맑으나 높새바람이 세게 불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세 조방장과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경상수사 배설이 여기에 왔다가 해평장의 논밭 일구는 곳으로 갔다.

미조항첨사도 와서 활을 쏘고서 갔다.

4월18일[경신/5월26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우수사(이억기), 경상수사 배설, 가리포첨사(이응표) · 미조항첨사(성윤문) · 웅천현감(이운룡) · 사도첨사(김완) · 경상우후(이의득) · 발포만호(황정록) 등 삼도의 장수가 모두 와서 모여 활을 쏘았다.

권준 · 신호 두 조방장도 같이 모였다.

4월19일[신유/5월27일]

맑다.

조방장 박종남이 적을 수색 ·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탔다.

4월20일[임술/5월28일]

맑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에게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이영남이 장계 회답을 가지고 내려 왔는데, "남해현령을 효시하라"고 했다.

4월21일[계해/5월29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대청에 나갔다.

활 열 순을 쏘았다.

4월22일[갑자/5월30일]

맑다.

오후에 미조항참사(성윤문) · 웅천현감(이운룡), 적량만호 고여우, 영등포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아울러 왔다.

그래서 정사준(판관 鄭承得의 아들)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남해현령이 군령을 어기었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4월23일[을축/5월31일]

맑다.

마파람이 세게 불어 배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다락 위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4월24일[병인/6월1일]

맑다.

이른 아침에 아들 울, 조카 뇌·완을 어머니 생신에 상차려 드릴 일로 내어 보냈다.

오정 때에 강천석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도망한 왜놈 망기시로(望己時老:孫四郎)가 우거진 풀숲 속에 엎드려 있다가 잡혀왔고, 다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곧 그 놈을 압송해 오게 하고, 삼도에 갈라 말긴 행복한 왜놈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곧 머리를 베라고 하였더니, 망기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죽으러 나왔다.

참으로 독한 놈이었다.

4월25일[정묘/6월2일]

맑고 바람도 없다.

구화역 역졸 득복이 경상우후(이의득)의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왜적의 대선·중선·소선을 아울러 50여 척이 웅천에서 나와
진해(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로 향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수 등을 정탐하도록 내어 보냈다.

홍양현감이 와서 봤다.

사랑만호 이어념이 아뢰고 돌아갔다.

아들 회 및 조카 해가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4월26일[무진/6월3일]

맑다.

새벽에 우수사가 조방장 신호와 함께 자기 소속의 배 20여 척을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저녁 나절에 동지 권준, 홍양현감(배홍립), 사도첨사(김완),
여도만호(김인영)와 함께 활 스무 쏜을 쏘았다.

4월27일[기사/6월4일]

맑으며 바람도 없다.

몸이 불편하다.

동지 권준, 미조항첨사(성윤문) · 영등포만호(조계종)가 와서 같이 활
열 순을 쏘았다.

한밤 자정에 우수사가 적을 수색 · 토벌하고서 진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데도 적의 자취가 없다"고 하였다.

4월28일[경오/6월5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 · 경상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송덕일이 하동현감(성천유)을 잡으러 왔다.

4월29일[신미/6월6일]밤 두 시쯤에 비가 오더니, 아침 여섯 시쯤에
깨끗이 개었다.

해남현감(최위지)이 공사례를 마친 뒤에, 하동현감에게는 두 번이나
기일에 이르지 않은 죄로 곤장 아흔 대를 때렸고, 해남현감에게는
곤장 열 대를 때렸다.

미조항참사는 아뢰고 휴가를 갔다.

세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노윤발이 미역 아흔 아홉 통을 따서 가지고 왔다.

4월30일[임신/6월7일]

맑다.

활 열 순을 쏘았다.

을미년 5월

5월1일[계유/6월8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오다.

5월2일[갑술/6월9일]

아침에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었다.

웅천현감 · 거제현령 · 영등포만호 · 옥포만호가 와서 봤다.

밤 열 시쯤에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며,
"종사관이 벌써 본영에 이르렀다"고 했다.

5월3일[을해/6월10일]

맑다.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해남현감이 와서 봤다.

금갑도만호는 진에 이르렀다.

5월4일[병자/6월11일]

맑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다.

몸소 나아가 잔을 드리지 못하고 홀로 멀리 바다에 앉았으니, 회포를
어찌다 말하랴! 저녁 나절에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해남현감이 아뢰고 돌아갔다.

아들 편지를 보니, "요동의 왕작덕(王爵德)이 고려(왕씨)의 후예로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했다.

참으로 놀랄 일이다.

5월5일[정축/6월12일]

비오다.

오후 여섯 시쯤에 잠깐 개었다.

활 세 순을 쏘았다.

우수사·경상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다섯 시에 종사관 유공진이 들어왔다.

이충일 · 최대성 · 신경황이 같이 이르렀다.

몸이 춥고 불편하고 아파 토하고서 잤다.

5월6일[무인/6월13일]

맑으며 바람도 없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함께 이야기하였다.

저녁 나절에 활 스무 순을 쏘았다.

5월7일[기묘/6월14일]

맑다.

아침에 종사관(유공진) · 우후(이몽구)와 함께 이야기했다.

5월8일[경진/6월15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출항하여 삼도가 같이 선인암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구경도 하며, 또 활도 쏘았다.

오늘 방답첨사(張麟)가 들어와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초나흘에 종 춘세가 잘못 불을 내어 집 열 채가 번져 타버렸다.

다만 어머니께서 계신 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했다.

이야말로 다행이다.

어둡기 전에 배를 돌려 진에 이르렀다.

종사관과 우후는 방 불이는 일로 뒤떨어졌다.

5월9일[신사/6월16일]

맑다.

아침에 식사를 한 뒤에 종사관이 돌아갔다.

우후도 같이 갔다.

활 스무 순을 쏘았다.

5월10일[임오/6월17일]

맑다.

활 스무 순을 쏘았는데, 많이 적중했다.

종사관 등이 영문에 이르렀다고 했다.

5월11일[계미/6월18일]

저녁 나절에 비가 뿌렸다.

두치(하동읍 두곡리)의 군량, 남원·순창·옥과 등을 합하여 예순여덟 섬을 실어 왔다.

5월12일[갑신/6월19일]

긋은비가 그치지 않더니 저녁에야 잠깐 개었다.

대청에 나가 공무를 봤다.

동지 권준과 조방장 신호가 함께 왔다.

5월13일[을유/6월20일]

비가 퍼붓듯이 오는데 종일 그치지 않다.

홀로 대청 가운데 앉아 있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다.

배영수를 불러 거문고를 타게 했다.

또 세 조방장을 불러 오게 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하루 걸릴 탐후선이 옛새나 지나도 오지 않으니 어머니 안부를 알

수가 없다.

속이 타고 무척 걱정이 된다.

5월14일[병술/6월21일]

긱은비가 그치지 않고 종일토록 내렸다.

아침에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사도첨사가 와서 보고하는데, "흥양현감이 받아 간 전선이 암초에 걸려 뒤집어졌다.

"고 한다.

그래서 대장(代將) 최벽과 십호선 장수(十船將)와 도훈도(都訓導)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동지 권준이 왔다.

5월15일[정해/6월22일]

긱은비가 그치지 않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새벽 꿈이 어수선했다.

어머니 소식을 들은지 이레나 되니 몹시 속이 타고 걱정이 된다.

또 조카 해가 잘 갔는지 궁금하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광양의 김두검이 복병으로
나갈 적에 순천과 광양의 두 원에게서 이중으로 월급(朔料)을 받은
것 때문에 벌로써 수군으로 나왔는데, 칼도 안 차고 활도 안 차고서
나온 데다가 무척 오만하므로 곤장 일흔 대를 쳤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몹시 취하여 돌아갔다.

5월16일[무자/6월23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다고 하고, 아내는
실수로 불을 낸 뒤로 마음이 많이 상하여 담천이 더해졌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비로소 조카 해 등이 잘 간 줄을 알았다.

활 스무 순을 쏘았는데, 동지 권준이 잘 맞추었다.

5월17일[기축/6월24일]

맑다.

아침에 나가 본영의 각 배에 사부·격군의 급료받은 사람들을
점고했다.

저녁 나절에 활 스무 순을 쏘았는데, 박·권 두 조방장이 잘 맞추었다.
오늘 소금 굽는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5월18일[경인/6월25일]

맑다.

충청수사 진에 이르렀다.

다만 결성현감(손안국)·보령현감·서천만호(소희익)를 거느리고 왔다.

충청수사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세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 열 순을 쏘았다.

거제현령이 와서 보고 그대로 잤다.

5월19일[신묘/6월26일]

맑으나 셋바람이 차게 불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권·박·신·세 조방장과 사도·방답 두 첨사와
함께 활 서른 순을 쏘았다.

수사 선거이도 와서 같이 참여했다.

저녁에 소금 굽는 가마솥 하나를 부어 만들었다.

5월20일[임진/6월27일]

비바람이 저녁내 오고 밤새도록 멎지 않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공무를 봤다.

수사 선거이, 조방장 권준과 같이 장기를 두었다.

5월21일[계사/6월28일]

흐리다.

오늘은 꼭 본영에서 누가 올 것 같은데도, 당장 어머니 안부를 몰라
답답하다.

종 옥이·무재를 본영으로 보내고, 전복과 밴댕이젓, 물고기알 몇
점을 어머니께 보냈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보자니, 투항해 온 왜놈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희 같은 또래 중에 산소(山素)란 놈이 흉칙한 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왜놈을 시켜서 그놈의 목을 베게 했다.

활 스무 순을 쏘았다.

5월22일[갑오/6월29일]

맑고 화창하다.

동지 권준 등과 함께 활 스무 순을 쏘았다.

이수원이 상경할 일로 들어왔다.

비로소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이다.

5월23일[을미/6월30일]

맑다.

세 조방장과 함께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5월24일[병신/7월1일]

맑다.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이를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소금 굵는 가마솥을 부어 만들었다.

5월25일[정유/7월2일]

맑다가 저녁 나절에 비오다.

경상수사·우수사·충청수사가 모여서 같이 활 아홉 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술을 내어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경상수사 배설에게서 "김응서가 거둬서 대간들의 혹평을 받고 있고,
원수도 거기에 끼었다"는 말을 들었다.

5월26일[무술/7월3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홀로 대청에 앉아 있었다.

충청수사, 세 조방장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현덕린이 들어왔다.

5월27일[기해/7월4일]

맑다.

활 열 순을 쏘았다.

수사 선거이와 두 조방장이 취하여 돌아갔다.

정철이 서울에서 진에 왔다.

장계회답 내용에 "김응서가 함부로 강화에 대하여 한 말이 죄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영의정(유성룡), 좌의정(김응남)의 편지가 왔다.

5월28일[경자/7월5일]

흐리다가 마침내 저녁에 비가 많이 왔다.

끝내 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 전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는데, 간간히 구호했다.

식사를 한 뒤에 수사 선거이, 세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5월29일[신축/7월6일]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종일 퍼부었다.

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친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띠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 교서를 외우지만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을미년 6월

6월1일[임인/7월7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권·박·신 세 조방장과 웅천현감·거제현령과 함께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충청수사 선거이는 이질에 걸려 쏘지 않았다.

새로 번드는 영리가 들어왔다.

6월2일[계묘/7월8일]

종일 가랑비 내리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에서 공무를 봤다.

한비가 돌아갔다.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영리 강기경 · 조춘종 · 김경희 · 신흥언이 모두 당직을 마치고 나왔다.

오후에 가덕진첨사 · 천성보만호 · 평산포만호 · 적량첨사 등이 와서
봤다.

천성보만호 윤홍년이 와서 청주의 이계(李繼)의 편지와 서숙부의
편지를 전하며, "김개(金介)가 지난 3월에 죽었다"고 했다.

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저물 무렵에 권언경 영감이 와서 이야기했다.

6월3일[갑진/7월9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각 보고문서를 처리하고 하달 공문을 내보냈다.

느지막에 가리포첨사 · 남도포만호가 왔다.

권 · 신 두 조방장과 방답첨사 · 사도첨사 · 여도만호 · 녹도만호가 와서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아침에 남해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해평군 윤두수가 남해에서 본영으로 건너온다고 한다.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나 곧 배를 정비하고 현덕린을 본영으로 보냈다. 사랑만호가 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서 돌아갔다.

6월4일[을사/7월10일]

개이다.

진주의 서생 김선명이라는 자가 계원유사(繼援有司)가 되고 싶다고 여기에 왔는데, 보인(保人) 안득이라는 자가 데리고 왔다.

그 말을 들어 살펴보니, 그 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같아서 아직 좀 두고 보자고 하고는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세 조방장과 사도첨사·방답첨사·여도만호·녹도만호가 와서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탐후선이 오지 않아 어머니의 안부를 알 수 없다.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난다.

6월5일[병오/7월11일]

맑다.

이(李) 조방장 등과 더불어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데, 자윤 박종남(조방장)은 병으로 오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웅천현감·거제현령이 와서 같이 종일 이야기했다.

오정 때부터 비가 내려서 활을 쏘지 못했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저녁식사도 먹지 않고, 종일 쓰리고 앓았다.

종 경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6월6일[정미/7월12일]

종일 비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송희립이 들어 왔다.

그 편에 도양장의 농사 형편을 들으니, 흥양현감(배흥립)이 무척이도 애를 썼기 때문에 추수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계원유사 임영도 힘을 많이 쓴다고 했다.

정항이 이곳에 왔으나,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앓았다.

6월7일[무신/7월13일]

종일 비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신음하며 앓았다 누웠다 했다.

6월8일[기유/7월14일]

비오다.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저녁 나절에 세 조방장이 와서 보고, 곤양군수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매우 섭섭하다.

6월9일[경술/7월15일]

맑다.

몸이 아직도 쾌하지 않는다.

답답하고 걱정된다.

조방장 신호, 사도첨사·방답첨사가 편을 갈라서 활쏘기를 했는데, 신호 편이 이겼다.

저녁에 원수 군관 이희삼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조형도가 수군 한 사람에 양식 다섯 홉씩, 물 일곱 홉씩이라고 없는
것을 꾸며서 장계를 하였다"고 했다.

인간의 일이란 참으로 놀랍다.

천지에 어찌 이처럼 속이는 일이 있단 말인가.

저물녘에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이질이 걸리셨다"고 한다.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난다.

6월10일[신해/7월16일]

맑다.

새벽에 탐후선을 본영으로 보냈다.

저녁 나절에 세 조방장, 충청수사,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광주의 군량 서른 아홉 섬을 받았다.

6월11일[임자/7월17일]

가랑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아침에 원수 군관 이희삼이 돌아갔다.

저녁에 나가 공무를 보고 광주 군량을 훔쳐간 도둑놈을 가두었다.

6월12일[계축/7월18일]

가랑비가 오고 바람 불다.

새벽에 아들 울이 돌아왔다.

어머니의 병환이 좀 덜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가 아흔 살인지라 이런 위험한 병에 걸리셨으니 염려가 되고 또 눈물이 난다.

6월13일[갑인/7월19일]

흐리다.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대신으로는 권준이 되었다.

남해현령 기효근은 그대로 유임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 배설에게 다녀가서 보고 돌아왔다.

어두워서 탐후선이 들어왔다.

금오랑이 이미 영 안에 와 있다고 했다.

또 별좌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 병환이 차차 나아간다"고 한다.

다행이다.

6월14일[을묘/7월20일]

새벽에 큰비가 오다.

사도첨사가 활을 쏘자고 청하여 우수와 여러 장수들이 다 모였는데,
저녁 나절에 개었으므로 활 열 두 순을 쏘았다.

저녁에 금오랑이 경상수사 배설을 잡아갈 일로 들어왔다.

권준을 수사로 임명한다는 조정의 공문과 유서와 밀부(密符)도 왔다.

6월15일[병진/7월21일]

맑다.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식사를 한 뒤에 포구로 나가 배설을 떠나 보내니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울이 돌아갔다.

오후에는 조방장 신호와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16일[정사/7월22일]

맑다.

나가 공무를 봤다.

순천의 7호선의 장수 장일이 군량을 훔치다가 잡혀 왔으므로 처벌했다.

오후에 두 조방장과 미조항첨사 등과 함께 활 일곱 순을 쏘았다.

6월17일[무오/7월23일]

맑으나 바람이 종일 불다.

경상수사(권준) · 충청수사(선거이), 두 조방장이 같이 활을 쏘았다.

6월18일[기미/7월2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진주의 유생 유기룡 및 하응문이 양식을 대어 달라면서 쌀 다섯 섬을 받아갔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박종남과 함께 활 열 다섯 순을 쏘고 헤어졌다.

6월19일[경신/7월25일]

비오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아 있는데 몽매간에 아들 면이 윤덕종의 아들
윤운로와 같이 왔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보니 병환이 완쾌하시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신흥헌 등이 들어와서 보리 일흔 여섯 섬을 바쳤다.

6월20일[신유/7월26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종일 다락에 앉았는데, 충청수사가 말이 분명치 않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몸소 가보니 중태에 이르지 않는으나 습한 곳에 기거함으로
일어나는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풍습이라는 병으로 많이 상했다.

무척 염려가 된다.

6월21일[임술/7월27일]

맑다.

몹시 덥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신흥헌이 돌아갔다.

거제현령이 또 왔다.

경상수사(권준)가 보고하는데, "평산포만호(김축)가 병에 걸려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어보낼 일로 적어서 보냈다.

6월22일[계해/7월28일]할머니의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6월23일[갑자/7월29일]

맑다.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영수가 돌아갔다.

6월24일[을축/7월30일]

맑다.

우도(右道)의 각 고을과 포구의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음탕한 계집 열 두 명을 잡아다가 그 대장(隊長)을 아울러 처벌했다.

저녁 나절에 침을 맞아 활을 쏘지 않았다.

허주, 조카 해가 들어왔다.

전마도 왔다.

기성백의 아들 기징현이 그의 서숙부 기경충과 함께 왔다.

6월25일[병인/7월31일]

맑다.

원수의 공문이 들어왔다.

"세 위장(衛將)을 세 패로 갈라 보낸다"고 했고, 또 "소서행장이
일본에서 와서 화친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저녁에 조방장 박종남과 충청수사 선거이에게로 가서 그의 병세를
보니 이상한 일이 많았다.

6월26일[정묘/8월1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공무를 보고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오늘이 권언경 영감의 생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술도 몹시 취하며, 거문고도 듣고 피리도 불다가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6월27일[무진/8월2일]

맑다.

허주, 조카 해, 기운로1) 등이 돌아갔다.

나는 조방장 신호, 거제현령과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28일[기사/8월3일]

맑다.

나라 제사날(명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6월29일[경오/8월4일]

아침에 대청으로 나갔다.

우수사가 와서 활 여남은 순을 쏘았다.

6월30일[신미/8월5일]

맑다.

문어공이 날삼(生癩)을 사들일 일로 나갔다.

이상록도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거제현령 · 영등포만호가 와서 봤다.

방답첨사 · 녹도만호, 조방장 신호가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1) 尹雲輅는 尹德種의 아들이며(6.

19)奇誠伯의 아들은 奇澄憲이다(6.

24)조카 해와 온 사람은 기징헌이므로 이 날 간 사람은 奇雲輅는 아니고 기징헌일 것이다.

을미년 7월

7월1일[임신/8월6일]잠깐 비오다.

나라 제사날(인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홀로 다락 위에 기대어 나라의 돌아가는 꼴을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같은 인재(棟樑)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같은 인물(柱石)이 없으니 모르겠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갈지.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워서 종일 엎치락뒤치락 하였다.

7월2일[계유/8월7일]

맑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날이다.

슬픈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저녁 나절에 활 열 순을 쓰고, 또 철전 다섯 순, 편전 세 순을 쓰았다.

7월3일[갑술/8월8일]

맑다.

아침에 충청수사에게로 가서 문병하니 많이 나았다고 한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서로 이야기한 뒤에 활 열 순을 쓰았다.

밤 열 시쯤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한다.

몹시 걱정이다.

7월4일[을해/8월9일]

맑다.

나주판관(元宗義)이 배를 거느리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李筌) 등이 산 일터에서 노 만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갔다.

미조항첨사·웅천현감이 와서 활을 쓰았다.

군관들은 내기로 향각궁을 쏘았는데, 노윤발이 으뜸이었다.

저녁에 임영 · 조응복이 왔다.

양정언은 휴가를 얻어 돌아갔다.

7월5일[병자/8월10일]

맑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박종남, 조방장 신호가 왔다.

방답첨사는 활을 쏘았다.

임영이 돌아갔다.

7월6일[정축/8월11일]

맑다.

정항, 금갑도만호 · 영등포만호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여덟 순을 쏘았다.

종 목년이 고평에서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한다.

7월7일[무인/8월12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경상수사,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왔다.

방답첨사·사도첨사 등이 편을 갈라 활을 쏘았다.

경상우병사에게서 임금님의 분부가 왔는데, "전쟁의 재앙이 나라를 참혹하게 만들고, 원수놈은 나라 안에 있어 귀신도 부끄러워 하고 사람도 원통해 함이 천지에 사무쳤건만, 아직도 요망한 기운을 빨리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놈과 한 하늘을 함께 이고 있음[不共戴天]을 끝지도 못하니 통분하다.

그러나 무릇 혈기가 있는 자로서 누가 팔을 부르건고 마음을 썩히면서 원수놈의 그 살점을 저미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은 적과 마주 진치고 있는 일선 장수로서 조정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패역한 말을 지껄이고, 또 여러번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여 적의 기세를 높이고 적에게 애교를 부릴 뿐더러, 수호·강화설이 명나라에 까지 미쳐 부끄럽게 하고, 혼단을 열어 놓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다.

생각컨대 군율로 다스려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지만, 오히려 관대히 용서하고 돈독히 타이르고 경계하도록 책망하기로 했다.

아닌게 아니라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니 내가 보기에는 몹시 해괴하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비변사의 낭청 김용을 보내어 구두로 나의 뜻을 전하니, 경은 그 마음을 고쳐서 정신을 가다듬어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 이것을 보니 놀랍고도 죄송스러움을 가눌 길이 없다.

김응서란 어떠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회개하여 다시 힘쓴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만약 쓸개라도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자살이라도 할 것이다.

7월8일[기묘/8월13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영등포만호, 조방장 박종남이 와서 봤다.

우수사의 군관 배영수가 그 장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군량 스무 섬을 주고 갔다.

동래부사 정광좌가 와서 부임했다고 아뢰었다.

활 열 순을 쏘고 헤어졌다.

종 목년이 돌아갔다.

7월9일[경진/8월14일]

맑다.

오늘은 말복이다.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회포가 많이 일어난다.

미조항참사가 와서 보고 갔다.

웅천현감, 거제현령이 활을 쏘고 갔다.

밤 열 시쯤에 바다 위에 달이 다락에 가득차니, 생각이 번거로와 다락
위를 어슬렁거렸다.

7월10일[신사/8월15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와 만나 서로 이야기했다.

양식이 떨어져도 아무런 계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무척 답답하여 괴롭다.

조방장 박종남도 왔다.

두어 잔을 마셨더니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다락 위에 누웠더니 초생달 빛이 다락에 가득하여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7월11일[임오/8월16일]

아침에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쓰고, 여러 곳에도 편지를 써 보냈다.

무재(武才) 박영(朴永)이 직접 일하러 나갔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열 순을 쏘았다.

7월12일[계미/8월17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경상우수사가 와서 봤다.

그와 함께 활 열 순, 철전 다섯 순을 쏘았다.

해질 무렵 서로 회포를 풀고 물러갔다.

가리포첨사도 와서 같이 했다.

7월13일[갑신/8월18일]

맑다.

가리포첨사·우수사가 같이 와서 가리포첨사가 술을 바쳤다.

활 다섯 순, 철전 두 순을 쏘았는데, 나는 몸이 몹시 불편했다.

7월14일[을유/8월19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군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녹도만호 송여종으로 하여금 사망한 군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쌀
두 섬을 주었다.

이상록 · 태구련 ·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아 편안하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7월15일[병술/8월20일]

맑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니 박 · 신 두 조방장과
방담첨사 · 여도만호 · 녹도만호 · 보령현감 · 결성현감 및 이언준 등이
활을 쏘고 술을 마셨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로 하여금 씨름 내기를 했다.

정향이 왔다.

7월16일[정해/8월21일]

맑다.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의 병세가 몹시 위태롭다"고 했다.

매우 걱정스럽다.

곧 송희립·유홍근을 시켜 간호 치료케 했으나,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하여 무척 답답하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순천의 정석주, 영광 도훈도 주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 원수에게 가는 공문과 병사에게 갈 공문을 초잡아 주었다.

미조항첨사(성윤문)·사도첨사(김완)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성 첨사에게는 열흘, 김 첨사에게는 사흘을 주어 보냈다.

녹도만호에게는 유임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내려 왔다.

7월17일[무자/8월22일]

비오다.

거제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거제에 있던 왜적이 벌써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했다.

그래서 곧 정향을 시켜 정하여 보냈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내일 출항하여 나갈 일을 전령했다.

7월18일[기축/8월23일]

맑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박·신 두 조방장과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오후에 출항하여 지도(통영시 용남면)에 이르러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한밤 자정에 거제현령이 와서 말하기를, "장문포(거제군 장목면 장목리)의 왜적 소굴이 이미 텅텅 비어 버렸으며, 다만 서른명 남짓 뿐이다"고 했다.

또"사냥하는 왜놈을 만나 활을 쏘아 한 놈은 목을 베고, 한 놈은 사로잡았다"고 했다.

밤 두 시쯤에 출항하여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7월19일[경인/8월24일]

맑다.

우수사·경상수사·충청수사,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오후 네 시쯤에 진으로 돌아왔다.

당포만호를 찾아서 잡아다 현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쳤다.

김대복의 병세를 가서 보았다.

7월20일[신묘/8월25일]

흐리다.

두 조방장과 함께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느지막이 거제현령 및 전 진해현감 정향이 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다섯 순, 철전 네 순을 쏘았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7월21일[임진/8월26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오다.

우후가 들어 온다고 들었다.

식사를 한 뒤에 태구련·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자루씩 나누어 주었다.

저물 무렵에 아들 울·회와 우후가 같은 배로 섬 밖에 이르러 아들만 들어왔다.

7월22일[계사/8월27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이충일이 그의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나갔다.

7월23일[갑오/8월28일]

맑다.

저녁 나절에 말달리는 일로 원두구미(통영시 한산면 안)로 갔더니 두
조방장 및 충청수사도 왔다.

저녁에 작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7월24일[을미/8월29일]

맑다.

나라 제사날(度祖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7월25일[병신/8월30일]

맑다.

충청수사의 생일이라 음식을 마련하여 왔다.

우수사·경상수사 및 조방장 신호 등과 함께 취하여 마구 이야기했다.

저녁에 조방장 정응운이 왔다.

7월26일[정유/8월31일]막다.

아침에 정영동·윤엽·이수원 등과 흥양현감이 들어왔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1)와 충청수사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7월27일[무술/9월1일]

맑다.

어사의 공문이 들어왔다.

7월28일[기해/9월2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배로 내려가 삼도를 모아 포구 안에 진을 쳤다.

오후 두 시쯤에 어사 신식이 진에 왔다.

곧 대청으로 내려가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각 수사 및 세 조방장을
청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7월29일[경자/9월3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

어사(신식)가 좌도 소속의 다섯 포구의 부정사실을 조사·점검했다.

저녁에 이곳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1) 원문의 "丁水使及忠淸水使"의 '丁'은 뒤의 충청수사로 보아 '右'의
잘못임.

을미년 8월

8월1일[신축/9월4일]

비바람이 세게 일다.

어사(신식)와 같이 식사하고, 곧 배로 내려가 순천 등의 다섯 고을의 배를 점검했다.

저물어서 나는 어사 있는 곳으로 내려가 같이 이야기했다.

8월2일[임인/9월5일]

흐리다.

우도의 전선을 점고한 뒤에 그대로 남도포 막사에서 머물렀다.

나는 나가 앉아 충청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8월3일[계묘/9월6일]

맑다.

어사는 저녁 나절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고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곧 돌아왔다.

8월4일[갑진/9월7일]

비오다.

어사가 이곳에 왔기에 여러 장수들을 모아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5일[을사/9월8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에 어사와 작별을 이야기하러 충청수사 있는 곳에 이르러 어사를 전별(餞別)하고 나니, 조방장 정응운이 아뢰고 돌아왔다.

8월6일[병오/9월9일]

비가 흠뻑 쏟아졌다.

우수사·경상수사, 두 조방장이 모여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7일[정미/9월10일]

비오다.

아침에 아들 울과 허주 및 현덕린, 우후(이몽구)가 같이 배를 타고 나갔다.

저녁 나절에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을 가진 선전관 이광후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원수가 삼도 수군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8월8일[무신/9월11일]

비오다.

선전관이 나갔다.

경상수사·충청수사 및 두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저녁밥을 먹었다.

날이 저물어서 저마다 돌아갔다.

8월9일[기유/9월12일]하늬바람이 세게 불다.

8월10일[경술/9월13일]

맑다.

몸이 불편한 것 같다.

홀로 다락위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 다섯 순을
쏘았다.

정제(鄭霽)와 결성현감(손안국)이 같이 배로 나갔다.

8월11일[신해/9월1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종 한경도 본영으로 갔다.

배영수 · 김응겸이 활쏘기를 겨루었다.

김응겸이 이겼다.

8월12일[임자/9월15일]

흐리다.

일찍 나가 공무를 봤다.

저녁나절에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김응겸이 경상우수사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에 우수사(이억기)에게
들러서 뵈고 활쏘기 겨루기를 했는데, 배영수가 또 졌다가 했다.

8월13일[계축/9월16일]

종일 비오다.

장계 초고를 고치고 공문을 결재했다.

독수(禿水)가 왔는데, 도양장(고흥군 도양면)의 둔전치는 일에
이기남이 하는 짓이 괴상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우후가 달려가 부정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8월14일[갑인/9월17일]

종일 비오다.

진해현감 정항 및 조계종(영등포만호)이 와서 이야기했다.

8월15일[을묘/9월18일]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우수사(이억기) · 가리포첨사(이응표) · 임치현감(홍건) 등 여러 장수들이 함께 왔다.

오늘 삼도의 수사와 본도 잡색군을 먹이고, 종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같이 취했다.

오늘밤 으스스 달빛이 다락을 비치니, 잠을 이룰수 없어 밤새도록 휘파람 불며 시를 읊었다.

8월16일[병진/9월19일]

긋은비가 건히지 않고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생각이 몹시 어지럽다.

두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8월17일[정사/9월20일]

가랑비가 오고 샛바람이 불다.

새벽에 김응겸을 불러 일을 물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활 열 순을 쏘았다.

8월18일[무오/9월21일]

긋은비가 걷히지 않다.

신·박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8월19일[기미/9월22일]날씨가 활짝 개었다.

두 조방장 및 방답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밤 열 시쯤에 조카 봉, 아들 회·울이 들어왔다.

"체찰사(이원익)가 21일 진주성에 이르러 군사에 관한 일을 묻고자
체찰사의 군관이 들어왔다"고 하였다.

8월20일[경신/9월23일]

맑다.

종일 체찰사의 전령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경상수사 권준, 우수사(이억기)·발포만호(황정록)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밤 열 시쯤에 전령이 들어왔다.

한범 자정에 배를 타고 곤이도(통영시 산양면)에 이르렀다.

8월21일[신유/9월24일]

흐리다.

저녁 나절에 소비포(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앞바다에 이르니
전라순찰사(홍세공)의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응표·오계성이 같이 와서 함께 한 시간 남짓 이야기했다.

경수(이억기의 字)·권언경·자윤(박종남의 字)·언심(신호의 字)에게
편지를 썼다.

저물 무렵에 사천 땅 침도(針島:삼천포)에 이르러 잤다.

밤에 몸이 몹시 차갑고 마음이 쓸쓸하다.

8월22일[임술/9월25일]

맑다.

이른 아침에 각종 공문을 만들어 체찰사에게 보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걸어서 사천현에 이르렀다.

오후에 진주 남강가에 이르니 "체찰사는 벌써 진주에 들어왔다"고 했다.

8월23일[계해/9월26일]

맑다.

체찰사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이에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났다.

호남순찰사는 혈뜬어 말하는 기색이 많으니 한탄스럽다.

저녁 나절에 나는 김응서와 같이 축석루에 이르러 장병들이 패전하여 죽은 곳을 보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윽고 체찰사가 나더러 먼저 가라고 하므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정박했다.

8월24일[갑자/9월27일]

맑다.

새벽에 소비포 앞에 이르니 고성현령 조응도가 와서 알현하고서,
소비포 앞바다에서 잤다.

체찰사와 부사(김륙), 종사관(노경임)도 잤다.

8월25일[을축/9월28일]

맑다.

일찍이 식사를 한 뒤에 체찰사와 부사, 종사관은 함께 내가 탄 배를
타고 오전 여덟 시쯤에 출항하여 같이 서서 여러 섬들과 여러 진
합병할 곳과, 또 접전할 곳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면서
의논했다.

곡포(남해군 이동면 화계리)는 평산포(남면 평산리)에 합하고,
상주포(상주면 상주리)는 미조항(삼동면 미조리)에 합하고,
적량(창선면 진동리 적량)은 삼천진(삼천포시)에 합하고,
소비포(고성군 하일면 춘암리)는 사랑(통영시 사랑면 금평리)에 합하고,
가배량(거제도 도산면 노전동)은 당포(통영시 산양면 삼덕리)에 합하고,
지세포(일운면 지세포리)는 조라포(일운면 구조라리)에 합하고,

제포(진해시 웅천1동 제덕동)는 웅천에 합하고, 울포(거제군 장목면 대금리)는 옥포(장승포시 옥포동)에 합하고, 안골포(진해시 안골동)는 가덕진(부산시 강서구 천가동)에 합치기로 결정했다.

저녁에 진중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고 공사례를 한 다음 헤어졌다.

8월26일[병인/9월29일]

맑다.

저녁에 부사(김륵)와 서로 만나 은밀히 이야기했다.

8월27일[정묘/9월30일]

맑다.

군사 5,480명에게 밥을 먹였다.

1) 저녁에 상봉에 이르러 적진과 적이 다니는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바람이 몹시 사납다.

밤을 틈타 도로 내려왔다.

8월28일[무진/10월1일]

맑다.

이른 아침에 체찰사 및 부사·종사관이 같이 다락 위에 앉아 여러 가지 폐단되는 점을 의논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배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나갔다.

8월29일[기사/10월2일]

맑다.

일찍 나가 공무를 보다.

경상수사가 체찰사 있는 곳에서 왔다.

1) 李芬이 쓴 『행록』(을미년)에는 "체찰사 이원익의 이름으로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니, 정승이 기뻐했고 온 군중이 좋아라 했다(吾爲相公已辦了相公若許之則當以相公之命饋之祖公大喜)"고 했다.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18쪽 참조.

을미년 9월

9월1일[경오/10월3일]

맑다.

새벽에 망궤례를 했다.

탐후선이 들어왔다.

우후가 도양장에서 와서 영에 이르러 공문을 가지고 와 바치는데,
정사립을 해치는 뜻이 많이 있으니 우습다.

종사관(유공진)이 병을 돌아가서 조리하겠다고 하므로 결재해 보냈다.

9월2일[신미/10월4일]

맑다.

새벽에 상선을 출항시키었다.

재목을 끌어내릴 군사 1,283명에게 밥을 먹이고서 끌고 내려왔다.

충청수사·우수사·경상수사, 두 조방장과 함께 이르러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9월3일[임신/10월5일]

맑으며 셋바람이 세게 불다.

아우 여필과 아들 울과 유현이 돌아갔다.

강응호가 도양장에서 가을걷이할 일로 같이 돌아갔다.

정항·우수·이섬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영등포에 있는 적진은 초이틀에 소굴을 비우고, 누각과 모든 소굴을 불살라 버렸다"고 했다.

웅천의 적에게 투항하여 붙었던 사람 공수복 등 열 일곱 명을 달래어 왔다.

9월4일[계유/10월6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 보기를 청하여 종일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아우 여필, 아들 울 등이 잘 갔는지 알 수 없어 몹시 궁금하다.

9월5일[갑술/10월7일]

맑다.

아침에 경상수사 권준이 쇠고기를 조금 보냈다.

충청수사, 조방장 신호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신 조방장,
충청수사 선거이와 함께 같은 배로 경상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이 날 체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순천·광양·낙안·홍양의
갑오년(1594)의 전세(田稅)를 실어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 답장했다.

9월6일[을해/10월8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충청수사가 술을 바치므로 우수사,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마셨다.

송덕일이 들어왔다.

9월7일[병자/10월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경상수사가 왔다.

충청도 병영의 배와 서산·보령의 배를 내어 보냈다.

9월8일[정축/10월10일]

맑다.

나라 제사날(세조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식사를 한 뒤에 아들 회와 송덕일이 같은 배로 나갔다.

충청수사, 두 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했다.

9월9일[무인/10월11일]

맑다.

우수사 및 여러 장수들이 일제히 모여서 영내의 군사들에게 떡 한 섬을 나누어 주고 초저녁에 끝내고 돌아갔다.

9월10일[기묘/10월12일]

맑다.

오후에 나는 충청수사 및 두 조방장과 함께 우수사 있는 데로 가서 이야기하고 밤에 돌아왔다.

9월11일[경진/10월13일]

흐리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못했다.

9월12일[신사/10월14일]

흐리다.

아침에 충청수사 및 두 조방장을 청해다가 같이 아침밥을 먹고 늦게 끝내고 돌아갔다.

저녁에 경상수사와 우후 및 정항이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서는 밤이 늦어서야 헤어졌다.

9월13일[임오/10월15일]

맑다.

다락에 기대어 혼자 앉았으니 마음이 불편하다.

9월14일[계미/10월16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경상우수사가 같이 와서 이별하는 술잔을 들고서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수사 선거이와 작별하며 준 시는 이러하다.

북쪽에 갔을 때도 같이 일하고(北去同動苦)

남쪽에 와서도 죽사리 같이 하더니(南來共死生)

오늘 밤 이 달 아래 한 잔을 나누면(一杯今夜月)

내일은 우리 서로 헤어져야만 하리(明日別離情)

9월15일[갑신/10월17일]

맑다.

수사 선거이가 와서 아뢰고 돌아가는데, 또 이별의 잔을 들고나서
헤어졌다.

9월16일[을유/10월18일]

맑다.

나가 공무를 봤다.

장계 봉하는 것을 감시했다.

저물 무렵 일식을 하여 밤이 되어서야 밝아졌다.

9월17일[병술/10월1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서울에 편지를 써 보냈다.

김희번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유자 서른 개를 영의정에게 보냈다.

9월18일[정해/10월20일]

맑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정응운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9월19일[무자/10월21일]

맑다.

조방장 정응운이 들어왔다가 돌아갔다.

9월20일[기축/10월22일]

맑다.

밤 두 시쯤에 독제를 지냈다.

사도첨사 김완이 헌관으로 행사했다.

아침에 우수사가 와서 봤다.

9월21일[경인/10월23일]

맑다.

박·신 두 조방장과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박 조방장을 작별하려 했으나, 그대로 경상수사를 작별하고서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저녁에 이종호가 들어왔다.

다만 목화만 가져왔기로 모두 나누어 주었다.

9월22일[신묘/10월24일]

맑다.

셋바람이 세게 불다.

박자윤(종남의 字) 영감이 나갔다.

경상우수사도 와서 전별했다.

9월23일[임진/10월25일]

맑다.

나라 제사날(태조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웅천 사람인데 사로잡혔던 박녹수·김희수가 와서 알현하고 겸하여

적정을 보고했다.

그래서 무명 한 필 싹을 나누어 주어 보냈다.

9월24일[계사/10월26일]

맑다.

아침에 각처에 편지 열 통 남짓 썼다.

아들 울·면과 방익순 및 온개(溫介) 등과 함께 나갔다.

이 날 저녁에 우수사·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9월25일[갑오/10월27일]

맑다.

오후 두 시쯤에 녹도의 하인이 실수로 불을 내어 대청·다락방 등이 모두 타버렸다.

군량·화약·군기 등의 창고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나, 다락 위에 있던 장전과 편전 이백 여 개가 모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

9월26일[을미/10월28일]

맑다.

홀로 온종일 배 위에 앉아 있다가 누웠다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이언량(龜船將)이 재목을 깎아 가지고 왔다.

9월27일[병신/10월29일]

흐리다.

안골포 사람으로 왜적에게 붙었던 자 230여 명이 왔다.

배는 스물 두 척이라고 우수(禹壽)가 와서 보고했다.

식사를 한 뒤에 불난 데로 올라가 집 지을 만한 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9월28일[정유/10월30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집 짓는 곳으로 올랐다.

우수사·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아들 회·울이 기별을 듣고 들어왔다.

9월29일[무술/10월31일]

맑다.

9월30일[기해/11월1일]

맑다.

을미년 10월

10월1일[경자/11월2일]조방장 신호와 함께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그대로 작별하는 술자리를 베풀었다.

저녁 나절에 신 조방장이 나갔다.

10월2일[신축/11월3일]

맑다.

대청에 대들보를 올렸다.

또 상선(上船)을 연기로 그을렸다.

우수사·경상수사 및 이정충이 와서 봤다.

10월3일[임인/11월4일]

맑다.

해평군 윤근수의 공문을 구례의 유생이 가지고 왔다.

"김덕령과 전주의 김윤선 등이 죄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수군
진영으로 도망하여 진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을 수색해 보니, "9월10일 경에 보리씨를 바꿀 일로 진에
왔다가 곧 돌아갔다"고 했다.

10월4일[계묘/11월5일]

맑다.

10월5일[갑진/11월6일]이른 아침에 다락에 올라가 역사(役事)하는 것을
보고서 다락 위 바깥쪽 서까래에 흙을 치올려 발랐다.

투항해온 왜놈들로 하여금 물건 나르는 일을 시켰다.

10월6일[을사/11월7일]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 및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저녁에 웅천현감(이운룡)이 왔다.

그 편에 명나라 사신 양방형이 부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날 사로잡혔던 사람 스물 네 명이 나왔다.

10월7일[병오/11월8일]

맑다.

화창하기가 봄날같다.

임치첨사(홍건)가 와서 봤다.

10월8일[정미/11월9일]

맑다.

조카 완이 들어왔다.

진원과 조카 해의 편지도 왔다.

10월9일[무신/11월10일]

맑다.

각처에 답장을 써서 보냈다.

대청을 짓는 것을 다 마쳤다.

우우후(이정충)가 와서 봤다.

10월10일[기유/11월11일]

맑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경상수사가 아울러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10월11일[경술/11월12일]

맑다.

일찍 다락방으로 올라가 종일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10월12일[신해/11월13일]

맑다.

일찍 다락 위로 올라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서쪽 행랑을 만들어 세웠다.

저녁에 송홍득이 들어왔는데, 미친 듯이 망녕된 말이 많았다.

10월13일[임자/11월14일]

맑다.

일찍 새로 지은 다락에 올라가 대청에 흙을 치올려 붙이는데, 투항해 온 왜놈들에게 시켰다.

송홍득이 군관으로 따라 나갔다.

10월14일[계축/11월15일]

맑다.

우수사·경상수사·사도첨사·여도만호·녹도만호 등이 와서 봤다.

10월15일[갑인/11월16일]

맑다.

새벽에 망궤례를 행했다.

저녁에 달빛을 타고 우수사 이억기에게 가서 전별했다.

경상수사·미조항첨사·사도첨사도 왔다.

10월16일[을묘/11월17일]

맑다.

새벽에 새로 지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수사·임치첨사·목포만호 등이 나갔다.

그대로 새 다락방에서 잤다.

10월17일[병진/11월18일]

맑다.

아침에 가리포첨사·금갑도만호가 와서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진주의 하응구·유기룡 등이 계원미(繼援米) 스무 섬을 가지고 와
바쳤다.

부안의 김성업, 미조항첨사 성윤문이 와서 뵈었다.

정향이 아뢰고 돌아갔다.

10월18일[정사/11월19일]

맑다.

경상수사 권준과 우우후(이정충)가 와서 봤다.

10월19일[무오/11월20일]

맑다.

아들 회 · 면이 나갔다.

송두남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

김성업도 돌아갔다.

이운룡이 와서 봤다.

계향유사(양식 대는 책임자) 하응문 · 유기룡이 나갔다.

10월20일[기미/11월21일]

맑다.

저녁

나절에

가리포첨사 · 금갑도만호 · 남도포만호 · 사도첨사 · 여도만호가 와서

보기에 술을 먹여서 보냈다.

저물 무렵에 영등포만호도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 날 밤 바람은 몹시도 싸늘하고, 차가운 달빛은 대낮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민다.

10월21일[경신/11월22일]

맑다.

이설이 휴가를 신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우우후 이정충, 금갑도만호 가안책, 이진의 권관 등이 와서 봤다.

바람이 몹시 싸늘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공태원을 불러 왜적의 정형을 물었다.

10월22일[신유/11월23일]

맑다.

가리포첨사·미조항첨사·우후등이 와서 봤다.

저녁에 송희립·박태수·양정언이 들어왔다.

전문을 모시고 갈 유생도 들어왔다.

10월23일[임술/11월24일]

맑다.

아침에 전문을 보낸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10월24일[계해/11월25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하응구도 와서 종일 이야기하고 저물어서 돌아갔다.

박태수 · 김대복이 아뢰고 돌아갔다.

10월25일[갑자/11월26일]

맑다.

가리포첨사 · 우후 · 금갑도만호 · 회령포만호 · 녹도만호 등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정항이 아뢰고 돌아가므로 전별했다.

띠풀을 베어 올 일로 이상록 · 김응겸 · 하천수 · 송의련 · 양수개 등이 군사 여든 명을 거느리고 나갔다.

10월26일[을축/11월27일]

맑다.

임달영이 왔다고 했다.

불러서 제주도 가는 일을 물었다.

방답첨사가 들어왔다.

송흥득 · 송희립 등이 사냥하러 갔다.

10월27일[병인/11월28일]

맑다.

우우후 · 가리포첨사가 왔다.

10월28일[정묘/11월29일]

맑다.

경상우후(이의득)가 와서 봤다.

띠풀을 베러 갔던 배가 들어왔다.

밤에 비가 오고 우리가 여름철같이 치니 괴상한 일이다.

10월29일[무진/11월30일]

맑다.

가리포첨사(이응표) · 이진권관이 돌아갔다.

경상수사(권준) · 웅천현감(이운룡) · 천성보만호(윤홍년)도 왔다.

을미년 11월

11월1일[기사/12월1일]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느지막이 나가 공무를 봤다.

사도첨사가 나갔다.

함평 · 진도 · 무장의 전선을 내어 보냈다.

김희번이 서울에서 내려 와서 조정의 공문과 영의정의 편지를 바쳤다.

투항해온 왜놈들에게 술을 먹였다.

오후에 방답첨사와 활 일곱 순을 쏘았다.

11월2일[경오/12월2일]

맑다.

곤양군수 이수일이 와서 봤다.

11월3일[신미/12월3일]

맑다.

황득중이 들어와서, "왜선 두 척이 청등(거제군 사등면)을 거쳐
홍도(거제군 동부면)에 이르렀다가 해북도(통영시 용남면)에 정박하여
불을 지르고 돌아가서는 춘원포(통영시 광도면 예승포)등지에
이르렀다"고 전하고서, 그는 새벽에 지도로 돌아갔다.

11월4일[임신/12월4일]

맑다.

새벽에 이종호 · 강기경 등이 들어와서 봤다.

변존서의 편지와 조카 봉 · 해 형제가 본영에 이르렀다고 했다.

11월5일[계유/12월5일]

맑다.

남해현령 · 금갑도만호 · 남도포만호 · 어란포만호 · 회령포만호 및

정담수가 와서 봤다.

방담첨사 · 여도만호를 불러 와서 이야기했다.

11월6일[갑술/12월6일]

맑다.

송희립이 들어왔다.

띠풀 사백동, 칩 일백 동을 베어서 실어 왔다.

11월7일[을해/12월7일]

맑다.

하동현감(최기준)이 교유서에 숙배했다.

경상우수사가 순찰사 있는 곳에서 왔다.

미조항첨사·남해현령도 왔다.

11월8일[병자/12월8일]

맑다.

새벽에 조카 완과 종 경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김응겸, 경상도순찰사의 군관 등이 왔다.

11월9일[정축/12월9일]

맑다.

여도만호 김인영이 들어왔다.

11월10일[무인/12월10일]

맑다.

새벽에 경상도순찰사의 군관이 돌아갔다.

11월11일[기묘/12월11일]

맑다.

새벽에 선조임금의 탄신 축하례를 행했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주부 변존서·이수원·이원룡 등이 왔는데, 그 편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저녁에 이의득이 와서 봤다.

금감도만호·회령포만호가 나갔다.

11월12일[경진/12월12일]

맑다.

발포가장으로 이설을 정하여 보냈다.

11월13일[신사/12월13일]

맑다.

도양장에서 거둔 벼와 콩이 팔백 스무 섬이었다.

11월14일[임오/12월14일]

맑다.

11월15일[계미/12월15일]

맑다.

아버지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홀로 앉았으니 그리워서 마음을 달랠 길 없다.

11월16일[갑신/12월16일]

맑다.

투항해온 에문레니(汝文戀巳)·야지로(也時老) 등이 와서 "왜놈들이

도망가려 한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우우후를 시켜 잡아다가 그 주모자 준시(俊時) 등 두 명의 머리를 베었다.

경상수사 · 우후 · 웅천현감 · 방답첨사 · 남도포만호 · 어란포만호 · 녹도만호가 왔는데, 녹도만호는 곧 내어 보냈다.

11월17일[을유/12월17일]

맑다.

11월18일[병술/12월18일]

맑다.

어응린이 와서, "소서행장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는데 거처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래서 경상수사에게 전령하여 이를 수륙으로 정탐케 했다.

저녁 나절에 하응문이 와서 군량 잇대는 일로 보고했다.

조금 있으니 경상수사 · 웅천현감 등이 와서 의논하고 갔다.

11월19일[정해/12월19일]

맑다.

이른 아침에 도망갔던 왜놈이 제발로 와서 현신했다.

밤 열 시쯤에 분·봉·해와 아들 회가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하응문이 돌아갔다.

11월20일[무자/12월20일]

맑다.

거제현령·영등포만호가 와서 봤다.

11월21일[기축/12월21일]

맑다.

된바람이 종일 불다.

새벽에 송희립을 내 보내어 견내량에 있는 왜적선을 찾아내게 했다.

이 날 저녁에 반대좀[碧魚:청어] 1만 3천 240두를 곡식과 바꾸려고

이종호가 받아 갔다.

11월22일[경인/12월22일]

맑다.

새벽에 동지 하례로 북향하여 임금께 숙배했다.

저녁 나절에 웅천현감 · 거제현령 · 안골포만호 · 옥포만호 · 경상우후 등이 왔다.

변존서와 조카 봉이 모두 갔다.

11월23일[신묘/12월23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이종호가 하직하고 나갔다.

이날 견내량 순찰하는 일로 경상수사를 정하여 보냈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와 출항하지 못했다.

11월24일[임진/12월24일]

맑다.

순라선이 나갔다가 밤 열 시쯤에 진으로 돌아왔다.

변익성이 곡포권관이 되어 왔다.

11월25일[계사/12월25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곡포권관의 공식 신고를 받았다.

저녁 나절에 경상우후가 와서 투항해온 왜놈 여덟 명이 가덕도에서 왔다고 전했다.

웅천현감 · 우우후 · 남도포만호 · 방답첨사 · 당포만호가 와서 봤다.

조카 분과 이야기하다보니 밤 열 시가 되었다.

11월26일[갑오/12월26일]

아침에는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광양 도훈도가 복병하러 나갔다가 도망간 자들을 잡아와서 처벌했다.

오정 때에 경상수사가 왔다.

투항한 왜놈 여덟 명 및 그 인솔자 김탁 등 두 명이 왔다.

그래서 술을 먹이고 김탁 등에게는 각각 무명 한 필씩을 주어서 보냈다.

저녁에 유척과 임영 등이 왔다.

11월27일[을미/12월27일]

맑다.

김응겸이 두 해 먹은 나무를 베어올 일로 귀장이[耳匠:목수] 다섯
명을 데리고 갔다.

11월28일[병신/12월28일]

맑다.

나라 제사날(睿宗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유척과 임영이 돌아갔다.

조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어졌다.

11월29일[정유/12월29일]

맑다.

나라 제사날(인종 인성왕후 박씨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11월30일[무술/12월30일]

맑다.

남해의 투항해온 야에몬(也汝文:彌右衛文) · 신지로(信是老:信次郎) 등이
왔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체찰사의 전세(田稅)로 군량 서른 섬을 경상수사가 받아갔다.

을미년 12월

12월1일[기해/12월31일]

맑다.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12월2일

[경자/ 1596년 1월1일]

맑다.

거제현령 · 당포만호 · 곡포만호 등이 와서 봤다.

술을 먹었더니 취하여 돌아갔다.

12월3일[신축/1월2일]

맑다.

12월4일[임인/1월3일]

맑다.

순천 2호선과 낙안 1호선의 군사를 점검하고 내어 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출항하지 못했다.

조카 분 · 해가 본영으로 갔다.

황득중 · 오수 등이 청어 7천 여두름을 싣고 왔다.

그래서 김희방의 곡식 사러 가는 배에 계산하여 주었다.

12월5일[계묘/1월4일]

맑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다.

몸이 불편한 것 같아 종일 나가지 않았다.

12월6일[갑진/1월5일]

맑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저녁에 아들 율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만반 다행이다.

12월7일[을사/1월6일]

맑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다.

웅천현감 · 거제현령 · 평산포만호 · 천성보만호 등이 와서 보고 갔다.

청주 이희남에게 답장을 써 부쳤다.

12월8일[병오/1월7일]

맑다.

우우후 · 남도포만호가 와서 봤다.

체찰사의 전령이 왔는데, 가까운 시일 안으로 만나자는 것이었다.

12월9일[정미/1월8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밤새도록 신음했다.

거제현령(안위), 안골포만호 우수가 와서 왜적들이 물러갈 뜻이 없는 모양이라 말했다.

하응구도 왔다.

12월10일[무신/1월9일]

맑다.

충청도순찰사(박흥로) 및 충청수사(선거이)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12월11일[기유/1월10일]

맑다.

조카 해·분이 탈없이 본영에 이르렀다는 편지를 보니 기쁘고
다행이지만, 그 고생스러웠던 형상을 무엇이라 말로 나타낼 수가 없다.

12월12일[경술/1월11일]

맑다.

경상수사가와서 봤다.

우후도 왔다.

12월13일[신해/1월12일]

맑다.

왜놈 옷 신 벌과 연폭(蓮幅).

.

.

.

.

.

.

.

(이곳의 원문의 글이 빠졌음).

.

.

.

.

.

.

.

초저녁에 종 동세가 와서 말하기를, "왜선 세 척과 소선 한 척이
등산(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바깥바다에서 합포에 와 정박해 있다"고
했다.

이는 아마도 사냥하는 왜놈인것같아 곧
경상수사 · 방답첨사 · 우우후에게 찾아 보게 했다.

12월14일[임자/1월13일]

맡다.

경상수사 및 여러 장수들이 합포로 나아가 왜놈들을 타일렀다.

미조항첨사 및 남해현령 · 하동현감이 들어왔다.

12월15일[계축/1월14일]

맡다.

체찰사에게로 갔던 진무(鎭?)가 와서 "18일에 삼천포에서 만나자"고 하므로 달려가기로 했다.

초저녁에 경상수사와 와서 봤다.

12월16일[갑인/1월15일]

맡다.

새벽 네 시쯤에 출항하여 달빛을 타고 당포(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앞바다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사랑도(통영시 사랑면) 뒷바다에 이르렀다.

12월17일[을묘/1월16일]

비가 뿌렸다.

삼천포진 앞에 이르니 체찰사(이원익)는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12월18일[병진/1월17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삼천포진으로 나아갔다.

오정 때에 체찰사가 보(堡)에 이르러 같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체찰사가 또 같이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이야기 하고 밤
두시가 되어서야 헤어졌다.

12월19일[정사/1월18일]

아침밥을 먹은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군사들에게 음식을 실컷 먹이고 난 뒤에 체찰사가 떠나갔다.

나는 배로 내려오는데, 바람이 몹시 사나와 출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서 밤을 지냈다.

12월20일[무오/1월19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다.

(12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병신년 1월 (1596년 1월)

1월1일[무진/1월29일]

맑다.

밤 한 시쯤에 어머니 앞에 들어가뵈었다.

저녁 나절에 남양 아저씨와 신 사과가 와서 이야기했다.

저녁에 어머니께 하직하고 본영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몹시도 어지러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1월2일[기사/1월30일]나라 제사날(명종 인순왕후 심씨의 제사)이라

일찍 나가서 병기들을 검열했다.

부장(部將) 이계(李繼)가 비변사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1월3일[경오/1월31일]

맑다.

새벽에 바다로 내려가니 아우 여필과 여러 조카들이 모두 배 위에 타

있었다.

날이 밝을 무렵에 출항하여 서로 작별하였다.

오정에 곡포(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바다 가운데에 이르니 셋바람이 약간 불었다.

상주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앞바다에 이르니 바람이 잦다.

노를 재촉하였더니 자정에 사랑에 이르러 잤다.

1월4일[신미/2월1일]먼동이 틀 때에 출항하는데 이어념이 와서 봤다.

진중의 소식을 물으니 "모두 예나 다름없다"고 했다.

걸망포(통영시 용남면)에 이르니 경상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와 기다렸다.

우후는 먼저 배 위로 왔으나, 몹시 취하여 인사불성이어서 곧 그 배로 갔다고 했다.

1월5일[임신/2월2일]

종일 비오다.

먼동이 틀 때에 우후와 방담첨사·사도첨사가 와서 문안했다.

첨사 성윤문, 우후 이정충, 웅천현감 이운룡, 거제현령 안위,
안골포만호 우수, 옥포만호 이담이 왔다.

이몽상도 경상수사 권준의 심부름으로 와서 문안하고 돌아갔다.

1월6일[계유/2월3일]

비오다.

사도첨사가 술을 가지고 왔다.

"군량 오백 여 섬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다.

1월7일[갑술/2월4일]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 권준, 우후, 사도첨사, 방담첨사가 오고 권숙도
왔다.

낮 두 시쯤에 건내량의 복병장과 삼천포권관이 달려와서 "투항한 왜놈
다섯 명이 부산에서 왔다"고 하므로 안골포만호 우수 및 공태원을
시켜 데려오게 했다.

1월8일[을해/2월5일]투항한 왜놈 다섯 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온 까닭을 물으니, 저희네 장수가 성질이 모질고 일을 또 많이 시키므로 도망하여 와서 투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은 부산에 있던 왜놈이 아니고, 가덕도의 심안돈(沈安頓 : 島津義弘)의 부하라는 것이다.

1월9일[병자/2월6일]

흐리다.

각처에 공문을 써 보냈다.

저물 무렵에 경상수사가 와서 방어대책을 논의했다.

하늬바람이 불어 종일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1월10일[정축/2월7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우우후가 어란포에서 와서 봤다.

사도첨사·웅천현감·곡포권관·삼천포권관·적량만호도 와서 봤다.

1월11일[무인/2월8일]

맑다.

하늬바람이 밤새도록 세게 불어 한겨울보다 갑절이나 더 춥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저녁 나절에 거제현령이 오고, 광양현감도 들어왔다.

1월12일[기묘/2월9일]

맑다.

웅천현감이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왜적선 열 네 척이 와서 거제 금이포(金伊浦)에 정박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상수사에게 삼도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가 보게했다.

1월13일[경진/2월10일]

맑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와서 보고하고 배를 타고 견내량으로 갔다.

이 날 저녁에 달빛은 낮과 같고, 바람 한 점 없다.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이룰수가 없다.

신흥수를 불러 통소를 불게 했다.

1월14일[신사/2월11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가 저녁 나절에야 바람이 자며 날씨는
따뜻한 것 같다.

홍양현감이 들어왔다.

정사립·김대복이 들어왔다.

조기·김숙도 같이 왔다.

1월15일[임오/2월12일]

맑다.

새벽에 망궤례를 행했다.

대청으로 나가 공문을 써 보냈다.

이어서 투항해온 왜놈에게 술과 음식을 먹였다.

낙안과 홍양의 전선·병기·부속물 및 사부와 격군들을 점고하니
낙안의 것이 몹시 엉성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달빛이 몹시 맑으니 풍년이 들직하다.

1월16일[계미/2월13일]

맑다.

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우우후 등이 와서 봤다.

웅천현감도 와서 취하여 돌아갔다.

1월17일[갑신/2월14일]

맑다.

방담참사가 휴가를 받고서 변존서, 조카 분, 김숙 등과 같은 배로 나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오정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후를 불러 활을 쓸 적에 성윤문과 변익성이 와서 보고 같이 활을 쏘고서 돌아갔다.

어두울 무렵 강대수 등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종 금이 16일에 본영에 이르렀다"고 했다.

종 경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들 회가 오늘 은진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1월18일[을유/2월15일]

맑다.

아침부터 종일 군복을 마름질했다.

곤양군수(이수일) · 사천현감(기직남)이 왔다.

동래현감(정광좌)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놈들이 많이 반역하는
눈치가 보이고, 유격 심유경이 행장(小西行長)과 함께 1월16일에 먼저
일본으로 갔다"고 했다.

1월19일[병술/2월16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가 왔다.

곤양군수도 와서 술을 내므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부산에 들어 넣은 사람 네 명이 와서 전하기를, "심유경과
소서행장 · 현소 · 정성(寺澤正成) · 소서비(小西飛: 內藤如安)가 함께
1월16일 새벽에 바다를 건너갔다"고 했다.

오늘 메주를 쑼다.

1월20일[정해/2월17일]몸이 몹시 피곤하여 낮잠을 반 시간 잤다.

낙안군수가 와서, "둔전에서 거둔 벼를 실어왔다"고 보고했다.

1월21일[무자/2월18일]

맑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봤다.

미조항첨사 및 흥양현감이 와서 보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미조항첨사는 휴가를 신청했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니
사도첨사 · 여도만호 · 사천현감 · 광양현감 · 곡포권관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곤양군수도 왔다.

활 열 순을 쏘았다.

1월22일[기축/2월19일]몹시 춥고 바람도 차가워 종일 나가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경상우후가 와서 그의 수사(권준)의 경솔한 짓을 전했다.

이 날 밤은 바람이 차고도 매우니, 아이들이 들어오기가
고생스러울까봐 걱정된다.

1월23일[경인/2월20일]

맑다.

아침에 헐벗은 군사 열 일곱 명에게 옷을 주었다.

저녁에 가덕에서 나온 김인복이 와서 현신하므로 적의 정세를 물어
보았다.

밤 열 시쯤에 아들 먼, 조카 완, 최대성, 신여윤, 박자방이 본영에서
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편지를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다.

눈이 두 치나 내렸다.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한다.

이 날 밤 몸이 몹시 불편하다.

1월24일[신묘/2월21일]

맑다.

된바람이 세게 불어 눈보라를 치며 모래까지 휘날리니 사람이 감히

걸을 수가 없고, 배도 운항할 수가 없다.

새벽에 견내량 북병장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어제 왜놈 한명이 북병한 곳에 와서 투항하며 들어오기를 빌었다"고 하므로, 보내라고 회답했다.

저녁 나절에 우우후 및 사도첨사가 와서 봤다.

1월25일[임진/2월22일]

맑다.

1월26일[계사/2월23일]

맑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1월27일[갑오/2월24일]경상우도순찰사(서성)가 들어왔기에 우수사의 진으로 가서 보았다.

1월28일[을미/2월25일]

맑다.

오정 때에 순찰사가 왔다.

활을 쏘고 같이 이야기했다.

순찰사가 나와 활쏘기를 맞서서 겨루다가 일곱 푼을 졌는데,
무안스러운 빛이 없지 않았다.

1월29일[병신/2월26일]

종일 비오다.

일찍 식사를 한 뒤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같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오후에 활을 쏘았는데, 순찰사가 아홉 푼을 졌다.

피리소리를 듣다가 한밤 자정에야 진으로 돌아왔다.

1월30일[정유/2월27일]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야 개었다.

군관이 활을 쏘았다.

천성보만호(윤흥년) · 여도만호(김인영) · 적량만호(고여우)가 와서 봤다.

저녁에 청주의 이희남이 들어왔다.

병신년 2월

2월1일[무술/2월28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권숙이 이곳에 왔다가 취해서 갔다.

2월2일[기해/2월29일]

맑다.

아들 울과 조기(趙琦)가 같은 배로 나갔다.

우후도 갔다.

저녁에 사도첨사가 와서 어사의 장계에 따라 파면되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곧 장계를 초잡았다.

2월3일[경자/3월1일]

맑다.

아침에 장계를 수정했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적량만호 고여우가 장담년(張聃年)에게 소송을 당하여 순찰사가 장계를 올려 파면시키려 한다고 들었다.

어두울 무렵 어란만호가 건내랑 복병한 곳에서 보고하기를, "부산의 왜놈 세 명이 성주에서 투항해 온 사람들을 데리고 복병한 곳에 이르러 장사하겠다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 장흥부사에게 전령하여 내일 새벽에 가서 타일러 보라고 했다.

이런 왜적들이 어찌 장사를 하고자 하겠는가.

우리의 허실을 엿보려는 것이다.

2월4일[신축/3월2일]

맑다.

아침에 장계를 봉하여 사도 사람 진무성에게 부쳤다.

느지막이 흥양현감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오후에 활 열 순을 쏘았다.

여도만호 · 거제현령 · 당포만호 · 옥포만호도 왔다.

저녁에 장흥부사가 복병한 곳에서 돌아와 "왜놈들이 도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2월5일[임인/3월3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사도첨사 · 장흥부사가 일찍 왔다.

그래서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권숙이 와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종이와 대검[佩刀]을 주어 보냈다.

저녁 나절에 삼도의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위로하는 음식을
먹이고, 겸하여 활을 쏘고 풍악을 잡히다가 취하여 헤어졌다.
우수사의 편지가 왔는데 기한을 늦추자고 하니 한심스럽다.

2월6일[계묘/3월4일]

흐리다.

새벽에 귀장이[耳匠 : 목수] 열 명을 거제에 배를 만들러 보냈다.

사도첨사 김완은 조도어사의 장계로써 파면되어 본디의
포구(골사도)로 내어 보냈다.

2월7일[갑진/3월5일]

흐리다.

몸이 좋지 않다.

저녁 나절에 나가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장흥부사 · 우후 · 낙안군수 · 홍양현감을 불러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2월8일[을사/3월6일]

맑다.

녹도만호가 와서 봤다.

흥양현감이 둔전의 벼 삼백 쉼 두 섬을 바쳤다.

2월9일[병오/3월7일]

맑다.

경상수사 권준이 와서 이야기하고 활 열 순을 쏘았다.

견내량과 부산의 왜적선 두 척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웅천현감 및 우후를 탐색하러 보냈다.

2월10일[정미/3월8일]

맑다.

박춘양이 왔다.

저녁에 몸소 곳집 짓는 곳을 보았다.

웅천현감 · 우우후가 견내량에서 돌아와서 왜놈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모양을 보고했다.

2월11일[무신/3월9일]

맑다.

보성의 계향유사 임찬(林瓚)이 소금 쉰 섬을 실어 갔다.

임달영이 제주에서 돌아왔다.

제주의 편지와 박종백·김응수의 편지도 가지고 왔다.

장흥부사와 우우후가 왔다.

또 낙안군수와 흥양현감을 불러 활을 쏘았다.

2월12일[기유/3월10일]

맑다.

살대[箭竹] 쉰 개를 경상수사에게 보냈다.

저녁나절에 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을 쏘았다.

장흥부사·흥양현감도 같이 쏘았다.

2월13일[경술/3월11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공무를 봤다.

강진현감(이극신)의 기일 어긴 죄를 처벌했다.

영암군수(박홍장)를 파면시킬 장계를 초잡았다.

임달영이 돌아갔다.

제주목사(이경록)에게 답장했다.

2월14일[신해/3월12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보고 장계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동북(同福)의 계향유사 김덕린이 와서 인사했다.

경상수사가 쑥떡을 보내왔다.

낙안군수 · 녹도만호 등을 불러서 떡을 먹였다.

새로 지은 곳집에 지붕을 이었다.

강진현감이와서 인사하므로 위로하고 술을 먹였다.

저녁에 물을 부엌가로 끌어들이는데 물 길는 길을 편하게 했다.

흥양의 계향유사 송상문이 와서 쌀과 벼를 합해 일곱 섬을 바쳤다.

2월15일[임사/3월13일]

새벽에 비오다.

전라우도의 투항해 온 왜놈과 경상도의 투항해 온 왜놈이 같이 짜고
도망갈 꾀를 낸다고 들었다.

그래서 전령을 내어 알렸다.

아침에 장계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동북의 계향유사 김덕린, 흥양의 계향유사 송상문 등이 돌아갔다.

2월16일[계축/3월14일]

맑다.

아침에 장계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장흥부사 · 우우후 · 가리포첨사가 와서 같이 활을 쏘았다.

2월17일[갑인/3월15일]

흐리다.

나라 제사날(세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식사를 한 뒤에 아들 면이 본영으로 갔다.

저녁에 흥양현감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미조항첨사 성윤문의 문안 편지가 왔는데, "방금 관찰사[方伯]의 공문을 받고 진주성[晉城]으로 부임하게 되어 나아가 인사드리지 못한다.

자기 대신으로 황언실이 되었다"고 했다.

2월18일[을묘/3월16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체찰사의 비밀 공문이 세 통 왔다.

그 하나는 제주목에게 계속하여 후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등포만호 조계종을 심문하는 일에 관한 것이고, 다란 하나는 진도 진선을 아직은 독촉하여 모으지 말라는 것이었다.

저녁에 김국이 서울에서 들어와서 비밀 공문 두 통을 가지고 왔다.

2월19일[병진/3월17일]

맑다.

경상수자 권준이 왔다.

장흥부사 · 웅천현감 · 낙안군수 · 흥양현감 · 우우후 · 사천현감 등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상도 진에 남아 있는 투항한 왜놈을 이곳에 있는 왜놈
난에몬(亂汝文 : 南汝文) 등을 시켜 묶어 와서 목을 베게 했다.

2월20일[정사/3월18일]

맑다.

손만세가 사사로이 입대(入隊)에 관한 공문을 만든 죄를 처벌했다.

오후에 활 열 순을 쏘았다.

2월21일[무우/3월19일]

비오다.

2월22일[기미/3월20일]

맑다.

웅천현감 · 흥양현감이 와서 봤다.

우우후 · 장흥부사 · 낙안군수 · 남도포만호 · 가리포첨사 · 여도만호 · 녹

도만호가 와서 활을 쏘았다.

나도 활을 쏘았다.

2월23일[경신/3월21일]

맑다.

일찍 식사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둔전의 버를 다시 되어 세 곳간에 백 예순 일곱 섬을 쌓았다.

저녁 나절에 거제현령 · 고성현감 · 하동현감 · 강진현감 · 회령포만호가
와서 봤다.

하천수 · 이진도 왔다.

2월24일[신유/3월22일]

맑다.

일찍 식사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둔전의 버를 다시 되어 백 일흔 섬을 곳간에 넣었다.

우수사가 들어왔다.

낙안군수(선의경)가 갈렸다는 기별이 왔다.

2월25일[임술/3월23일]

비오다가 오정 때 개었다.

장계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나주판관(원종익)이 와서 봤다.

장흥부사가 와서 "수군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관찰사가 방해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2월26일[계해/3월24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조금 있으니 견내량 복병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선 한 척이 견내량을 거쳐 들어와 해평장에까지 이르러 즈음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다.

2월27일[갑자/3월25일]

흐리다.

녹도만호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흥양현감이 휴가를 받아 돌아갔다.

2월28일[을축/3월26일]

맑다.

일찍 침을 맞았다.

장흥부사와 체찰사의 군관이 이곳에 이르렀는데, 장흥부사는 "종사관이 발행한 전령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일 때문에 왔다"고 했다. 또 "전라도 수군 안에서 우도의 수군이 전라좌·우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성원한다"고 했다.

저녁에 거제현령을 불러 와서 일을 물어 본 뒤에 돌려 보냈다.

2월29일[병인/3월27일]

맑다.

아침에 공문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 및 경상수사, 장흥부사, 체찰사의 군관이 왔다.

경상우도 순찰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2월30일[정묘/3월28일]

맑다.

아침에 정사립으로 하여금 보고문을 써서 체찰사에게 보냈다.

장흥부사도 체찰사에게 갔다.

해가 뉘엿할 때 우수사가 보고하는데, "벌써 바람이 따뜻해졌으니 협동작전할 계획이 시급하여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본도(전라우도)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가짐이 몹시도 해괴하여 그의 군관 및 도훈도에게 곤장 일흔대를 때렸다.

저녁에 송희립 · 노윤발 · 이원룡등이 들어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렸다.

병신년 3월

3월1일[무진/3월29일]

맑다.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아침에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해남현감 유형(柳珣), 임치점사 홍견, 목포만호

방수경에게 기일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해남현감은 새로 부임해 왔으므로 곤장을 치지는 않았다.

3월2일[기사/3월30일]

맑다.

아침에 장계 초잡은 것을 수정했다.

보성군수가 들어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3월3일[경오/3월31일]

맑다.

이원룡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반관해(潘觀海)가 왔다.

정사립 등을 시켜 장계를 썼다.

이 날은 명절(삼짇날)이라 방답첨사·여도만호·녹도만호 및 남도포만호 등을 불러 술과 떡을 먹였다.

송희립을 우수사에게 보내어 뉘우치는 뜻을 전하니, 은근하게 대답하더라고 했다.

3월4일[신미/4월1일]

맑다.

아침에 장계를 봉했다.

느지막이 보성군수 안흥국을 기일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오후에 출항하여 곧바로 소근포 끝으로 돌아 경상우수사가 있는 곳에 이르니, 좌수사 이운룡도 왔다.

조용히 이야기하고서 그대로 자리도(佐里島 : 진해시 웅천동) 바다 가운데서 같이 잤다.

3월5일[임신/4월2일]

맑다.

새벽 세 시에 출항하여 해가 뜰 무렵에 견내량의 수사가 복병한 곳에 이르니, 마침 아침먹을 때였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서로 보고서 그대로 이정충의 장막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했다.

비가 많이 쏟아지므로 먼저 배로 내려가니, 회 · 해 · 면 · 울 및 수원 등이 함께 와 있었다.

비를 맞으며 진안으로 돌아오니 김양(金洋)도 왔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정이 되어갔다.

3월6일[계유/4월3일]

흐리다.

아침에 몸이 불편하다.

식사를한 뒤에

하동현감(신진) · 고성현령(조응도) · 함평현감(손경지) · 해남현감(유형)

이 아뢰고 돌아갔다.

남도포만호(강응표)도 돌아갔는데, 기일을 5월 10일로 정했다.

우우후와 강진현감(이극신)에게는 8일이 지난 뒤에 나가도록 했다.

함평현감(손경지) · 남해현감(박대남) · 다경포만호(윤승남) 등으로
하여금 칼을 시험하게 했다.

3월7일[갑술/4월4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가리포첨사 · 여도만호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3월8일[을해/4월5일]

맑다.

아침에 안골포만호(우수) · 가리포첨사(이응표)가 각각 큰 사슴 한
마리씩을 보내 왔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 · 경상수사 · 죄수사 · 가리포첨사 · 방답첨사 · 평산포만호 · 여도
만호 · 우우후 · 경상우후 · 강진현감 등이 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몹시 취하여서 헤어졌다.

3월9일[병자/4월6일]

아침에 맑다가 저물 때에 비오다.

우우후 및 강진현감이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술을 먹었더니 몹시 취했다.

우우후는 취하여 쓰러져 돌아가지 못했다.

저녁에 좌수사가 왔기에 작별의 술잔을 나누었더니 취하여 대청에서 엎어져 잤다.

3월10일[정축/4월7일]

비오다.

아침에 다시 좌수사를 청했더니 와서 작별의 술잔을 나누니, 온종일 무척 취하여 나가지 못했다.

3월11일[무인/4월8일]

흐리다.

해 · 회 · 완 및 수원이 나갔다.

이날 저녁에 방담첨사(장린)가 성낼 일도 아닌데 공연히 성을 내어 상선(上船)의 물기는 군사[汲水軍]에게 곤장을 쳤다니 놀랄 일이다.

곧 군관과 이방을 불러 군관에게는 스무 대, 이방에게는 쉰 대를 매로 불기쳤다.

저녁 나절에 구 천성보만호가 하직하고 돌아가고, 새 천성보만호는 체찰사의 공문으로 병사에게 잡혀갔다.

나주판관도 왔기에 술을 먹여서 보냈다.

3월12일[기묘/4월9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몸이 노곤하여 잠깐 잠을 잤다.

경상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여도만호 · 금강도만호 · 나주판관도 왔다.

저녁에 소국진이 체찰사에게서 돌아왔는데, 그 회답에 우도의 수군을 합하여 본도로 보내라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3월13일[경진/4월10일]

종일 비오다.

저녁에 견내량 복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왜적선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도만호 · 금갑도만호 등을 뽑아 보냈다.

몸이 노곤하여 누워서 앓았다.

3월14일[신사/4월11일]

곳은비가 걷히지 않는다.

새벽에 삼도에서 급한 보고가 왔는데, "견내량 근처의 거제땅 세포(사등면 성포리)에 왜적선 다섯 척과 고성땅에 다섯 척이 정박하고 물에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삼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배 다섯 척을 더 뽑아 보내도록 전령했다.

방담첨사 · 녹도만호가 와서 봤다.

밤새도록 땀이 흘렀다.

3월15일[임오/4월12일]

맑다.

새벽에 망꺠레를 향했다.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식은땀이 흘렀다.

3월16일[계미/4월13일]

비가 퍼붓듯이 내리며,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전 여덟 시쯤에 시마바람이 세게 불어 지붕이 뒤집힌 곳이 많고,
문과 창이 깨지고 창호지도 찢어져 비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오정 때에야 바람이 잦다.

저녁에 군관을 불러 와서 술을 먹었다.

밤 한 시 쯤에 비가 잠깐 그쳤다.

땀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흘렀다.

3월17일[갑신/4월14일]

종일 가랑비가 내리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나주판관이 와서 보므로 취하게 하여 보냈다.

어두울 무렵에 박자방이 들어왔다.

이날 밤에 식은땀이 등에까지 흘러 두 겹 옷이 흠뻑 다 젖었다.
몸이 불편하다.

3월18일[을류/4월15일]

맑다.

방답첨사 · 금갑도만호 · 회령포만호 · 옥포만호 등이 와서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다.

3월19일[병술/4월16일]

맑다.

보성군수가 부침하는 것을 살펴볼 일로 휴가를 받았다.
감양(金洋)이 같은 배로 나갔다.

3월20일[정해/4월17일]

종일 바람불고 비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고 땀이 옷과 이불을 적셨다.

3월21일[무자/4월18일]

종일 큰비가 오다.

초저녁에 도와리를 만나 구토를 한 시간이나 했는데, 자정이 되니 조금 가라앉았다.

이날 군관 송희립·김대복·오철 등을 불러 종정도(從政圖)를 내기했다.

3월22일[기축/4월19일]

맑다.

우수사·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그래서 술을 먹여 보냈다.

소문에 작은 고래가 섬 위로 떠밀려 와서 죽었다고 하므로 박자방을 보냈다.

땀흐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3월23일[경인/4월20일]

맑다.

조방장 김완 및 충청 수군의 배여덟 척이 들어오고 우후도 왔다.

종 금이 편지를 가져 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했다.

땀이 흘러 옷일 적셨다.

3월24일[신묘/4월21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마량첨사 김응황, 파지도권관 송세웅, 결성현감 손안국 등을 처벌했다.

나주판관 어성급에게는 4월15일로 기한하여 휴가를 주어내어 보냈다.

3월25일[임진/4월22일]

비가 종일 내렸다.

땀이 흘러 옷을 적셨다.

3월26일[계사/4월23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체찰사의 전령이 왔는데, "전일(12일)에 우도의 수군을 돌려 보내라고
한 것은 회계(回啓)를 잘못 본 탓이다"고 하였다.
우습다.

3월27일[갑오/4월24일]

저녁 나절에 나가 활을 쏘았다.

우후 · 방답첨사 · 충청우후 · 마령첨사 · 임치첨사 · 결성현감 · 파지도권
관이 함께 왔다.

술을 먹어서 보냈다.

저녁에 신 사과와 아우 여필이 들어왔다.

그 편에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는 말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이다.

3월28일[을미/4월25일]

긋은비가 몹시 오고 종일 개이지 않았다.

3월29일[병신/4월26일]

긋은비가 건히지 않았다.

부찰사(한효순)가 성주에서 진으로 온다고 했다.

병신년 4월

4월1일[정유/4월27일]

큰비가 오다.

신 사과와 함께 이야기했다.

4월2일[무술/4월28일]

맑다.

경상수사가 부찰사를 마중하는 일로 나갔다.

신 사과는 같은 배로 갔다.

4월3일[기해/4월29일]

맑다.

어제 저녁에 견내량 복병이 달려와 "왜놈 네 명이 부산에서 장사하며 이익을 늘리러 나왔다가 바람에 표류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새벽에 녹도만호 송여종을 보내어 그렇게 된 까닭을 묻고 그 정상[情跡]을 살펴보니, 정탐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목을 베었다.

4월4일[경자/4월30일]

흐리다.

아침에 오철이 나갔다.

우수사에게 가 보고는 취하여 이야기하고서 돌아왔다.

충청도의 군대에 울짙[木柵]을 쳤다.

4월5일[신축/5월1일]

맑다.

부찰사(한효순)가 들어왔다.

4월6일[임인/5월2일]

흐리다.

부찰사가 활쏘기를 시험했다.

4월7일[계묘/5월3일]

맑다.

부찰사가 나가 앉아 상을 나누어 주었다.

부산 사람이 들어왔는데, "명나라 사신(이종성)이 달아났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4월8일[갑진/5월4일]

종일 비오다.

저녁 나절에 부찰사와 같이 마주 앉아 마시니 몹시 취하였다.

초파일이라 등불을 켜 달고 헤어졌다.

4월9일[을사/5월5일]

맑다.

부찰사가 나가므로 포구로 나가 같이 배에서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4월10일[병오/5월6일]

맑다.

소문에 암행어사가 들어온다고 한다.

저녁 나절에 암행어사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촛불을 밝혀주고 헤어졌다.

4월11일[정미/5월7일]

맑다.

어사와 같이 마주하여 조용히 이야기했다.

장병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활 열 순을 쏘았다.

4월12일[무신/5월8일]

맑다.

어사가 밥을 지어 군사들에게 먹이게 한 뒤에 활 열 순을 쏘고 종일 이야기했다.

4월13일[기유/5월9일]

맑다.

어사와 함께 마주해 있다가 저녁나절에 포구로 나갔더니 마파람이 세게 불어 출항하지 못했다.

선인암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어두워져서야 서로 헤어졌다.

4월14일[경술/5월10일]

긋은비가 종일 오다, 홍주판관(朴崙) · 당진만호(趙孝悅)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충청우후 원유남에게 곤장을 쳤다.

당진만호도 같은 벌을 받았다.

4월15일[신해/5월11일]

맑다.

단오절의 진상품을 봉해서 곽언수에게 주어 보냈다.

영의정(유성룡), 영부사 정탁1), 판서 김명원, 지사 윤자신, 조사척, 신식, 남이공 앞으로 편지를 썼다.

4월16일[임자/5월12일]

맑다.

우수사·경상수사 및 가리포첨사·방담첨사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이날밤 바다에는 달빛이 차게 비치고 잔 물결 한 점 일지 않았다.

다시 땀을 흘렸다.

4월17일[계축/5월13일]

맑다.

아우 여필 및 아들 면이 종을 데리고 돌아갔다.

4월18일[갑인/5월14일]

맑다.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충청우후 · 경상우후 · 방답첨사, 조방장 감완이 활 스무
순을 쏘았다.

마도의 군관이 복병한 곳에서 투항해 온 왜놈 한 명을 잡아 왔다.

4월19일[을묘/5월15일]

맑다.

습열(濕熱)로 침 20여 곳을 맞았다.

이 날 난에목(南汝文) 편에 "풍신수길의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을
수는 없다.

4월20일[병진/5월16일]

맡다.

경상수사가 와서 내일 만나자고 청했다.

4월21일[정사/5월17일]

맡다.

경상수사의 진으로 가는 길에 우수사의 진에 들렀다가 경상수사를 맞이하여 종일 활을 쏘았다.

4월22일[무오/5월18일]

맡다.

부산 허내만이 보낸 편지[告目]에 명나라 사신(이종성)이 달아나고 부사(양방형)는 여전히 왜놈의 진영에 있는데, 4월초파일에 달아난 사유를 상부에 아뢰었다고 했다.

4월23일[기미/5월19일]

맡다.

첨지 김경록이 들어왔다.

일찍 아침밥을 먹고 나가 앉아 같이 술을 마셨다.

저녁 나절에 군사들 중에서 힘센 자들을 뽑아 씨름을 시켰더니,
성복이란 자가 판을 독차지하였다.

그래서 상을 주었다.

충청우후 원유남, 마량첨사, 당진만호, 홍주판관, 결성현감,
파지도권관, 옥포만호 등과 같이 활 열 순을 쓰았다.

4월24일[경신/5월20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목욕을 하고 나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4월25일[신유/5월21일]

맑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목욕탕에 들어가니 물이 너무 뜨거워 오래 있지 못하고 도로 나왔다.

4월26일[임술/5월22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체찰사의 군관도 왔다.

목욕했다.

4월27일[계해/5월23일]

맑다.

체찰사의 공문 회답이 왔다.

목욕했다.

4월28일[갑자/5월24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서 봤다.

두번 목욕했다.

4월29일[을축/5월25일]

맑다.

한번 목욕했다.

4월30일[병인/5월26일]

맑다.

한번 목욕했다.

부산의 허내만의 편지[告目]에 소서행장이 군사를 철수할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감경록이 돌아갔다.

어머니께서 무사하다는 편지가 왔다.

1) 鄭琢(1526~1605)은 1594년 의금부사, 1596년엔 지중추부사였으며,
1600년에 좌의정, 1603년에 영중추부사였으므로 知府使를 잘못 쓴
기록임.

병신년 5월

5월1일[정묘/5월27일]

흐리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한번 목욕했다.

5월2일[무진/5월28일]

맑다.

일찍 목욕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총통 두 자루를 부어 만들었다.

조방장 감완 및 조계종이 와서 봤다.

우수사가 김인복의 목을 베어 효시했다.

5월3일[기사/5월29일]

맑다.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다.

근심되고 괴로운 맘을 어찌 다 말하랴! 경상우후가 와서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5월4일[경오/5월30일]

맑다.

이 날은 어머니 생신인데 헌수하는 술 한 잔도 올려 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우후가 앞산마루에서 여귀(제사 못받은 귀신)에게 제사지냈다.

5월5일[신미/5월31일]

맑다.

회령포만호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와서 모였다.

그대로 들어가 앉아서 위로하고 술을 네 순배를 돌렸다.

경상수사가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므로 씨름을 시켰더니, 낙안군수 임계형이 으뜸이다.

밤이 깊도록 이들로 하여금 즐겁게 마시고 뛰놀게 한것은 억지로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한 장병들의 노고를 풀어 주고자 한 것이었다.

5월6일[임신/6월1일]

저녁 나절에 큰비가 왔다.

농민의 소망을 흠족하게 채워주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들 울과 김대복이 같은 배로 나갔다.

어두울 무렵 총통 만들 때에 쓰는 솥을 쌓아두는 창고에 불이 일어나

홀랑 다 타버렸다.

이는 감독관[監官]들이 부지런하지 않은 탓이다.

한탄스럽다.

5월7일[계유/6월2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이영남이 들어왔다.

불러 들어 조용히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5월8일[갑술/6월3일]

맑다.

이영남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두번이나 구토했다.

저녁에 조카 완이 들어왔다.

김효성 및 비인현감(신경징)도 들어왔다.

5월9일[을해/6월4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이영남과 함께 서관(진關 : 황해도 · 평안도)의 일을 이야기했다.

5월10일[병자/6월5일]

맑다.

나라 제사날(태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몸도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5월11일[정축/6월6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비인현감 신경징에게 기일을 어긴 죄를 처벌했다.

또 순천 격군을 감독하는 감관 조명의 죄를 곤장쳤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들어와 신음했다.

거제현령 · 영등포만호와 이영남과 같이 잤다.

5월12일[무인/6월7일]

맑다.

이영남이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을 신음했다.

김해부사(백사림)의 긴급보고와 부산에서 왜놈에게 붙었던 김필동의 편지[告目]도 왔다.

"풍신수길에 하는 일로써 비록 정사(正使)는 없을지라도 부사(副使)가 그대로 있으니, 곧 화친하고 군사를 철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5월13일[기묘/6월8일]

맑다.

부산의 허내만의 편지[告目]에, "가등청정이란 놈이 벌써 초열흘에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갔고, 각진의 왜놈들도 장차 철수해 갈 것이요, 부산의 왜놈은 명나라 사신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 날 활 아홉 순을 쏘았다.

5월14일[경진/6월9일]

맑다.

김해부사 백사림의 긴급 보고도 허내만의 편지[告目]와 같다.

그래서 순천부사에게 통보하여 그로 하여금 차례로 통보하게 했다.

활 열 순을 쓰았다.

결성현감 손안국이 나갔다.

5월15일[신사/6월10일]

맑다.

새벽에 망궤례를 행했다.

식사를 한 뒤에 홀로 말을 타고 한산도 뒷산 마루로 달려 올라가
다섯 섬과 대마도를 바라보았다.

저녁 나절에 작은 개울가로 돌아왔다.

조방장 · 거제현령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저물어서야 진으로 돌아왔다.

5월16일[임오/6월11일]

맑다.

충청우후(원유남) · 홍주판관(박륜) · 비인현감(신경징) · 파지도권관(송세
응) 및 우수사(이억기)가 와서 봤다.

5월17일[계미/6월12일]

종일 비오다.

농사에 아주 흡족하다.

점쳐 보니 풍년이 들 것 같다.

5월18일[갑신/6월13일]

비가 잠깐 개긴 했으나, 바다의 안개는 걷히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했다.

5월19일[을유/6월14일]

맑다.

"방답첨사(장린)가 모친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우후를
가장(假將)으로 정하여 보냈다.

활을 쏘았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5월20일[병술/6월15일]

맑다.

웅천현감 김충민이 와서 봤다.

사도첨사가 돌아왔다.

5월21일[정해/6월16일]

맑다.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5월22일[무자/6월17일]

맑다.

충청우후 원유남, 좌우후 이몽구, 홍주판관 박륜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홍우(洪祐)가 장계를 가지고 순찰사 영으로 갔다.

5월23일[기축/6월18일]

흐리다.

충청우후 등과 함께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아침에 미조항첨사 장의현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장흥으로 부임했다.

5월24일[경인/6월19일]

흐리다.

나라 제사날(문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부산 허내만의 편지[告目]가 들어왔다.

좌도의 각진의 왜놈들이 몽땅 철수하고 다만 부산에만 머물러 있다고 했다.

5월25일[신묘/6월20일]

종일 비오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 보니 개탄스런 생각이 많이 난다.

5월26일[임진/6월21일]

음침한 안개가 걷히지 않고 마파람이 세게 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충청우후 및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 적에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활
열 순을 쏘았다.

5월27일[계사/6월22일]

종일 가랑비 오다.

충청우후 · 좌우후가 이곳에 와서 종정도를 내기했다.

5월28일[갑오/6월23일]

긋은비가 갇히지 않았다.

소문에 "전라감사(홍세공)가 파면되어 갈렸다"고 한다.

"가등청정이 부산으로 도로 왔다"고 했다.

모두 믿을 수 없다.

5월29일[을미/6월24일]

긱은비가 저녁 때까지 오다.

고성현령 · 거제현령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5월30일[병신/6월25일]

흐리다.

곽언수가 들어왔다.

영의정(유성룡) 영부사 정탁1), 지사 윤자신2), 조사척, 신식,

남이공의 편지가 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에게 가서 보고 종일 무척 즐기다가 돌아왔다.

1) ① 앞의 병신년 4월 15일자 일기 주석 참조.

지중추부사의 잘못된 기록임.

초서본 『난중일기』의 판부사는 윤두수였고, 영부사는 이산해였음,

②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27일(무오)지중추부사 정탁"이라
했음.

2) 尹自新(1526~1601)은 호조참판, 자헌, 정헌을 거쳐 이때는
지돈녕부사였음.

병신년 6월

6월1일[정유/6월26일]

종일 꺾은비 온다.

느지막이 충청우후(원유남) 및 본영 우후(이몽구), 박륜, 신경징을 불러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현령이 도입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6월2일[무술/6월27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우후가 방답첨사에게 갔다.

비안현감 신경징이 나갔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열 순을 쏘았다.

가죽 치마를 만들었다.

6월3일[기해/6월28일]

흐리다.

아침에 제포만호 성천유가 교서에 숙배했다.

김양간이 농사짓는 소를 싣고 나갔다.

금갑도만호가 와서 봤다.

6월4일[경자/6월2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가리포첨사 · 임치첨사 · 남도포만호 · 충청우후 및 홍자판관 등이 왔다.

활 일곱 순을 쏘았다.

우수사가 와서 다시 과녁을 그려 붙이고 활 열 두 순을 쏘고나서
헤어졌다.

6월5일[신축/6월30일]

흐리다.

나가 공무를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6일[임인/7월1일]

맑다.

사도(四道)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활을 쏘고 술과 음식을 먹었다.

또 활쏘기 내기를 하여 승부를 가리고서 헤어졌다.

6월7일[계묘/7월2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충청우후 등과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8일[갑진/7월3일]

맑다.

일찍 나가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9일[을사/7월4일]

맑다.

일찍 나가 충청우후 · 당포만호 · 여도만호 · 녹도만호 등이 활을 쏘

때에 경상수사가 같이 활 스무 순을 쏘았다.

6월10일[병오/7월5일]

종일 비오다.

오정 때에 부산에서 편지가 왔다.

평의지가 초아흐레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6월11일[정미/7월6일]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활 열 순을 쏘았다.

6월12일[무신/7월7일]

맑다.

심한 더위가 찌는 것 같다.

충청우후 등을 불러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13일[기유/7월8일]

맑다.

경상수사가 술을 가지고 왔다.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14일[경술/7월9일]

맑다.

일찍 나가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아침에 아들 회와 이수원이 같이 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했다.

6월15일[신해/7월10일]

맑다.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충청우후·우후, 조방장 김완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이 날 부산 허내만이 와서 왜놈의 정보를 전하기에 군량을 주어서

돌려 보냈다.

6월16일[임자/7월11일]

맑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열 순을 쏘았다.

저녁에 김봉만 · 배필련 등이 자리를 사가지고 집에 왔다.

6월17일[계축/7월12일]

맑다.

우수사가 왔다.

활 열 다섯 순을 쏘고 헤어졌다.

6월18일[갑인/7월13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19일[을묘/7월14일]

맑다.

체찰사에게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나가 활 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20일[병진/7월15일]

맑다.

어제 아침 곡포권관 장후완(蔣後玩)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평산포만호에게 진작 진에 도착하지 않은 까닭을 문책하니, 기일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해괴하기 짝이 없어 곤장 서른 대를 쳤다.

오정 때에 남해현령이 들어와서 교서에 숙배한 뒤에 같이 이야기하고 활을 쏘았다.

충청우후도 왔다.

6월21일[정사/7월16일]

아침에 남해현령을 불러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서 남해현령은

경상수사에게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6월22일[무오/7월17일]

맑다.

할머니의 제사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남해현령과 종일 이야기했다.

6월23일[기미/7월18일]

종일 비오다.

남해현령과 이야기하고 저녁 나절에 남해현령은 경상수사에게 갔다.

조방장 및 충청우후 · 여도만호 · 사도첨사 등을 불러 술과 고기를 먹였다.

곤양현감 이극일도 와서 봤다.

하동현감도 왔는데 본현으로 도로 보냈다.

6월24일[경신/7월19일]

맑다.

아침에 나가 충청우후와 함께 활열 다섯 순을 쏘았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투항해 온 왜놈 야에문(也汝文) 등이 그의 또래 신시로(信是老 : 信次郎)를 죽이자고 청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6월25일[신유/7월20일]

맑다.

아침에 나가 공무를 봤다.

조방장 및

충청우후 · 임치첨사 · 목포만호 · 마량첨사 · 녹도만호 · 회령포만호 · 파
지도권관 등이 왔다.

철전 다섯 순, 편전 세 순, 활 다섯순을 쏘았다.

남원의 김굉이 아뢰고 돌아갔다.

6월26일[임술/7월21일]

비오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철전 및 편전을 각 다섯 순씩 쏘았다.

6월27일[계해/7월22일]

맑다.

나가 공무를 봤다.

조방장 김완, 충청우후 · 가리포첨사 · 당진포만호 · 안골포만호 등과
함께 철전 다섯 순, 편전 세 순, 활 일곱 순을 쏘았다.

6월28일[갑자/7월23일]

맑다.

나라 제사날(명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현감이 달려 와서 보고하기를, "순찰사의 행차가 어제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니 오늘은 응당 소비포에 이를 것이다.

6월29일[을축/7월24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어서 개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조방장 · 충청우후 · 나주통판과
함께 철전 · 편전 · 활을 아울러 열 여덟 순을 쏘았다.

병신년 7월

7월1일[병인/7월25일]

맑다.

나라 제사날(인종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우순찰사(서성)가 진에 이르렀으나, 이 날은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의 군관 나굉이 그의 장수의 말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

7월2일[정묘/7월26일]

맑다.

경상순찰사 영의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새 정자로 올라가 앉았다.

편을 갈라 활을 쏘았다.

경상순찰사가 백 예순 두 획(劃 : $50 \times 162 = 8,100$ 발)을 쏘았다.

종일 몹시 즐거웠다.

7월3일[무진/7월27일]

맑다.

순찰사와 도사(都事)가 이 영에 와서 활을 쏘았다.

순찰사 편이 또 쏘았다.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7월4일[기사/7월28일]

맑다.

경상도 영으로 가서 순찰사와 서로 만나 이야기했다.

조금 있다가 배로 내려가 같이 타고 포구로 나가니, 여러 배들이 밖으로 줄지어 있었다.

종일 이야기하고 선암(통영군 한산면) 앞바다에 이르러 닻을 걷고 출항하여 나뉘어 가면서 바라보며 서로 읊(대함경례)했다.

그 길로 우수사·경상수사와 함께 같은 배로 들어왔다.

7월5일[경오/7월29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활을 쏘았다.

충청우후도 와서 같이 쏘았다.

7월6일[신미/7월30일]

맑다.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현령·웅천현감·삼천포권관이 와서 봤다.

이곤변의 편지도 왔다.

그 사연 속에는 입석(立石)의 잘못을 많이 말했다.

우습다.

7월7일[임신/7월31일]

맑다.

경상우수사 및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아울러 와서 활 세 괘[貫]를
쏘았다.

7월8일[계유/8월1일]

맑다.

충청우후와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7월9일[갑술/8월2일]

맑다.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통신사가 탈 배에 풍석(風席 " 돛을 만드는
돛자리)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

오후에 활 열 순을 쏘았다.

7월10일[을해/8월3일]

맑다.

체찰사의 전령에, "첨지 황신이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정사(正使)가 되고, 권항이 부사(副使)가 되어 가까운 시일에 바다를 건너 갈 것이니, 타고 갈 배 세 척을 정비하여 부산에다 대어 놓으라"고 했다.

충청우후 · 사랑만호 · 지세포만호 · 옥포만호 · 홍주판관, 전 적도만호 고여우 등이 와서 봤다.

경상수사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춘원포(통영시 광도면)에 왜선 한척이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을 뽑아 보내어 살살이 찾아내라고 했다.

7월11일[병자/8월4일]

맑다.

아침에 체찰사에게 행정선[通文船]일로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와서 바다를 건너갈 격군과 뒤따라 갈 것을

의논하였다.

7월12일[정축/8월5일]

맑다.

바다를 건너갈 격군의 군령 흰쌀 스무 섬, 중미(中米) 마흔 섬을
차사원변익성과 수사 군관 정존극이 받아갔다.

나이가 동갑인 남치온이 왔다.

7월13일[무인/8월6일]

맑다.

명나라 사신을 따라갈 우리나라 사신들이 탈 배 세 척을 정비하여
떠나 보냈다.

저녁 나절에 활 열 세 순을 쏘았다.

7월14일[기묘/8월7일]

비오다.

저녁에 고성현감 조응도가 와서 이야기했다.

7월15일[경진/8월8일]

비가 뿌렸다.

경상수사·전라우수사가 함께 모여 활을 쏘고서 헤어졌다.

7월16일[신사/8월9일]

새벽에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이 날 충청도 홍주 격군으로 신평에 사는 사사집 종 걸복이 도망하다 붙잡혔으므로 목베어 내다 걸었다.

하동현감·사천현감이 왔다.

7월17일[임오/8월10일]

비가 뿌렸다.

충청도 홍산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서 홍산현감 윤영현이 잡히고, 서천군수 박진국도 잡혀 갔다고 한다.

바깥 도둑도 없애지 못한 이 마당에 나라 안의 도둑들이 이러하니,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일이다.

남치온 및 고성현령 · 사천현감이 아뢰고 돌아갔다.

7월18일[계미/8월11일]

맑다.

공문을 써 보냈다.

충청우후 및 홍주반자가 충청도 도둑들의 일을 듣고 와서 아뢰었다.

저녁에 투항해 온 왜놈 레나기(戀隱己) · 에이(汝耳) · 에문(汝文) 등이
난에문(南汝文)을 해치려고 흉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7월19일[갑신/8월12일]

맑다.

난에문(南汝文)이 레나기(戀隱己) · 에이(汝耳) · 에문(汝文) 등을
목베었다.

우수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경상우후 이의득 및 충청우후(원유남), 다경포만호 윤승남이 왔다.

7월20일[을유/8월13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기쁘고 다행이다.

그 편에 "충청도 토적(이몽학)이 이시발(巡按御使)의 포수에게 총맞아
즉사했다"1)고 했다.

다행이다.

7월21일[병술/8월14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거제현령 · 나주판관 · 홍주판관과 옥포만호 · 웅천현감 · 당진포만호가
왔다.

통신사가 청하는 표범 가죽을 가지고 오려고 배를 본영으로 보냈다.

7월22일[정해/8월15일]

맑다.

순천 관리의 편지[文狀]에, "충청도 도둑들이 홍산에서 일어난 것을 곧

죽었다고 하는데, 홍주 등 세 고을이 포위를 당했다가 간신히 면했다"고 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낙안의 교대할 배가 들어왔다.

7월23일[무자/8월16일]

큰비 오다.

홍주판관 박륜이 아뢰고 돌아갔다.

7월24일[기축/8월17일]

맑다.

나라 제사날(문종의 현덕왕후 권씨의 제사)이다.

이 날 우물을 고쳐 파는 데로 갔다.

경상수사도 왔다.

거제현령 · 금강도만호 · 다경포만호가 뒤따라 왔다.

샘줄기가 깊이 들어가 있고 물의 근원도 길다.

오후에 돌아와 활 세 쾌[貫]를 쏘았다.

7월25일[경인/8월18일]

맑다.

표범 가죽 및 꽃뚝자리를 통신사에게 보냈다.

7월26일[신묘/8월19일]

맑다.

이전(李筌)이 체찰사에게서 와서 표험(標驗) 세 벌을 가지고 왔다.

하나는 경상수사에게 보내고, 하나는 전라우수사에게 보냈다.

의금부의 나장이 윤승남(다경포만호)을 잡아 갈 일로 왔다.

7월27일[임진/8월20일]

맑다.

저녁 나절에 활터로 달려가서 길닦는 일을 녹도만호에게 일러 주었다.

다경포만호 윤승남이 잡혀갔다.

7월28일[계사/8월21일]

맑다.

저녁 나절에 충청우후와 함께 활을 같이 쏘았다.

7월29일[갑오/8월22일]

맑다.

경상수사 및 우후가 와서 봤다.

충청우후도 왔다.

체찰사에게서 과거보는 자리를 설치한다는 공문이 왔다.

7월30일[을미/8월23일]

맑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이 와서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한다.

임금의 분부가 두 통이 내려오고, 싸움에 쓸 말도 들어왔다.

1) 李夢鶴의 난을 말한것이다.

이 당시에 전국에 기근이 들어 양식을 거두어, 가등청정이 다시 오면
그들을 친다는 핑계로 전쟁에 염증난 군졸들을 모아 '동갑계회'를
결성하여, 김경창, 이귀, 중 농운, 사사집 종 김팽종 등과 밀회하고
홍산땅 쌍방축에서 600-700명을 모아 난을 일으켜, 병신년 7월 6일
새벽에 현감 윤영현을 잡고, 서천군수 박진국을 잡아
정산·청양·대흥을 함락했다.

7월10일 저녁에 홍주에서 목사 홍가신은 순찰사 종사관 신경행과
의논하고 그 고을의 박명현·임득의 장군과 방어하고, 수사 최호,
남포현감 박동선, 보령현감 황응성도 일어섰다.

병사 이시완은 온양에서 홍주를 거쳐 예산 무한성에 가고, 순안어사
이시발은 유구역에서 진을 쳤다.

그러나 이몽학의 부하 김경창과 임억명 등이 이몽학의 머리를 베어
와서 11일에 항복했다.

그러므로 이몽학은 이시발의 포수가 아니고, 자기의 부하에게 총맞아
즉사한 것이다.

병신년 8월

8월1일[병신/8월24일]

맑다.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저녁 나절에 파지도권관 송세응이 돌아갔다.

오후에 활터로 가서 말을 달리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부산에 갔던 곽언수가 돌아와서 통신사의 회답 편지를 전했다.

8월2일[정유/8월25일]

비가 몹시 왔다.

8월3일[무술/8월26일]

맑다가 이따금 비가 뿌렸다.

조방장 · 우후 · 충청우후가 와서 보기에 그대로 나가 활을 쏘았다.

8월4일[기해/8월27일]

맑다.

셋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들 회 · 면, 조타 완 등이 나갔다.

정선도 나갔다.

정사립이 휴가를 받아서 갔다.

8월5일[경자/8월28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가리포첨사가 와서 봤다.

8월6일[신축/8월29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에 조방장 김완, 충청우후 · 경상우후 등이 문병을 왔다.

당포만호는 그 어머니의 병환이 심하다고 와서 알렸다.

경상수사 및 우수사가 와서 봤다.

조방장 배흥립이 들어왔다.

날이 저물어서 돌아갔다.

8월7일[임인/8월30일]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몸이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서울에 편지를 썼다.

이 날 밤 땀이 위 아래 두 옷을 적셨다.

8월8일[계묘/8월31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강희로가 이곳에 와서 남해현령의 병이 차츰 나아진다고 했다.

그와 함께 밤이 되도록 이야기했다.

중 의능이 날삼[生麻] 백 스무 근을 가져와서 바쳤다.

8월9일[갑진/9월1일]

흐리다.

아침에 중 수인에게서 날삼[生麻] 삼백 서른 근을 받아들였다.

마량첨사 김응황이 직무평가에서 하등점[居下]을 맞고 나갔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활 열 순을 쏘았다.

8월10일[을사/9월2일]

맑다.

아침에 충청우후가 문병을 왔다가 그대로 조방장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한참 동안이나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저녁 나절에 두 조방장 및 충청우후를 불러다가 상화떡을 같이 맛보았다.

어두워지니 달빛은 비단같고, 나그네 회포는 만 갈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8월11일[병오/9월3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조방장 배흥립과 함께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그와 같이 활터 정자에 가서 말달리는 것을 구경하고서 영으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거제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선 한 척이 등산(登山 :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에서 송미포(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로 들어온다” 고 했다.

밤 열 시쯤에 또 보고하기를, “아자포(阿自漕)로 옮겨 대었다” 고 했다.

배를 정하여 내어 보낼 즈음에 또 보고하기를, “견내량을 넘어갔다” 고 했다.

그래서 복병장에게 잡으라고 명령했다.

8월12일[정미/9월4일]

맑다.

셋바람이 세게 불어 동쪽으로 가는 배는 도저히 오갈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안부를 알지를 못했으니 몹시도 답답하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8월13일[무신/9월5일]

맑다가 흐리며 샛바람이 세게 불다.

충청우후와 함께 활을 쏘았다.

이 날 밤 땀이 흘러 등을 적시었다.

8월14일[기유/9월6일]

흐리다.

샛바람이 계속 불어 벼가 상했다고 한다.

주방장 배흥립과 충청우후와 같이 이야기 했다.

8월15일[경술/9월7일]

새벽에 비오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경상수사 및 두 조방장과 충청우후, 경상우후,

가리포첨사, 평산포만호 등 열 아홉 명의 여러 장수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8월16일[신해/9월8일]

맑다.

마파람이 세게 불었다.

강희로가 남해로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누워 신음했다.

저녁에 체찰사가 진주성에 왔다는 공문이 왔다.

8월17일[임자/9월9일]

맑다.

경상수사, 충청우후, 거제현령이 와서 뵈었다.

체찰사 앞으로 사람을 찾으러 내 보내었다.

8월18일[계축/9월10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한밤 자정에 죄인에게 특사를 내리는 조칙문을 가지고 온 차사원

구례현감(이원춘)이 들어왔다.

땀을 흘리는게 예사 일이 아니다.

8월19일[갑인/9월11일]

흐렸다 맑았다 하다.

새벽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죄인에게 특사내리는 조칙문에 숙배하고
그대로 그들과 같이 아침사를 했다.

구례현감이 아뢰고 돌아갔다.

송의련이 본영에게 아들 울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고 했다.

다행이다.

8월20일[을묘/9월12일]

셋바람이 세게 불다.

새벽에 전선(戰船)을 만들 재목을 끌어내리는 일로 우도 군사 삼백 명,
경상도 군사 백 명, 충청도 군사 삼백 명, 전라좌도 군사 삼백 아흔
명을 송희립이 거느리고 갔다.

늦은 아침에 조카 봉.

해와 아들 회.

면, 조카 완과 최대성, 윤덕종, 정선 등이 들어왔다.

8월21일[병진/9월13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에 앉아 아들들에게 화살 쏘는 연습과 말달리며 활을 쏘는 것을 시켰다.

조방장 배흥립, 조방장 김완과 충청우후가 아울러 왔다.

같이 점심을 먹고 저물어서 돌아갔다.

8월22일[정사/9월14일]

맑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8월23일[무오/9월15일]

맑다.

활터에 가 보았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보았다.

8월24일[기미/9월16일]

맑다.

8월25일[경신/9월17일]

맑다.

우수사 · 경상수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8월26일[신유/9월18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사천항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충청우후와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8월27일[임술/9월19일]

맑다.

일찍 출항하여 사천현에 이르렀다.

오후에 그대로 진주성으로 가서 체찰사(이원익)를 뵙고 종일 의논했다.

김응서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물 무렵에 진주목사(나정언)의 처소로 돌아와서 잤다.

8월28일[계해/9월20일]

맑다.

이른 아침에 체찰사 앞으로 가서 종일 여쭙고 의논하여 결정하고,

초저녁이 지나서 진주목사의 처소로 돌아왔다.

진주목사와 함께 밤들도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8월29일[갑자/9월21일]

맑다.

일찍 떠나 사천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은 뒤에 그대로 가서

선소리(사천군 용현면 선진리)에 이르렀다.

고성현령(조응도)도 왔다.

삼천포권관과 이곤변이 뒤따라 도착했다.

밤들도록 이야기하고, 구라량(仇羅梁)에서 잤다.

윤8월1일[을축/9월22일]

맑다.

일식(日飾)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망(飛望) 나루에 이르러 이곤변 등과 함께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다.

저물어서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경상수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윤8월2일[병인/9월23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와서 봤다.

저녁나절에 경상수사·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윤8월3일[정묘/9월24일]

맑다.

윤8월4일[무진/9월25일]

비오다.

이 날 밤 열 시쯤에 땀을 흘렸다.

윤8월5일[기사/9월26일]

맑다.

활터 마루에 가서 아이들(아들들을 말함)이 말달리고 활쏘는 것을 구경했다.

하천수가 체찰사 앞으로 갔다.

윤8월6일[경오/9월27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경상수사 및 우수사와 함께 활터 마루로 가서 말달리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방답참사가 진에 이르렀다.

윤8월7일[신미/9월28일]

맑다.

아산의 종놈 상시(尙是)가 들어왔다.

윤8월8일[임신/9월29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마루로 가서 말달리고 활쏘는 것을 구경했다.

광양현감, 고성현령이 시험관으로서 들어왔다.

하천수가 진주에서 왔다.

윤8월9일[계유/9월30일]

맑다.

아침에 광양현감이 교서에 숙배했다.

조카 봉, 아들 회 및 김대복이 교서에 숙배하고서 그대로 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 날 밤에 우수사·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 했다.

윤8월10일[갑술/10월1일]

맑다.

우수사·경상수사, 조방장 배흥립이 같이 와서 밤 열 시쯤에 헤어져 돌아갔다.

윤8월11일[을해/10월2일]

맑다.

체찰사를 기다릴 일로 출항하여 당포에 이르니, 초저녁에 체찰사에게 문안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14일에 떠난다” 고 하였다.

윤8월12일[병자/10월3일]

맑다.

종일 노를 바삐 저어 밤 열 시쯤에 어머니 앞에 이르니, 흰 머리카락이 에부수수하신데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어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밤새도록 위로하며 기쁘게 해 드렸다.

윤8월13일[정축/10월4일]

맑다.

아침식사를 곁에서 모시고 드시게 하니 대단히 기뻐하시는 빛이다.

저녁 나절에 하직인사를 여쭙고 본영으로 왔다.

오후 여섯 시쯤 작은 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바삐 저었다.

윤8월14일[무인/10월5일]

맑다.

새벽에 두치(하동읍 두곡리)에 이르니, 체찰사와 부찰사가 어제 벌써 도착하여 잤다고 했다.

뒤미처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찰방을 만나고 일찍 광양현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하나같이 쑥대밭이 다 되어 그 참상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다.

임시로나마 전선 정비하는 것을 면제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피로를 풀어 주어야겠다.

윤8월15일[기묘/10월6일]

맑다.

일찍 떠나 순천에 이르니 “체찰사 일행이 순천부 청사에 들어갔다” 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정사준의 집에서 묵었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윤8월16일[경진/10월7일]

맑다.

이 날은 그대로 머물렀다.

윤8월17일[신사/10월8일]

맑다.

저녁 나절에 낙안군으로 가는데, “이호문 · 이지남 등이 와서 보고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 오로지 수군에 있다” 고 진술했다.

윤8월18일[임오/10월9일]

맑다.

종사관 김용(金涌)이 서울로 갔다.

1) 일찍 떠나 양강역(陽江驛)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나서 산성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다.

그 길로 홍양(高陽)으로 향했다.

저물 무렵에 홍양현에 이르러 향소청(鄕所廳)에서 잤다.

어두워서 이지화가 와서 봤다.

윤8월19일[계미/10월10일]

맑다.

떠나서 녹도(高陽郡 도양면 녹두)로 향하여 가는 길에 도양(도덕면 도덕리)의 둔전을 살펴 보았다.

체찰사는 매우 기뻐하는 빛이 많았다.

녹도에 이르러 잤다.

윤8월20일[갑신/10월11일]

일찍 떠나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같이 앉아 종일

군사일을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다.

김응남이 와서 봤다.

윤8월21일[을유/10월12일]

맑다.

그대로 머물러 자는데 정경달이 와서 봤다.

윤8월22일[병술/10월13일]

맑다.

저녁 나절에 병영(해남군 고군면 병영)에 이르렀다.

병사와 서로 만나 보았다.

병사(兵馬節度使)는 원군이다.

윤8월23일[정해/10월14일]

맑다.

그대로 병영에 머물렀다.

2)

윤8월24일[무자/10월15일]

나는 부찰사(한효순)와 같이 가리포(완도군 와도읍 군내리)로 갔더니
우우후 이정충도 먼저 와 있었다.

남쪽 망대로 같이 올라가니 좌우의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들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 도[一道]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기 때문에 하는수없이 이진(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옮겨 합치기로 했다.

윤8월25일[기축/10월16일]

일찍 떠나 이진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곧 해남으로 갔다.

도중에 김경록이 술을 차고 와서 봤다.

어느 곁에 날이 저물어 햇불을 밝히고 가니, 밤 열 시께에야 해남현에
이르렀다.

윤8월26일[경인/10월17일]

맑다.

일찍 떠나 우수영(해남군 문내면)에 이르렀다.

나는 곧 태평정(太平亭)에서 자고서 우후와 함께 이야기했다.

윤8월27일[신묘/10월18일]

맑다.

체찰사가 진도에서 영(우수영)으로 들어왔다.

윤8월28일[임진/10월19일]

비가 조금 내렸다.

우수영에서 머물렀다.

윤8월29일[계사/10월20일]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남리역(해남군 황산면 남이리)에 이르렀다.

오후에 해남현에 이르렀다.

소국진을 본영으로 보냈다.

1) 이 내용은 초서본 『난중일기』에는 없음.

2) 초서본 『난중일기』의 이 날짜에는 날씨 '晴(맑다)'만 적혀있고,
'仍留兵營' 즉 이순신 장군이 "원군의 병영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다.

병신년 9월

9월1일[갑오/10월21일]

비가 뿌렸다.

새벽에 망꺠례를 행했다.

일직 떠나 석제원(강진군 성전면 성전리)에 이르렀다.

오후에는 영암에 이르러 향사당(鄕社堂)에서 잤다.

정랑 조팽년이 와서 봤다.

최숙남도 와서 봤다.

9월2일[을미/10월22일]

맑다.

영암에서 머물렀다.

9월3일[병신/10월23일]

맑다.

아침에 떠나 나주의 신원(新院)에 이르렀다.

나주판관을 불러 이야기했다.

저물 무렵에 나주에 이르렀다.

9월4일[정유/10월24일]

맑다.

나주에서 머물렀다.

체찰사와 함께 문묘(공자를 모신 사당)에 절했다.

9월5일[무술/10월25일]

맑다.

나주에서 머물렀다.

9월6일[기해/10월26일]

맑다.

먼저 무안의 일로 가겠다고 체찰사에게 보고하고 길을 떠났다.

고기원(나주군 문평면 고막리)에 이르니 나주감목관 나덕준이 뒤따라
와서 서로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 강개한 일이 많았다.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저물어서 무안에 이르렀다.

9월7일[경자/10월27일]

맑다.

감목관 나덕준 및 무안현감(남언상)과 함께 민폐에 관한 의논을 했다.

한참 있다가 정대청이 들어왔다고 하므로 그를 청하여 앉아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떠나 다경포(무안군 망운면 성내리)에 이르러 영광군수와
함께 이야기했다.

9월8일[신축/10월28일]

맑다.

조반(早飯)에 고기 반찬을 놓았으나 나라 제삿날(세조의 제사)이라
먹지 않았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동산원(무안군 현경면 웅산원)에 이르러 말을 먹였다.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해제면 임수리)에 이르니, 이공헌의 딸 여덟살짜리 아이와 그 사촌의 계집종 수경이 같이 와서 배알했다.

이공헌을 생각하니 참혹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수경은 곧 이염의 집에서 내다 버려졌는데, (이공헌이) 얻어다가 기른 아이이다.

9월9일[임인/10월29일]

맑다.

임치첨사 홍건을 불러 방비책을 물었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뒷성으로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고 동산원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함평현에 이르렀다.

도중에 한여경을 만났으나 말 위에서 만나 보기가 어려우므로 타일러서 함평으로 들어갔다.

함평현감은 경차관을 마중하러 나갔다고 한다.

김억성도 같이 왔다.

9월10일[계묘/10월30일]

맑다.

함평에 머물러 잤다.

식사하기전에 무안의 정대청이 왔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고을 유생들이 많이 들어와 폐단된 일을 진술했다.

저녁에 도사(都事)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9월11일[갑진/10월31일]

맑다.

아침식사를 하고 영광으로 갔다.

도중에 신경덕을 만나 잠깐 이야기하고 영광에 이르니, 영광군수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들어와 함께 이야기했다.

9월12일[을사/11월1일]

바람불고 비가 많이 오다.

저녁 나절에 길을 떠나 심리쯤 되는 냇가에 이르니, 이광보와
한여경이 술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같이 이야기했다.

안세희도 왔다.

저물 무렵에 무장에 이르렀다.

9월13일[병오/11월2일]

맑다.

이중익 및 이광보도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이중익이 군색한 말을 많이 하므로 옷을 벗어 주고 종일 이야기했다.

9월14일[정미/11월3일]

맑다.

하루 더 묵었다.

9월15일[무신/11월4일]

맑다.

체찰사가 현(무장현)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들어가 절하고 대책을 의논했다.

9월16일[기유/11월5일]

맑다.

체찰사가 떠나가서 고창에서부터 장성에 이르렀다.

9월17일[경술/11월6일]

맑다.

체찰사와 부찰사는 입암산성(장성군 북상면 성내리)으로 가고, 나는 혼자 진원현(장성군 진원면)에 이르러 진원현감과 함께 이야기했다.

종사관도 왔다.

저물어서 관청안으로 들어가니 두 조카딸이 나와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못보았던 감회를 풀고, 도로 작은 정자로 나가 진원현감 및 여러 조카들과 밤들도록 함께 이야기했다.

9월18일[신해/11월7일]

비가 조금 오다.

식사를 한 뒤에 광주에 이르러 광주목사(최철견)와 이야기했다.

9월19일[임자/11월8일]

바람불고 비가 많이 오다.

종사관의 편지와 윤간, 조카 해의 문안 편지도 왔다.

이날 아침 광주목사가 와서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오후에 능성현령이 들어와서, “곳간을 봉사하고 광주목사를 제찰사가 파면시켰다” 고 한다.

9월20일[계축/11월9일]

비가 많이 오다.

광주목사를 보고 길을 떠나려 할 즈음에 명나라 사람 두 명이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술을 먹었다.

종일 비가 내려 멀리 갈 수가 없어 화순에 이르러 잤다.

9월21일[갑인/11월10일]

개다가 비오다가 했다.

일찍 능성(화순군 능주면)에 이르러 최경루(最景樓)에 올라가

연주산(連珠山)을 바라보았다.

9월22일[을묘/11월11일]

저녁 나절에 나가 이양원(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 이르니
해운판관(海運判官)이 먼저 와 있었다.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자 청하므로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

저물어서 보성군에 이르러 잤다.

9월23일[병진/11월12일]

맑다.

머물렀다.

나라 제사날(태조의 신의왕후 한씨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9월24일[정사/11월13일]

맑다.

일찍 떠나 병사 선거이의 집에 이르니, 선거이의 병이 매우 중태였다.

염려된다.

저물어서 낙안에 이르러 잤다.

9월25일[무오/11월14일]

맑다.

순천에 이르러 순천부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9월26일[기미/11월15일]

맑다.

순천에서 머물렀다.

순천부의 백성들이 쇠고기와 술을 차려 놓고 나오기를 청했다.

굳이 사양했으나 부사의 간청으로 잠깐 나가 마시고서 헤어졌다.

9월27일[경신/11월16일]

맑다.

일찍 떠나 임시로 사는 집에 이르러 어머니를 뵈었다.

9월28일[신유/11월17일]

맑다.

남양 아저씨의 생신이라 본영으로 왔다.

9월29일[임술/11월18일]

맑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동헌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9월30일[계해/11월19일]

맑다.

선유사의 군관 신석이 와서 군사들을 위하여 위로연을 베풀 날짜를
말하였다.

병신년 10월

10월1일[갑자/11월20일]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다.

새벽에 망꺠레를 행하고 곧 어머니를 뵈러 갔다.

10월2일[을축/11월21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를 다니게 할 수가 없었다.

10월3일[병인/11월22일]

맑다.

어머니를 모시고 일행과 더불어 배를 타고 본영으로 돌아와 종일토록
즐거이 받드니 다행이다.

10월4일[정묘/11월23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남해현령이 왔다.

10월5일[무진/11월24일]

흐리다.

남해현령과 함께 이야기했다.

10월6일[기사/11월25일]

바람 불고 비가 많이 오다.

흥양현감 · 순천부사가 들어왔다.

10월7일[경오/11월26일]

맑다.

일찍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참으로 다행이다.

10월8일[신미/11월27일]

맑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안하시다” 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순천부사와 작별의 잔을 나누고 보냈다.

10월9일[임신/11월28일]

맑다.

종일 어머니를 모셨다.

10월10일[계유/11월29일]

맑다.

어머니께 절하고 하직했다.

오후 두 시쯤에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돛을 달고 항해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하여 진으로 돌아왔다.

10월11일[갑술/11월30일]

맑다.

(10월12일부터 12월그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병신년 12월

12월27일

[기축/1597년 2월12일]

「선조실록」에서

“신의 장수 가운데 계려(計慮)가 있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및 군관·아병(牙兵)으로 활을 잘 쏘고 용력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항상 진영에 머물면서 함께 조석으로 계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그들의 성심을 시험하기도 하고 함께 밀약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들을 시켜 적의 정세를 정탐하게도 하였다.

그러던 터에 거제현령 안위 및 군관 급제 김난서, 군관 신명학이 여러 차례 밀모하여 은밀히 박의검을 불러 함께 모의했다.

그랬더니 박의검은 아주 기꺼워하여, 다시 김난서 등과 함께 간절하게 지휘하면서 죽음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였다.

같은 달 12일 김난서 등은 야간에 약속대로 시간되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뒤흔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바람결에다 불을 놓으니, 불길이 세차게 번져서 적의 가옥 1천 여 호와 화약 창고 두 개, 군기와 잡물 및 군량 2만 6천 여 섬이 든 곳집이 한꺼번에 다 타고, 왜선 20여 척이 역시 잇따라 탔으며, 왜놈 24명이 불에 타 죽었다.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대개 김난서가 통신사의 군관에 스스로

응모하여 일본을 왕래하면서 생사를 돌보지 않았기에 마침내 이번 일을 성공한 것이다.

안위는 평소 계책을 논의하다가 적에 대한 언급할 경우 의분에 분개하여 자신이 살 계책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의 군관 김난서와 신명학 등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갖가지로 모의하여 흉적의 소굴을 일거에 불태워 군량·군기·화포 등 제구(諸具)와 선박 및 왜놈 서른 네 놈을 불태워 죽게 하였다.

부산의 대적을 비록 모조리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적의 사기를 꺾었으니 이 역시 한가지 계책이 계책이었다.

일본을 왕래하는 경상수영 도훈도 김득이 부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 밤 불타는 모습을 보고는 이 달 12일 밤 열 시쯤에 부산의 왜적 진영 서북쪽가에 불을 놓아 적의 가옥 천 여 호 및 군기와 잡물·화포·기구·군량 곳집을 빠짐없이 잣더미로 만들었다.

그러자 왜적들이 서로 모여 울부짖으며 ‘우리 본국의 지진 때에도 집이 무너져 사망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이번에 이곳에서 또 화환(火患)을 만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 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럴 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안위·김난서·신명학 등이 성심으로 힘을 다하여 일을 성공시켰으니 매우 가상하며, 앞으로 대처할 기밀의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니 각별히 논상하여 장래를 격려하소서” 1) 라고 부산 왜영을 불태운 사실을 장계하였다.

1) 『선조소경대왕실록』 84, 선조 30년(정유) 1월 1일(임진).

이 장계를 받은 이튿날인 1월 2일에 이조좌랑 김신국의 장계가 왔었다.

"적의 진영을 몰래 불태운 일은 도체찰사 이원익이 거느린 군관 정희현에게 명하여 도모한 것이며, 정희맹의 심복인 허수석이 적진을 마음대로 출입하여 몰래 모의하여 불태웠습니다.

이순신의 군관이 부찰사의 복물선을 운반하는 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마침 적의 영이 불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 이순신에게 보고하여 자기 공으로 삼은 것일 뿐 이순신은 당초 이번 일의 사정을 모르고 치계한 것입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나 도체찰사 이원익도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일을 도모하여 성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 왜영 방화는 12월 12일인데, 도체찰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이순신 장군의 장계가 15일 걸려 조정에 1월 1일에 도착했으니,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김신국이나 도체찰사의 장계는 이보다도 먼저 조정에 보고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유년

1월2월3월기록에없음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1월23일[갑인/3월10일] 「실록」에서

선조 : 우리나라는 행장(小西行長)보다 훨씬 못하다.

한산도의 장수(이순신 장군)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윤두수 : 이순신은 왜구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 나가 싸우기에 싫증이 낸 것입니다.

임진년 정운이 죽을 때에도 절영도에서 배를 운행하다가 적의 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산해 : 이순신은 정운과 원균이 없었으므로 해서 그렇게 체류한

것입니다.

김응남 : 정운은 이순신이 나가 싸우지 않는다 하여 참(斬)하려 하자 이순신이 두려워 마지 못해 억지로 싸웠으니, 해전에서 이긴 것은 대게 정운이 격려해서 된 것입니다.

정언신이 항상 정운의 사람됨을 칭찬했습니다.

선조 :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청정의 목을 벨라고 한 것이겠는가.

단지 배를 시위하여 해상을 순회하는 것 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도체찰사의 장계를 보니 시위할 약속이 갓추어졌다고 한다.

(한참 한숨을 쉬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산해 : 인심을 책려하고 수군을 정돈하여 장래를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1)

1월27일[무오/3월14일] 「실록」에서

선조 : 전라도 등은 전혀 방비하고 있지 않다.

한 사람도 수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판중추부사 윤두수 :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한산도에 물러나 지키고 있어 이번 대계(大計)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대소 인신(人臣)이 누구든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지중추부사 정탁 : 이순신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선조 : 이순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계미년 이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다고 하였다.

이번에 비변사가 “제장과 수령들이 호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비변사가 그들을 옹호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 장수는 못하는 짓이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왜영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 보고하였는데, 영상(領相)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리가 없다.

지금 비록 그의 손으로 청정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영의정 유성룡 : 이순신은 한 동네 사람이어서 신이 어려서부터
아는데, 직무를 잘 수행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평일에 대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선조 : (이순신이란 자는) 글을 잘 아는가?

유성룡 : 성품이 강毅(強毅)하여 남에게 굽힐 줄을 모르는데, 신이
수사로 천거하여 임진년에 공을 세워 정헌(正憲)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과람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펴지면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선조 : 이순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는가.

우상(右相)이 내려갈 때에 말하기를, “평일에는 원균을 장수로
삼아서는 안되고, 전시에는 써야 한다.

” 고 하였다.

좌의정 김응남 : 수군으로서는 원균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버릴 수
없습니다.

유성룡 :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상당산성(上黨山城)을 쌓을 때, 원균은 토담집을 지어 놓고 몸소 성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고 합니다.

선조 : (원균을) 수군의 선봉을 삼고자 한다.

김응남 : 지당하십니다.

영중추부사 이산해 : 임진년 수전을 할 때, 원균과 이순신이 서서히 장계하기로 약속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밤에 몰래 혼자서 장계를 올려 자기의 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균이 원망을 품었습니다.

윤두수 : 이순신을 전라총청통제사로 삼고, 원균을 경상통제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조 : 원균이 만약 적의 소굴로 직접 침입하면 누가 당하겠는가?

김응남 : 모름지기 어사를 보내 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 : 문신(文臣)으로 특별히 어사를 정해 그간의 사정을 살피게

해야한다.

윤두수와 김응남이 함께 : 이순신은 조용한 사람인 듯한데, 다만 속임수가 많고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조 : 원균의 일을 급히 조치하라!

병조판서 이덕형 : 원균을 처음 수전에 보낼 때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변방 장수의 일을 보건대, 이운룡은 도적 한 두 명을 보면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단지 글월[文報]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시같았으면 어찌 그의 몸에 벌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원균을 (전라)좌도로 보내는 것이 무방합니다.

선조 : 좌도로는 보낼 수 없다.

김수 : 서성이 술을 차려 잔치를 베풀고서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하였는데, 원균이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네에게 다섯 아들(권준, 배흥립, 김득광 등을 말함)이 있다” 고 하였으니, 그의 분해하는 불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덕형 : 군사 일은 반드시 조리가 있어 마치 그물에 버리가 있는 것과 같이 연후에야 두서(頭緒)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전라도의 일은 매우 문란합니다.

2)

윤두수 : 신이 선거이, 이순신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영등포에 진을 치고 적과 싸우도록 했더니, 장문포에 진을 쳐 있는 적들이 와서 구원하고, 장문포에 진치고 있는 적과 싸우면 영등포에 진치고 있던 적들이 와서 구원할 뿐 행장의 군사들은 관망만 하고 있으면서 후원할만한데도 끝내 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 역시 오는대로 격파해야 합니다.

원수(元帥)가 길에서 왜적 대여석 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적이 만약 원수가 고단(孤單)함을 알았다면 말할 수 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체찰사 역시 간약(簡約)한 사람인데, 행동을 경솔히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비변사에서 이순신의 죄상을 이미 헌의했으므로 이순신의 죄상을 임금께서도 이미 통촉하시고 계시지만, 이번 일은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분노하고 있으니 행장이 지휘하더라도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급할 때에 장수를 바꾸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이순신을 체직시켜야 할 듯합니다.

정탁 :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선조 : 나는 이순신의 사람됨을 자세히 모르지만, 성품이 지혜가 적은 듯하다.

임진년 이후에 한번도 거사를 하지 않았고, 이번 일도 하늘이 준 기회를 취하지 않았으니 법을 범한 사람을 어찌 매번 용서할 것인가. 원균으로 대신해야 하겠다.

명나라 장수 이제독 이하가 모두 조정을 기만하지 않는 자가 없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본받는 자가 많다.

왜영을 불태운 일도 김난서와 안위가 몰래 약속하여 했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자기가 계책을 세워 한 것처럼 하니, 나는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긴다.

그런 사람은 비록 청정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이산해 : 임진년에 원균의 공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조 : 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졸들이 보고 본받기 때문이다.

유성룡 :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신이 이순신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선조 : 경성(京城) 사람인가?

유성룡 : 그렇습니다.

성종 때 사람 이거의 자손인데, 직사(職事)를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 당초에 신이 조산만호로 천거했습니다.

선조 : 글을 잘 하는 사람인가? (두번째 질문임)

유성룡 : 그렇습니다.

성품이 굽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제법 취할 만하기 때문에 신이 수사로 천거했습니다.

임진년에 신이 차령(車嶺)에 있을 때에 이순신이 정헌이 되고, 원균이 가선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늘 작상(爵賞)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무장은 지기(志氣)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선조 : 그 때에 원균이 그의 동생 원전을 보내 승전을 알렸기 때문에 그런 상이 있었다.

유성룡 :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했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체대(遞代)하는 사이에 사세가 어려울 것같기 때문에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변사로서 어찌 이순신 하나를 비호하겠습니까.

선조 : 이순신은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이 조산만호로 있을 때, 김경눌(金景訥) 역시 녹둔도에 둔전하는 일로 마침 그곳에 있었는데, 이순신과 김경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순신이 밤중에 호인(胡人) 하나를 잡아 김경눌을 속이니, 김경눌은 바지만 입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김경눌은 허술한 사람이어서 것처럼 위태로운 곳에서 계엄을 하지 않았고, 이순신은 같은 변방 장수로서 서로 희롱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일찍이 들었다.

이정형 : 이순신이 거제로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 데다가 적들이 물깊이를 알 수 없고, 거제도

그 만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또 건너편 안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합니다.

선조 : 체찰사가 이순신과 원균에게 분부한 일이 있으면 비록 온당하지 못하더라도 이순신은 그런대로 면종(面從)하지만, 원균은 노기를 내어 청종(聽從)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의 공을 빼앗겨서인가? 원균을 좌도수사에 임명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진압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이정형 :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입니다.

김수 : 원균은 매양 이순신이 공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덕열 : 이순신이 원균의 공을 빼앗아 권준의 공으로 삼으면서 원균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장계한 것입니다.

그 때에 왜선 안에서 여인(女人)을 얻은 사실을 탐지하고는 곧장 장계했다고 합니다.

선조 : 전라도는 중국 사신을 지지하느라 주사와 격군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이순신만을 책할 수 없다.

김수 : (부산 왜영을) 불태우는 일은 이순신이 처음에 안위와 밀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불사르니 이순신이 도리어 자기의 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윤두수 : 이순신과 원균을 모두 통제사로 삼아 서로 세력을 협조토록 해야 합니다.

선조 : 비록 두 사람을 나누어 통제사로 삼더라도 반드시 조절하여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균이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는데 이순신은 물러나 구하지 않는다면 사세가 어려울 것이다.

김응남 : 그렇게 한다면 이순신은 중죄로서 처해야 합니다.

선조 :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 한다.

원균은 오늘 정사(政事)에서 해야 하는가?

이정형 : 원균을 통제사로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

경솔히 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해야 합니다.

1월28일[기미/3월15일]

「실록」에서

비망기로 유영순(柳永詢)에게 전교했다.

“우리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수군 뿐인데, 통제사 이순신은 나라의 중한 임무를 맡고서 마음대로 속이고 적을 토벌하지 않아 청정으로 하여금安然히 바다를 건너게 하였으니, 잡아다 국문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바야흐로 적과 진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을 세워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나는 평소 경의 충용을 알고 있어 이제 경을 경상우도수군절도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삼노니 경은 더욱 책려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라. 우선 이순신과 합심하여 전의 유감을 씻고 해적을 다 섬멸하여 나라를 구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훈공이 종정(鐘鼎)에 새겨지게 하라.

경은 공경히 하라.

이것을 원균에게 하유하라” 하고 원균에게 전달했다.

1) 『선조실록』 제84권, 108~109쪽.

2) 이 날에 " 이복남을 전라도병마수군절도사로, 원균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고 하였다.

정유년 2월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2월4일[을축/3월21일]

「실록」에서

사헌부에서 아뢰되, “통제사 이순신은 나라의 막대한 은혜를 받아 지위가 이미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은혜를 갚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군사를 끌어안고 섬 속에서 벌써 5년을 지냈사온데, 군사들은 기운을 잃고 일은 내던져 두고, 방비하는 모든 직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부질없이 남의 공로만 빼앗아 거짓말로 속이는 장계만 올리며, 마침내 적선이 바다를 덮어와도 산모퉁이 하나 지켰다거나 칼부리 하나 마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나중에야 배를 내어 직로로 나와 결국은 적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두고서 어떻게 해볼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니, 적을 치지 않고 놓아주어 뒤에 오는 배가 은혜를 배반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큼니다.

청컨대 잡아와 국문하여 법대로 정죄하기를 청합니다” 고 하니 임금께서 대답하되, “천천히 처리하겠다” 고 답하셨다.

1)

「실록」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당초 원균을 모함하면서 말하기를,
‘원균은 조정을 속였다.

열두살 짜리 아이를 멋대로 군공(軍功)에 올렸다’ 고 했는데, 원균은
말하기를, ‘나의 자식은 나이가 이미 열 여덟 살이고 활쏘고 말타는
재주가 있다’ 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대질했는데, 원균은 바르고 순신의 이야기는
군색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2월6일[정묘/3월23일]

「실록」에서

임금께서 김홍미에게 전해 말하되, “이순신을 잡아올 때, 선전관의
신표와 밀부를 주어 잡아 오게 하라.

그리고 또 원균과 교대한 뒤에 잡아 오도록 하라고 일러 보내라.

또 이순신이 만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과 대전하여 싸우고 있는
중이면 잡아 오기가 불편할 것이니, 싸움이 끝나고 쉬는 틈을 보아
잡아 오도록 하라” 고 일러 보냈다.

2월7일[무진/3월24일]

「실록」에서

비망기로써 김홍미(金弘微)에게 또 전하여 일렸으되, “이때 힘써 싸우는 장수이면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 구태여 크게 꾸짖을 것이 없어 그대로 기용해 쓰는 것이지만, 수군이 지금 한창 적과 더불어 싸우는 때에 그 사태가 아주 긴급하다.

그러나 통제사는 어쩔 수 없이 경질시킬 수밖에 없고, 경상우수사도 갈아야겠다” 고 발표하였다.

2월9일[경오/3월26일]

「실록」에서

경상우병사 김응서, 경상우수사와 함께 일시에 전선 예순 세 척을 거느리고, 해뜰 무렵에 장문포에서 배를 띄워 오후 두시(未時)에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여 왜적이 창황히 수선 떨며 병력 삼백 여 명을 내어 저항하려고 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수군이 절영도로 후퇴하여 정박하자, 왜적들도 저희들 진으로 도로 들어갔다.

2)

2월28일[기축/4월14일]

「실록」에서

지난번에 부산 앞바다에 드나들며, 우리 수군의 위세를 나타내고, 가덕도 등지에서 적과 접전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통제사 이순신이 장계를 올린 바 있거니와, 그때의 일을 상세히 탐문해 본즉 본영 소속 도훈도 김안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전 통제사(이순신)가 일찍이 부산 앞바다에 나아가 그곳을 드나들며 수군의 위세를 보이하고자 하였으나, 그 때 조수가 밀려감에 따라 그가 타고 있던 전선이 물러가는 조수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까이 있던 적들이 곧 달려 들어오니, 통제사의 배는 적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배 위에 있던 장졸들이 큰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골포만호 우수가 급히 노를 저어 달려가서 이순신을 등에 업고 간신히 그의 배에 싣고, 이순신의 배는 안골포 소속의 고물에 매고 끌고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대개 그때의 부산거사 때에 우리 수군이 바다에 가득히 죽어서 적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 이익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니 심히 통분할 일입니다.

그 때 여러 장수들을 조정에서 처벌한 바 있었지만, 나 주판관 어운급(魚雲級)³⁾은 적과 대진하고 있으면서 불조심을 게을리하여 귀중한 기계와 병기, 식량 등을 일시에 불태워 버렸음에, 그런 참혹한 상황이 불과 한 마장 거리밖에 되지 않는 적선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웃음과 모멸을 당하였으니 더욱 통분할 일입니다.

그러니 어운급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장계하였다. 이 때에 비변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계를 해왔다.

"전날 부산앞바다에서 병위(兵威)를 나타냈던 일은 우리 수군만이 해를 입었을 뿐 유익한 일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수군의 허실만 적에게 드러내게 하였으니 심히 한심한 일입니다.

그 때 안골포와 가덕도 두 곳에서 적과 싸운 수령들과 변방 장수들의

패전한 곡절에 대하여서는 이미 조사하여 죄를 주었으나, 나주판관 어운급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처벌을 하지 않았으니 잡아와서 심문을 한 뒤에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고 하니, 선조 임금은 그대를 시행토록 윤허하였다.

4)

1) 『선조실록』 제85권 30년(정유, 1597)2월.

154~55쪽.

2) 도원수 권율이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치보 내용을 2월 23일(갑신)에 치계한 내용임.

3) 병신년(1596년) 3월 24일자 일기에는 나주판관이 '漁聖伯'으로 되어 있다.

4) 원균이 장계한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내용을 뽑아 적었음.

정유년 3월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3월13일[계묘/4월28일]

「실록」에서

비망기로써 우부승지 김홍미에게 전하였으되, "이순신은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긴 죄요, 적을 놓아 주고 잡지 않았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요, 또 남의 공로를 빼앗고 또 남을 죄에 빠뜨렸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상이 있으므로 법으로서는 구할 수 없고, 마땅히

법률대로 사형을 하려니와, 이같이 남의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제 고문하여 그 사실을 알고자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함이 좋을지 대신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1)

1) 『선조실록』 제86권, 30년(정유, 1597) 3월 13일, 240쪽.

정유년 4월

4월1일[신유/5월16일]

맑다.

옥문을 나왔다.

남문(송례문) 밖윤간의 종의 집에 이르니, 조카 봉,분과 아들 율이
윤사행,원경과 더불어 같이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 했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밥을 먹은 뒤에 술을 가지고 다시왔다.

윤기헌도 왔다.

이순신이 술병째로 가지고 와서 함께 취하며 위로해 주었다.

영의정 유성룡, 판부사 정탁, 판서 심희수, 이상(二相) 김명원, 참판
이정형, 대사헌 노직, 동지 최원, 동지 곽영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4월2일[임술/5월17일]

종일 비오다.

여러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방업이 음식을 매우 푸짐하게 차려왔다.

4월3일[계해/5월18일]

맑다.

일찍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금오랑 이사빈, 서리 이수영, 나장 한언향은 먼저 수원부에 이르렀다.

나는 인덕원(경기도 과천시 인덕원)에서 말을 먹이고 저물어서 수원에 들어가니, 신복룡이 우연히 수원에 왔다가 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술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했다.

수원부사 유영건이 나와서 봤다.

4월4일[갑자/5월19일]

맑다.

일찍 길을 떠나 독성(수원 성남 양산리) 아래에 이르니, 반자 조발이 술을 준비해놓고 막을 치고 오산 황천상의 집에서 기다렸다.

진위(북면 봉남리)를 거쳐서 이르렀는데, 황천상은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을 내어 실어 보내니 고마울 뿐이다.

수탄을 거쳐 평택현 이낸손(李內隱孫)의 집에 투숙했는데, 대접이 매우 은근했다.

4월5일[을축/5월20일]

맑다.

해가 뜨자 길을 떠나 바로 선산에 이르러 절하며 곡하고 나서, 그
길로 조카 뇌의 집에 이르러 조상의 사당에 절하고 남양 아저씨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4월6일[병인/5월21일]

맑다.

멀고 가까운 친척,친구들이 모두와서 모였다.

오랫동안 막혔던 정을 풀고 갔다.

4월7일[정묘/5월22일]

맑다.

금오랑(이사빈)이 아산현에서 오므로 나는 나가 그으기 대접했다.

홍찰방,이별좌,윤효원이 와서 봤다.

금오랑은 변흥백의 집에서 잤다.

4월8일[무진/5월23일]

맑다.

자리를 깔고 남양 아저씨를 곱하고 상복을 입었다.

저녁 나절에 변흥백의 집에 이르러 도사를 접대 했다.

4월9일[기사/5월24일]

맑다.

동네 사람들이 술병째로 가지고 와서 멀리 가는 길을 위로해주므로

정의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마시니 매우 취하여서 헤어졌다.

도사는 잘 마시면서도 실수함이 없다.

4월10일[경오/5월25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변흥백의 집에 이르러 도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4월11일[신미/5월26일]

맑다.

새벽 꿈이 매우 번거로워 마음이 불안하다.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다.

종을 보내어 소식을 듣고 오게 했다.

도사는 온양으로 돌아갔다.

4월12일[임신/5월27일]

맑다.

종 태문이 안흥량에서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초아흐레에 어머니와 위 아래 모든사람이 모두 무사히 안흥량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아들 울을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4월13일[계해/5월28일]

맑다.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어머니를 마중가려고 바닷가로 가는길에 흥찰방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아들 울이 종 애수를 보내어 놓고 하는 말이, "아직 배 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또 들으니, "황천상이 변흥백의 집에 왔다"고 한다.

홍찰방과 작별하고 변흥백의 집에 이르렀다.

조금 있으니 종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늘이 캄캄했다.

곧 갯바위(아산 인주면 해암리)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와 있었다.

애통함을 다 적을 수가 없다.

(뒷날에 적다)

4월14일[갑술/5월29일]

맑다.

홍찰방,이별좌가 들어와 곡하고 관을 장만하다.

관의 재목은 본영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것인데, 조금도 흠난 곳이 없다고 했다.

(뒷날에 적다)

4월15일[을해/5월30일]

맑다.

저녁 나절에 입관했다.

오종수가 진심으로 호상해 주니, 전경복씨가 연일 마음을 다하여 상복

만드는 일 등을 돌보아 주니, 고마운 말을 어찌 다 하랴!(뒷날에 적다)

4월16일[병자/5월31일]

긋은비 오다.

배를 끌어 중방포로 옮겨 대고 영구를 상여에 올려 싣고 집으로 돌아오며 마을을 바라보니, 찢어지는 듯 아픈 마음이야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집에 와서 빈소를 차렸다.

비는 퍼붓고 남쪽으로 갈 날은 다가오니, 호곡하며 다만 어서 죽었으면 할 따름이다.

천안군수가 돌아갔다.

(뒷날에 적다)

4월17일[정축/6월1일]

맑다.

금오랑의 서리 이수영이 공주에서 와서 가자고 다그쳤다.

(뒷날에 적다)

4월18일[무인/6월2일]

종일 비오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다만 빈소 앞에서 곡만 하다가 종 금수의 집으로
물러 나왔다.

(뒷날에 적다)

4월19일[기묘/6월3일]

맑다.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전에 울며 하직했다.

천지에 나같은 운명이 어디 또 있으랴! 일찍 죽느니만 못하다.

조카 뇌의 집에 이르러 먼저 조상의 사당에 아뢰고, 그 길로
보산원(광덕면 보산원리)에 이르니 천안군수가 먼저 냇가에 와서
말에서 내려 쉬고 있었다.

임천군수 한술이 서울로 가던 중에 앞길을 지나다가 내가 간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조문하고 갔다.

아들회,면,봉, 조카 해,분,완과 주부 변존서가 함께 천안까지 따라왔다.

원인남도 와서 보고 작별한 뒤에 말에 올랐다.

일신역(공주 장기면 신관리)에 이르러 갔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뒷날에 적다)

4월20일[경진/6월4일]

맑다.

아침에 공주 정천동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니성(공주군 니성면 읍내리)에 가니, 이 고을 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덕장이 우연히 왔다가 서로 만났다.

도사가 와서 봤다.

4월21일[신사/6월5일]

맑다.

일찍 떠나 은원(논산군 은진면 연서리)에 이르니 김익이 우연히 왔다고 한다.

임달영이 곡식을 사러 은진포로 왔다고 하는데, 그 꼴이 몹시 궤홀하다.

저녁에 여산(익산군 여산면) 관노의 집에서 자는데, 한밤에 홀로 앉았으니 비통한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

4월22일[임오/6월6일]

맑다.

오전에 삼례역(익산군 삼례면)의 역리에 집에 이르렀다.

저녁에 전주 남문밖 이의신의 집에서 자다.

판관 박근이 와서 봤다.

부윤도 후하게 접대했다.

4월24일[계미/6월7일]

맑다.

일찍 떠나 오원역(임실군 오천면 선천리)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저물어서 임실현에서 잤다.

임실현감이 예에 따라 대우했다.

현감은 홍언순이다.

4월24일[갑신/6월8일]

맑다.

일찍 떠나 남원 십리 밖의 이희경의 종의 집에 이르렀다.

4월25일[을유/6월9일]

비가 많이 올 듯하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길을 떠나 운봉(남원군 운봉면)의 박룡의 집에 들어가니, 비가 많이 퍼부어서 출두할 수가 없다.

여기서 들으니, "원수(권율)가 벌써 순천으로 떠났다"고 했다.

곧 사람을 금오랑 있는 곳으로 보내어 머물게 했다.

운봉현감(남간)은 병으로 나오지 않았다.

4월26일[병술/6월10일]

흐리고 개지 않았다.

일찍 아침밥을 먹고 길을 떠나 구례현 손인필의 집에 이르니, 구례현감(이원준)이 급히 나와 보고는 대접하는 것이 매우 은근하다.

금오랑(이사빈)도 와서 봤다.

4월27일[정해/6월11일]

맑다.

일찍 떠나 순천 송원(승주군 서면 학구리 신촌)에 이르니, 이득종,정선이 와서 기다렸다.

저녁에 정원명의 집에 이르니, 원수(권율)는 내가 온 것을 알고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조문하고 또 안부는 묻는데, 그 위로하는 말이 못내

간곡하다.

저녁에 순천부사가 와서 봤다.

정사준도 와서 원균의 망녕되고 전도된 상황을 많이 말했다.

4월28일[무자/6월12일]

맑다.

아침에 원수가 또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문안하고, "상중에 몸이 피곤할 것이니 기운이 회복되는 대로 나오라"고 전했다.

또 말하기를, "통제사와 친한 군관이 있다 하니 편지와 공문을 보내어 나오게 하여 데리고 가서 돌보라"고 하는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 왔다.

4월29일[기축/6월13일]

맑다.

신 사과(愼司果)와 방은원이 와서 봤다.

병마사(이복남)도 원수와 의논할일이 있다고 하여 순천부로 들어왔다고 한다.

4월30일[경인/6월14일]

아침에 흐리고 저물 무렵에 비오다.

병마사 이복남이 아침밥 먹기도 전에 와서 보고, 원균에 대한 일을 많이 말했다.

감사도 원수에게 왔다가 군관을 보내어 편지로 안부를 물었다.

정유년 5월

5월1일[신묘/6월15일]

비오다.

신 사과가 머물러서 이야기했다.

5월2일[임진/6월16일]

저녁 나절에 개이다.

원수(권율)는 보성으로 가고, 병마사(이복남)는 본영으로 갔다.

순찰사(박홍로)는 담양으로 가는길에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순천부사(우치적)가 와서 봤다.

진흥국이 좌영에서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원균의 일을 말했다.

이형복,신흥수도 왔다.

남원의 종 끝돌이가 아산에서 와서 어머니 영연이 평안하다고 한다.

홀로 빈 동헌에 앉아 있으니 비통함을 어찌 참으랴!

5월3일[계사/6월17일]

맑다.

이기남이 와서 봤다.

둘째 아들울(蔚)을 열(悅)로 이름을 고쳤다.

'悅' 자는 소리는 '기뻐 열(悅)'과 같으며, 뜻은 "움이 돌아나다.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으로 매우 좋은 글자이다.

저녁 나절에 강소작이 와 보고서 곡했다.

오후네 시쯤에 비가 뿌렸다.

저녁에 부사가 와서 봤다.

5월4일[갑오/6월18일]

비오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이다.

슬프고 애통함을 어찌 참으랴! 닭이 울 때 일어나 눈물만 흘릴 뿐이다.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다.

정사준이 오고, 이수원도 왔다.

5월5일[을미/6월19일]

맑다.

아침에 부사가 와서 봤다.

저녁나절에 충청우후 원유남이 한산도에서 원균의 못된 짓을 많이 전하고, 또 진중의 장병들이 군무이탈하여 반역질을 하니 장차 일이 어찌 될지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오늘은 단오절인데 땅의 끝 모퉁이에서 종군하느라고 어머니 영연을 멀리 떠나 장례도 못지내니, 무슨 죄로 이런 보답을 받는고!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5월6일[병신/6월20일]

맑다.

저녁 나절에 능성현령 이계명도 상제의 몸으로 기용된 사람인데,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정원명이 한산도에서 돌아와, 부찰사(한효순)가 좌영으로 나와서 병이라 하며 조리한다고 했다.

우수사(이억기)가 편지를 보내 와 조문했다.

5월7일[정유/6월21일]

맑다.

아침에 정혜사의 중 덕수가 와서 미투리 한 켄레를 바쳤다.

거절하며 받지 않으니, 재삼 간절히 받으라고 하므로 값을 쳐 주어서 보냈다.

송대기,유몽길이 와서 봤다.

서산군수(안괄)도 한산도에서 왔다.

이원룡은 수영에서 돌아왔다.

5월8일[무술/6월22일]

맑다.

아침에 중 수인이 밥지을 중 두우를 데리고 왔다.

조종(趙琮)이 이름을 연(堧)으로 고치고는 와서 봤다.

원균이 편지를 보내어 조문했다.

이 는 곧 원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5월9일[기해/6월23일]

흐리다.

아침에 이형립이 와서 봤다.

순천급제 강승훈이 응모해 왔다.

5월10일[경자/6월24일]

꽃은비가 오다가 저녁 나절에는 많은 비가 오다.

주인이 보리밥을 지어서 들여왔다.

부찰사도 조문하는 글을 보냈다.

녹도만호 송여종도 위문품을 보내왔다.

5월11일[신축/6월25일]

맑다.

전 광양현감 김성이 체찰사의 군관이 되었다.

순천에 왔던 길에 와서 봤다.

부찰사가 순천부에 도착했다.

정사립과 양정언이 전하기를 "부찰사가 와서 만나 보자"고 하는데, 내 몸이 불편하여 만나보지 못했다.

5월12일[임인/6월26일]

맑다.

이원룡을 보내어 부찰사에게 문안했다.

부찰사는 또 김덕린을 보내어 문안했다.

저녁에 향사당으로 가서 부찰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정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5월13일[계묘/6월27일]

맑다.

어제밤에 부찰사의 말이 "상사가 보낸 편지에 영감에 대한 일을 많이 탄식했더라"고 한다.

순천부사(우치적)가 노자를 보내왔다.

너무 미안하다.

5월14일[갑진/6월28일]

맑다.

아침에 순천부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부찰사는 부유(순천시 서면 학구리 바랑산) 밑에 이르러 말을 쉬게 했다.

운봉의 박룡이 왔다.

저물 무렵 찬수강(순천시 황전면과 구례 사이의 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걸어서 건넜다.

구례현에 이르니 현감(이원춘)이 와서 뵈었다.

5월15일[을사/6월29일]

개이다 비오다 하다.

구례현감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5월16일[병오/6월30일]

맑다.

저녁에 남원의 탐후인이 돌아와서 고하되, "체찰사가 내일 곡성을 거쳐 이 구례현에 들어와 며칠묵은 뒤에 진주로 갈 것이다"고 했다.

5월17일[정미/7월1일]

맑다.

남원 탐후인이 와서 고하되, "원수(권율)가 운봉 길로 가지 않고 명나라 총병 양원을 영접하는 일로 완산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내 여기 온 것이 헛걸음이라 괴롭고 괴롭구나.

5월18일[무신/7월2일]

맑고 섯바람이 세게불다.

김종려 영감이 남원에서 와서 봤다.

충청수영 영리 이엽이 한산도에서 왔기로 집안 편지를 부쳤다.

5월19일[기유/7월3일]

맑다.

체찰사가 이 구례현에 들어올 것이다.

성 안에 머물러 있기가 미안해서 동문 바깥 장세호의 집으로 옮겨 나갔다.

구례현감 이원춘이 와서 봤다.

저녁에 체찰사가 현으로 들어왔다.

5월20일[경술/7월4일]

맑다.

첨지 김경로가 와서 봤다.

체찰사이원익이 내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군관 이지각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군관을 보내어 조문하기를, "일찍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듣고 놀라

애도한다"고 하고, 저녁에 만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 저녁에 마땅히 가서 뵙겠다"고 하였다.

어두울 무렵 가서 뵈오니, 체찰사는 소복을 입고 접대한다.

조용히 일을 의논하고 나올 때 남 종사(從事)가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5월21일[신해/7월5일]

맑다.

박천 유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산도로 가 공을 세우겠다고 한다.

5월22일[임자/7월6일]

맑다.

박천 유해가 승평으로 가서 그 길로 한산도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전라,경상 두 수사와 가리포첨사등에게 문안 편지를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체찰사의 종사관 김광엽이 진주에서 구례현으로 들어오고, 배흥립 영감도 왔다고 하니 그 간의 정회를 풀 수 있겠다.

다행이다.

배흥립 동지와 구례현감 이원춘이 와서 뵈었다.

5월23일[계축/7월7일]

아침에 정사룡,이사순이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동지 배흥립이 한산도로 돌아갔다.

체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부르므로 가서 뵈고 조용히 의논하는데,
시국의 그릇된 일에 대하여 많이 분개하고,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내일 초계로 간다고 했더니, 체찰사가 모은 쌀 두 섬을 보내
주기에 이를 성밖 주인 집으로 보냈다.

5월24일[갑인/7월8일]

맑다.

아침에 광양의 고언선이 와서 봤다.

한산도의 일을 많이 전한다.

체찰사가 군관 이지각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경상우도의 연해안
지도를 그리고 싶으나 도리가 없으니 본대로 지도를 그려 보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지도를 대강 그려서 보냈다.

5월25일[을묘/7월9일]

비오다.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려다가 비에 막혀 가지 않다.

5월26일[병진/7월10일]

종일 많은 비가 오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막 떠나려 하려는데, 사랑만호 변익성이 왔다.

잠시 서로 마주보고는 그 길로 석주관(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이르니, 비가 퍼붓듯이 쏟아진다.

앞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하동군 악양면 정서리)이정란의 집에 이르렀으나 문을 닫고 거절했다.

김덕령의 아우 김덕린이 빌려 쓰는 집이다.

나는 아들 열로 하여금 억지로 청하여 들어가 잤다.

행장이 흠뻑 다 젖었다.

5월27일[정사/7월11일]

흐렸다가 개이다.

저녁 나절에 떠나 두치(하동읍 두곡리) 최춘룡의 집에 이르렀다.

유기룡이 와서 봤다.

5월28일[무오/7월12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저녁 나절에 길을 떠나 하동에 이르니, 하동현감(신진)이 서로 만나 보는 것을 기뻐하며 성 안 별채로 맞아들여 매우 간곡한 정을 베풀었다.

5월29일[기미/7월13일]

흐리다.

몸이 너무 불편하여 그대로 머물러서 몸조리했다.

하동현감이 정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정유년 6월

6월1일[경신/7월14일]

비오다.

일찍 떠나 청수역(하동군 옥종면 정수리)에서 말을 쉬었다.

저물녘에 단성(진주 접경지역) 땅 박호원이라는 농사짓는 종의 집에 투숙하려는데, 주인이 기꺼이 접대하기는 하나 잠자리가 좋지 못하여 겨우겨우 밤을 지냈다.

6월2일[신유/7월15일]

비오다 개이다 하다.

일찍 떠나 단계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저녁 나절에 삼가에 이르니, 삼가현감이 산성으로 이미 가버렸기에 빈

관사에서 잤다.

6월3일[임술/7월16일]

비오다.

비로 길을 떠날 수가 없어 그대로 묵었다.

6월4일[계해/7월17일]

맑다.

일찍 떠나려는데, 삼가현감(신호업)이 문안의 글을 보내면서 노자까지 보내왔다.

합천 땅에 이르러 말을 쉬고, 5리쯤 가니 길이 쌍 갈래이다.

한 길은 곧바로 합천군으로 들어가는 길ियो, 또 한 길은 초계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고 가다가 거의 십리쯤 가니, 원수(권율)의 진이 바라보였다.

문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잤다.

고개를 끼고 넘어 오는데, 기암절벽이 천 길이나 되고 강물은 굽이
돌며 깊고, 길은 험하고 다리는 위험하다.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명의 군사라도 지나가지
못하겠다.

6월5일[갑자/7월18일]

맑다.

아침에 초계군수가 급히 달려왔다.

곧 그를 불러 이야기했다.

식사를 한 뒤에 중군 이덕필도 달려 왔으므로 옛 이야기를 했다.

조금 있으니 심준이 와서 보았다.

저녁에 이승서가 와서 파수병과 복병이 도피했던 일을 말했다.

6월6일[을축/7월19일]

맑다.

모여곡 주인집의 이웃에 사는 윤감,문익신이 와서 봤다.

주인집이 과부집이라 곧 다른 집으로 옮겼다.

6월7일[병인/7월20일]

맑다.

원수(권율)의 군관 박응사와 유흥등이 와서 뵈었다.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므로 곧 사례하는
답장을 보냈다.

6월8일[정묘/7월21일]

맑다.

오후에 원수(권율)가 진에 오므로 나는 곧 나가 보고, 원수와 함께
이야기 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원수가 박성의 써 올린 글의 초고를 보여 주는데,
박성이 원수의 처사가 허술한 데가 많다고 진술하니, "원수가 스스로
편안하지가 않아 체찰사(이원익) 앞으로 글을 올렸다"고 했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몸이 불편하므로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6월9일[무진/7월22일]

긋은비 오다.

저녁 나절에 정상명을 원수에게 보내어 문안했다.

6월10일[기사/7월23일]

맑다.

원수의 종사관이 삼척 사람 홍연해를 보내어 문안하면서 좀 늦게
와서 보겠다고 한다.

홍연해는 홍건의 삼촌 조카이다.

어려서 죽마고우 서철이 합천 땅에 사는데,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봤다.

저녁에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와서 보고, 산성에 험고한 요새를
쌓지 않은데 대한 한탄스러움¹⁾과 당면한 토벌,방비에 관해 허술한 것
등을 말했다.

6월11일[경오/7월24일]

맑다.

명나라 차관 경락군문(唐差官經略軍門) 이문경(李文卿)이 와서 보므로

부채를 선물로 보냈다.

엇저녁에 종사관과 이야기할 때 변흥백의 종이 집안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므로 어머니의 영연이 평안한 줄은 알겠으나, 쓰라린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다만 변흥백이 나를 만나볼 일로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청도로 갔다고 하니 참으로 한이 된다.

변흥백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아들 열이 토사로 밤새도록 신음했다.

6월12일[신미/7월25일]

맑다.

종 경과 종 인을 한산도 진으로 보냈다.

전라우수사(이억기),충청수사(최호),경상수사(배설),가리포첨사(이응표),
녹도만호(송여종),여도만호(김인영),사도첨사(황세득), 동지 배흥립,
조방장 김완, 거제현령(안위), 영등포만호(조계종),
남해현감(박대남),하동현감(신진) 순천부사(우치적)에게 편지를 했다.
느지막이 승장 처영이 와서 보고 부채와 미투리를 바치므로
물건으로써 값아 보냈다.

낮에 중군장(이덕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 갔다고 했다.

어떤 일인지 몰랐는데 원수(권율)에게 가 보니, 우병사(김응서)의

보고에 "부산의 적은 창원 등지로 떠나려 하고, 서생포의 적은 경주로 진을 옮긴다"고 했다.

북병군을 보내어 길을 막고 적에게 위세를 뽐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6월14일[계유/7월27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이른 아침에 이희남이 들어와서 "아산의 어머니 영연과 위 아래 사람들이 두루두루 무사하다"고 한다.

쓰리고 그리운 마음을 어이 다 말하랴! 아침밥을 먹은 뒤에 이희남이 편지를 가지고 우병사(김응서)에게 갔다.

6월15일[갑술/7월28일]

맑다.

오늘은 보름인데, 군중에 있어 어머니 영전에 잔을 올리어 곱하지 못하니 그리운 마음을 어이 다 말하랴!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군관을 보내어, "원수가 신성으로 가려고 한다"고 전한다.

나도 뒤를 따라 가서 큰 냇가에 이르러 혹시 다른 계획이 있을까

염려되어 냇가에 앉은 채로 정상명을 보내어 병이라고 아뢰게 하고서
그대로 돌아왔다.

6월16일[을해/7월29일]

맑다.

아들 열과 이원룡을 불러 책을 만들어 번씨 족보를 쓰게 했다.

이희남이 편지를 보냈는데, "병마사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아들 열은 정상명과 함께 큰 내로 가서 전마를 씻고 왔다.

변광조가 와서 봤다.

6월17일[병자/7월30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원수(권율)에게로 가니, 원균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말했다.

또 비변사에서 내려 온 공문을 보이는데, 원균의 장계에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나가서 먼저 안골포의 적을 무찌른 연후에 수군이 부산
등지로 진군하겠다"고 하니, 안골포의 적을 먼저 칠 수 없겠는가
하였다.

또 원수의 장계에는 "통제사 원균이 전진하려고는 아니하고, 오직 안골포만 먼저 쳐야 한다"고 하여,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대개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뿐더러 원균은 안으로 들어가 나가지 않으니, 절대로 여러 장수들과 대책을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 일을 망쳐버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다.

원수에게 이희남과 변존서,윤선각 등에게 공문을 띄워 독촉하여 오게 했다.

을 때에 종사관 황여일을 만나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하다가 임시로 사는 집으로 돌아와 이희남의 종을 의령산성으로 보내고, 청도에는 파발로 공문을 보냈다.

6월18일[정축/7월31일]

흐리되 비는 아니오다.

종사관 황여일이 종을 보내어 문안했다.

명나라 사람 섭성이 초계에서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 사람 주언룡이 일찌기 일본에 사로 잡혔다가 이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적병 십만 명이 벌써 대마도(沙自麻)에 이르렀을 것이며, 소서행장은 의령을 거쳐 곧장 전라도를 침범할 것이요, 가등청정은 경주,대구 등지로 옮기어 안동으로 갈 것이다"고 했다.

저물 무렵 원수가 "사천에 갈 일이 있다"고 알려 왔다.

그래서 사복 정상명을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더니, "수군에 관한 일 때문에 간다"고 하였다.

6월19일[무인/8월1일]

새벽에 원수가 진으로 가니, 원수와 종사관 황여일이 공무를 보고 있었다.

원수는 원군에 관한 일을 내게 말하는데, 통제사(원군)의 하는 일이 말이 아니다.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을 모조리 무찌른 뒤에 수군이 나아가 토벌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무슨 뜻이겠소, 질질 끌고 나아가지 않으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사천으로 가서 독촉하겠다"고 했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유지를 보니, "안골포의 적은 가벼이 들어가 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오정 때에 우수영 관리 변덕기,변덕장과 늙어 제대한 변경완과 나이 열 여덟인 변경남이 와서 봤다.

진사 이신길의 아들인 진사 이일장도 왔다.

6월20일[기묘/8월2일]

종일 비오다.

서철,윤감,문익신,문보,변유 등이 와서 봤다.

6월21일[경진/8월3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영덕현령 배진경이 와서 보고, 좌도의 일을 많이 전했다.

종사관 황여일이 문안을 보냈다.

저녁에 변존서,윤선각이 들어와서 밤까지 이야기했다.

6월22일[신사/8월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아침에 초계군수가 연포국(무,두부,다시마,고기를 맑은 장국에 끓인 국)을 마련하여 와서 권하기는 했지만, 오만한 빛이 많이 있었다.

저녁 나절에 의희남이 들어왔다.

이선손이 와서 봤다.

6월23일[임오/8월5일]

비오다.

아침에 불화살[火箭]을 다시 다듬었다.

저녁 나절에 우병마사(김응서)에게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크고 작은 환도(環刀)를 보냈다.

나굉의 아들 나재흥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봤다.

또 쪼들리는 데도 노자까지 보내어 주니 미안스럽다.

6월24일[계미/8월6일]

새벽에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다.

무발을 갈고 씨부침하는 일의 감독관으로 이원룡,이희남,정상명,문임수 등을 정하여 보냈다.

생원 안극가가 와서 보고 시국 이야기를 했다.

합천군수가 조언형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6월25일[갑신/8월7일]

맑다.

다시 무씨를 부침하도록 명령했다.

종사관 황여일이 와서 보고 군사를 토론했다.

저녁에 종 경이 한산도에서 돌아왔다.

보성군수 안홍국이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들었다.

놀라워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놈의 적도 잡지 못하고 먼저 두 장수를 잃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원수가 오늘 내일 진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6월26일[을유/8월8일]

맑다.

중군장 이덕필과 변홍달,심준 등이 와서 봤다.

아산 종 평세가 들어와서 어머니 영연이 평안하고, 집집이 위 아래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고 하며, 장사날은 7월 27일이나 8월 4일 중에서 잡는다고 한다.

그리운 생각에 슬픈 정회를 어찌다 말하랴! 우병마사(김응서)가 체찰사(이원익)에게, "아산의 이방과 청주의 이희남이 복병하기 싫어서 원수(권율)의 진영 곁으로 피해 있다"고 말하여, 체찰사가 원수에게 공문을 보내니 원수는 무척 성내어 공문을 다시 작성하여 보냈다.

6월27일[병술/8월9일]

맑다.

어응린,박진삼이 와서 봤다.

이희남과 이방이 체찰사의 행차가 도착하는 곳으로 갔다.

6월28일[정해/8월10일]

맑다.

황해도 백천에 사는 별장 조신옥,홍대방이 와서 봤다.

초계 아전의 편지에, "원수가 내일 남원으로 간다"고 하였다.

6월29일[무자/8월11일]

맑다.

이희남,이방 등이 돌아왔다.

중군장 이덕필이 와서 유격 심유경을 잡아가는데, 총병관 양원이
삼가에 이르러 꽁꽁 묶어 보내더라고 전했다.

6월30일[기축/8월12일]

맑다.

흥양의 신여량,신제운 등이 와서 봤다.

1) 초서본 일기에는 '限'이 아니고 '恨'으로 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새김.

정유년 7월

7월1일[경인/8월13일]

새벽에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이다.

이 날이 인종의 제삿날인데, 종사관 황여일이 큰 냇가에서 피리를
불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7월2일[신묘/8월14일]

맑다.

7월3일[임진/8월15일]

맑다.

정읍의 군사 이양,최언환,건손 등 세 사람을 심부름 시킬 일로 보내왔다.

합천군수 오운이 와서 보고, 산성의 일을 많이 말했다.

오후에 원수의 진으로 가니 좌병마사의 군관이 항복한 왜놈 두 명을 잡아 왔는데, 가등청정의 부하라고 하였다.

7월4일[계사/8월16일]

맑다.

종사관 황여일이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했다.

이방과 유황이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러 왔다.

7월5일[갑오/8월17일]

비오다.

변존서가 마흘방에서 돌아갔다.

7월6일[을미/8월18일]

맑다.

변존서가 마흘방에서 돌아왔다.

안각 형제도 변흥백을 따라 왔다.

7월7일[병신/8월19일]

맑다.

의령현감 김전이 고령에서 와서 병마사의 잘못된 일을 많이 말했다.

7월8일[정유/8월20일]

맑다.

집 주인 이어해와 최태보가 와서 봤다.

7월9일[무술/8월21일]

맑다.

내일 아들 열을 아산으로 내려 보내고자 한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슬퍼서 울면서 밤늦도록 잠을 못 잤다.

7월10일[기해/8월22일]

맑다.

열과 변존서를 보내려고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리다가 정회를 스스로 억누르지 못해 통곡하며 보냈다.

종사관 황여일이 와서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했다.

저녁에 홀로 빈집에 앉았으니 마음이 끓어올라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7월11일[경자/8월23일]

맑다.

변홍달,임중형이 와서 봤다.

7월12일[신축/8월24일]방응원,현응진,홍우공,임영립 등이 박명현이
있는 곳에서 왔다.

7월13일[임인/8월25일]

맑다.

남해현령이 편지를 보내고 음식물도 많이 보냈다고 하고, 또 전마를
물고 가라고 하였다.

저녁 나절에 이태수,조신옥,홍대방이 와서 적을 토벌할 일을 말하였다.

7월14일[계묘/8월26일]

맑다.

전마를 몰고 올 일로 정상명을 남해로 보냈다.

방응원,윤선각,현응진,홍우공 등과 함께 이야기했다.

홍우공은 종군하고 싶지 않아 팔이 아프다고 핑계하니 놀란다.

종사관 황여일은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했다.

또 김해 사람으로 왜놈에게 부역했던 김억의 편지를 보이는데,
"초이레 왜선 오백 여척이 부산에서 나오고, 초아흐레 왜선 천 척이
합세하여 우리 수군과 절영도(부산시 영도구 영도) 앞바에서 싸웠는데,
우리 전선이 표류하여 두모포에 닿았고, 또 일곱 척은 간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말을 듣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종사관 황여일에게 달려가서
상의하였다.

7월15일[갑진/8월27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종군 이덕필이 와서 우리 수군 20여 척이 적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7월16일[을사/8월28일]

저녁에 염암군 송진면에 사는 사사집종 세남이 서생포에서 알몸으로 왔다.

그 까닭을 물으니, 7월5일에 우후가 탄 배의 격군이 칠천도에 이르러 정박하고, 6일 옥포에 들어 왔다가 7일날이 밝기 전에 말곶을 거쳐 다대포에 이르니 왜선 여덟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곧장 돌격하니, 왜놈들은 몽땅 물으로 올라가고 빈 배만 걸려 있어, 우리 수군이 그것들을 끌어내어 불질러 버리고, 그 길로 부산 절영도 바깥 바다로 향하다가 마침 적선 천여 척이 대마도에서 건너와서 서로 맞아 싸우려는데, 왜선이 흩어져 달아나서 끝까지 섬멸할 수가 없었다.

세남이 탔던 배와 다른 배 여섯 척은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 표류되어 서생포 앞바다에 이르러 상륙하려다가 모두모두 살육당하였다.

요행히 세남만은 혼자 숲속으로 기어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듣고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미더운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마저 이와같이 희망이 없게 되었고, 더욱이 선장 이엽이 왜적에게 묶여 갔다고 하니

더더욱 원통하다.

7월17일[병오/8월29일]

비오다.

이희남을 종사관 황여일에게 보내어 세남의 말을 전했다.

7월18일[정미/8월30일]

맑다.

새벽에 이덕필,변홍달이 와서, "16일 새벽에 수군이 대패했는데,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및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통곡함을 찾지 못했다.

조금 있으니 원수(권율)가 와서 말하되, "일이 이 지경으로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오전 열 시가 되어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직접 연해안 지방으로 가서 보고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니, 원수가 기뻐하며 승락하였다.

나는

송대립,유항,윤선각,방응원,현응진,임영립,이원룡,이희남,삼가현감이

새로 부임하여 나를 기다렸다.

한치검도 왔다.

7월19일[무신/8월31일]

비오다.

단성의 동산산성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매우 험하여 적이 엿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대로 단성에서 잤다.

7월20일[기유/9월1일]

종일 비오다.

단성형감이 와서 봤다.

오정에 진주 정개산성 아래 강정(하동군 옥종면 문암리)에 이르니, 진주목사가 와서 봤다.

굴동(옥종면 문암리)의 이희만의 집에서 잤다.

7월21일[경술/9월2일]

말다.

일찍 떠나 곤양군에 이르니 군수 이천추가 군에 있고, 백성들도 본업에 많이 힘써 혹 이른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혹 보리밭을 갈기도 하였다.

오후에 노량에 이르니 거제현령 안위, 영등포만호 조계종 등 여남은 사람이 와서 통곡하고, 조계종 등 여남은 사람이 와서 통곡하고, 피하여 나온 군사와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었다.

경상수사(배설)는 도망가 보이지 않고, 우후 이익득이 와서 보므로 패하던 정황을 물었더니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말하되, "대장이 적을 보고 먼저 달아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거제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현령 안위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전 세 시가 지나도록 전혀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 바람에 눈병이 생겼다.

7월22일[신해/9월3일]

말다.

아침에 경상수사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의 패망하던 일을 많이 말했다.

날이 늦어서 남해현감 박대남이 있는 곳에 이르니, 병세가 거의

구할수 없게 되었다.

오후에 곤양에 이르니 몸이 불편하므로 잤다.

7월23일[임자/9월4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공문을 작성하여 송대립에게 부치어 먼저 원수부에 갖다 주게 하고,
곧 뒤따라 떠나 십오리원(곤명면 봉계리)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깐
쉬었다.

진주 굴동의 전에 묵었던 곳에 이르러 잤다.

백기 배흥립도 왔다.

7월24일[계축/9월5일]

비오다.

한치겸,이안인이 부찰사에게로 돌아갔다.

식사를 한 뒤에 이흥훈의 집으로 옮겼다.

방응원이 정개산성에서 와서, "종사관 황여일이 정개산성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조방장 배경남이 와서 봤다.

7월25일[갑인/9월6일]

맑다.

종사관 황여일이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다.

배수립과 이곳 주인 이홍훈이 와서 봤다.

남해현령 박대남이 사람을 보내어 내일 들어오겠다고 전했다.

7월26일[을묘/9월7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정개산성 아래에 있는 송정(옥종면 문암리)으로 가서 종사관 황여일과
진주목사와 이야기했다.

날이 늦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7월27일[병진/9월8일]

종]일 비오다.

정개산성 건너편 손경례의집(하동군 수곡면 원계리)으로 옮겨가
머물렀다.

7월28일[정사/9월9일]

비오다.

이희량이 와서 봤다.

초저녁에 동지 이천 및 진주목사와 소촌찰방 이시경이 와서 왜적과
맞싸울 대책을 논의했다.

7월29일[무오/9월10일]

비가 오락가락하다.

넷가로 나가 군사를 점검하고 말을 달리는데, 원수가 보낸 자들은
모두 말도 없고 활과 화살도 없으니 아무 쓸 데가 없다.

탄식할 일이다.

남해현령 박대남이 와서 봤다.

정유년 8월

8월1일[기미/9월11일]

큰비가 와서 물이 넘쳤다.

소촌찰방 이시경이 와서 봤다.

8월2일[경신/9월12일]잠시 개었다.

8월3일[신유/9월13일]

맑다.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교유서를 가지고 왔다.

그것이 곧 겸삼도수군통제사의 임명이다.

숙배를 한 뒤에 다만 받들어 받았다는 서장을 써서 봉하고, 곧 떠나
두치(하동읍 두곡리)로 가는 길로 곧바로 갔다.

초저녁에 행보역(하동군 황천면 여의리)에 이르러 말을 쉬고, 한밤
자정에 길을 떠나 두치에 이르니 날이 새려 했다.

남해현령 박대남은 길을 잘못 들어 강정(하동읍 서해량 홍수통제소
서쪽 섬진강가)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기다렸다가 불러와서 쌍계동(화개면 탑리)에
이르니, 길에 돌이 어지러이 솟아 있고 비가 와 물이 넘쳐 흘러
간신히 건넜다.

석주관(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이르니, 이원춘과 유해가 복병하여
지키다가 나를 보고 적을 토벌할 일을 많이 말했다.

저물어서 구례현에 이르니 일대가 온통 쓸쓸하다.

성 북문(구례읍 북봉리) 밖에 전날의 주인집으로 가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난갔다고 했다.

손인필,손응남이 와서 보고, 올감(무柿)을 가져왔다.

8월4일[임술/9월14일]

맑다.

압록강원(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 남북류의 순자천[섬진강]과 동서류의 대황천[보성강]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러 말을 먹였다.

고산현감(최진강)이 군인 교체할 일로 와서 수군의 일을 많이 말했다.

오정에 곡성(곡성읍 읍내리 713-2번지)에 이르니 관청과 여염집이 하나같이 비어 있어, 그 현청(현감 최충검)에서 잤다.

남해현령 박대남은 곧장 남원으로 갔다.

8월5일[계해/9월15일]

맑다.

옥과(곡성군 옥과읍) 땅에 이르니 피난민이 길에 가득 찼다.

말에서 내려 타일렀다.

옥과현에 들어갈때, 이기남의 부자를 만나 현에 이르니 정사준,정사립이 와서 마중했다.

옥과현감(홍요좌)은 병을 핑계대며 나오지 않았다.

잡아다 죄주려 하니 그제야 나와서 봤다.

8월6일[갑자/9월16일]

맑다.

옥과에서 머물렀다.

저녁에 송대립이 적을 정탐하고 왔다.

8월7일[을축/9월17일]

맑다.

일찍 길을 떠나 곧장 순천(순천시행동)으로 갔다.

길에서 선전관 원집을 만나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병마사의 군사들이 모두 패하여 돌아가는 길이 줄을 이었다.

그래서 말 세 필과 활과 살을 약간 빼앗아 왔다.

곡성 강정(석곡면 능파2구 능암리 일대)에서 잤다.

8월8일[병인/9월18일]

새벽에 떠나 부유창(순천시 주암면 창촌리)에서 아침밥을 먹는데,

이곳은 병마사 이복남이 이미 명령하여 일부러 불을 질렀다.

다만 타다 남은 재만 있어 보기에다 처참하였다.

광양현감 구덕령, 나주판관 원종익이 부유창 언덕에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구치(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접치)로 달아났다.

내가 곧 전령을 내리니 한꺼번에 와서 봤다.

나는 피해 다니는 것을 꾸짖었다.

순천에 이르니 성 안팎에 사람 발자취가 하나도 없어 적막했다.

중 혜희가 와서 알현하므로 의병장의 사령장을 주었다.

관사와 곳간의 곡식 및 군기 등 물건은 옛날과 같다.

병마사가 처치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한탄스럽다.

총통같은 것은 옮겨 묻고, 장전과 편전은 군관들이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잤다.

8월9일[정묘/9월19일]

맑다.

일찍 떠나 낙안(순천시 낙안읍)에 이르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오리까 지나 환영하였다.

백성들이 달아나고 흩어진 까닭을 물으니 모두 하는 말이, "병마사가 적이 쳐들어온다고 겁을 먹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물러갔다.

그 때문에 이와같이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군청에 이르니 관청과 창고가 모두 다 타버리고, 관리와 마을 사람들이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와서 봤다.

오후에 길을 떠나 십리쯤 오니, 늙은 할아버지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술병을 다투어 바치는데, 받지 않으면 울면서 억지로 권했다.

저녁에 보성 조양창(조성면 조성리)에 이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창고에는 곡식이 묶여진 채 그대로였다.

그래서 군관 네 명을 시켜 지키게 하고, 나는 김안도의 집에서 잤다.

그 집 주인은 벌써 피난가 버렸다.

8월10일[무진/9월20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그대로 김안도의 집에 머물렀다.

동지 배흥립도 같이 머물렀다.

8월11일[가사/9월21일]

맑다.

아침에 양산원의 집으로 옮겼다.

송희립,최대성이 와서 봤다.

8월12일[경오/9월22일]

맑다.

장계를 손잡고 그대로 머물렀다.

거제현령(안위),발포만호(소계남)가 들어와 명령을 들었다.

그들 편에 경상수사 배설의 겁내던 꼴을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8월13일[신미/9월23일]

맑다.

거제현령,발포만호가 돌아갔다.

우후 이몽구가 전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본영의 군기를 하나도 옮겨
실어 오지 않은 죄로 곤장 여든 대를 쳐서 보냈다.

하동현감 신진이 와서, "3일 내가 떠난 뒤에 진주 정개산성과
벽건산성도 풀어 흩어지니 스스로 무너졌다"고 하였다.

통탄할 일이다.

8월14일[임신/9월24일]

아침에 각각으로 장계 일곱 통을 봉하여 윤선각으로 하여금 지니고

가게 했다.

오후에 어사(임몽정)를 만날 일로 보성에 이르러 열선루에서 잤다.

8월15일[계유/9월25일]

비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열선루 위에 앉아 있으니 선전관 박천봉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곧 받들어 받았다는 장계를 썼다.

보성의 군기를 검열하여 네 말에 나누어 실었다.

8월16일[갑술/9월26일]

맑다.

아침에 보성군수와 군관 등을 굴암으로 보내어 도피한 관리들을 찾아오게 했다.

박사명의 집에 사람을 보냈더니, "박사명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고 했다.

김희방, 김봉만이 왔다.

8월17일[을해/9월27일]

맑다.

아침식사를 하고 장흥땅 백사정(장흥읍 원도리)에 이르러 말을 먹였다.
군영구미(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에 이르니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어 버렸다.

8월18일[병자/9월38일]

맑다.

회령포(대덕읍 회진리)에 갔더니 수사 배설이 멀미를 핑계삼고서 와
보지 않았다.
관사에서 잤다.

「행록」에서

전선이라곤 다만 열 척이었다.

전라우수사 김억추를 불러 병선(兵船)을 거두어 모으게 하고, 또 여러
장수들에게 분부하여 "전선을 거북배로 꾸며서 군세를 돋구도록
하라"고 하고, 또 "우리들이 임금의 명령을 같이 받들었으니 의리상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아까울소냐!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고 굳게 약속했다.

8월19일[정축/9월29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를 하는데, 수사 배설은 받들어 숙배하지 않았다.

그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꼴을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영리(營吏)에게 곤장쳤다.

8월20일[무인/9월30일]

맑다.

앞 포구가 몹시 좁아서 진을 이진(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으로 옮겼다.

8월21일[기묘/10월1일]

맑다.

새벽에 도와리(괭란, 토사)가 일어나 몹시 아파 인사불성이 되었다.
밤을 앓아 새웠다.

8월22일[경진/10월2일]

맑다.

도와리가 점점 심하여,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8월23일[신사/10월3일]

맑다.

병세가 무척 심하여 정박한 배에서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배타는 것을
포기하고 바다에서 나와서(물에서) 잤다.

8월24일[임모/10월4일]

맑다.

일찍 도괘 땅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어란 앞바다에 이르니 가는 곳마다 텅텅 비었다.

바다 위에서 잤다.

8월25일[계미/10월5일]

맑다.

당포의 보자기(어부)가 소를 훔쳐 끌고 가면서, "적이 쳐들어 왔다"고 헛소문을 내었다.

나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헛소문을 낸 두 사람을 잡아 곧 목을 베게 하니 군중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8월26일[갑신/10월6일]

맑다.

임준영이 말을 타고 와서 급히 보고하는데, "적병이 이진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라우수사가 왔다.

8월27일[을유/10월7일]

맑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와서 보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다.

나는 "수사는 어찌 피하려고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8월28일[병술/10월8일]

맑다.

적선 여덟 척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여러 배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경상수사는 피하여 물러나려 하였다.

나는 꼼짝하지 않고 호각을 불고 깃발을 휘두르며 따라잡도록 명령하니 적선이 물러갔다.

뒤쫓아 갈두(새남군 송지면 갈두)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진을 장도(노루섬)로 옮겼다.

8월29일[정해/10월9일]

맑다.

벽파진(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에 대었다.

8월30일1)[무자/10월10일]

맑다.

그대로 벽파진에 진을 쳤다.

1) 『선조실록』, 『陰陽歷對照表(조선총독부관측소,
1938), 『歷大典』 명문당, 1991), 『日本戰史 :
朝鮮後』 「附錄・朝鮮後經過一覽表」(大正 13初刊)에는 8월이 작아(小)
29일까지이고, 9월이 커서(大) 30일까지임.
그래서 날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양력으로 환산하였음.

정유년 9월

9월1일[기축/10월11일]

맑다.

9월2일[경인/10월12일]

맑다.

오는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이 도망갔다.

9월3일[신묘/10월13일]

비오다.

9월4일[임진/10월14일]

된바람이 세게 불다.

각 배들을 겨우 보전했다.

9월5일[계사/10월15일]

된바람이 세게 불다.

9월6일[갑오/10월16일]

바람은 조금 자는 듯했으나 물결은 가라앉지 않았다.

9월7일[을미/10월17일]

바람이 비로소 그쳤다.

탐망군관 임중형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쉼 다섯 척 가운데 열 세 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 뜻이 우리 수군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각 배들에게 엄중히 일러 경계하였다.

오후 네 시쯤에 적선 열 세 척이 곧장 우리 배로 향해 왔다.

우리 배들도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 맞서서 공격하니, 적들이 배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뒤쫓아 먼 바다에까지 갔지만, 바람과 조수가 모두 거슬러 흐르므로

항해할 수가 없어 벽파진으로 돌아왔다.

오늘밤 아무래도 적의 야습이 있을 것 같아 각 배에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하였다.

밤 열 시쯤에 적선이 포를 쏘며 야습해 왔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겁을 집어 먹는 것 같아 다시금 엄명을 내리고, 내가 탄 배가 곧장 적선 앞으로 가서 포를 쏘았다.

그랬더니 적이 침범할 수 없음을 알고 자정에 물러갔다.

9월8일[병신/10월18일]

맑다.

적선이 오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우수사 김억추는 한갓 만호감이나 맞을까 대장으로 쓰일 재목은 못되는 데도 좌의정 김응남이 서로 정다운 사이라고 해서 억지로 임명하여 보냈다.

한탄스럽다.

9월9일[정유/10월19일]

맑다.

오늘이 곧 9일(중양절)이라 장병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적선 두 척이 곧장 감보도(진도군 고군면)로 들어와 우리 배의 많고 적음을 정탐했다.

영등포만호 조계종이 끝까지 따라갔으나 잡지 못했다.

9월10일[무술/10월20일]

맑다.

적도들이 멀리 달아났다.

9월11일[기해/10월21일]

흐리고 비가 오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아들 회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 하였다.

9월12일[경자/10월22일]

비오다.

9월13일[신축/10월23일]

맑고 된바람이 세게 불다.

9월14일[임인/10월24일]

맑다.

임준영이 육지를 정탐하고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적선 이백 여 척 가운데 쉰 다섯 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또 "적에게 사로잡혔던 김중걸이 전하는데 김중걸이, 이달 6일 달마산으로 피난갔다가 왜놈에게 붙잡혀 묶어서는 왜선에 실렸습니다. 김해에 사는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이 왜장에게 빌어서 묶인 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해 사람이 김중걸의 귀에대 대고 하는 말이, '조선 수군 10여척이 왜선을 추격하여 사살하고 불태웠으므로 할 수 없이 보복해야겠다.

그리하여 여러 배들을 모아 조선 수군들을 모두 몰살한 뒤에 한강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그럴 수도 없지 않으므로,

전령선을 우수영으로 보내어 피난민들을 타일러 곧 물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9월15일[계묘/10월25일]

맑다.

수가 적은 수군으로써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진을 우수영 앞바다로 옮겼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면서 이르되,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이라도 두렵게 한다'고 했음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살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고 재삼 엄중히 약속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고 일러 주었다.

9월16일[갑진/10월26일]

말다.

아침에 별망군이 나와서 보고하는데, "적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곧장 우리 배를 향하여 옵니다"고 했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330여 척이 우리의 여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이 중과부적임을 알고 돌아서 피할 궁리만 했다.

우수사 김억추는 물러나 아득히 먼곳에 있었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포·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러이 쏘아대니, 마치 나가는 게 바람과 우레같았다.

군관들이 배 위에 뱅 히 서서 빗발치듯이 쏘아대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곤 했다.

그러나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 싸여 앞으로 어찌 될지 한 가진들 알수가 없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나는 침착하게 타이르면서, "적이 비록 천 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치 말고 힘을 다하여 적선을 쏘아라"고 하고서,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 있으면서 관망하고 진격하지 않았다.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중군장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그 목을 베어

효시하고 싶었으나, 내 배가 뱃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차차로 멀리 물러날 것이요, 적선이 점점 육박해 오면 일은 아주 낭패다.

곧 호각을 불어서 중군에게 명령하는 기를 내리고 또 초요기를 올리니, 중군장 미조항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차로 내 배에 가까이 오고,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왔다.

내가 배 위에 서서 몸소 안위를 불러 이르되,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살 것 같으냐"고 하니 안위가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다시 김응함을 불러 이르되,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 또한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고 하니, 두 배가 곧장 쳐들어가 싸우려 할 때, 적장이 그 휘하의 배 세 척을 지휘하여 한꺼번에 개미 붙듯이 안위의 배로 매달려 서로 먼저 올라 가려고 다투었다.

안위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지러이 싸우다가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나는 배를 돌려 곧장 쳐들어가 빗발치듯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선 세 척이 몽땅 다 엎어지는데, 녹도만호 송여종, 평산포대장 정응두의

배가 줄이어 와서 합력하여 적을 쏘았다.

항복해온 왜놈 준사란 놈은 안골포의 적진에서 투항해온자이다.

내 배 위에서 내려다 보며, "저 무늬있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놈이 적장 마다시다"고 하였다.

나는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 올렸다.

그러니 준사는 펄쩍 뛰며 "이게 마다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 명령하여 토막으로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여 버린다.

이때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포·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서른 척을 쳐 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물살이 무척 험하고 형세도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무안군 암태면)로 진을 옮겼다.

9월17일[을사/10월27일]

맑다.

어외도(무안군 지도면)에 이르니 피난선이 무려 삼백 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우리 수군이 대첩한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고, 또 많은 양식을 가져 와 군사들에게 주었다.

나주진사 임선 · 임환 · 임업 등이 와서 봤다.

9월18일[병오/10월28일]

맑다.

그대로 어외도에서 머물렀다.

내 배에서는 순천감목관 김탁과 본영의 종 계생이 탄환에 맞아 죽고, 박영남과 봉학 및 강진현감 이극신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산에 이르지는 않았다.

9월19일[정미/10월29일]일찍 떠나 출항했다.

바람도 순하고 물살도 순조를 타 무사히 칠산(영광군 낙월면) 바다를 건넜다.

저녁에 법성포(영광군 법성면)에 이르니 흉악한 적들이 육지로 해서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해질 무렵에 홍농(영광군 홍농면) 앞바다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키고
잤다.

9월20일[무진/10월30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위도(영광군 위도면)에 이르니 피난선이 많이
정박해 있었다.

이광축 · 이지화 부자가 와서 봤다.

9월21일[기유/10월31일]

맑다.

일찍 떠나 고구산도(옥구군 미면 선유도)에 이르니, 호남순찰사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급히 옥구로 갔다고 하였다.

9월22일[경술/10월1일]

맑다.

된바람이 세게 불어 그대로 머물렀다.

나주목사 배응경, 무장현감 이람이 와서 봤다.

9월23일[신해/11월2일]

맑다.

승첩 장계의 초본을 수정했다.

정희열이 와서 봤다.

9월24일[임자/11월3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신음했다.

김홍원이 와서 봤다.

9월25일[계축/11월4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9월26일[갑인/11월5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않았다.

9월27일[을묘/11월6일]

맑다.

송한 · 김국 · 배세춘 등이 승첩장계를 가지고 뱃길로 올라 갔다.

9월28일[병진/11월7일]

맑다.

송한이 바람에 막혀 되돌아 왔다.

9월29일[정사/11월8일]

맑다.

장계와 판관 정제가 도로 올라갔다.

정유년 10월

10월1일[무오/11월9일]

맑다.

병조의 역군이 공문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산 고향이 적에게 불타 버렸다"고 했다.

10월2일[기미/11월10일]

맑다.

아들 회가 배를 타고 올라갔으나 잘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내 심정을 어찌 다 말하랴.

10월3일[경신/11월11일]

맑다.

새벽에 출항하여 법성포로 되돌아 왔다.

10월4일[신유/11월12일]

맑다.

그대로 머물러 잤다.

10월5일[임술/11월13일]

맑다.

그대로 머물면서 마을집 아래로 내려가 잤다.

10월6일[계해/11월14일]

흐리며 눈비가 흩날리다.

10월7일[갑자/11월15일]

바람이 고르지 않고 비가 오락가락하다.

소문에 "호남 안팎에는 적선이 없다"고 한다.

10월8일[을축/11월16일]

맑다.

출항하여 어외도에 이르렀다.

10월9일[병인/11월17일]

맑다.

일찍 출항하여 우수영에 이르니 성 밖에는 인가도 없고 인적이 하나도 없다.

보이는 것은 참혹뿐이었다.

그러나 소문에 "흉악한 적들이 해남에 진치고 있다"고 한다.

초저녁에 김종려 · 정조(鄭詔) · 백진남 등이 와서 봤다.

10월10일[정묘/11월18일]

비가 뿌리고 된바람이 세게 불다.

밤 열 시 쯤에 중군장 김응함이 와서 전하는데, "해남에 있던 적들이 많이 물러간 모양이다"고 했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새벽이 되었다.

우우후 이정충이 왔는데도, 배가 보이지 않은 것은 바깥 섬으로 달아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월11일[무진/11월19일]

맑다.

밤 두 시쯤에 바람이 자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닻을 올려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정탐인 이순·박담동·박수환·태귀생을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에는 연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적의 무리들이 달아나면서 불을 지른 것이다.

오정에 발음도에 이르니 바람도 좋고 날씨도 화창하다.

육상에 내려 산마루로 올라 가서 배 감출 곳을 찾아보니, 동쪽에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는 없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 월출산으로 뚫렸으며, 서쪽에는 비금도로 통하여 눈앞이 툭 트였다.

잠깐 있으니 중군장(김응함)과 우치적이 올라 오고,

조효남 · 안위 · 우수가 잇따라 왔다.

날이 저물어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언덕에 앉았으니 조계종이 와서
왜적의 사실 형편을 말하고, 또 "왜놈들이 우리 수군을 몹시
싫어한다"고 했다.

10월12일[기사/11월20일]

비오다.

가리포첨사(이응표) · 장홍부사(전봉) 등 여러 장수들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탐후선이 나흘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

아마 생각컨대, 흉악한 적들이 멀리 도망가니 그 뒤를 쫓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10월13일[경오/11월21일]

맑다.

조방장 배홍립과 경상우후(이의득)가 와서 봤다.

조금 있으니 탐후선이 임준영을 싣고 왔다.

그편에 적의 소식을 들으니, '해남에 들어와 웅거해 있던 적들은

7일에 우리 수군이 내려 오는 것을 보고 11일에 몽땅 도망가 버렸는데, 해남의 향리 송언봉 · 신용 등이 적속에 들어가 왜놈들을 꺾어 내어 선비들을 죽였다"고 했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곧 순천부사 우치적, 금갑도만호 이정표, 제포만호 주의수, 당포만호 안이명, 조라포만호 정공청 및 군관 임계형 · 정상명 · 봉좌 · 태귀생 · 박수환 등을 해남으로 보냈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배홍립, 장흥부사 전봉 등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우우후 이정충이 뒤떨어진 죄를 다스렸다.

저녁에 김응함에게서 섬 안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산골에 갇숙이 숨어서 소와 말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황득중 · 오수 등을 보내어 염탐케 하였다.

10월14일[신미/11월22일]

맑다.

밤 두 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디어 냇물 가운데로 떨어졌으나, 쓰러지지는 않고 막내 아들 면이 끌어안고 있는 것같은 형상이었는데, 깨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어지고 정신이 아찔하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뜯고 열(둘째 아들)의 편지를 보니, 겉에 '통곡' 두 글자가
씩어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어느새 간담이 떨어져 목놓아 통곡,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는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가 마땅하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사니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어디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내 지은 죄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 있어본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고!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일년같구나.

10월15일[임신/11월23일]

비바람이 종일 불다.

임중형·박신이 적을 정탐하려고 작은 배를 타고 홍양·순천 등지의

바다로 나갔다.

10월16일[계유/11월24일]

맑다.

우수사와 미조항첨사를 해남으로 보냈다.

해남현감 유형도 보냈다.

나는 내일이 막내아들의 죽음을 들은지 나흘째가 된다.

마음놓고 통곡할 수도 없으므로 영 안에 있는 강막지 집으로 갔다.

밤 열 시쯤에 순천부사, 우후 이정충, 금갑도만호, 제포만호 등이
해남에서 돌아왔다.

왜적 열 세명과 투항했던 송언봉 등을 목베고서 왔다.

10월17일[갑술/11월25일]

맑다.

새벽에 아들 상복을 입으니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10월18일[을해/11월26일]

맑다.

임계형, 임준영(이 林은 任일 것임)이 들어왔다.

10월19일[병자/11월27일]

맑다.

윤건 등이 왜적에게 붙었던 두 명을 잡아 왔다.

10월20일[정축/11월28일]

맑다.

미조항첨사·해남현감·강진현감이 해남의 군량을 운반할 일로
아뢰고 돌아가고, 안골포만호 우수도 아뢰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김종려·정수·백진남이 와서 보고, 또 윤지눌의 못된
짓을 말하였다.

김종려를 솜도(所音島)등 열 세 섬의 염전의 감자도감검(監煮都監檢 :
감독감)으로 정하여 보냈다.

10월21일[무인/11월29일]

비오다 눈오다 했다.

바람이 몹시 추워 뱃사공이 추워 얼까 걱정이 되어 마음을 잡지 못했다.

무안현감 남언상이 들어왔다.

남언상은 원래 수군에 소속된 관리인데, 사사로이 목숨만 보존할 꾀를 부려 수군에 오지 않고 산골에 숨어서 달포쯤 관망하다가, 적이 물러간 뒤에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비로소 이제야 나타나니 그 하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해괴하다.

10월22일[기묘/11월30일]

아침에 눈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군기직장 선기룡이 임금의 분부와 의정부의 방문을 가지고 왔다.

해남현감 유형이 적에게 붙었던 윤해·김언경을 묶어서 올려 보내왔다.

그래서 단단히 가두었다.

무안현감 남언상은 가리포의 전선에 가두었다.

10월23일[경진/12월1일]

맑다.

윤해 · 김언경을 처형했다.

진사 백진남이 와서 봤다.

10월24일[신사/12월2일]

맑다.

해남에 있던 왜의 군량 삼백 스물 두 섬을 실어왔다.

초저녁에 선전관 하응서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우후 이몽구를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그 편에 들으니, '명나라 수군이 강화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밤 세 시에 또 선전관과 금오랑이 왔다고 한다.

날이 밝자 들어오는데, 선전관은 권길이요, 금오랑(의금부도사 주부)은 홍지수였다.

무안현감(남언상) · 목포만호(방수경) · 다경포만호(윤승남)를 잡으러 온 것이다.

10월25일[임오/12월3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초저녁에 선전관 박희무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명나라 수군이 배를 정박하기에 알맞은 곳을 골라서 장계하라는 것이었다.

10월26일[계미/12월4일]

비가 뿌렸다.

10월27일[갑신/12월5일]

맑다.

영광군수(전협)의 아들 전득우가 군관이 되어 알현했다.

10월28일[을유/12월6일]

맑다.

아침에 여러가지 장계를 봉하여 피은세(皮銀世)에게 주어서 보냈다.

10월29일[병술/12월7일]

맑다.

밤 두 시쯤에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였다가 보화도(목포시 고하도)에 정박하니, 된하늬바람을 막을만하고 배가 감추기에 아주 알맞다.

그래서 물에 내려 섬 안을 둘러 보니 형세가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 지을 계획을 했다.

10월30일[정해/12월8일]

맑다.

아침에 집 지을 곳으로 내려가 앉았으니, 여러 장수들이 와서 알현했다.

해남현감 유형도 와서 적에게 붙었던 사람들의 소행을 전했다.

황득중으로 하여금 섬 북쪽 봉우리로 가서 집 지을 재목을 베어 오게 했다.

저녁 나절에 해남에 있던 적에게 붙었던 정은부 및 김신웅이 왜놈에게 지시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자 두 명과, 선비집 처녀를 강간한 김애남을 아울러 목베었다.

정유년 11월

11월1일[무자/12월9일]

비오다.

저녁에 된바람이 세게 불어 밤새도록 배가 흔들리어 사람이 제대로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11월2일[기축/12월10일]

흐리다.

선창에 내려가 앉아서 다리 놓는 일을 감독했다.

그 길로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어두워서야 배로 내려왔다.

11월3일[경인/12월11일]

맑다.

일찍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가 선전관 이길원이 배설을 처단할 일로 들어왔다.

배설은 벌써 성주 본집으로 갔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왔다.

그 사정을 보아주는 (이길원의) 죄가 더 크다.

11월4일[신묘/12월12일]

맑다.

일찍 새집 지어 세우는 곳으로 올라갔다.

진도군수 선의경이 왔다.

11월5일[임진/12월13일]

맑다.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

영암군수 이종성이 밥 서른 말을 지어 일꾼들에게 먹이고, 또 말하되
"군량미 이백 섬과 벼 칠백 섬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날 보성군수와 홍양현감으로 하여금 군량창고 짓는 것을 보살피게
했다.

11월6일[계사/12월14일]

맑다.

일찍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가 종일 어슬렁거리니 해가 저무는 것도
몰랐다.

전라우우후가 나무 베어 올 일로 황원장으로 갔다.

11월7일[갑오/12월15일]

맑고 따뜻하다.

해남 의병이 왜놈의 머리 하나와 환도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전 홍산현감 윤영현, 생원 최집이 와서 보고, 또 군량에 쓸 벼 마흔
섬과 쌀 여덟 섬을 바쳤다.

본영의 박주생이 왜놈의 머리 두 개를 베어 왔다.

전 현감 김응인이 와서 봤다.

11월8일[을미/12월16일]

맑다.

따뜻하고 바람도 없다.

이중화 부자가 와서 봤다.

11월9일[병신/12월17일]

맑다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11월10일[정유/12월18일]

눈과 비가 섞여 오다.

된하늬바람이 세게 불었다.

간신히 배를 구호했다.

이정충이 와서 말하기를, "장흥의 적들이 달아났다"고 했다.

11월11일[무술/12월19일]

맑다.

새집 짓는 곳으로 올라갔다.

평산포의 새 만호가 도임장(부임명령서)을 바쳤다.

그는 하동현감(신진)의 형 신환이다.

11월12일[기해/12월20일]

맑다.

11월13일[경자/12월21일]

맑다.

11월14일[신축/12월22일]

맑다.

남해현감 유형이 와서 윤단중의 무리한 일을 많이 전했다.

그래서 중군선에 가두었다.

11월15일[임인/12월23일]

맑다.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새집으로 올라갔다.

임환과 윤영현이 와서 봤다.

저녁에 송한이 서울에서 돌아왔다.

11월16일[계묘/12월24일]

맑다.

군공마련기(軍功磨練記 : 개인별 전공조사기록)를 보니 거체현령
안위가 통정대부가 되고, 나머지도 차례차례 벼슬을 받고, 은
스무냥을 나에게 상으로 내렸다.

명나라 장수 경리 양호는 붉은 비단 한 필을 보내면서, "배에 이 붉은
비단을 걸어 주고 싶으나 멀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

영의정의 회답편지가 왔다.

11월17일[갑진/12월25일]

비오다.

경리 양호의 차관이 초유문(招諭文)과 면사첨(免死帖)을 가지고 왔다.

11월18일[을사/12월26일]

맑다.

따뜻하기가 봄날같다.

윤영현이 와서 봤다.

정한기도 왔다.

11월19일[병오/12월27일]

맑다.

조방장 배홍립과 장홍부사가 와서 봤다.

11월20일[정미/12월28일]

비오다.

임준영이 와서 "완도를 정탐하니 적들이 없다"고 전했다.

11월21일[무신/12월29일]

맑다.

송응기가 산의 일꾼을 거느리고 해남의 소나무 있는 데로 갔다.

11월22일[기유/12월30일]

흐리다.

"장흥에 있던 적들이 20일에 달아났다"는 보고가 왔다.

11월23일[경술/12월31일]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 오다.

11월24일

[신해1598년/1월1일]

눈과 비가 오다.

된하늬바람이 계속 불었다.

11월25일[임자/1월2일]

눈오다.

11월26일[계축/1월3일]

비와 눈이 오다.

11월27일[갑인/1월4일]

맑다.

장흥의 승첩 계본을 수정했다.

11월28일[을묘/1월5일]

맑다.

무안에 사는 진사 김덕수가 군량에 쓸 벼 열 다섯 섬을 가져와
바쳤다.

11월29일[병진/1월6일]

맑다.

유격 마귀(麻貴)의 차관 왕재(王才)가 "물길을 따라 명나라 군사가 내려 온다"고 했다.

전희원 · 정봉수가 왔다.

무안현감도 왔다.

정유년 12월

12월1일[정사/1월7일]

맑다.

따뜻한 날씨다.

경상수사 입부 이순신이 집에 와서 함께 대책을 의논했다.

12월2일[무오/1월8일]

맑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여 봄날같다.

영암의 향병장 유장춘이 적을 토벌한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쏜 대를 쳤다.

홍산현감 윤영현, 김종료, 백진남, 정수 등이 와서 봤다.

12월3일[기미/1월9일]

맑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불편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12월4일[경신/1월10일]

맑다.

몹시 추웠다.

12월5일[신유/1월11일]

맑다.

공로를 세운 여러 장수들에게 상과 직첩을 나누어 주었다.

도완수의 군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선전관 편에 들으니 '통제사 이순신이 아직도 상제라하여 방편을 따르지 않아 여러 장수들이 민망히 여긴다'고 했다.

사정이야 비록 간절하지만 나라일이 한창 바쁘다.

옛사람의 말에도 '전쟁에 나아가 용맹이 없으면 효가 아니다'고 하였다.

전쟁할 때의 용감이란 소찬으로 기운이 없는 자는 해날 수 없는 것이다.

『예기』에도 '원칙과 방편'이 있으니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경은 내 뜻을 짐작하여 소찬에 더하여 방편을 좇도록 하라"고 하면서 고기 반찬을 하사하셨으니, 더욱 감격스럽다.

12월6일[임술/1월12일]나덕준 · 정응청이 와서 봤다.

12월7일[계해/1월13일]

맑다.

12월8일[갑자/1월14일]

맑다.

12월9일[을축/1월15일]

맑다.

종 목년이 들어왔다.

12월10일[병인/1월16일]

맑다.

조카 해, 아들 열 및 진원이 윤간 · 이언량과 함께 들어왔다.

12월11일[정묘/1월17일]

맑다.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와서 봤다.

12월12일[무진/1월18일]

맑다.

12월13일[기사/1월19일]

가끔 눈오다.

12월14일[경오/1월20일]

맑다.

12월15일[신미/1월21일]

맑다.

12월16일[임신/1월22일]

맑다.

저녁 나절에 눈오다.

12월17일[계유/1월23일]

눈바람이 몹시 섞여 치다.

조카 해와 헤어졌다.

12월18일[갑술/1월24일]

눈오다.

12월19일[을해/1월25일]

종일 눈이 내리다.

12월20일[병자/1월26일]진원의 어머니와 윤간이 올라갔다.

12월21일[정축/1월27일]

눈오다.

아침에 윤홍산(영현)이 목포에서 와서 봤다.

12월22일[무인/1월28일]

눈비가 섞여 내리다.

함평현감(손경지)이 들어왔다.

12월23일[기묘/1월29일]

눈이 세 치나 내렸다.

12월24일[경진/1월30일]

눈이 오다 개이다 하다.

12월25일[신사/1월31일]

눈오다.

아침에 열이 돌아갔다.

순찰사가 진에 왔으므로 함께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고, 연해안 열
아홉 고을을 수군에 전속하게 하였다.

12월26일[임오/2월1일]

눈오다.

방백과 함께 은밀히 군사 대책을 논의했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와 조방장 배홍립이 와서 봤다.

12월27일[계미/2월2일]

눈오다.

순찰사가 돌아갔다.

12월28일[갑신/2월3일]

맑다.

경상수사(이순진)와 조방장 배홍립이 와서 봤다.

12월29일[을유/2월4일]

맑다.

12월30일[병술/2월5일]

눈보라치고 몹시 추웠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와서 봤다.

오늘밤이 일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믐이라 비통한 생각이 한결
더하다.

무술년 1월

1월1일[정해/2월5일]

맑다.

저녁 나절에 비가 잠깐 내렸다.

여러 장수들이 다 와서 모였다.

1월2일[무자/2월6일]

맑다.

나라 제사날(명종 인순왕후 심씨의 제사)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새로 만든 배의 진수식을 했다.

해남현감(유형)과 진도군수(선의경)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1월3일[기축/2월7일]

맑다.

1월4일[경인/2월8일]

맑다.

(1월5일부터 9월14일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9월15일[정유/10월14일]

맑다.

명나라 도독 진린과 함께 일제히 항해하여 나로도에 이르렀다.

9월16일[무술/10월15일]

맑다.

나로도에 머물렀다.

9월17일[기해/10월16일]

맑다.

나로도에 머물렀다.

9월18일[경자/10월17일]

맑다.

낮 두시에 출항하여 방답(여천군 돌산읍 군내리)에 이르렀다.

9월19일[신축/10월18일]

맑다.

아침에 좌수영 앞바다에 옮겨대니, 눈앞의 전경이 참담하다.

한밤에 하개도(何介島)로 옮겨 대었다가 (20일) 채 밝기도 전에 출항했다.

1)

9월20일[임인/10월19일]

맑다.

오전 여덟 시쯤에 유도(여천군 송도)에 이르니 명나라 제독 유정이 벌써 진군했다.

수륙으로 협공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많이 겁내는 모양이다.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아댔다.

9월21일[계묘/10월20일]

맑다.

아침에 진군하여 종일 싸웠으나 물이 매우 얇아 진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남해의 적이 가벼운 배를 타고서 들어와 정탐하려 할 즈음, 허사인(許思仁) 등이 추격하니 왜적들은 물으로 올라가 산으로 도망갔다.

그리하여 왜놈들의 배와 여러 잡된 물건을 빼앗아 도둑(유정)에게 바쳤다.

9월22일[갑진/10월21일]

맑다.

아침에 진군하여 싸웠는데, 유격(마귀)이 어깨에 적탄을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명나라 군사 열 한 명이 적탄에 맞아 죽고, 지세포만호 · 옥포만호가 적탄에 맞았다.

9월23일[양력/10월22일]

맑다.

9월24일[병오/10월23일]

맑다.

남해 사람 김득유 등 다섯 사람이 다녀와서 그 고을 적정을 전하였다.

진대강이 돌아갔다.

9월25일[정미/10월24일]

맑다.

진대강이 도로 와서 제독 유정의 편지를 전했다.

김정현이 와서 봤다.

9월26일[무신/10월25일]

맑다.

정응룡이 와서 북도(北道)의 일을 말했다.

9월27일[기유/10월26일]

비오다.

하늬바람이 세게 불었다.

명나라 군문 형개가 "수군이 재빨리 진군한 것을 가상히 여긴다"는
글을 보냈다.

식사를 한 뒤에 도독 진린을 보고 조용히 의논했다.

저녁에 신호의(愼好義)가 와서 보고 잤다.

9월28일[경술/10월27일]

맑다.

하늬바람이 세게 불어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 수가 없었다.

9월29일[신해/10월28일]

맑다.

9월30일[임자/10월29일]

맑다.

오늘 저녁 명나라 유격 왕원주, 유격 복승, 파총 이천상이 백여 척을
거느리고 진으로 왔다.

등불을 밝히니, 휘황찬란하여 적도들은 간담이 썩을 것 같다.

1) 이날의 "채 밝기도 전에 출항"이라는 것은 '20일'로 보아야 시간상
맞게 된다.

뒷날에 며칠간 한꺼번에 쓰다가 일어난 착오인 듯함.

무술년 10월

10월1일[계축/10월30일]

맑다.

도독(진린)이 새벽에 제독 유정

10월2일[갑인/10월31일]

맑다.

아침 여섯 시쯤에 진군했는데, 우리 수군이 먼저 나가 정오까지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첨사(황세득)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도 죽었다.

제포만호 주의수, 사랑만호 김성옥, 해남현감 유형, 진도군수 선의경,
강진현감 송상보가 적탄에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다.

10월3일[을묘/11월1일]

맑다.

도독(진린)이 제독 유정의 비밀서신에 따라 초저녁에 진군하여 자정에
이르기까지 싸웠다.

사선(沙船) 열 아홉 척, 호선(虎船) 스무남은 척이 불에 타니 도독의
엎어지고 자빠지는 꼴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안골포만호 우수(禹壽)가 적탄에 맞았다.

10월4일[병진/11월2일]

맑다.

아침에 출항하여 적을 공격하는데 종일 싸우니, 적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10월5일[정사/11월3일]

맑다.

하늬바람이 세게 불어 배들을 간신히 구호하고 날을 지냈다.

10월6일[무오/11월4일]

맑다.

하늬바람이 세게 불었다.

도원수(권율)가 군관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는데, "제독 유정이
달아나려 했다"고 하니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10월7일[기미/11월5일]

맑다.

제독 유정의 차관이 와서, "도독부에서 육군은 잠시 순천으로 물러가서 다시 정비해 가지고 전진하려 한다"고 했다.

10월8일[경신/11월6일]

맑다.

10월9일[신유/11월7일]

육군이 이미 철수했다.

그래서 도독(진린)과 함께 배를 거느리고 바닷가의 정자에 이르렀다.

10월10일[임술/11월8일]

좌우영에 이르렀다.

10월11일[계해/11월9일]

맑다.

10월12일[갑자/11월10일]나로도에 이르렀다.

—10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일기가 빠지고 없음—

무술년 11월

노량해전도

[크게보기]

- 10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일기가 빠지고 없음 - 1)

11월8일[기축/12월5일]도독부를 방문하여 위로연을 베풀어 주고
어두워서 돌아왔다.

조금 있으니 도독이 만나고자 하므로 곧 나갔더니, "순천 왜교(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의 적들이 초열흘 사이에 철퇴한다는 기별이 육지에서
통지해 왔으니, 아주 빨리 진군하여 돌아가는 적들의 길을 끊어
막으라"고 했다.

11월9일[경인/12월6일]

도독과 함께 일제히 진군하여 백서량(여천군 남면)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10일[신묘/12월7일]

좌수명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11일[임진/12월8일]

유도(여천군 송도)에 이르러 진을 쳤다.

11월13일[갑오/12월10일]

왜선 10여 척이 노루섬(獐島)에 나타나므로, 곧 도독과 약속하고 수군을 거느리고 추격하니 왜적선이 물러가 움츠리고 종일 나오지 않는다.

도독과 더불어 돌아와 노루섬에서 진을 쳤다.

11월14일[을미/12월11일]

왜선 두 척이 강화할 목적으로 바다 중간쯤에 나왔다.

도독이 왜말 통역관을 시켜 왜선을 마중하여 오게 했다.

오후 여덟 시쯤에 왜놈 장수가 작은 배를 타고 도독부로 들어와서

돼지 두마리와 술 두통을 도둑에게 바쳤다고 한다.

11월15일[병신/12월12일]

이른 아침에 도둑에게 가 보고, 잠깐 이야기하고서 돌아왔다.

왜선 두척이 강화하는 일로 두 번 세 번 도둑의 진중으로 드나들었다.

11월16일[정유/12월13일]

도둑이 진문동(陳文同)으로 하여금 왜영으로 들어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왜선 세 척이 말과 창·칼 등을 가지고 도둑에게 나아가 바쳤다.

11월17일[무술/12월14일]

어제 복병장 발포만호 소계남과 당진포만호 조효열 등이 왜놈의 중선(中船) 한 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 갈 적에 한산도 앞바다에까지 쫓아가니, 왜적들은 언덕을 의지하고 물으로 올라가 도망갔고, 잡은 왜선과 군량은 명나라 사람에게 빼앗기고서 빈 손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11월18일[기해/12월15일]

「행록」에서

오후 여섯 시쯤 적선이 남해에서 무수히 나와서 엄목포에 정박해 있고, 또 노랑으로 와 대는 것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도둑과 약속하고 밤 열시쯤에 같이 떠났다.

자정에 배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고 하늘에 빌었다.

2)

「실록」에서

진린 제독에게 "적의 원병이 며칠 안으로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가서 선수를 쳐서 적을 요격한다"고 했으나 진린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듣지 않고 먼저 나가 싸울것을 결심하고, 나팔을 불고 배를 출항시켰다.

진린도 할 수 없이 내 뒤를 따라왔으나, 명나라 배는 선체가 작은 데다가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기세만 돋을 뿐이었다.

단지 등자룽과 진린만이 판옥선을 타고 들어가 싸웠을 뿐이다.

3)

11월19일[경자/12월16일]

「행록」에서

밤 두 시쯤에 노량에 이르렀다.

적선 오백여 척을 만나 아침이 되도록 크게 싸웠다.

4)

「실록」에서

직접 나서서 왜적을 쏘다가 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고 배 위에
쓰러졌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5)

「행록」에서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6)

「실록」에서

이때 이문욱이 곁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옷으로 시체를 가린 뒤에 그대로 북을 울리며 나가 싸웠다.

군사들은 순신이 죽지 않을 줄로만 알고 기세를 올리며 더욱 공격하여 적을 마침내 대패 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쳐부셨다"고 했다.

7)*

1) 무술년 11월은 날짜만 있고, 간지가 없으므로 달력에서 찾아 보충한 것임.

2)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30쪽, 「李芬行錄」.

"十八日酉時賊船自南海無數

出來依泊於嚴木浦又來泊於露梁者不知其數公約干都督是夜二更同發"

"是夜三更公於船上鹽水?祝干天曰此讐若除死則無憾 "

3) 『선조실록』 제 109권, 선조 32년 2월 임자(2일).

4)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31쪽, 「李芬行錄」.

"四更到露梁遇賊五百餘?大戰之朝".

5) 『선조실록』 권167, 선조 31년 戊戌 11월 戊申(27일).

"舜臣親自射倭而賊丸中胸佛於船上其子欲哭軍心惶惑".

6)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31쪽, 「李芬行錄」.

"戰方急愼而言我死".

7) ① 『선조실록』 제 106권, 선조 31년 11월 무신 (27일).

"李文彥在傍止其哭以衣掩其屍遂鳴鼓進戰衆皆以爲舜臣不死出氣舊擊賊遂
大敗人皆謂舜臣破倭".

② 『선조실록』 제 107권, 선조 31년 12월 기사 (18일), 「도원수
권율의 보고」.

"통제사 이순신이 죽은 뒤로는 손문욱 등이 정황에 맞게 잘
처리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문욱이 직접 판옥선 위에 올라서서 적의 형세를 둘러보면서 군사들을
지휘하여 싸움을 독려했다(都元帥權慄啓曰

統制使李舜臣致死之後得賴孫文彧等臨機善處殊死血戰文彧親登板屋上周
覽賊勢指揮督戰)"고 함.

이 본문의 '이문욱(李文彧)'은 '손문욱'(孫文彧)'의 오타인 듯 함.